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 2023-06

ISBN 979-11-92210-53-7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Incheon Metropolitan City Center for Aging Society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진

책임 _ 권미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차장)

공동 _ 백승아 (용인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분석센터 조교수)

자문진

(가나다순)

김신경 (더함가족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미래창업학부 복지케어과 교수)

연구TF

(가나다순)

권승원 (연희노인문화센터 센터장)

김세원 (인천노인복지관협회 회장/ 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우훈국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센터장)

안요셉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행복한인생팀 주무관)

전상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행복한인생팀 팀장)

정해윤 (남동구노인복지관 관장)

홍지영 (미추홀구노인복지관 관장)

참여·협조진

(가나다순)

강영희 (연희노인문화센터 팀장)

김지영 (동구노인문화센터 과장)

김진선 (중구노인복지관 부장/ 인천노인복지관협회 간사)

백선영 (중구노인복지관 과장)

이강미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과장)

조현옥 (서구노인복지관 부장)

태희진 ((주)디파인엔코 부장)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7
3. 연구 의의와 한계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및 내용	11
2. 연구 방법	12
3. 연구 추진 단계	14

제2장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및 사례

제1절 법적 근거 및 문헌고찰	19
1. 법적 근거	19
2. 문헌고찰	20
제2절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3
1.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3
2.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3
3.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5
4.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6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35
1. 조사 배경 및 목적	35
2. 조사 설계	35
3. 조사 내용 및 방법	36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38
1. 종사자 수요조사	38
2. 이용자 수요조사	153
3. 공무원 수요조사	184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논의 및 시사점	209
1. 논의	209
2. 시사점	211
제2절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	213
1. 노인여가복지시설 통합 명칭 사용에 대한 논점	213
2.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인력 적정 배치(안)	215
3.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	217
제3절 연구 합의 및 향후 과제	221
1. 연구의 합의	221
2. 향후 연구과제	222

참고문헌	224
------------	-----

부록	227
----------	-----

표 목차

〈표 1-1〉 전국 및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연령별, 성별)	4
〈표 1-2〉 인천시 군·구별 노인인구 현황	4
〈표 1-3〉 7대 특·광역시 예비노인인구 현황	5
〈표 1-4〉 연구 조사별 절차 모형	8
〈표 1-5〉 정량(수요)조사 개요	13
〈표 2-1〉 문헌고찰	21
〈표 2-2〉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8~2023)	23
〈표 2-3〉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4
〈표 2-4〉 연도별 노인복지관 시설 및 종사자 현황(2020~2023)	25
〈표 2-5〉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분포 현황	27
〈표 2-6〉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예산	28
〈표 2-7〉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 수	29
〈표 2-8〉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규회원 등록 수	29
〈표 2-9〉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특성	30
〈표 2-10〉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별 참여인원	31
〈표 3-1〉 조사 진행 일정 및 내용	36
〈표 3-2〉 조사 응답자(종사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속 현황	39
〈표 3-3〉 종사자 성별	40
〈표 3-4〉 종사자 연령	41
〈표 3-5〉 종사자 고용 형태	42
〈표 3-6〉 종사자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43
〈표 3-7〉 종사자 전체 경력 기간	44
〈표 3-8〉 종사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45
〈표 3-9〉 종사자 직무	46
〈표 3-10〉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인력 현황(다중응답)	47

〈표 3-11〉 상담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8
〈표 3-12〉 사례관리사업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가족기능지원	49
〈표 3-13〉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증진지원/기능회복지원/급식지원	50
〈표 3-14〉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 :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51
〈표 3-15〉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 :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	52
〈표 3-16〉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 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53
〈표 3-17〉 돌봄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54
〈표 3-18〉 기타사업	55
〈표 3-19〉 종사자 정원 및 현원	56
〈표 3-20〉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회원 수	57
〈표 3-2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주체	58
〈표 3-22〉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전체)	59
〈표 3-2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노인복지관)	61
〈표 3-2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노인문화센터)	63
〈표 3-25〉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전체)	65
〈표 3-26〉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직무별)	66
〈표 3-27〉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전체)	68
〈표 3-28〉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직무별)	69
〈표 3-29〉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전체)	72
〈표 3-30〉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복지관)	76
〈표 3-31〉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80
〈표 3-32〉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전체)	84
〈표 3-33〉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88
〈표 3-34〉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92
〈표 3-35〉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전체)	95
〈표 3-3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복지관)	96
〈표 3-37〉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문화센터)	97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전체)	100
〈표 3-39〉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복지관)	104
〈표 3-4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문화센터)	108

〈표 3-41〉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노인복지관)	110
〈표 3-42〉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노인문화센터)	112
〈표 3-4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전체)	115
〈표 3-4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전체)	116
〈표 3-45〉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전체)	117
〈표 3-4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복지관)	118
〈표 3-47〉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복지관)	119
〈표 3-48〉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복지관)	120
〈표 3-4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문화센터)	121
〈표 3-50〉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문화센터)	122
〈표 3-51〉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문화센터)	123
〈표 3-5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전체)	124
〈표 3-53〉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복지관)	125
〈표 3-5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문화센터)	126
〈표 3-5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	128
〈표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	132
〈표 3-5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	136
〈표 3-58〉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전체)	140
〈표 3-5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복지관)	144
〈표 3-6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148
〈표 3-61〉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복지관)	150
〈표 3-62〉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문화센터)	151
〈표 3-63〉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153
〈표 3-64〉 이용자 성별	154
〈표 3-65〉 이용자 연령	155
〈표 3-66〉 이용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156
〈표 3-67〉 이용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157
〈표 3-68〉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우선순위	159
〈표 3-69〉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우선순위	163
〈표 3-70〉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우선순위	167

〈표 3-71〉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다중응답)	170
〈표 3-72〉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전체)	172
〈표 3-7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노인복지관)	174
〈표 3-7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노인문화센터)	176
〈표 3-75〉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8
〈표 3-7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179
〈표 3-77〉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이용자)	180
〈표 3-78〉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이용자)	181
〈표 3-79〉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이용자)	182
〈표 3-80〉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복지관)	182
〈표 3-81〉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문화센터)	183
〈표 3-82〉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재지	184
〈표 3-83〉 공무원 성별	185
〈표 3-84〉 공무원 전체 근무 경력	186
〈표 3-85〉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187
〈표 3-86〉 공무원 직급	188
〈표 3-87〉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사업영역별 요구분석	189
〈표 3-8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191
〈표 3-8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192
〈표 3-9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	193
〈표 3-9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196
〈표 3-9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197
〈표 3-9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198
〈표 3-9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198
〈표 3-9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우선순위	200
〈표 3-9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	203
〈표 3-97〉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205

그림 목차

[그림 1-1]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3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도	14
[그림 2-1]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현황	28
[그림 3-1] The Locus for Focus 모델	37
[그림 3-2]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절차(조대연, 2009)	38
[그림 3-3] 조사 응답자(종사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속 현황	39
[그림 3-4] 종사자 성별	40
[그림 3-5] 종사자 연령	41
[그림 3-6] 종사자 고용 형태	42
[그림 3-7] 종사자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43
[그림 3-8] 종사자 전체 경력 기간	44
[그림 3-9] 종사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45
[그림 3-10] 종사자 직무	46
[그림 3-1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인력 현황(다중응답)	47
[그림 3-12] 상담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9
[그림 3-13] 사례관리사업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가족기능지원	49
[그림 3-14]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증진지원/기능회복지원/급식지원	50
[그림 3-15]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 :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51
[그림 3-16]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 :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52
[그림 3-17]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 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53
[그림 3-18] 돌봄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54
[그림 3-19] 기타사업	55
[그림 3-20] 종사자 정원 및 현원	56
[그림 3-21]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회원 수	57
[그림 3-2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주체	58

[그림 3-2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전체)	60
[그림 3-2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복지관)	62
[그림 3-25]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문화센터) ..	64
[그림 3-26]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전체)	65
[그림 3-27]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직무별)	67
[그림 3-28]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전체)	68
[그림 3-29]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직무별)	70
[그림 3-30]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전체)	73
[그림 3-31]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전체/가중점수)	74
[그림 3-32]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복지관)	77
[그림 3-33]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복지관/가중점수)	78
[그림 3-34]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81
[그림 3-35]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	82
[그림 3-36] 확대하고 싶은 사업(전체)	85
[그림 3-37]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전체)	86
[그림 3-38]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89
[그림 3-39]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90
[그림 3-40]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93
[그림 3-41]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94
[그림 3-42]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전체)	95
[그림 3-43]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복지관)	96
[그림 3-44]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문화센터)	97
[그림 3-45]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전체)	101
[그림 3-46]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전체/가중점수)	102
[그림 3-47]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노인복지관)	105
[그림 3-48]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복지관/가중점수)	106
[그림 3-49]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109
[그림 3-5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110
[그림 3-5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전체)	115
[그림 3-5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전체)	116

[그림 3-5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전체)	117
[그림 3-5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복지관)	118
[그림 3-55]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복지관)	119
[그림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복지관)	120
[그림 3-5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문화센터)	121
[그림 3-58]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문화센터)	122
[그림 3-59]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문화센터)	123
[그림 3-60]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전체)	124
[그림 3-61]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복지관)	125
[그림 3-6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문화센터)	126
[그림 3-63]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	129
[그림 3-64]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가중점수)	130
[그림 3-65]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	133
[그림 3-6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가중점수)	134
[그림 3-6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	137
[그림 3-68]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138
[그림 3-6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전체)	141
[그림 3-7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전체/가중점수)	142
[그림 3-71]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우선순위(노인복지관)	145
[그림 3-72]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노인복지관/가중점수)	146
[그림 3-73]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149
[그림 3-74]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150
[그림 3-75]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154
[그림 3-76] 이용자 성별	155
[그림 3-77] 이용자 연령	156
[그림 3-78] 이용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157
[그림 3-79] 이용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158
[그림 3-80]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우선순위	160
[그림 3-8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가중점수)	161
[그림 3-82]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우선순위	164

[그림 3-83]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가중점수)	165
[그림 3-84]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우선순위	168
[그림 3-85]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가중점수)	169
[그림 3-86]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 이용 경험(다중응답)	171
[그림 3-87]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전체)	173
[그림 3-88]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복지관)	175
[그림 3-89]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문화센터)	177
[그림 3-9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8
[그림 3-91]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용자)	179
[그림 3-9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이용자)	180
[그림 3-9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이용자)	181
[그림 3-9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이용자)	182
[그림 3-95]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재지	185
[그림 3-96] 공무원 성별	185
[그림 3-97] 공무원 전체 근무 경력	186
[그림 3-98]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187
[그림 3-99] 공무원 직급	188
[그림 3-100]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190
[그림 3-10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191
[그림 3-10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192
[그림 3-103]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	194
[그림 3-104]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가중점수)	195
[그림 3-10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196
[그림 3-106]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	197
[그림 3-107]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198
[그림 3-108]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199
[그림 3-10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우선순위	201
[그림 3-11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가중점수)	202
[그림 3-11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	204
[그림 3-11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가중점수)	205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인천시 인구 고령화 동향

-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2022년 : 인천(15.2%), 서울(17.2%) → 2050년 : 인천(39.3%), 서울(37.0%), 경기(36.4%)
-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강화군, 옹진군, 동구가 상위 비중 차지, 다른 군·구와 격차가 큰 편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와 적응이 요구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슈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인천시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들 기관은 노년기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욕구와 기능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기존의 기본사업을 유지하면서 기능이 점차 확장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을 절실히 경험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사업은 현행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추가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인력 지원이 없거나,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지닌 채 기능 확장만 이루어짐. 적정한 사업 추가 및 인력 배치에 대한 단계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최근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안 마련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고,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하는 주요 관심 안건이 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모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용자 규모 및 수요에 대한 확대가 전망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노인복지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준으로 인력배치와 시설 확대 등을 고려하지 못 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와 균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연구과제 제안 시 인력배치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 제시와 추가 인력배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탐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 첫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 관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명칭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사업 현황과 욕구 수요에 따른 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력배치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전국 및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 수요분석

- 정량 및 정성조사 설계구성 및 조사 실시와 결과 분석
- 정책제언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논의 및 시사점 검토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 제시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문헌·현황조사

- 학위 및 학술논문, 국책 및 지자체 기관 연구보고서, 단행본, 통계청 및 각종 행정자료 등
- 노인복지법, 지자체 관련 조례, 정부 및 지자체 운영지침 및 세부사업 운영규칙 사항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내부 현황 등

□ 사례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인천시 군·구 업무 담당 부서 관계자, 시설 이용자 등 그룹별 수요분석

구분	내용
종사자	• [대상]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113명 • [표집] 근무 기간을 제한한 표적표집 (※ 현 소속 기관 1년 이하 근무자 제외)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이용자	• [대상]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용자 103명 • [표집] 성별할당, 기관별 이용자 규모 할당, 60~75세 및 2년 이상 이용자로 제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제에 의한 오프라인 설문조사
군·구 업무담당자	• [대상] 인천시 9개 군·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 13명 (※ 인천시 중구 미참여) • [표집] 직급 할당 (※ 과장, 팀장, 주무관급)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의견조사

- 전문가(교수, 연구자, 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 자문회의 의견조사
- 보고회(중간, 최종) 의견조사
- 인천시 담당부서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 보고회 및 수시 회의
- 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비)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등

3. 주요 연구결과

가. 양적 조사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 모색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기관 명칭 통합방안 제시
-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사업 현황과 수요에 따른 기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력배치(안) 제시

□ 조사 설계 및 내용, 분석방법

구분	조사 설계	조사내용
종사자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온라인 설문 - 총 113 표본 회수	성별, 연령, 고용형태, 주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경력기간, 종사자정원/현원, 등록회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운영주체, 사업별(운영인력, 프로그램, 이용자), 사업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정도/사유, 인력배치 및 배치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확대 및 중단/종료, 운영상 어려움, 운영지원에 대한 우선 사항
이용자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자기기입식 - 총 103 표본 회수	성별, 연령, 이용기간/빈도/사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가장 필요한 공간, 이용 경험 및 만족감, 서비스 만족감/필요성
공무원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온라인 설문 - 총 13 표본 회수	성별, 소속지역/직급, 경력기간, 사업별 중요도/필요성, 시설의 중요도, 운영지원에 대한 어려움/ 우선 지원 분야
공통	기관 명칭 선호 및 사유, 기관 명칭 통합 필요성 및 사유, 새로운 명칭	
분석방법	집단간 차이분석, 요구도 분석	

나. 조사 결과 분석

□ 종사자 수요조사

○ 기본사항

- 소속 시설 : '노인복지관' 65명(57.5%), '노인문화센터' 48명(42.5%)
- 성별 : 노인복지관 '남성' 13명(20.0%), '여성' 52명(80.0%), 노인문화센터 '남성' 16명(33.3%), '여성' 32명(66.7%)
- 연령 : 노인복지관 '41~45세'(23.1%), 노인문화센터 '36~40세'(22.9%)

- 고용 형태 : 노인복지관 '정규직' 57명(87.7%), '비정규직(계약직)' 8명(12.3%), 노인문화센터 '정규직' 40명(83.3%), '비정규직(계약직)' 8명(16.7%)
-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급' 44명(67.7%), '사회복지사 2급' 17명(26.2%), '사회복지사 외' 4명(6.2%),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사 1급' 27명(56.3%), '사회복지사 2급' 16명(33.3%), '사회복지사 외' 5명(10.4%)
- 전체 경력 기간 : 노인복지관 '11~15년'(23.1%), 노인문화센터 '11~15년'(35.4%)
- 현 소속 시설 기준 경력기간 : 노인복지관 '1~5년'(35.4%), 노인문화센터 '1~5년'(54.2%)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 현황

- 직무 : 노인복지관 '기관장' 3명(4.6%), '기관장 외 종사자' 62명(95.4%), 노인문화센터 '기관장' 8명(16.7%), '기관장 외 종사자' 40명(83.3%)
- 사업 이용현황 : 노인복지관 '상담'(11.8%), '사례관리'(11.8%), '건강생활지원'(11.8%), '노년 사회화 교육'(11.8%),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11.8%),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11.8%), '돌봄'(11.8%), '기타'(17.6%), 노인문화센터 '상담'(16.0%), '사례관리'(4.0%), '건강생활지원'(16.0%), '노년 사회화 교육'(16.0%),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12.0%),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16.0%), '돌봄'(6.0%), '기타'(14.0%)
- 인력구성 : 노인복지관 '정/현원' 평균 21.67명, 노인문화센터 '정/현원' 모두 8.13명
- 등록회원 : 노인복지관 '회원 수' 평균 5,815.67명, '1일 평균 방문 회원 수' 평균 836.33명, 노인문화센터 '회원 수' 평균 3,764.00명, '1일 평균 방문 회원 수' 평균 701.88명으로 조사됨
- 운영 주체는 노인복지관 '사단법인'(66.7%), '사회복지법인'(0.0%), '종교법인'(0.0%), '기타'(33.3%), 노인문화센터 '사단법인'(12.5%), '사회복지법인'(12.5%), '종교법인'(0.0%), '기타'(75.0%)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요구분석
 - 전체 :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통계적 유의
 - 요구도 :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 '취미여가지원'
 - 노인복지관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 :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노인권익증진' 통계적 유의

- 요구도 :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 ‘취미여가지원’
- 노인문화센터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 :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통계적 유의
- 요구도 :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 ‘평생교육지원’과 ‘취미여가지원’
-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노인복지관 ‘만족한다’(55.4%)/ 평균 3.77점, 노인문화센터 ‘만족한다’(70.8%), 평균 3.81점
-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 : 노인복지관 ‘불만족한다’(38.5%)/ 평균 2.38점, 노인문화센터 ‘매우 불만족한다’(39.6%)/ 평균 1.92점
-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의 가중점수(순위)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1순위),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2순위), ‘상담 및 정보제공’(3순위), ‘지역복지연계’(4순위), 노인문화센터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지원’(1순위), ‘사회참여지원’(3순위),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지역복지연계’(4순위)
- 확대하고 싶은 사업 : 노인복지관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16.9%),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지원’(12.3%), 노인문화센터 ‘평생교육지원’(25.0%), ‘상담 및 정보제공’과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10.4%)
-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 노인복지관 ‘없음’(26.2%), ‘고용 및 소득지원’(12.3%), ‘기능회복지원’(10.8%), 노인문화센터 ‘없음’(25.0%), ‘고용 및 소득지원’(20.8%), ‘기능회복지원’과 ‘가족통합지원’(8.3%)
- 지원에 대한 만족도 : 노인복지관 ‘보통이다’(41.5%)/ 평균 3.05점, 노인문화센터 ‘보통이다’(39.6%)/ 평균 2.94점
-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의 가중점수(순위)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1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2순위),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3순위),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4순위), 노인문화센터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1순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2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3순위),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4순위)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 명칭 혼선, 부정적 이미지 등 기피현상 인지 정도: 노인복지관 '그렇다'(44.6%)/ 평균 3.29점, 노인문화센터 '그렇다'(42.0%)/ 평균 4.02점
- 명칭 통합 필요성: 노인복지관 '그렇다'(32.3%)/ 평균 3.29점, 노인문화센터 '매우 그렇다'(58.3%)/ 평균 4.02점
-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성: 노인복지관 '그렇지 않다'(38.5%)/ 평균 2.68점, 노인문화센터 '그렇지 않다'(33.3%)/ 평균 2.68점
- 명칭 제안: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84.6%), '새로운 명칭'(12.3%), '노인문화센터'(3.1%),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70.8%), '새로운 명칭'(16.7%), '노인문화센터'(12.5%)
- 운영의 어려움 가중점수(순위):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업무 가중'(1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2순위),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3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4순위),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1순위), '종사자의 업무 가중'(2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3순위),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4순위)
- 운영 지원의 가중점수(순위):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1순위),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2순위), '법정 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3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4순위), 노인문화센터 '법정 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1순위),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2순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3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4순위)

□ 이용자 수요조사

○ 기본사항

- 이용 시설: '노인복지관' 38명(36.9%), '노인문화센터' 65명(63.1%)
- 성별: 노인복지관 '남성' 10명(26.3%), '여성' 28명(73.7%), 노인문화센터 '남성' 18명(28.1%), '여성' 46명(71.9%)
- 연령: 노인복지관 '76~80세'(26.3%), 노인문화센터 '71~75세'(35.9%)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현황

- 이용 기간: 노인복지관 '1~5년'(36.8%), 노인문화센터 '1~5년'(60.0%)
- 이용 빈도: 노인복지관 '주3회~4회'(36.8%), 노인문화센터 '주3회~4회'(35.4%)
- 이용 이유의 가중점수(순위): 노인복지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1순위), '건강관리'(2순위),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3순위), '교양과 소양 습득'(4순위), 노인문화센터

-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1순위), ‘건강관리’(2순위),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3순위), ‘친구 사귀기’(4순위)
-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의 가중점수(순위) : 노인복지관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1순위), ‘강당’(2순위), ‘식당’(3순위),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4순위), 노인문화센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1순위), ‘강당’(2순위), ‘체력단련실’(3순위), ‘식당’(4순위)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의 가중점수(순위) : 노인복지관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1순위),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2순위), ‘강당’(3순위),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4순위), 노인문화센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1순위), ‘식당’(2순위), ‘체력단련실’(3순위),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4순위)
 - 사업 이용 경험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과 ‘취미여가지원’(18.6%), ‘상담 및 정보제공’(9.9%), ‘건강증진지원’과 ‘급식지원’(8.1%), 노인문화센터 ‘취미여가지원’(8.8%), ‘상담 및 정보제공’(8.3%), ‘고용 및 소득지원’(8.0%)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요구분석
 - 전체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주거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
 - 노인복지관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 :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고용 및 소득지원’
 - 노인문화센터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주거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통계적 유의
 - 전반적인 만족도 : 노인복지관 ‘매우 만족한다’(62.2%)/ 평균 4.48점, 노인문화센터 ‘매우 만족한다’(54.8%)/ 평균 4.54점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 명칭 혼선, 부정적 이미지 등 기피현상 인지 정도 : 노인복지관 ‘전혀 그렇지 않다’(36.8%)/ 평균 2.53점, 노인문화센터 ‘그렇다’(25.0%)/ 평균 3.06점
 - 명칭 통합 필요성 : 노인복지관 ‘전혀 그렇지 않다’(28.9%)/ 평균 2.84점, 노인문화센터 ‘그렇다’(37.5%)/ 평균 3.37점
 -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성 : 노인복지관 ‘전혀 그렇지 않다’(52.6%)/ 평균 1.84점, 노인문화센터 ‘전혀 그렇지 않다’(30.0%)/ 평균 2.50점

- 명칭 제안: '노인복지관'(75.8%), '노인문화센터'(21.2%), '새로운 명칭'(3.0%),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51.6%), '노인문화센터'(40.3%), '새로운 명칭'(8.1%)

□ 공무원 수요조사

○ 기본사항

- 소속 소재지: 중구 0명(0.0%), 동구 3명(23.1%), 미추홀구 1명(7.7%), 연수구 0명(0.0%), 남동구 1명(7.7%), 부평구 3명(23.1%), 계양구 1명(7.7%), 서구 2명(15.4%), 강화군 2명(15.4%)
- 성별: '남성' 2명(15.4%), '여성' 11명(84.6%)
- 전체 근무 경력: '21~30년'(46.2%)
-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1~2년'(46.2%)
- 직급: '과장' 2명(15.4%), '팀장' 5명(38.5%), '주무관' 5명(38.5%), '기타' 1명(7.7%)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요구분석

■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필요 수준: '사회참여지원' 통계적 유의

■ 요구도: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 인력배치 만족도: 노인복지관 '만족한다'(46.2%)/ 평균 3.23점, 노인문화센터 '불만족한다'(30.8%)/ 평균 2.46점
- 지원 만족도: 노인복지관 '보통이다'(53.8%)/ 평균 3.54점, 노인문화센터 '보통이다'(46.2%)/ 평균 3.08점
-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가중점수(순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1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2순위),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3순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4순위)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 명칭 혼선, 부정적 이미지 등 기피현상 인지 정도: '그렇다'(69.2%)/ 평균 3.77점
- 명칭 통합 필요성: '그렇다'(53.8%)/ 평균 4.08점
-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성: '보통이다'(38.5%)/ 평균 2.92점
- 명칭 제안: '노인복지관'(76.9%), '노인문화센터'(23.1%), '새로운 명칭'(0.0%)

- 운영 어려움의 가중점수(순위)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1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2순위),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3순위),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4순위)
- 운영지원 가중점수(순위) : '법정 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1순위), '운영비 증액'(2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3순위),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4순위)

4. 정책제언

가.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기관 명칭에 대한 통합 방향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마련으로 그 결과 대다수 '노인복지관'으로 기관 명칭 사용 비중이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노인문화복지관'이 제안됨
- 단계적인 인천시 관내 노인복지관의 정체성과 향후 요구되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기능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논의의 구체성 필요

○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한 기관의 소회

-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여되는 새로운 기능적 확대에 대한 요구로 기존 기능에 대한 수행에 질적인 개선과 향상을 모색하기 힘든 구조적 부담을 지님
- 증가하는 수요자의 규모, 새로운 사업과 기능에 대한 추가,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 조성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필수 해결 사항임

□ 시사점

○ 기관의 명칭 통합이 상징하는 의미

- 단편적인 기관 명칭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요구되는 장치들에 대한 탐색과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이해당자자 간 의사소통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서비스사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역량 강화 방안 계획 수립과 기존 노인세대 외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특성과 이해, 수요에 따른 서비스사업 개발-기획-운영-평가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와 재배치를 위한 조직분석 제안

○ 기관의 기능과 인력과의 관계성

- 현재 기관의 기능은 점차 추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 업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로 수요조사 결과가 도출됨
- 기관 이용자 중 프로그램 중복 이용자, 독점식 이용자, 장기 이용자 등으로 한정적이거나 특정 이용자들만이 주로 활용하는 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신규 진입이 필요한 대기자 및 이용자 확보에 대한 유입 방안과 개선이 필요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통합 명칭 사용에 대한 논점

□ 통합 명칭 사용에 대한 방향성

-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의 외형적 변화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체계에 따른 직제와 직함 등 세부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단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규모와 예산 등의 격차가 노인복지관과 큰 만큼 기존 평가 지침에 따른 시설기준 분류를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통합 명칭 사용에 따른 점검

- 기존 노인복지관 사업을 강화하거나 특화사업을 발전시켜 노인문화센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봄. 동일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기능 분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주요사업을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설정해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는 시범적인 도입과 고도화의 과정이 경험될 수 있는 합의의 장 마련
- 지자체 군·구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요구되며, 시설 내외부, 현판, 사인물, 홈페이지 등 변경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우선 시 되어야 하며, 노인복지관에 적용되고 있는 조직 및 직제를 반영하게 된다면 추가 인건비 책정 역시 필요할 수 있음
- 기관 명칭 통합 이전까지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결정 과정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통합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노인복지관협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TF구성 또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 검토 필요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인력 적정 배치(안)

□ 법 및 조례와 지침,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 내용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조사가 필요함. 현재 조례 및 지침에서 누락 된 내용의 여부를 판단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을 현장으로부터 제안받아 상호 검토할 수 있는 과정 고려

□ 적정인력 배치 시 장애 요인

-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충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인건비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구·비 분담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됨
 - 인력배치 기준이 부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분장의 한계가 발생 될 수 있음. 주된 업무 외에 공동으로 또는 타 사업의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과 과중한 역할 예견
 - 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 적정인력 배치(안)

- 인천시 시설 운영기준 안내 지침 개정
 -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기준과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기준 안내 내용과 상충되는 기관 분류 기준 조정 필요
- 단계적인 적정 인력배치 계획(안) 수립
 - 사업의 확대 및 유지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업과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인력충원 및 배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를 비롯한 단계적인 계획(안) 수립 요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

- 수요조사 결과 내용 분석에 따른 개선 사항
 - 공무원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시설별 차별화 전략 수립
 - 종사자의 경우, 운영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개선으로 조직 및 사업구조의 개편을 동시에 살핌

- 이용자의 경우 수요 대상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손쉬운 기관 이용과 접근성을 위해 교통편의성 증대 방안을 모색해 봄

○ 의견조사에 따른 개선 사항

- 노인여가복지시설 인력 충원 및 재배치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 파악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 환경적 시설과 공간 개선을 통한 기능 효율화 계획

5. 연구 합의 및 향후 과제

가. 연구의 합의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설 변화의 새로운 당면 시기 도래
- 기존 노인세대와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탐색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과 세부적인 인천만의 노인복지 운영 방향성 고민 시점

나. 향후 연구과제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데이터 종합 구축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평가 방안 검토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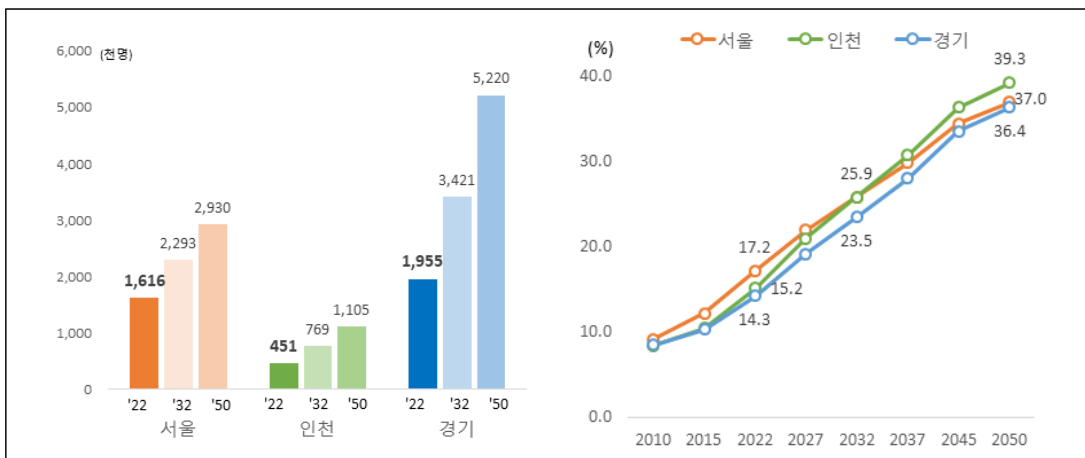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50년, 수도권(서울, 경기) 중 인천 39.3% 증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17.2%, 인천 15.2%, 경기 14.3% 순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을 보이는 반면, 증가 속도에 차이가 예측됨. 즉, 2050년에는 인천 39.3%, 서울 37.0%, 경기 36.4%로 서울과 경기보다 앞서게 될 전망으로 결과가 보고됨 (그림 1-1)

[그림 1-1]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도·편: 2020~2050」,
경인지방통계청 보도자료(2022.9.30.) 2022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재인용.

□ 인천시 인구 고령화 동향

-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수는 2,969,502명이며(전국 인구 51,430,018명), 그 중 65세 고령인구는 466,876명으로 15.7%의 비중을 차지함(표 1-1)

〈표 1-1〉 전국 및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연령별, 성별)

(단위: 명, %)

구분	계	전국		계	인천	
		남	여		남	여
전체	9,310,774 (18.1%)	4,082,949	5,002,326	466,877 (15.7%)	207,283	259,594
65~69세	3,204,685	1,554,976	1,649,709	173,579	84,563	89,016
70~74세	2,212,874	1,038,388	1,174,486	109,282	52,236	57,046
75~79세	1,622,325	713,448	908,877	79,444	35,223	44,221
80~84세	1,310,416	507,915	802,501	59,699	22,843	36,856
85~89세	672,658	212,726	459,932	30,637	9,444	21,193
90~94세	231,219	54,180	177,039	11,223	2,410	8,813
95~99세	48,686	8,880	39,806	2,571	482	2,089
100세 이상	7,911	1,307	6,604	442	82	360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 인천시 노인인구 현황(2023.1. 기준), 재구성.

- 2021년 인천시 군·구(2군 8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서 강화 34.3%, 옹진 28.0%, 동구 23.6%로 상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1월 말 기준과 비교해 본 결과 3개 지역 모두 변동 없이 상위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강화 35.6%(1.3%p 상승), 옹진 29.7%(1.7%p 상승)로, 동구 24.9%(1.3%p 상승)로 3개 지역 모두 1.5%p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다른 군·구와도 격차가 큰 편임(표 1-2)

〈표 1-2〉 인천시 군·구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65세 이상 노인				100세 이상 노인
		소계	남	여	비율	
전체	2,981,553	482,311	214,583	267,728	16.2	521
강화군	69,326	25,294	11,595	13,699	36.5	32
옹진군	20,508	6,309	3,028	3,281	30.8	20
중구	156,906	24,276	10,931	13,345	15.5	34
동구	60,011	15,062	6,454	8,608	25.1	12
미추홀구	405,054	77,928	34,038	43,890	19.2	76
연수구	389,315	46,058	20,980	25,078	11.8	59
남동구	498,379	83,263	36,541	46,722	16.7	79

구분	계	65세 이상 노인				100세 이상 노인
		소계	남	여	비율	
부평구	489,017	84,540	36,912	47,628	17.3	87
계양구	284,133	45,620	20,579	25,041	16.1	41
서구	608,904	73,961	33,525	40,436	12.1	41

자료 : 인천시 홈페이지(2023년 7월 기준), 재구성.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제시된 예비노인세대(50~64세)의 인구는 759,313명으로 25.6%의 비중을 차지함. 7대 특·광역시 중 인천은 4번째 순위를 보이고, 부산과 비슷한 비중(25.5%)을 보임(표 1-3)

〈표 1-3〉 7대 특·광역시 예비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예비노인	2,212,263	846,155	615,964	759,313		342,317	352,784	301,268
				50~59세	60~64세			
				509,939	249,374			
총인구대비 비중	23.5	25.5	26.1	25.6		23.9	24.4	27.1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1월 기준), 재구성.

□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비와 적응이 요구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슈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인천시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설치·운영되고 있음. 「2023년 인천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기준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관’은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교양·취미·여가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함
 - ‘노인문화센터’는 기존 경로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을 제고(2004년)하기 위해 군·구내 권역별로 설치하는 시설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

- 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단,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으로 분류 적용됨(2010년 지침 개정)
-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이하’ 노인복지관) 모두 인천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기관으로 노년기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욕구와 기능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음
 - 현재의 노인복지관 기능은 점차 확장되고 다변화된 상황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광범위해진 차원에서 갖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명확하지 않은 기능적 확대 또는 새로운 기능의 끊임없는 추가가 지속 반복된다면 기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음. 그로인해, 노인복지관은 본래 기능에 대한 정체성에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
 - 노인복지관에서 인지하는 혼선은 사회적 구조의 변화, 제도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주체기관 등의 요구로 제안 받는 사업이 추가되면서 기존 노인복지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체로 노인복지관은 새로운 사업의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및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님
 -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기존의 기본사업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의 다양화가 추가될수록 체감하는 업무의 과중함을 절실하게 경험하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사업의 다양화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와 적응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대상에 대한 고민도 변화되고 있음. 즉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최근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안 마련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새롭게 유입되는 노인세대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적인 증가 상황에 관한 선결 과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세를 갖춰야 함
 - 인천시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이용자들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고,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 점 또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관심 안건이 되고 있음
 - 향후 두 기관의 명칭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 사용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앞서 다양해진 사업의 추가 신설 및 수행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기존 사업을 현행 인력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인력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을 지닌 채 기능 확장만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인력 배치에 대한 단계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모두 고령인구의 증가로 이용자 규모 및 수요에 대한 확대가 전망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노인복지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준으로 인력배치와 시설 확대 등을 고려하지 못 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와 균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연구과제 제안 시 인력 배치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 제시와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력구조, 이용자 편의 및 종사자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두 가지로 나뉜 기관 명칭에 대한 통합적 측면을 다루고자 함
- 이를 통해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여 제안함으로써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반영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됨
 - 첫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 관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명칭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담보될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사업 현황과 욕구 수요에 따른 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별 절차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음

〈표 1-4〉 연구 조사별 절차 모형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1.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사지표 설계	조사지표 개발	조사 실시	분석결과
- 조사대상 기관 선정 - 지표 작성자 및 검토자 제안	- 기관 일반정보, 예산, 시설규모, 이용자 특성 등 - 사업 분류 및 업무 정보에 따른 인력 배치	- 노인복지관 총 24개소 지표 작성 - 세부 작성 내용 특징 기술	- 기관 운영현황 - 사업 분류 및 실태 - 인력 배치 현황
2.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수요조사			
조사지표 설계	조사지표 개발	조사 실시	분석결과
조사대상 그룹범위 설정(기관 종사자, 이용자, 공무원)	- 조사대상 그룹별 질의 내용 구성 - 기관 명칭 통합 의견 - 사업 기능 선결과제 및 방향	- 그룹1. 노인복지관 종사자 - 그룹2. 노인복지관 이용자 - 그룹3. 인천시 군구 공무원	- 조사대상 그룹별 의견 방향 파악 - 기능 재정립 방향 제시

3. 연구 의의와 한계

- 지속적인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각계 분야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 통계청의 인구 추계로 2025~2027년 사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하고 있는 사회적 시점에서 노인세대에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그 중요함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기관 중의 하나인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특성 변화와 사회적인 배경의 다양성으로 기능과 역할의 다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탐색과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통합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최근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의 대응과 유사 상황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어졌고, 추가되는 노인복지 정책 사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을 맞음

- 즉,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중대 질병이 확산 될 때,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다 손쉽게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경험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모색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던 경험을 하게 됨
- 또한,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취미·여가지원 등 기본사업 외에 부가적인 일자리 사업, 통합돌봄 사업 등 노인복지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혼란함의 가중은 곧 재정적, 전문 인력, 시설(공간) 측면에서 초래되는 악화를 확인해 본 사례가 현재까지는 부족한 편이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적 근거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이용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구조적 틀이 설계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님
- 노인복지관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추진되는 연구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각 2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과 인천시 노인복지관협회장, 그리고 인천시 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주축으로 연구TF를 구성하여 운영함. 그 외에 기관 종사자, 이용자, 군·구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검토로 확인되는 결과와 내용을 종합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 연구TF의 역할은 연구에서 필요한 현황뿐만 아니라 수요조사 및 기능 재정립 방안과 관련한 모형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간담회를 진행함
- 연구방법은 정량과 정성조사 방식으로 그룹, 개인 등 연구 추진 상황에 맞춰 조절하여 시사점과 결과를 도출함
- 인천시 시정 및 복지현장의 실정과 실질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결과를 마련하고자 연구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로 즉각적인 또는 획기적인 기능 재정립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 한계임과 동시에 향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님.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탐색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연구계획 마련이 필요함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결과와 정책적 제언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그리고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서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정량조사를 설계하였고, 당초 연구TF 논의에서 전수조사의 규모로 계획했으나, 실제 조사 참여율은 미비했음. 조사기간 동안 노인복지협회 및 직급별 SNS, 조사용역 기관의 문자 알림 등을 활용했지만 조사 참여가 필수 및 의무사항이 아닌 점이 한계로 작용됨
 - 또한, 연구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성과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으로 고착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사료됨
 - 조사 대상자인 종사자와 이용자, 공무원의 소속 기관, 지역 등을 매칭하지 못한 아쉬움도 지남
- 노인여가시설의 기능 재정립에 주요 목적 중 기관 명칭 통합에 대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지역특성이나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조 등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기관의 부제 기관명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인천시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연구가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대와 성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바람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다만, 선행자료와 조사결과 및 데이터가 상당수 부족한 만큼 본 연구를 시작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발굴에 첫 단계가 된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정량·정성조사 대상자 및 의견조사 등 기준 연도 : 2023년
- 기관 현황조사 기준 연도 : 2019~2022.12.31./ 2023.3.31.
- 수요조사 기준 연도 : 2023년(조사 시점)
- 자료기준 연도 :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발간물 및 자료
 - 정부 및 지자체 각종 행정통계, 학위 및 학술논문, 단행본, 보도자료, 관련 사이트 등
 - 인천시 내부자료 및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내부자료 등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인천시정 및 정책반영 단위 군·구 전역 내 설치·운영 중인 노인복지여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 연구대상 : 인천시 군·구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총 24개소
 - 설치지역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 옹진군 미설치 지역으로 제외(연구시점)

□ 내용적 범위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현황 및 실태 검토
 - 일반현황(시설, 종사자, 이용자, 사업), 당면 문제 및 이슈사항 등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기능 재정립(안) 제시
 - 기관 운영 기능, 시설명칭 통합 논의, 인력배치 기준안 등

2) 연구내용

○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의의와 한계, 연구 수행을 위한 범위 및 방법과 추진 단계

○ 제2장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부 및 지자체 운영 지침
- 선행연구 고찰(연구목적, 연구방법, 조사결과, 제언)
- 전국 및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 정량 및 정성조사 설계구성, 조사실시, 조사결과 분석

○ 제4장 정책제언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논의 및 시사점 검토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문헌/현황조사

- 학위 및 학술논문, 국책 및 지자체 기관 연구보고서, 단행본, 통계청 및 각종 행정자료 등
- 노인복지법, 지자체 관련 조례, 정부 및 지자체 운영지침 및 세부사업 운영규칙 사항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내부 현황 자료 등
- 전국 및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현황

2) 사례연구

○ 수요조사(표 1-5)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인천시 군·구 업무 담당 부서 관계자, 시설 이용자 등 그룹별 수요분석

- 방법 : (비)구조화된 설문지표 활용, 온라인 조사

〈표 1-5〉 정량(수요)조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기간	• 2023. 7. 17. ~ 8. 7. (22일간)	
조사대상	• 총 226명	•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113명 (※ 현 소속 기관 1년 이하 근무자 제외) •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용자 103명 • 인천시 9개 군·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과장, 팀장, 주무관급 등) 13명 (※ 인천시 중구 미참여)
표집방법	• 표적표집	• 종사자 : 근무 기간 제한 • 이용자 : 성별할당, 기관별 이용자 규모 할당 • 연령 범위 지정(60~75세), 기관 이용 경험(2년 이상 이용) 기간 지정 (※ 지표 및 기관 이해와 파악이 가능한 대상 표집) • 공무원 : 인천시 10개 군·구청 담당 부서 관계자 (※ 과장, 팀장, 주무관급)
표집할당	• 경력, 성별, 연령, 직급 할당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종사자, 공무원) • 구조화된 설문제에 의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이용자)	

3)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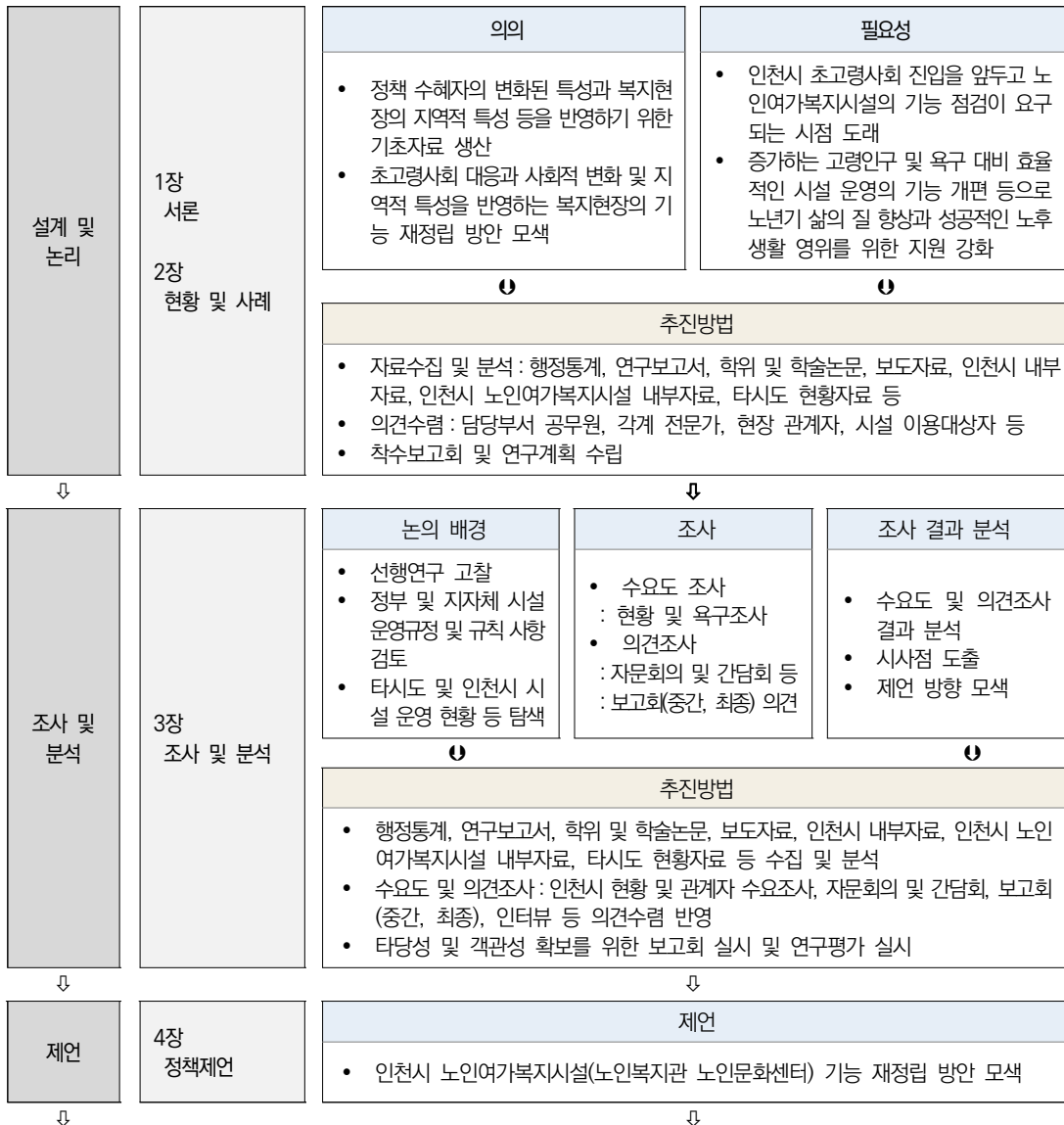
○ 자문회의 및 보고회(중간, 최종)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견조사
 - 전국 및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관련 연구 경험자 및 박사급)
 - 조사 대상자 관련 사업 계획 및 운영 기관 관계자(관리자, 실무자)
- 보고회(중간, 최종) 의견조사
 - 연구 추진 기간 내 2회 중 전문가 및 연구TF 등 참여에 의한 의견 수렴
- 인천시 담당부서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 보고회 및 수시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시정 업무 환경 및 정책내용 반영
- 본 연구 내용의 방향과 정책 제안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 관계자, 학계,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자 등) 자문 실시
- 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비)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등

3. 연구 추진 단계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 과정은 3단계로 설계 및 논리와 조사 및 분석, 정책제언으로 구분함(그림 1-2)
- 각 단계별 연구 보고서 구성 내용과 추진 방법에 따른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나감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도



활용	• 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 명칭 외 세부 기능 조정에 관한 대안 제시로 운영의 효율성 강화 • 기본사업 및 기타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최소인력배치 기준(안) 제안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향상 • 기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활용
기대효과	• 다양해진 사회·환경적 특성 반영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관의 대응 방안 제시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구성이 요구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도래 - 다양해지는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 방식 모색 • 지역사회 전 세대와 노인세대가 연결되는 삶의 주요한 공간으로서의 기관 역할 기여 - 지역사회와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가능한 역할분담과 참여 및 확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제1절 법적 근거 및 문헌고찰

제2절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제2장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및 사례

제1절 법적 근거 및 문헌고찰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항의3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1항1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사업 안내서로 매년 주요 개정사항 등을 적시하여 배포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이하 생략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

- 인천광역시 자체 예산사업에 대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게 작성된 안내서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적용하여 마련함

□ 기타

- 보조사업 수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시설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거친 후 운영함을 원칙으로 삼음

2. 문헌고찰

- 노인복지관과 관련한 역할 및 기능, 프로그램, 인력 등과 관련한 영역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함(표 2-1)

〈표 2-1〉 문헌고찰

영역	구분	목적 및 연구방법	주요내용
역할 기능	황경란, 신은경, 김나연 (2013) 노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분석연구	• 목적 :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노인복지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노인복지관의 발전방안 제시 • 방법 : 노인복지법(1981~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00~2013), 경기도 노인복지관 세입세출보고서(2011) 분석,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FGI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능 확대 • 이용대상자의 범위 확대(60대) • 지역맞춤형 노인복지관 유형 개발 • 노인복지관의 양적 확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2017)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	• 목적 : 급변하는 복지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노인복지관 유형별로 도출 • 방법 : 문헌조사, 법률검토, 자문회의, 인터뷰, 설문조사(이용자)	• 시설규모 : 기존과 변경 없음 • 시설기준 : 용어, 표기방법 변경 • 필요 시설의 표기 : 융통성 확보 • 설비기준 : 관련법 준용 •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기준 유지, 전문 인력 배치 자격 명시 • 직원의 배치 기준 : 15명(상담사 포함) • 운영기준 : 기준 배치순서, 우선순위 적용 • 사업의 실시 : 취미여가, 평생교육,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활성화, 가족구조 변화 사업, 급식위생 관리, 운영규정, 회계 및 장부 등 비치
	김윤영, 김아진 (2017)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목적 :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 검토로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방향성 제시, 미래지향적이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과 프로그램 도출 •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FGI	• 지역사회 종합관리 거점센터 운영 • 주민 조약화 기능을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인천시 인구추세를 반영한 지역복지사업 개발 • 인천의 사회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 • 인천형 사회복지관 평가 및 기준 개발 • 비용 절감형 유비쿼터스 사회복지관 도입 고려
	서보람, 김효일, 심임숙, 최지영 (2019) 평택시 노인복지관 기능 및 운영모형 개발 연구	• 목적 : ① 노인인구 규모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특성변화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노인특성을 반영하는 노인복지 욕구 분석, ② 중앙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③ 평택시 노인복지관이 속한 지역, 이용인 특성, 운영 및 기능 분석, ④ 노인특성 및 복지욕구, 복지정책변화, 평택시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분석을 토대로 노인복지관의 기능 방향과 운영모형 제안 • 방법 : 문헌연구, 기관 현황조사, 심층면접조사(12명, 중간관리자)	•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평택시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평택시 노인복지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각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노인복지관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율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에 대한 논의 필요
	황경란, 조성희, 최성은 (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 기능 모색 연구	• 목적 : 변화하는 노인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검토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모색하고자 함 • 방법 : 문헌검토, 통계자료 분석, 실태조사(62개소), FGI(관장 5명), 자문회의	• 기본기능 설정 ① 보호, 예방, 통합 기능 설정 ② 보호, 예방, 통합 기능의 기존 사업 적용 예시 제시 •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① 이용자 맞춤형을 넘어 지역맞춤형 노인복지관으로 기능 재정립

영역	구분	목적 및 연구방법	주요내용
			② 노인복지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 •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해결 과제 ① 보건복지부 : 다기능화된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 ② 경기도 :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항목 반영,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속성과 이용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자원 등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필요 ③ 시·군의 과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수탁사업은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검토, 지역사회의 복지역량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복지관과 복지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성 ④ 노인복지관 : 노인보건복지사업안 내에 근거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복지관 기능 검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노인복지관 운영 방향 설정 검토
프로 그램	주찬희, 김옥녀 (2018)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목적 :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분석으로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 제시 • 방법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설문조사 총 304부 (2016.8.1.~11.30.)	•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사업운영에 대한 자율권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관의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인력	선우덕, 석재은, 이주의, 임정기, 이수형 (2007)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 방안 연구	• 목적 : 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의 시설 설치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서비스(간병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써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양성기준 및 교육양성기관의 설치 기준 제시 • 방법 : 전문가 집단집중 토의(FGI), 일본 사례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평가자료 분석	•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지 우선적인 검토 필요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환경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서비스의 내용 정리가 우선되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용효율적인 시설 운영, 안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관련

제2절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포함하여 2018년 68,013개소에서 2022년 69,786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임
- 이 중 노인복지관은 2018년 385개소에서 2020년 398개소로 증가하다 2021년 357개소로 41개소 감소되었다가 2022년 366개소로 9개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표 2-2)

〈표 2-2〉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8~2023)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85	391	398	357	366
	경로당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노인교실	1,342	1,285	1,291	1,255	1,240

자료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검색어 : 노인복지시설/ 검색일 : 2023.5.30.

2.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2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중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2022.12.31. 기준), 경기도가 6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36개소, 부산 35개소, 전남 30개소, 인천과 전북이 각각 25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표 2-3)
 - 노인복지관 외 경로당의 경우 경기도가 10,053개소, 전남 9,175개소, 경북 8,213개소의 순으로 많았고, 인천은 1,53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노인교실의 경우 서울 342개소, 부산 157개소, 경기 151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 시도 중 전북과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천이 51,231명이 많지만 노인복지관 설치 수는 25개소로 동일하고, 종사자 수는 전북이 6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격차가 가장 적은 전남을 살펴보면, 인천이 6,369명 많은 반면, 전남의 노인복지관 수는 30개소로 인천보다 5개소가 더 설치되어 있고, 종사자 수도 인천보다 28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과 단순 비교에서 보더라도 노인인구 수 대비 시설수와 종사자 수가 인천보다 많이 배치된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상의 효율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함
 - 전남은 인천에 비해 경로당 수도 5,279개소가 더 많고, 노인교실도 35개소 많아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폭넓은 선택과 이용에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2-3〉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¹⁾ (A)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B)	종사자수	1개소당 노인인구 ²⁾ (A/B=C)		
합계	9,267,290	69,786	366	12,071	438,455	68,180	1,240
서울	1,658,207	3,868	36	2,057	46,061	3,490	342
부산	712,412	2,558	35	803	20,355	2,366	157
대구	435,698	1,609	19	260	22,931	1,560	30
인천	463,698	1,589	25	501	18,554	1,539	25
광주	222,970	1,425	10	403	22,297	1,371	44
대전	232,663	862	8	479	29,083	840	14
울산	163,812	873	14	207	11,701	841	18
세종	40,219	515	0	0	0	508	7
경기	1,992,807	10,267	63	3,725	31,632	10,053	151
강원	349,874	3,384	16	539	21,867	3,303	65
충북	316,939	4,258	21	633	15,092	4,227	10
충남	436,895	5,956	19	531	22,994	5,878	59
전북	410,619	6,903	25	569	16,425	6,818	60
전남	457,481	9,244	30	782	15,249	9,175	39
경북	618,275	8,344	23	283	26,882	8,213	108
경남	638,801	7,638	20	270	31,940	7,533	85
제주	115,768	493	2	29	57,884	465	26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주1) : 65세 이상 노인인구(2022.12.31. 주민등록 인구 기준).

주2) : 65세 이상 노인인구(A)÷시설수(B)=1개소당 노인인구(C)

3.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 2020년부터 2023년 시·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및 종사자 현황(표 2-4)

- 전국 17개 시·도의 연도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다가 2022년 시설 수는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증가되었다가 2023년 시설 수, 종사자 수 모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22년 전년 대비 시설 수가 감소한 지역은 서울과 전남이며, 나머지 시·도에는 동일하거나, 근소한 수로 증가됨. 종사자 수의 경우 감소한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으로 2021년 대비 시설 수는 동일했으나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고, 전북의 경우 2021년 대비 1개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경우 같은 시기 2021년보다 2022년 1개소가 확대되었고, 종사자 수는 417명에서 559명으로 142명이 증가했고, 2023년 1개소가 확대되어 총 25개소에 501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보다 58명 감소된 인원 규모로 조사됨
- 타 시·도 중 인천과 유사한 규모를 나타낸 지역은 전북으로 2023년 시설 수는 동일하나 전북이 인천보다 68명 더 많은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2-4〉 연도별 노인복지관 시설 및 종사자 현황(2020~2023)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0 (2019.12.31.)		2021 (2020.12.31.)		2022 (2021.12.31.)		2023 (2022.12.31.)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합계	391	9,193	398	10,806	357	11,375	366	12,071
서울	85	2,104	83	2,225	36	2,294	36	2,057
부산	32	375	32	564	32	601	35	803
대구	18	198	19	277	19	229	19	260
인천	23	437	23	417	24	559	25	501
광주	9	281	9	263	9	228	10	403
대전	7	241	8	357	8	142	8	479
울산	13	175	14	193	14	199	14	207
세종	0	0	0	0	0	0	0	0
경기	63	2,691	62	3,370	62	3,586	63	3,725
강원	16	290	16	394	16	304	16	539
충북	19	532	20	589	21	685	21	633

구분	2020 (2019.12.31.)		2021 (2020.12.31.)		2022 (2021.12.31.)		2023 (2022.12.31.)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충남	16	396	17	252	19	522	19	531
전북	21	652	24	730	25	704	25	569
전남	29	330	29	695	28	760	30	782
경북	19	181	21	183	22	255	23	283
경남	19	282	19	269	20	274	20	270
제주	2	28	2	28	2	33	2	29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4.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현황 조사로 취득한 내용을 정리함(2023년 3월 기준)

1)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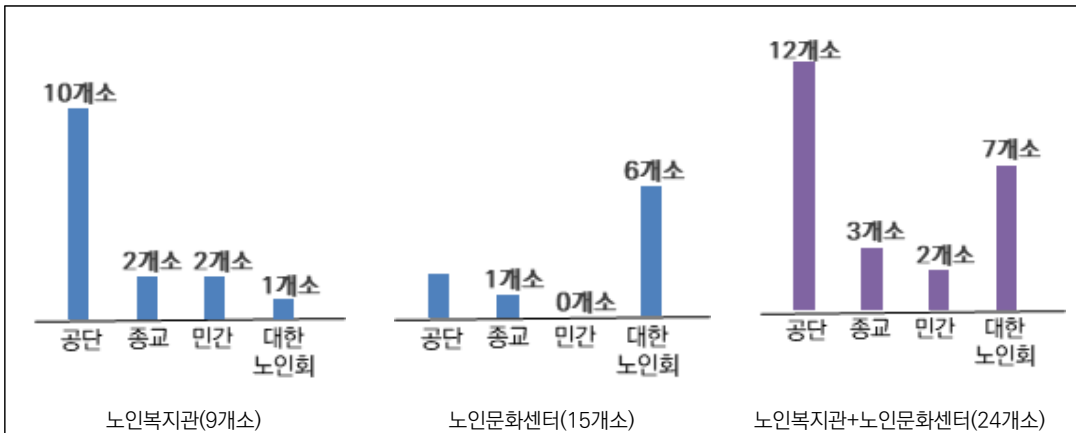
- 인천시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표 2-5)
 - 시설 수 : 총 24개소(노인복지관 9개소, 노인문화센터 15개소, ※ 백령노인문화센터 미포함)
 - 설치일 : 1995~1999년 내 설치 기관 총 8개소(노인복지관)
 - 2000~2009년 내 설치 기관 총 7개소(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6개소)
 - 2010~2019년 내 설치 기관 총 7개소(노인문화센터)
 - 2020년 이후 설치 기관 총 2개소(노인문화센터)
 - 운영주체 :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총 12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문화센터 10개소)
 -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총 3개소(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2개소)
 -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총 7개소(노인복지관 6개소, 노인문화센터 1개소)
 - 사단법인(민간) 총 2개소(노인문화센터)

〈표 2-5〉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분포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	운영주체
합계		총 24개소	인천시	-	-
노인 복지관	1	중구노인복지관	중구	1996.12.20.	사단법인(대한노인회)
	2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1998.01.20.	사회복지법인(종교)
	3	미추홀구노인복지관	미추홀구	1996.05.07	사단법인(대한노인회)
	4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구	1999.02.26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5	남동구노인복지관	남동구	1995.03.17.	사단법인(대한노인회)
	6	부평구노인복지관	부평구	1995.03.17.	사단법인(대한노인회)
	7	계양구노인복지관	계양구	1999.08.06.	사단법인(대한노인회)
	8	서구노인복지관	서구	1997.05.30.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9	강화군노인복지관	강화군	2002.03.27.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노인 문화 센터	10	동구노인문화센터	동구	2009.02.27.	사회복지법인(종교)
	11	용현노인문화센터	미추홀구	2007.05.18.	종교법인(가톨릭 종교)
	12	주안노인문화센터	미추홀구	2010.04.26.	사단법인(대한노인회)
	13	관교노인문화센터	미추홀구	2020.01.01.	민간(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14	청학노인복지관	연수구	2007.10.30.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15	송도노인복지관	연수구	2018.01.01.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16	산곡노인문화센터	부평구	2018.01.15.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17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부평구	2022.06.13.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18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양구	2009.08.06.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19	계산노인문화센터	계양구	2009.10.07.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20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양구	2010.04.26.	민간(사단법인 행복나눔)
	21	가좌노인문화센터	서구	2007.12.06.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22	연희노인문화센터	서구	2012.04.02.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23	검단노인복지관	서구	2019.02.11.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24	강화군노인문화센터	강화군	2019.11.01.	지자체(자치구시설관리공단)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그림 2-1]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현황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2) 기관 일반현황

○ 1일 평균 이용 회원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24개소) 이용노인 노인복지관 16,739명, 노인문화센터 6,268명

○ 인력규모

-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관 : 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문화센터 4개소
- 정원 범위 : 노인복지관 16~80명, 노인문화센터 7~10명

○ 사업예산

- 노인복지관 2,700,000~10,300,000천원, 노인문화센터 940,000~4,00,000천원
- 법인전입금이 있는 경우(8개소(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문화센터 4개소)) 800~30,000천원

〈표 2-6〉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예산

구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최소	2,700,000천원	940,000천원
최대	10,300,000천원	4,000,000천원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 운영 사업 수

- 노인복지관 73~389개, 노인문화센터 37~202개 범위에서 운영

〈표 2-7〉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 수

구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최소	73개	37개
최대	389개	202개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 신규 회원 등록수

- 신규 회원 등록수의 변화를 보면(표 2-8)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19년에는 노인복지관의 신규 회원 수가 노인문화센터보다 많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노인복지센터의 신규 회원 수가 노인복지관 보다 많아짐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연간 신규 회원 등록수 : 14,953명(2019년) → 3,494명(2020년) → 3,822명(2021년) → 10,845명(2022년) → 5,366명(2023년 3월말)
- 노인복지관 연간 신규 회원 등록수 : 8,178명(2019년) → 1,183명(2020년) → 1,610명(2021년) → 4,600명(2022년) → 2,303명(2023년 3월말)
- 노인문화센터 연간 신규 회원 등록수 : 6,778명(2019년) → 3,411명(2020년) → 2,212명(2021년) → 6,245명(2022년) → 3,063명(2023년 3월말)

〈표 2-8〉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규회원 등록 수

구분	전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코로나19 이전(2019년)	14,953명	8,178명	6,778명
코로나19 적응기1(2020년)	3,494명	1,183명	2,311명
코로나19 적응기2(2021년)	3,822명	1,610명	2,212명
코로나19 적응기3(2022년)	10,845명	4,600명	6,245명
정상 운영기(2023년 3월 말)	5,366명	2,303명	3,063명

자료 :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3) 기관 종사자 현황

○ 기관 종사자 현황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직 : 과장 및 팀장급(총괄 업무), 사회복지사(사례관리, 사회참여, 상담 등)

-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직 : 부장, 팀장(총괄 업무), 선임사회복지사(사업 전반 분야 업무 분리 담당), 상담사(상담, 사례관리)
- 기타 및 공통 : 사무원(회계, 서무, 총무 등), 조리원, 물리치료사/축탁의(건강증진사업), 관리원(시설, 안전 등)
- 사회복지직 외 : 조리원, 미화, 영양사, 운전원 등이 있으며 공공근로, 자활, 사회복지무요원 등 인력 활용 중, 4대 보험 미가입 인력 포함

4) 기관 이용자 일반현황

○ 기관 이용자 현황

- 성별로는 여성 이용자가 108,987명으로 남성 이용자 56,215명에 비해 많음
-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용자가 66,803명으로 가장 많고 80대가 다음으로 61,374명으로 많으며, 60대 16,338명, 90대 6,074명 순으로 나타남

〈표 2-9〉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특성

성별 구분	수	연령대 구분	수
남자	56,215명	60대	16,338명
여자	108,987명	70대	66,803명
-		80대	61,374명
		90대	6,074명
계	165,202명 ¹⁾	계	150,589명 ²⁾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2023년 3월 기준).

주1) 성별구분 미표기, 총계 미확인 기관 2개소 제외.

주2) 오폭기 기관 2개소 제외.

○ 이용자 참여 사업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중에서 연간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표 2-10) 기본사업이 860,8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맞춤형돌봄 494,766명과 노인일자리 486,197명으로 이용이 많았음. 기타 신증년 사업은 9,262명이 이용하였음

〈표 2-10〉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별 참여인원

구분	사업명	연간 참여인원
1순위	기본사업(상담, 사례관리,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교육,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860,814명
2순위	맞춤돌봄	494,766명
3순위	노인일자리	486,197명
4순위	선택사업(사례관리, 건강생활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돌봄)	258,904명
5순위	경로당사업	202,927명
6순위	기타 지역특화	57,252명
7순위	기타 추가사업	55,607명
8순위	기타 신중년 사업	9,262명

5) 기관 시설 현황

○ 주관적 충분정도

- ① 기존 갖춰진 시설 내에서의 부족함 인식 : 업무공간(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 시설(상담실, 각종 건강관련 공간 등), 휴게공간(이용자, 종사자, 기타 사용자), 급식(조리실, 식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 설치) 2022.8.18. 이후 설치의무화 적용
- ② 현재 마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부족함 인식 : 프로그램 관련 시설(매점, 카페, 의무실, 도서관, 안내 및 정보제공 공간, 비상재해대비실 등)

○ 신규 공간 설치, 기존공간 확장, 보수(리모델링) 계획

- 2개소 계획 예정 : 서구노인복지관 2023년 내 1건/ 3억9천, 연희노인문화센터 2025년 내 1건/ 5억
- 1개소 :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이전 논의 추진 중

3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인천시 행정부서 내 정책제안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두 가지 사항을 탐색하기 위해 정량조사를 수행함
-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기관 명칭에 대한 혼선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해 이용자의 기피 현상과 선호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 기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제시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적정 인력 배치 기준(안) 요구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2. 조사 설계

- 본 연구 조사의 조사 대상자별(종사자, 이용자, 공무원) 설계는 다음과 같음(표 3-1)
 - 종사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13 표본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음
 - 이용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설문 방식에 의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관 회수/검토 후 조사기관 제출, 총 103 표본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음
 - 공무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3 표본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음

〈표 3-1〉 조사 진행 일정 및 내용

구분	내용
조사지표 개발 기간	2023.6. ~ 2023.7. - 연구TF, 공동연구진 검토 ※ 전체 시설 의견수렴 요청했으나, 별도 의견 사항 없음
조사 대상 및 표본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총 113 표본(노인복지관 65 표본, 노인문화센터 48 표본)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총 103 표본(노인복지관 38 표본, 노인문화센터 65 표본) - 공무원 총 13 표본 ※ 중구청 조사 불참 확인 후 9개 군·구 조사 진행
조사 기간	2023.7.12.~ 8.10.
조사 방법	- 종사자, 공무원(온라인 설문) - 이용자(자기기입식, 기관 회수/검토 후 조사기관 제출)
조사 항목	- 조사지표 구성: 3개 그룹, 3종 ① 종사자: 성별, 연령, 고용형태,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경력기간, 종사자 정원/현원, 등록회원 수, 1일 평균 이용자수, 운영주체, 사업별(운영인력, 프로그램, 이용자), 사업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정도/사유, 인력배치 및 배치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확대 및 중단/종료, 운영상 어려움, 운영지원에 대한 우선 사항 ② 이용자: 성별, 연령, 이용기간/빈도/사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가장 필요한 공간, 이용 경험 및 만족감, 서비스 만족감/필요성 ③ 공무원: 성별, 소속지역/직급, 경력기간, 사업별 중요도/필요성, 시설의 중요도, 운영지원에 대한 어려움/ 우선 지원 분야 ④ 공통: 기관 명칭 선호 및 사유, 기관 명칭 통합 필요성 및 사유, 새로운 명칭

3. 조사 내용 및 방법

1) 통계분석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 변인 분류 및 통계분석

- 수집된 자료는 오류 점검 및 수정과정 거치고 주관식 경우 범주화하여 값 부여
- 최종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V27.0 통계프로그램과 Excel을 활용하여 분석
-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자료 분포 형태, 결측치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교차분석) 실시
- 변수 간의 분포 확인과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실시

○ 집단 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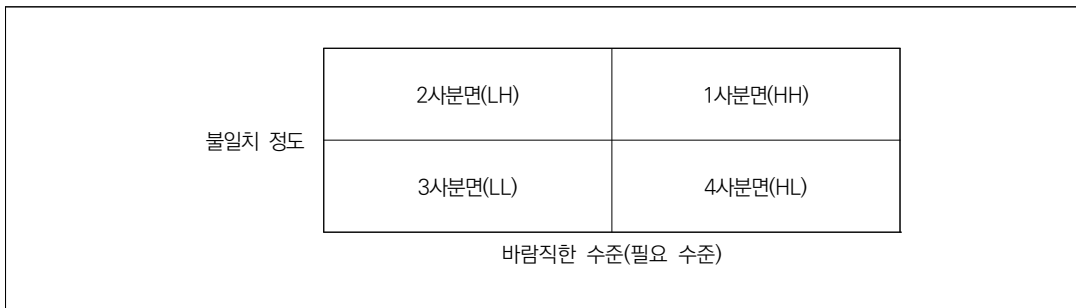
-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 차이 분석 실시
- 범주가 2개인 변인은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 실시
- 범주가 3개 이상인 변인은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실시

2) 요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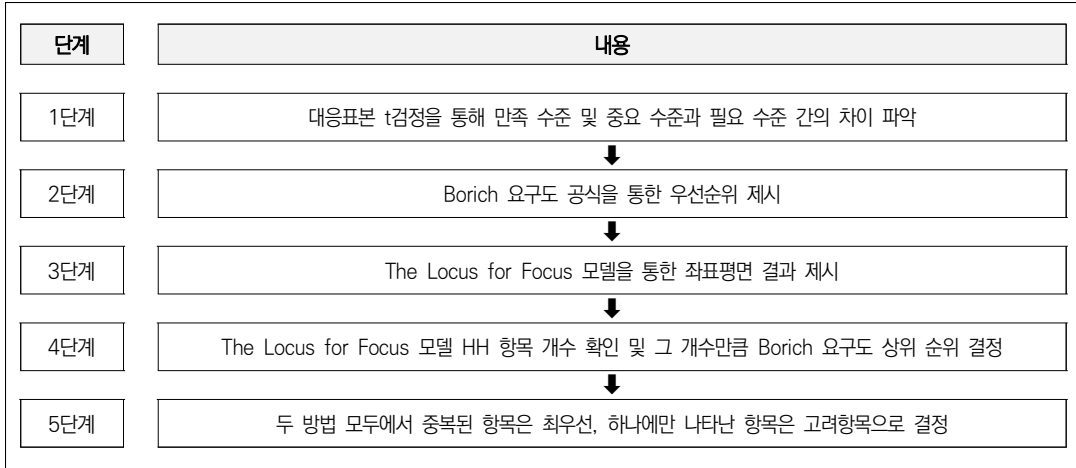
○ Borich 요구도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

- 집단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
- 요구분석을 위하여 Borich 요구도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사업영역별로 요구도 우선순위를 결정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분면에서 가로축은 바람직한 수준, 즉 필요 수준의 값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필요 및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의 불일치 정도, 두 수준의 차이 값을 나타냄
- 수준이 높은 것을 H, 수준이 낮은 것을 L로 표시하여 4개의 사분면은 [그림 3-1]과 같음
- 1사분면은 HH 분면으로 필요 및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높으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
- 반면, 3사분면은 LL 분면으로 두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낮으므로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영역

[그림 3-1] The Locus for Focus 모델



[그림 3-2]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절차(조대연, 2009)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위해 종사자, 이용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봄

1. 종사자 수요조사

- 종사자 수요조사는 기본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을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로 비교하여 분석함

1) 기본사항

(1) 종사자의 소속 시설 및 소재지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65명(57.5%), ‘노인문화센터’ 48명(42.5%)으로 조사됨(표 3-2, 그림3-3)
-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는 중구 9명(13.8%), 동구 0명(0.0%), 미추홀구 9명(13.8%), 연수구 6명(9.2%), 남동구 10명(15.4%), 부평구 3명(4.6%), 계양구 9명(13.8%), 서구 9명(13.8%), 강화군 10명(15.4%) 임

- 노인문화센터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는 중구 0명(0.0%), 동구 6명(12.5%), 미추홀구 4명(8.3%), 연수구 4명(8.3%), 남동구 0명(0.0%), 부평구 6명(12.5%), 계양구 17명(35.4%), 서구 9명(18.8%), 강화군 2명(4.2%)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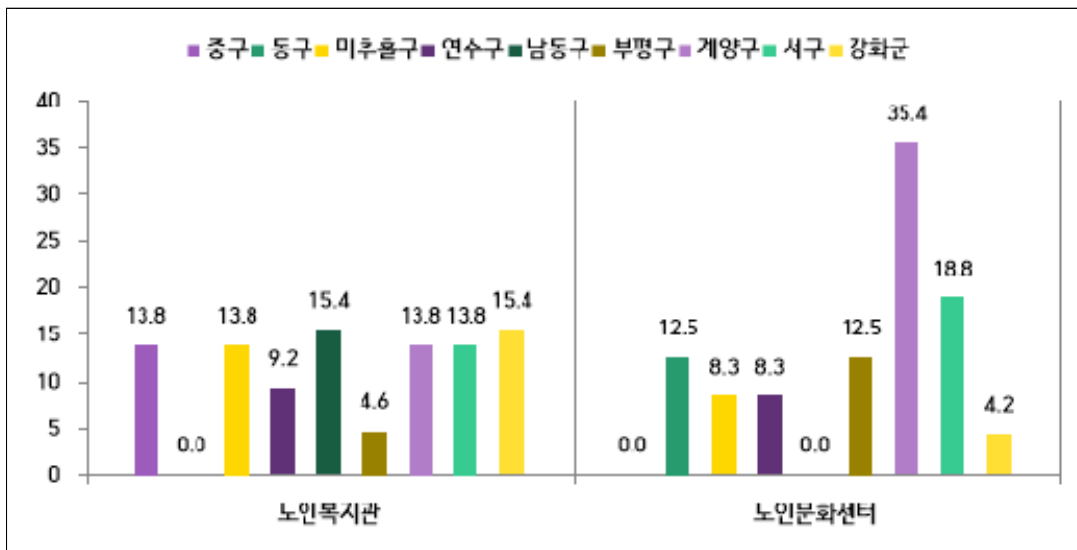
〈표 3-2〉 조사 응답자(종사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속 현황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소재지	중구	9	13.8	0	0.0	9	8.0
	동구	0	0.0	6	12.5	6	5.3
	미추홀구	9	13.8	4	8.3	13	11.5
	연수구	6	9.2	4	8.3	10	8.8
	남동구	10	15.4	0	0.0	10	8.8
	부평구	3	4.6	6	12.5	9	8.0
	계양구	9	13.8	17	35.4	26	23.0
	서구	9	13.8	9	18.8	18	15.9
	강화군	10	15.4	2	4.2	12	10.6
합계		65	57.5	48	42.5	113	100.0

[그림 3-3] 조사 응답자(종사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속 현황

(단위: %)



(2) 종사자 성별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의 전체 성별은 ‘남성’ 29명(25.7%), ‘여성’ 84명(74.3%)으로 조사됨 (표 3-2, 그림3-3)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성별은 ‘남성’ 13명(20.0%), ‘여성’ 52명(80.0%)이며, 노인문화센터 종사자의 성별은 ‘남성’ 16명(33.3%), ‘여성’ 32명(66.7%)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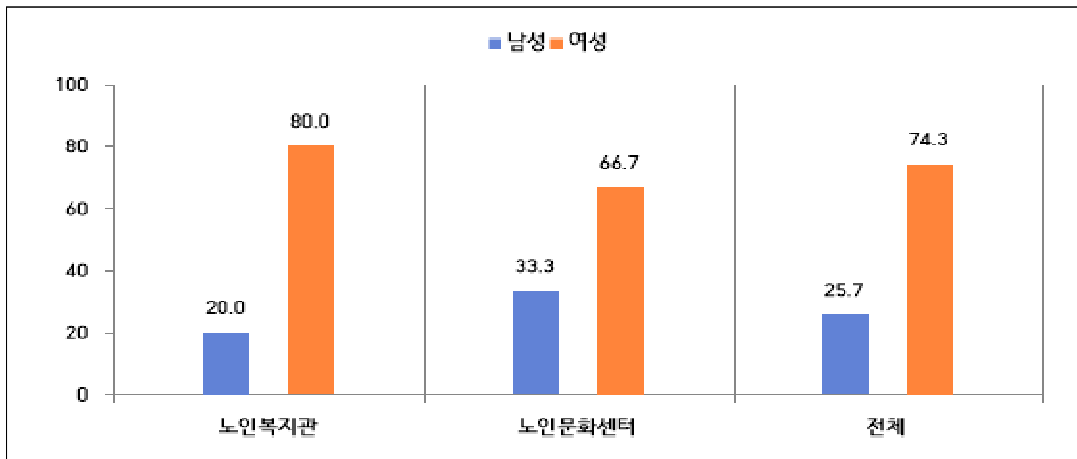
〈표 3-3〉 종사자 성별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성별	남성	13	20.0	16	33.3	29	25.7
	여성	52	80.0	32	66.7	84	74.3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4] 종사자 성별

(단위 : %)



(3) 종사자 연령

- 종사자의 전체 연령을 살펴보면, ‘36~40세’ 24명(2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1~45세’ 20명(17.7%), ‘30~35세’ 19명(16.8%), ‘30세 이하’ 18명(15.9%), ‘46~50세’ 14명(12.4%), ‘51~55세’ 13명(11.5%), ‘56세 이상’ 5명(4.4%) 순으로 조사됨(표 3-4, 그림3-5)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연령은 '41~45세'가 15명(23.1%)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세 이하' 13명(20.0%), '36~40세' 13명(20.0%) > '31~35세' 10명(15.4%) > '46~50세' 8명(12.3%) > '51~55세' 5명(7.7%) > '56세 이상' 1명(1.5%)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 종사의 연령은 '36~40세'가 11명(2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31~35세' 9명(18.8%) > '51~55세' 8명(16.7%) > '46~50세' 6명(12.5%) > '30세 이하' 5명(10.4%), '41~45세' 5명(10.4%) > '56세 이상' 4명(8.3%)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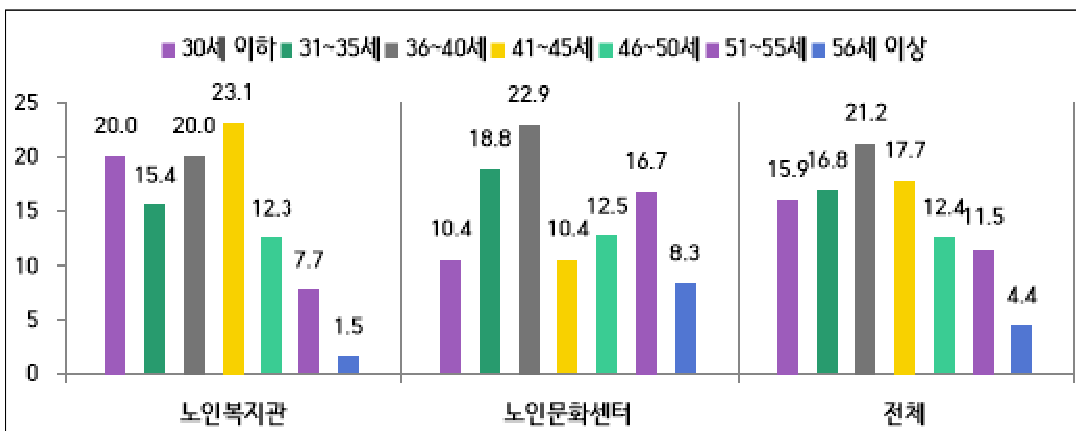
〈표 3-4〉 종사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연령	30세 이하	13	20.0	5	10.4	18	15.9
	30~35세	10	15.4	9	18.8	19	16.8
	36~40세	13	20.0	11	22.9	24	21.2
	41~45세	15	23.1	5	10.4	20	17.7
	46~50세	8	12.3	6	12.5	14	12.4
	51~55세	5	7.7	8	16.7	13	11.5
	56세 이상	1	1.5	4	8.3	5	4.4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5] 종사자 연령

(단위: %)



(4) 종사자 고용 형태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의 전체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 97명(86.8%), ‘비정규직(계약직)’ 16명(14.2%)로 나타남(표 3-5, 그림3-6)
-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57명(87.7%), ‘비정규직(계약직)’ 8명(12.3%)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40명(83.3%), ‘비정규직(계약직)’ 8명(16.7%)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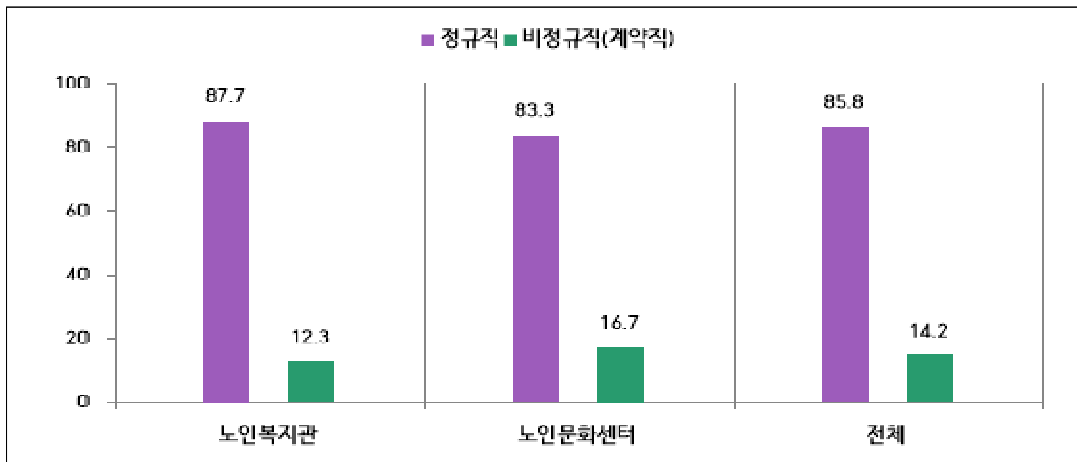
〈표 3-5〉 종사자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고용 형태	정규직	57	87.7	40	83.3	97	85.8
	비정규직(계약직)	8	12.3	8	16.7	16	14.2
	기타	-	-	-	-	-	-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6] 종사자 고용 형태

(단위: %)



(5) 종사자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1급’은 71명(62.8%)로 가장 많은 보유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2급’ 33명(29.2%), 사회복지사 외 9명(8.0%)은 영양사, 물리치료사, 시설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표 3-6, 그림 3-7)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44명(67.7%), ‘사회복지사 2급’ 17명(26.2%), ‘사회복지사 외’ 4명(6.2%)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 종사자의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27명(56.3%), ‘사회복지사 2급’ 16명(33.3%), ‘사회복지사 외’ 5명(10.4%)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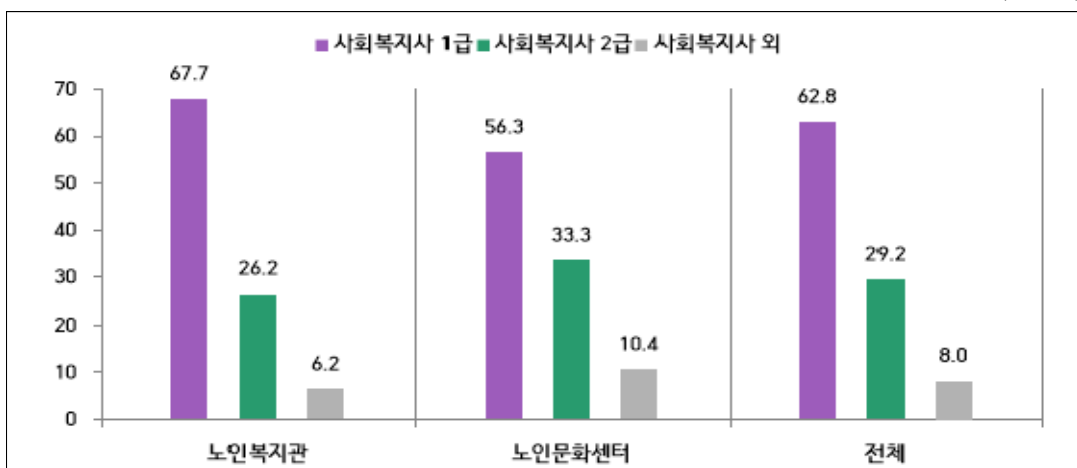
〈표 3-6〉 종사자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주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44	67.7	27	56.3	71	62.8
	사회복지사 2급	17	26.2	16	33.3	33	29.2
	사회복지사 외 ¹⁾	4	6.2	5	10.4	9	8.0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7] 종사자 주 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단위: %)



1)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담당자(1), 영양사(1), 의료직(1)'으로 응답하였고, 노인문화센터는 물리치료사(1), 시설관리(2), 영양사(1), 조리사(1)'로 응답함.

(6) 종사자 전체 경력 기간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의 전체 경력 기간을 살펴본 결과, ‘11~15년’ 32명(28.3%) > ‘1~5년’ 26명(23.0%) > ‘16~20년’ 20명(17.7%) > ‘6~10년’ 19명(16.8%) > ‘20년 이상’ 12명(10.6%) > ‘1년 이하’ 4명(3.5%) 순으로 나타남(표 3-7, 그림 3-8)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전체 경력 기간은 ‘11~15년’이 15명(23.1%)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5년’ 14명(21.5%), ‘16~20년’ 14명(21.5%) > ‘6~10년’ 11명(16.9%) > ‘20년 이상’ 8명(12.3%) > ‘1년 이하’ 3명(4.6%)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 종사자의 전체 경력 기간은 ‘11~15년’이 17명(35.4%)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5년’ 12명(25.0%) > ‘6~10년’ 8명(16.7%) > ‘16~20년’ 6명(12.5%) > ‘20년 이상’ 4명(8.3%) > ‘1년 이하’ 1명(2.1%)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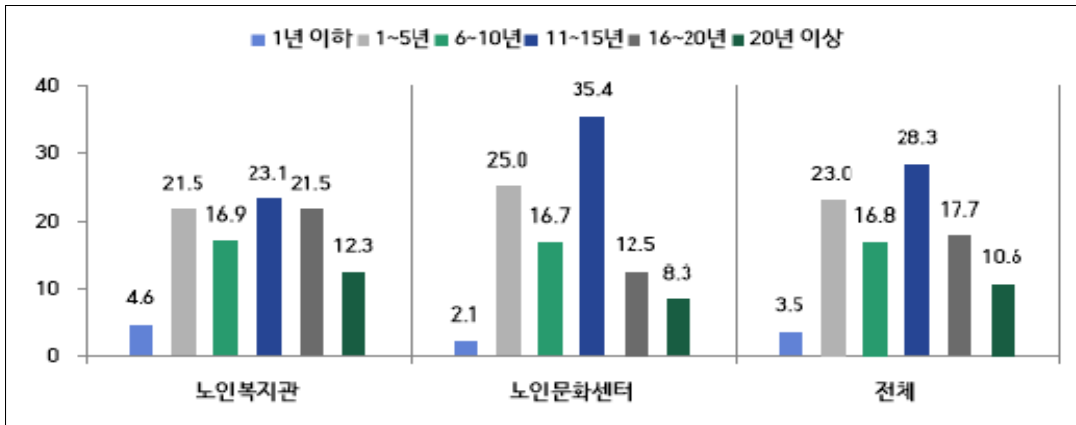
〈표 3-7〉 종사자 전체 경력 기간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전체 경력 기간	1년 이하	3	4.6	1	2.1	4	3.5
	1~5년	14	21.5	12	25.0	26	23.0
	6~10년	11	16.9	8	16.7	19	16.8
	11~15년	15	23.1	17	35.4	32	28.3
	16~20년	14	21.5	6	12.5	20	17.7
	20년 이상	8	12.3	4	8.3	12	10.6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8] 종사자 전체 경력 기간

(단위: %)



(7) 종사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경력 기간은 ‘1~5년’ 49명(43.4%) > ‘11~15년’ 25명(22.1%) > ‘6~10년’ 15명(13.3%) > ‘16~20년’ 13명(11.5%) > ‘1년 이하’ 9명(8.0%) > ‘20년 이상’ 2명(1.8%) 순으로 나타남 (표 3-8, 그림 3-9)
-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은 ‘1~5년’이 23명(35.4%)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6~20년’ 12명(18.5%) > ‘6~10년’ 11명(16.9%), ‘11~15년’ 11명(16.9%) > ‘1년 이하’ 6명(9.2%) > ‘20년 이상’ 2명(3.1%)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에 종사하는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은 ‘1~5년’이 26명(54.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15년’ 14명(29.2%) > ‘6~10년’ 4명(8.3%) > ‘1년 이하’ 3명(6.3%) > ‘16~20년’ 1명(2.1%) > ‘20년 이상’ 0명(0.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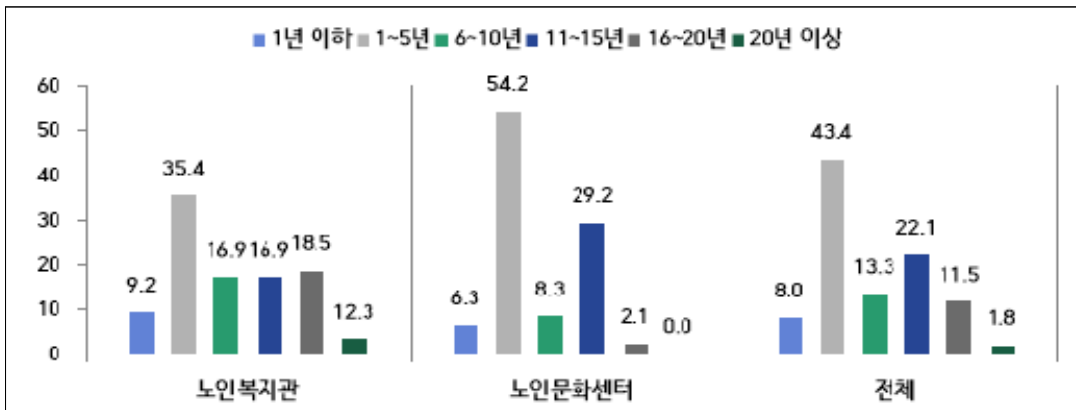
〈표 3-8〉 종사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1년 이하	6	9.2	3	6.3	9	8.0
	1~5년	23	35.4	26	54.2	49	43.4
	6~10년	11	16.9	4	8.3	15	13.3
	11~15년	11	16.9	14	29.2	25	22.1
	16~20년	12	18.5	1	2.1	13	11.5
	20년 이상	2	3.1	0	0.0	2	1.8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9] 종사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 기간

(단위: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 현황

(1) 종사자 직무

- 조사에 응답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전체 직무를 살펴보면, ‘기관장’ 11명(9.7%), ‘기관장 외 종사자’가 102명(90.3%)로 총 113명의 종사자가 응답함(표 3-9, 그림 3-10)
-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직무는 ‘기관장’ 3명(4.6%), ‘기관장 외 종사자’ 62명(95.4%)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종사자 직무는 ‘기관장’ 8명(16.7%), ‘기관장 외 종사자’ 40명(83.3%)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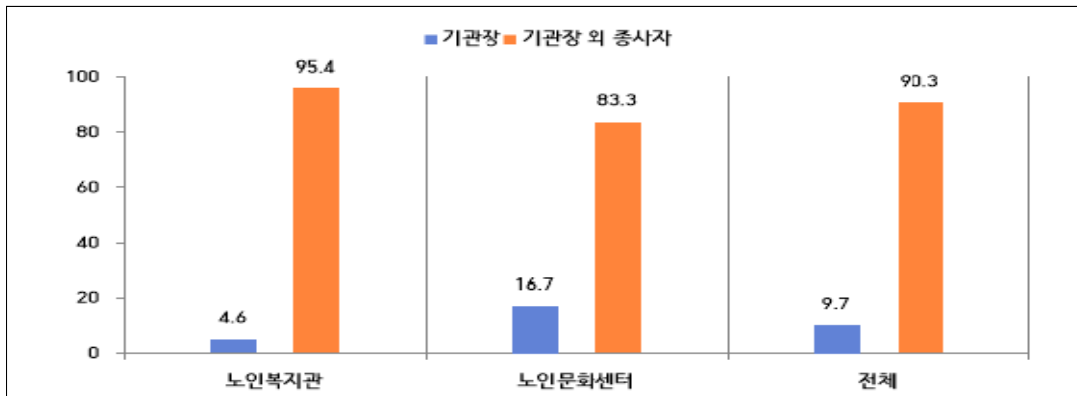
〈표 3-9〉 종사자 직무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직무	기관장	3	4.6	8	16.7	11	9.7
	기관장 외 종사자	62	95.4	40	83.3	102	90.3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10] 종사자 직무

(단위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영역별 운영인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 (표 3-10, 그림 3-11)

- 노인복지관은 ‘상담’ 2명(11.8%), ‘사례관리’ 2명(11.8%), ‘건강생활지원’ 2명(11.8%), ‘노년사회화 교육’ 2명(11.8%),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2명(11.8%),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2명(11.8%), ‘돌봄’ 2명(11.8%), ‘기타’ 3명(17.6%)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는 ‘상담’ 8명(16.0%), ‘사례관리’ 2명(4.0%), ‘건강생활지원’ 8명(16.0%), ‘노년사회화 교육’ 8명(16.0%),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6명(12.0%),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8명(16.0%), ‘돌봄’ 3명(6.0%), ‘기타’ 7명(14.0%)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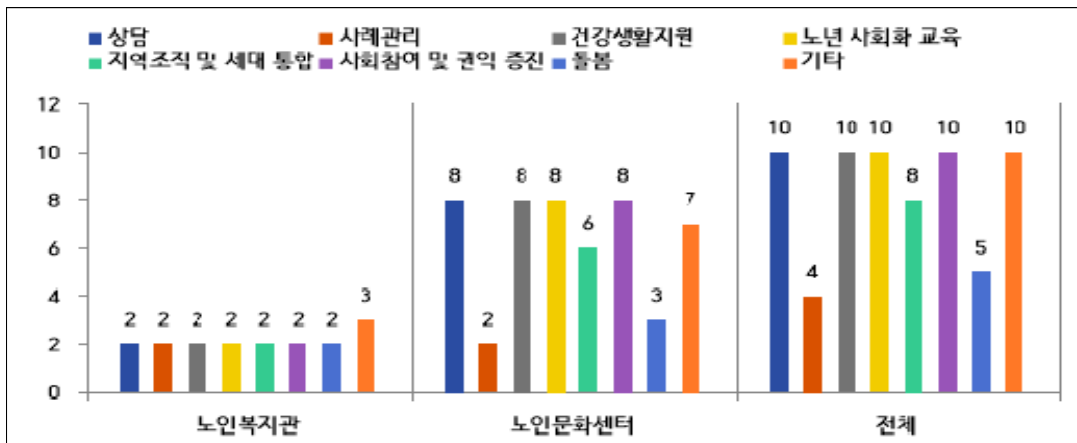
〈표 3-10〉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인력 현황(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케이스 중 %
상담	2	11.8	8	16.0	10	14.9	90.9
사례관리	2	11.8	2	4.0	4	6.0	36.4
건강생활지원	2	11.8	8	16.0	10	14.9	90.9
노년 사회화 교육	2	11.8	8	16.0	10	14.9	90.9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2	11.8	6	12.0	8	11.9	72.7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2	11.8	8	16.0	10	14.9	90.9
돌봄	2	11.8	3	6.0	5	7.5	45.5
기타 ²⁾	3	17.6	7	14.0	10	14.9	90.9
합계	17	100.0	50	100.0	67	100.0	609.1

[그림 3-1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인력 사업(다중응답)

(단위 : 개)



- 2) 노인복지관은 ‘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사업,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공동모금회), 남동구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자서전 등(1), 관리자(1), 신중년 특화사업(1)’으로 응답하였고,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일자리 후원·자원봉사(1), 노인맞춤돌봄사업, 경로식당, 셔틀버스(1), 외부지원사업(1), 응급안전안심서비스(1), 일자리 사업(1), 자원개발 및 후원 홍보, 특화사업, 외부지원사업(1), 특화사업 등(1)’으로 응답함.

□ 상담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상담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1, 그림 3-12)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1.00명(SD=0.00), ‘운영 프로그램 수’ M=21.50개(SD=11.97), ‘이용자 수’ M=2,760.00명(SD=3,054.70)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25명(SD=2.82), ‘운영 프로그램 수’ M=8.63개(SD=9.71), ‘이용자 수’ M=6,195.88명(SD=13,581.25)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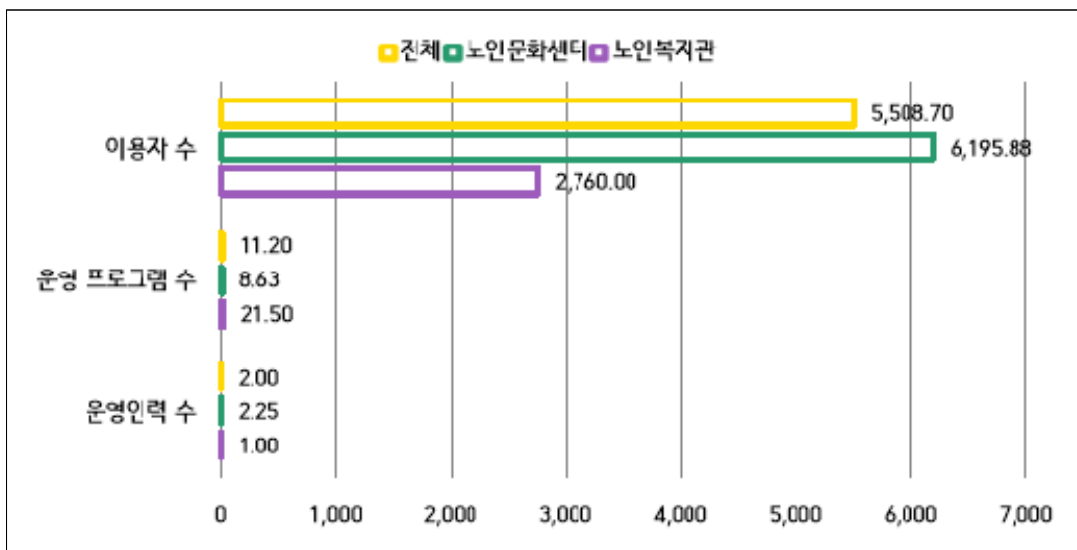
〈표 3-11〉 상담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단위 :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8)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1.00	0.00	2.25	2.82	2.00	2.54
운영 프로그램 수	21.50	19.09	8.63	9.71	11.20	11.97
이용자 수	2,760.00	3,054.70	6,195.88	13,581.25	5,508.70	12,107.72

[그림 3-12] 상담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단위 : 명, 개)



□ 사례관리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가족기능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2, 그림 3-13)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4.00명(SD=4.24), ‘운영 프로그램 수’ M=25.50개(SD=3.54), ‘이용자 수’ M=666.50명(SD=801.15)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50명(SD=0.71), ‘운영 프로그램 수’ M=1.50개(SD=0.71), ‘이용자 수’ M=206.50명(SD=150.61)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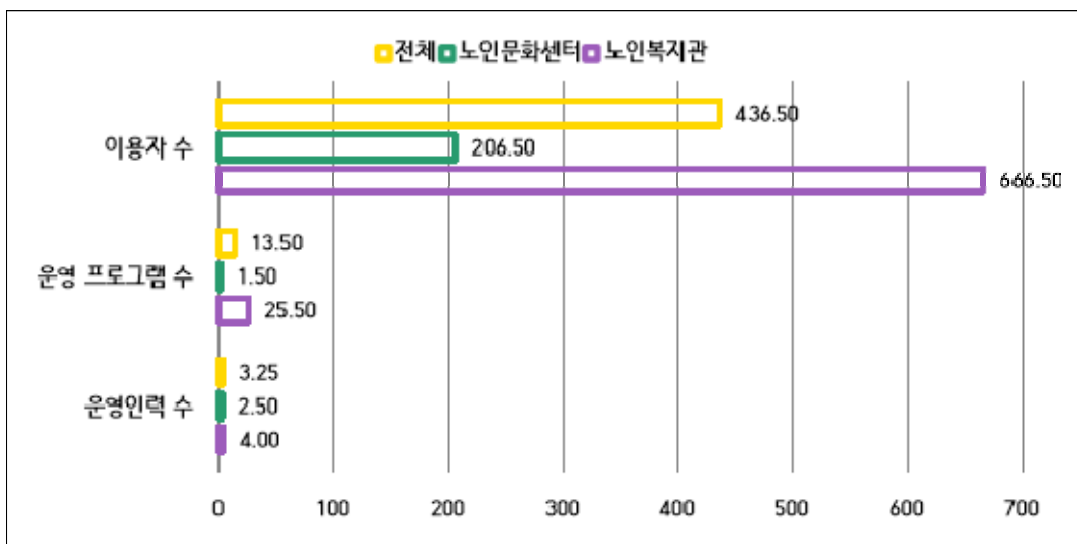
〈표 3-12〉 사례관리사업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가족기능지원

(단위: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2)		전체(N=4)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4.00	4.24	2.50	0.71	3.25	2.63
운영 프로그램 수	25.50	3.54	1.50	0.71	13.50	14.01
이용자 수	666.50	801.15	206.50	150.61	436.50	540.41

[그림 3-13] 사례관리사업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가족기능지원

(단위: 명, 개)



□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증진지원/기능회복지원/급식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3, 그림 3-14)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00명(SD=1.41), ‘운영 프로그램 수’ M=26.50개(SD=21.92), ‘이용자 수’ M=2,392.00명(SD=3,381.38)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00명(SD=0.93), ‘운영 프로그램 수’ M=7.88개(SD=5.79), ‘이용자 수’ M=9,580.13명(SD=18,442.57)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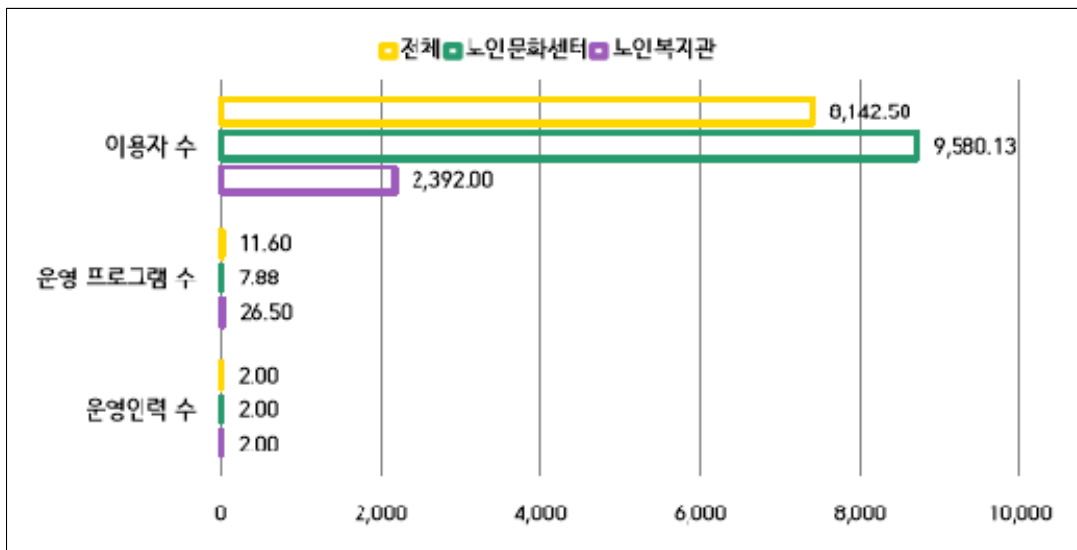
〈표 3-13〉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증진지원/기능회복지원/급식지원

(단위 :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8)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2.00	1.41	2.00	0.93	2.00	0.94
운영 프로그램 수	26.50	21.92	7.88	5.79	11.60	11.88
이용자 수	2,392.00	3,381.38	9,580.13	18,442.57	8,142.50	16,583.13

[그림 3-14] 건강생활지원사업 : 건강증진지원/기능회복지원/급식지원

(단위 : 명, 개)



□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년사회화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4, 그림 3-15)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50명(SD=0.71), ‘운영 프로그램 수’ M=78.50개(SD=33.23), ‘이용자 수’ M=5,840.00명(SD=3,309.26)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1.62명(SD=0.92), ‘운영 프로그램 수’ M=42.75개(SD=8.78), ‘이용자 수’ M=8,726.75명(SD=19,342.97)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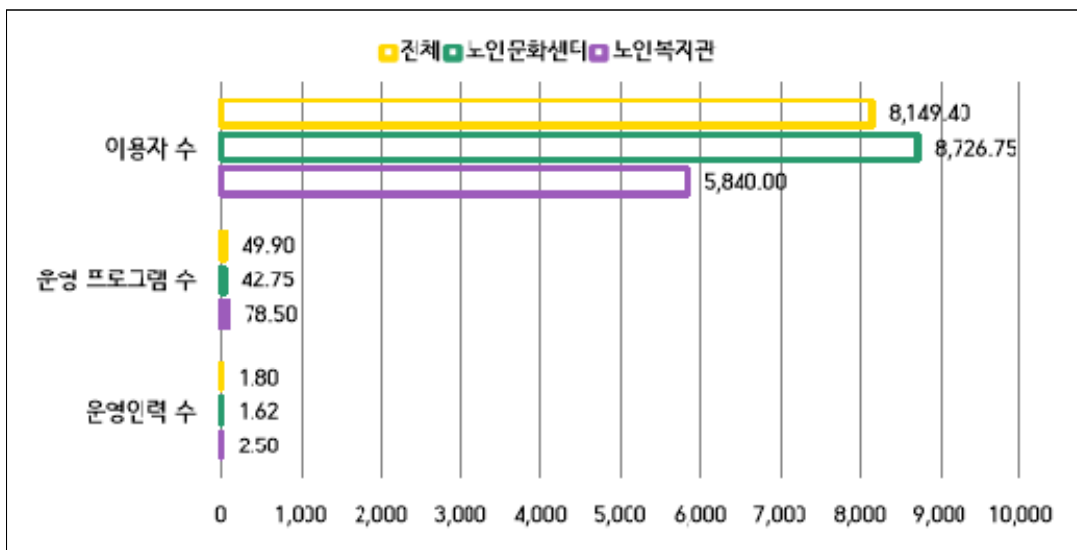
〈표 3-14〉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단위: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8)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2.50	0.71	1.62	0.92	1.80	0.92
운영 프로그램 수	78.50	33.23	42.75	8.78	49.90	20.25
이용자 수	5,840.00	3,309.26	8,726.75	19,342.97	8,149.40	17,137.80

[그림 3-15]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단위: 명, 개)



□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5, 그림 3-16)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4.00명(SD=4.24), ‘운영 프로그램 수’ M=57.00개(SD=31.11), ‘이용자 수’ M=51,749.50명(SD=68,235.10)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1.83명(SD=0.98), ‘운영 프로그램 수’ M=15.50개(SD=9.07), ‘이용자 수’ M=4,095.67명(SD=3,302.04)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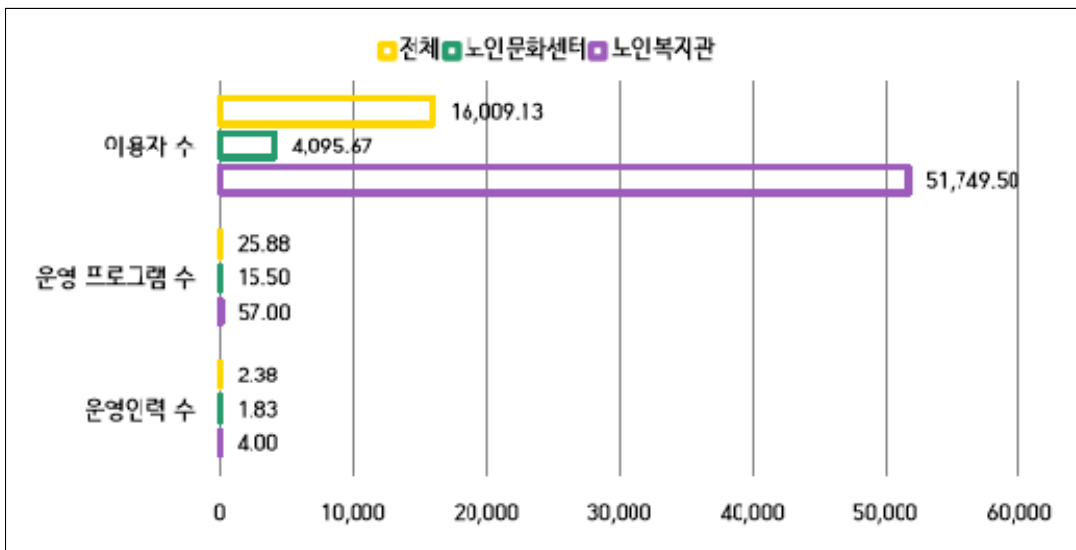
〈표 3-15〉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 :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단위: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6)		전체(N=8)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4.00	4.24	1.83	0.98	2.38	2.07
운영 프로그램 수	57.00	31.11	15.50	9.07	25.88	23.79
이용자 수	51,749.50	68,235.10	4,095.67	3,302.04	16,009.13	34,052.22

[그림 3-16]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업 :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단위: 명, 개)



□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 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6, 그림 3-17)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6.00명(SD=1.41), ‘운영 프로그램 수’ M=30.00개(SD=22.63), ‘이용자 수’ M=31,410.50명(SD=26,289.52)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3.50명(SD=2.93), ‘운영 프로그램 수’ M=11.50개(SD=9.23), ‘이용자 수’ M=3,872.63명(SD=3,872.63)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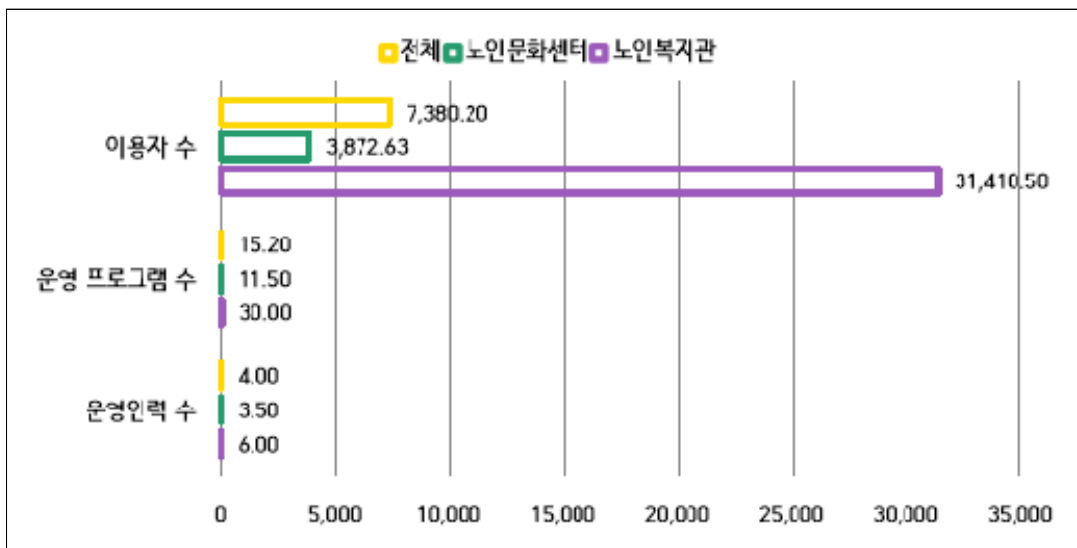
〈표 3-16〉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 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단위 :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8)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6.00	1.41	3.50	2.93	4.00	2.83
운영 프로그램 수	30.00	22.63	11.50	9.23	15.20	13.56
이용자 수	31,410.50	26,289.52	3,872.63	3,872.63	7,380.20	14,048.18

[그림 3-17]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 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단위 : 명, 개)



□ 돌봄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7, 그림 3-18)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1.00명(SD=0.00), ‘운영 프로그램 수’ M=2.50명(SD=3.00), ‘이용자 수’ M=117.25명(SD=220.66)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1.33명(SD=0.58), ‘운영 프로그램 수’ M=3.00개(SD=3.46), ‘이용자 수’ M=253.04명(SD=117.25)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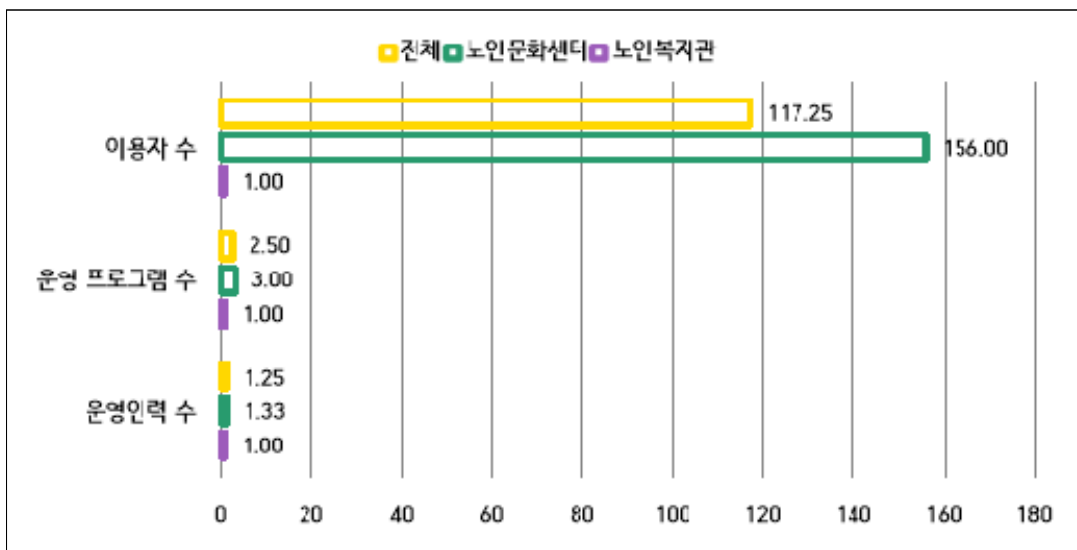
〈표 3-17〉 돌봄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단위 :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2)		노인문화센터(N=3)		전체(N=5)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1.00	0.00	1.33	0.58	1.25	0.50
운영 프로그램 수	1.00	0.00	3.00	3.46	2.50	3.00
이용자 수	1.00	0.00	156.00	253.04	117.25	220.66

[그림 3-18] 돌봄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단위 : 명, 개)



□ 기타사업³⁾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기타사업의 운영인력 수와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18, 그림 3-19)

-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00명(SD=1.73), ‘운영 프로그램 수’ M=9.67개(SD=13.32), ‘이용자 수’ M=509.67명(SD=499.75)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는 ‘운영인력 수’ M=2.57명(SD=2.51), ‘운영 프로그램 수’ M=10.71개(SD=6.63), ‘이용자 수’ M=1,380.29명(SD=2,626.87)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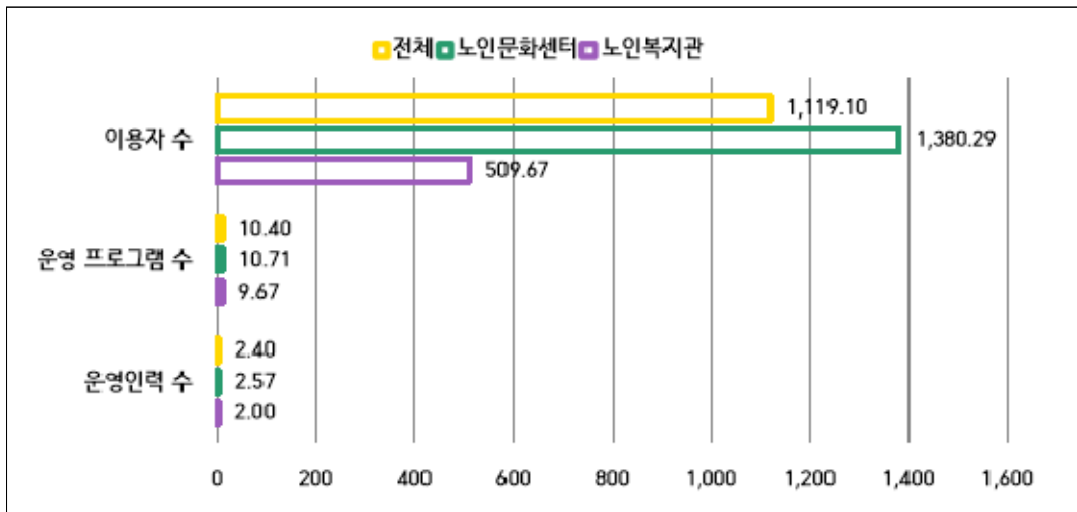
〈표 3-18〉 기타사업

(단위: 명, 개)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3)		노인문화센터(N=7)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운영인력 수	2.00	1.73	2.57	2.51	2.40	2.22
운영 프로그램 수	9.67	13.32	10.71	6.63	10.40	8.30
이용자 수	509.67	499.75	1,380.29	2,626.87	1,119.10	2,198.33

[그림 3-19] 기타사업

(단위: 명, 개)



3) 노인복지관은 ‘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민간시설 활용 여가보급사업,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공동모금회), 남동구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자서전 등(1), 관리자(1), 신중년 특화사업(1),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일자리 후원·자원봉사(1), 노인맞춤돌봄사업, 경로식당, 셔틀버스(1), 외부지원사업(1), 응급안전안심서비스(1), 일자리 사업(1), 자원개발 및 후원 홍보, 특화사업, 외부지원사업(1), 특화사업 등(1)’임.

□ 종사자 정원 및 현원

-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는 ‘정원’과 ‘현원’ 모두 $M=21.67$ 명($SD=7.64$)으로 조사되었고, 노인 문화센터의 종사자는 ‘정원’과 ‘현원’ 모두 $M=21.67$ 명($SD=7.64$)으로 조사됨(표 3-19, 그림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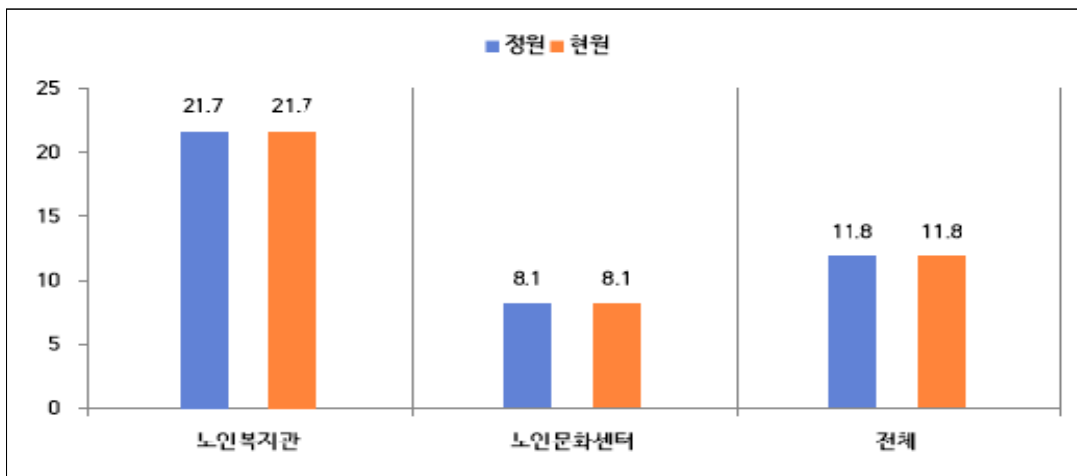
〈표 3-19〉 종사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3)		노인문화센터(N=7)		전체(N=10)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종사자 정원	21.67	7.64	8.13	1.25	11.82	7.26
종사자 현원	21.67	7.64	8.13	1.25	11.82	7.26

[그림 3-20] 종사자 정원 및 현원

(단위 : %)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회원 수

- 노인복지관의 등록회원은 ‘회원 수’ $M=5,815.67$ 명($SD=4,440.00$), ‘1일 평균 방문 회원 수’ $M=836.33$ 명($SD=412.75$)으로 조사되었고, 노인문화센터의 등록회원은 ‘회원 수’ $M=3,764.00$ 명($SD=1,189.56$), ‘1일 평균 방문 회원 수’ $M=701.88$ 명($SD=184.94$)으로 조사됨(표 30-20, 그림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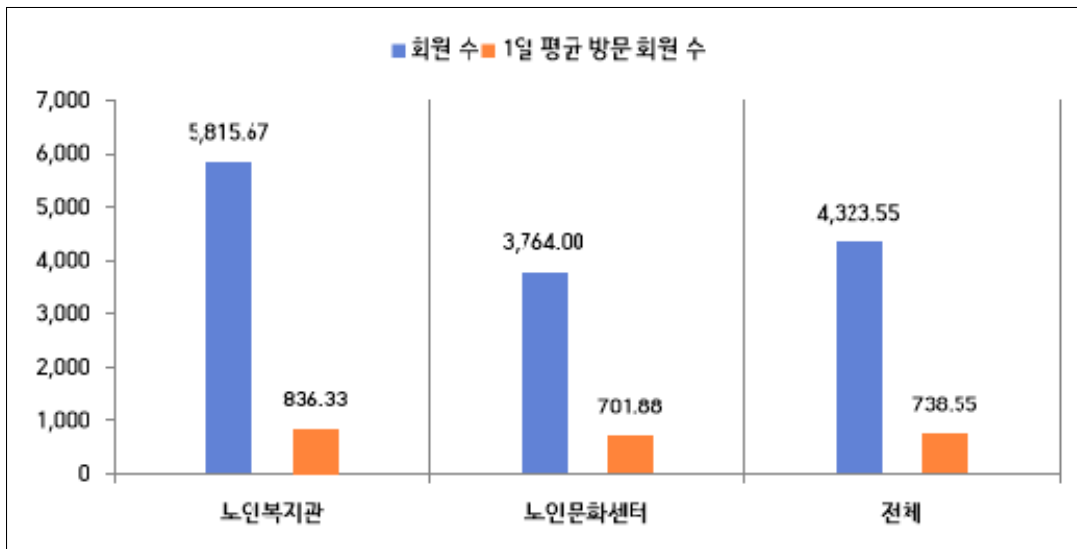
〈표 3-20〉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회원 수

(단위 : 명)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N=3)		노인문화센터(N=8)		전체(N=11)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회원 수	5,815.67	4,440.00	3,764.00	1,189.56	4,323.55	2,419.02
1일 평균 방문 회원 수	836.33	412.75	701.88	184.94	738.55	248.92

[그림 3-21]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회원 수

(단위 :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주체

- 노인복지관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2개(66.7%), ‘사회복지법인’ 0개(0.0%), ‘종교법인’ 0개(0.0%), ‘기타’ 1개(33.3%)로 조사되었고, 노인문화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1개(12.5%), ‘사회복지법인’ 1개(12.5%), ‘종교법인’ 0개(0.0%), ‘기타’ 6개(75.0%)로 조사됨 (표 3-21, 그림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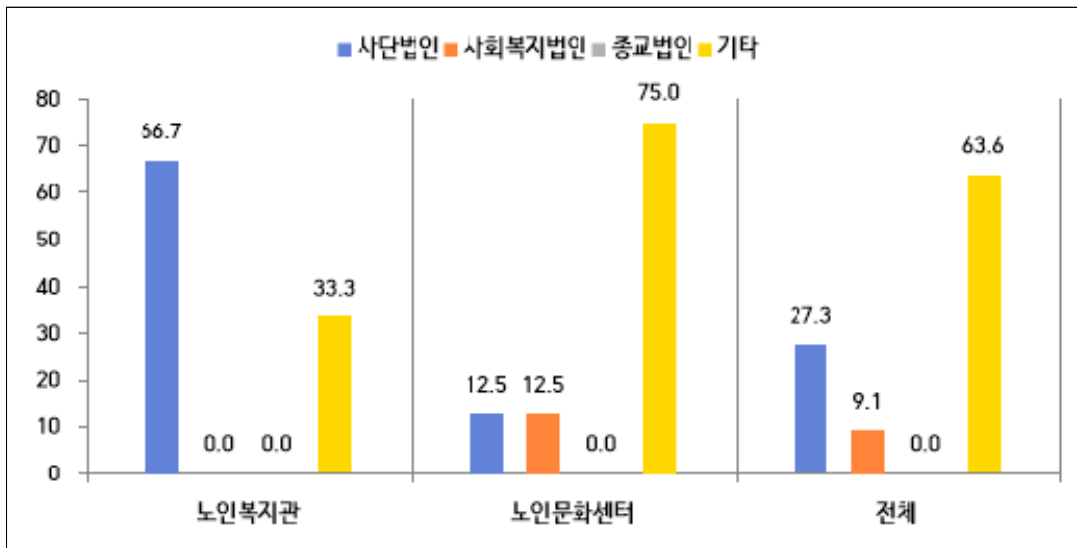
〈표 3-2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주체

(단위: 개,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운영 주체	사단법인	2	66.7	1	12.5	3	27.3
	사회복지법인	0	0.0	1	12.5	1	9.1
	종교법인	0	0.0	0	0.0	0	0.0
	기타 ⁴⁾	1	33.3	6	75.0	7	63.6
합계		3	100.0	8	100.0	11	100.0

[그림 3-2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주체

(단위: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요구분석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3-22)

4) 노인복지관은 ‘공기업(1)’으로 응답하였고, 노인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6)’으로 응답함.

〈표 3-22〉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전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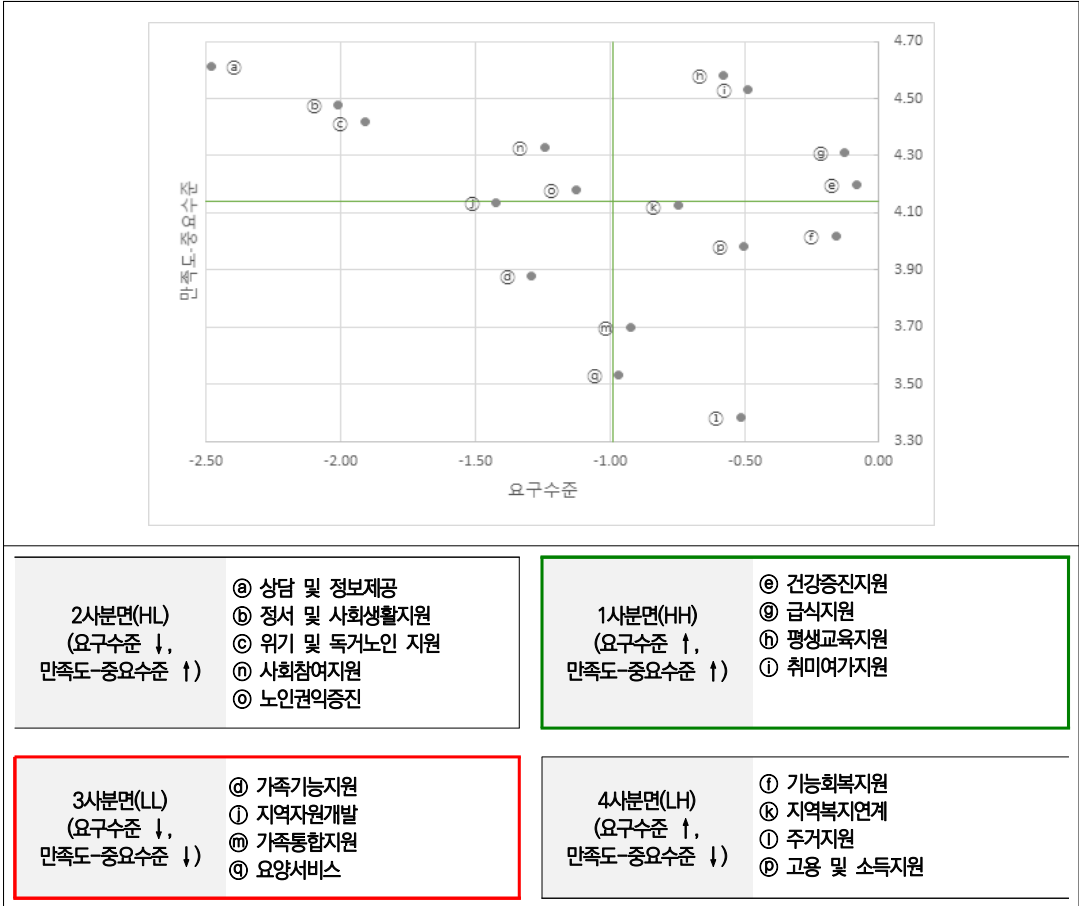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중요 수준	만족 수준	필요도 (gap) C=B-A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sqrt{A^2+C^2}$		
㉠ 상담 및 정보제공	4.57	3.94	-0.63	7.044***	-2.48	17	4.61	1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45	3.94	-0.51	6.247***	-2.01	16	4.48	4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4.39	3.90	-0.49	5.147***	-1.91	15	4.42	5	HL
㉣ 가족기능지원	3.86	3.49	-0.37	4.438***	-1.29	13	3.88	14	LL
㉤ 건강증진지원	4.20	4.18	-0.02	0.317	-0.08	1	4.20	8	HH
㉥ 기능회복지원	4.02	3.98	-0.04	0.283	-0.16	3	4.02	12	LH
㉦ 급식지원	4.31	4.28	-0.03	0.776	-0.13	2	4.31	7	HH
㉧ 평생교육지원	4.58	4.45	-0.13	1.978	-0.58	7	4.58	2	HH
㉨ 취미여가지원	4.53	4.42	-0.11	1.678	-0.49	4	4.53	3	HH
㉩ 지역자원개발	4.12	3.74	-0.38	4.266***	-1.42	14	4.14	10	LL
㉪ 지역복지연계	4.12	3.93	-0.19	2.527*	-0.75	8	4.12	11	LH
㉫ 주거지원	3.38	3.22	-0.16	1.594	-0.52	6	3.38	17	LH
㉬ 가족통합지원	3.69	3.42	-0.27	3.174**	-0.92	9	3.70	15	LL
㉭ 사회참여지원	4.32	4.01	-0.31	3.894***	-1.24	12	4.33	6	HL
㉮ 노인권익증진	4.17	3.88	-0.29	3.732***	-1.13	11	4.18	9	HL
㉯ 고용 및 소득지원	3.98	3.85	-0.13	1.584	-0.50	5	3.98	13	LH
㉺ 요양서비스	3.52	3.22	-0.30	2.276*	-0.97	10	3.53	16	LL
평균(M)	4.13	3.87	-0.26	-	-0.99	-	4.14	-	-

* $p<0.05$, ** $p<0.01$, *** $p<0.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중요수준」의 평균은 4.14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0.99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총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 총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취미여가지원’ 1가지로 나타남(그림 3-23)

[그림 3-2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전체)

(단위: %)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 개발’, ‘노인권익증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3-23)

〈표 3-2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노인복지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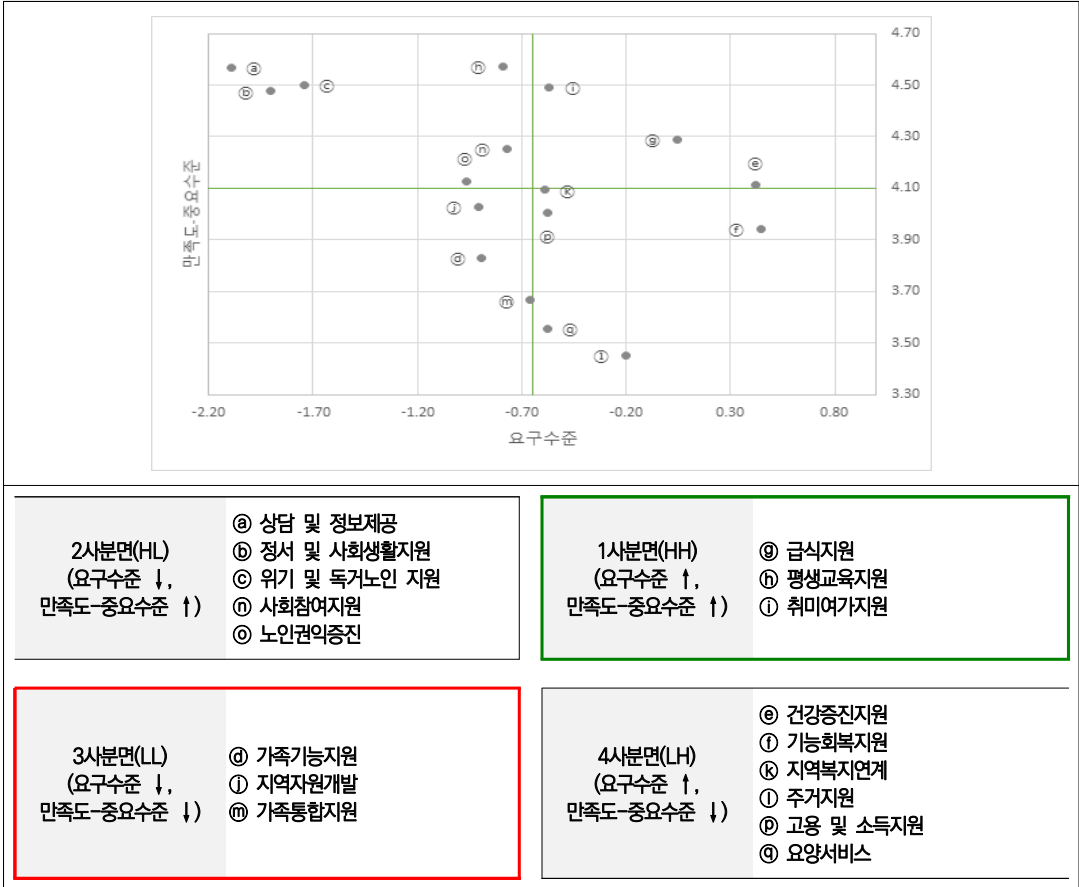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중요 수준	만족 수준	필요도 (gap) C=B-A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sqrt{A^2+C^2}$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 상담 및 정보제공	4.54	4.02	-0.52	5.089***	-2.09	17	4.57	2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45	3.97	-0.48	4.501***	-1.91	16	4.48	5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4.48	4.05	-0.43	3.838***	-1.74	15	4.50	3	HL
㉣ 가족기능지원	3.82	3.57	-0.25	2.914**	-0.89	12	3.83	14	LL
㉤ 건강증진지원	4.11	4.21	0.10	-0.830	0.42	2	4.11	9	LH
㉥ 기능회복지원	3.94	4.05	0.11	-0.970	0.45	1	3.94	13	LH
㉦ 급식지원	4.29	4.30	0.01	0.000	0.04	3	4.29	6	HH
㉧ 평생교육지원	4.57	4.39	-0.18	1.842	-0.79	11	4.57	1	HH
㉨ 취미여가지원	4.49	4.36	-0.13	1.494	-0.57	5	4.49	4	HH
㉩ 지역자원개발	4.02	3.78	-0.24	2.311*	-0.91	13	4.03	11	LL
㉪ 지역복지연계	4.09	3.94	-0.15	1.625	-0.59	8	4.09	10	LH
㉫ 주거지원	3.45	3.39	-0.06	0.518	-0.20	4	3.45	17	LH
㉬ 가족통합지원	3.66	3.47	-0.19	1.754	-0.66	9	3.66	15	LL
㉭ 사회참여지원	4.25	4.06	-0.19	1.760	-0.77	10	4.25	7	HL
㉮ 노인권익증진	4.12	3.87	-0.25	2.311*	-0.97	14	4.13	8	HL
㉯ 고용 및 소득지원	4.00	3.85	-0.15	1.070	-0.58	7	4.00	12	LH
㉰ 요양서비스	3.55	3.38	-0.17	1.270	-0.57	6	3.55	16	LH
평균(M)	4.11	3.92	-0.19	-	-0.73	-	4.11	-	-

* $p<0.05$, ** $p<0.01$, *** $p<0.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중요수준」의 평균은 4.11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0.73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총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가족통합지원’ 총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취미여가지원’ 1가지로 나타남(그림 3-24)

[그림 3-2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복지관)

(단위 : %)



□ 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만족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 개발’,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3-24)

〈표 3-2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영역별 요구분석(노인문화센터)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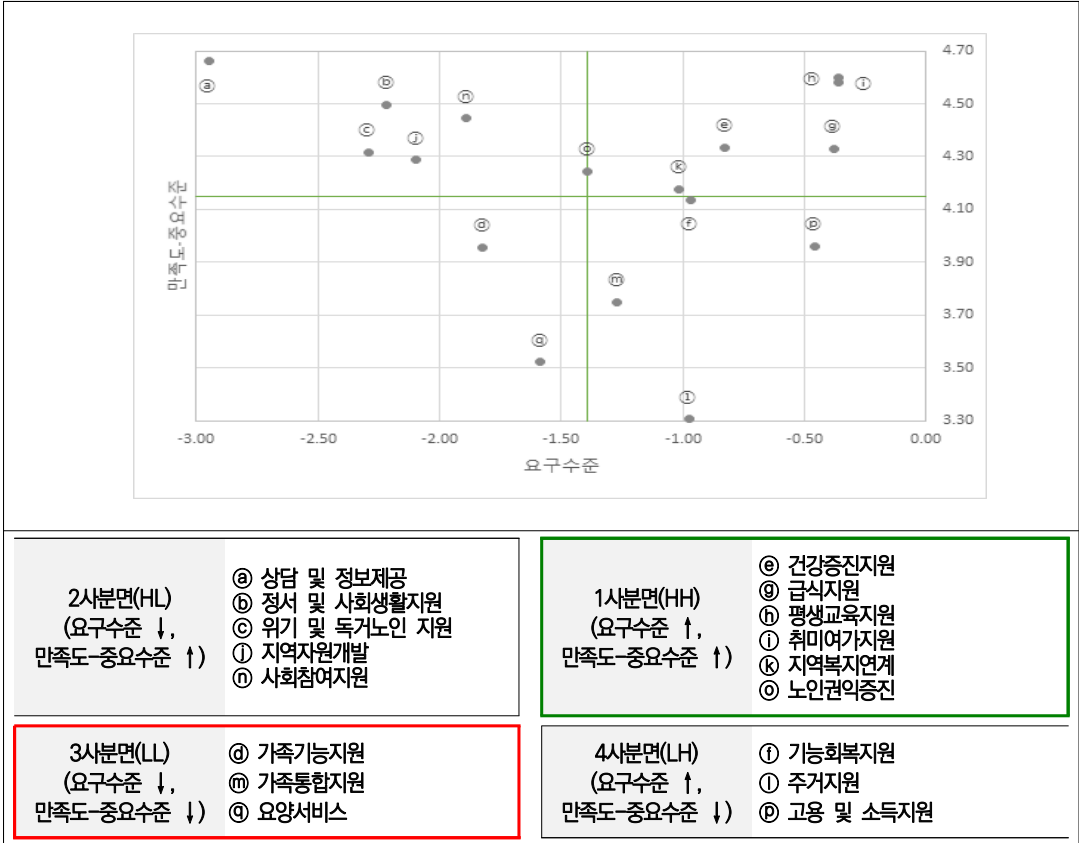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중요 수준	만족 수준	필요도 (gap) C=B-A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sqrt{A^2+C^2}$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 상담 및 정보제공	4.60	3.83	-0.77	4.919***	-2.95	17	4.66	1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46	3.89	-0.57	4.310***	-2.22	15	4.50	4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4.27	3.64	-0.63	3.413**	-2.29	16	4.32	8	HL
㉣ 가족기능지원	3.92	3.38	-0.54	3.388**	-1.83	12	3.96	14	LL
㉤ 건강증진지원	4.33	4.13	-0.20	1.500	-0.83	5	4.33	6	HH
㉥ 기능회복지원	4.13	3.88	-0.25	1.718	-0.97	6	4.14	12	LH
㉦ 급식지원	4.33	4.24	-0.09	1.311	-0.38	3	4.33	7	HH
㉧ 평생교육지원	4.60	4.52	-0.08	0.850	-0.36	2	4.60	2	HH
㉨ 취미여가지원	4.58	4.50	-0.08	0.814	-0.36	1	4.58	3	HH
㉩ 지역자원개발	4.25	3.68	-0.57	3.845***	-2.10	14	4.29	9	HL
㉪ 지역복지연계	4.17	3.91	-0.26	1.956	-1.02	8	4.18	11	HH
㉫ 주거지원	3.29	2.96	-0.33	1.886	-0.98	7	3.31	17	LH
㉬ 가족통합지원	3.73	3.35	-0.38	2.830**	-1.27	9	3.75	15	LL
㉭ 사회참여지원	4.42	3.94	-0.48	4.025***	-1.89	13	4.45	5	HL
㉮ 노인권익증진	4.23	3.87	-0.36	3.022**	-1.39	10	4.25	10	HH
㉯ 고용 및 소득지원	3.96	3.84	-0.12	1.189	-0.46	4	3.96	13	LH
㉰ 요양서비스	3.48	2.94	-0.54	2.058	-1.59	11	3.52	16	LL
평균(M)			-0.37	-	-1.39		4.15		-

* $p<0.05$, ** $p<0.01$, *** $p<0.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중요수준」의 평균은 4.15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1.39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복지연계’, ‘노인권익증진’ 총 6가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중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가족기능지원’,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 총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평생교육지원’과 ‘취미여가지원’ 2가지로 나타남 (그림 3-25)

[그림 3-25]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문화센터)

(단위 : %)



(4)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은 ‘만족한다’ 36명(55.4%) > ‘보통이다’ 17명(26.2%) > ‘매우 만족한다’ 9명(13.8%) > ‘불만족한다’ 2명(3.1%) > ‘매우 불만족한다’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만족한다’ 34명(70.8%) > ‘보통이다’ 10명(20.8%) > ‘매우 만족한다’ 3명(6.3%) > ‘불만족한다’ 1명(2.1%) > ‘매우 불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732$, $p>.05$)

-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77점(SD=0.79), 노인문화센터가 3.81점(SD=0.57)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대부분이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25, 그림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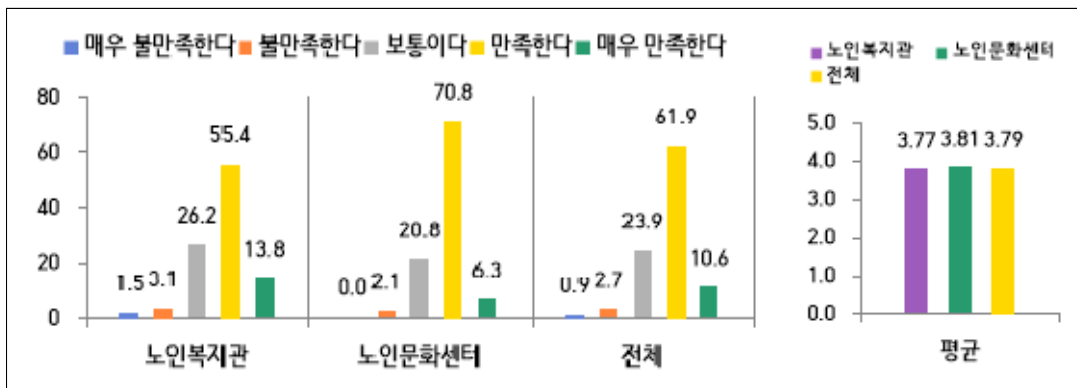
〈표 3-25〉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1 (1.5)	2 (3.1)	17 (26.2)	36 (55.4)	9 (13.8)	65 (57.5)	3.77	0.79	3.732 (.443)
노인문화센터	0 (0.0)	1 (2.1)	10 (20.8)	34 (70.8)	3 (6.3)	48 (42.5)	3.81	0.57	
전체	1 (0.9)	3 (2.7)	27 (23.9)	70 (61.9)	12 (10.6)	113 (100.0)	3.79	0.70	

[그림 3-26]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전체)

(단위: %, 점)



□ 직무별

- 노인복지관의 기관장은 ‘만족한다’ 2명(66.7%) > ‘매우 만족한다’ 1명(33.3%) > ‘매우 불만족한다’ 0명(0.0%), ‘불만족한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만족한다’ 34명(54.8%) > ‘보통이다’ 17명(27.4%) > ‘매우 만족한다’ 8명(12.9%) > ‘불만족한다’ 2명(3.2%) > ‘매우 불만족한다’ 1명(1.6%)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903$, $p>.05$)

-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4.33점(SD=0.58), 기관장 외 종사자가 3.74점(SD=0.79)으로 기관장 외 종사자 대비 기관장이 높게 나타났고, 직무에 상관없이 대부분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문화센터의 기관장은 ‘만족한다’ 5명(62.5%) > ‘보통이다’ 2명(25.0%) > ‘매우 만족한다’ 1명(12.5%) > ‘매우 불만족한다’ 0명(0.0%), ‘불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만족한다’ 29명(72.5%) > ‘보통이다’ 8명(20.0%) > ‘매우 만족한다’ 2명(5.0%) > ‘불만족한다’ 1명(2.5%) > ‘매우 불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0.974$, $p>.05$)
-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3.88점(SD=0.61), 기관장 외 종사자가 3.80점(SD=0.56)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직무에 상관없이 대부분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26, 그림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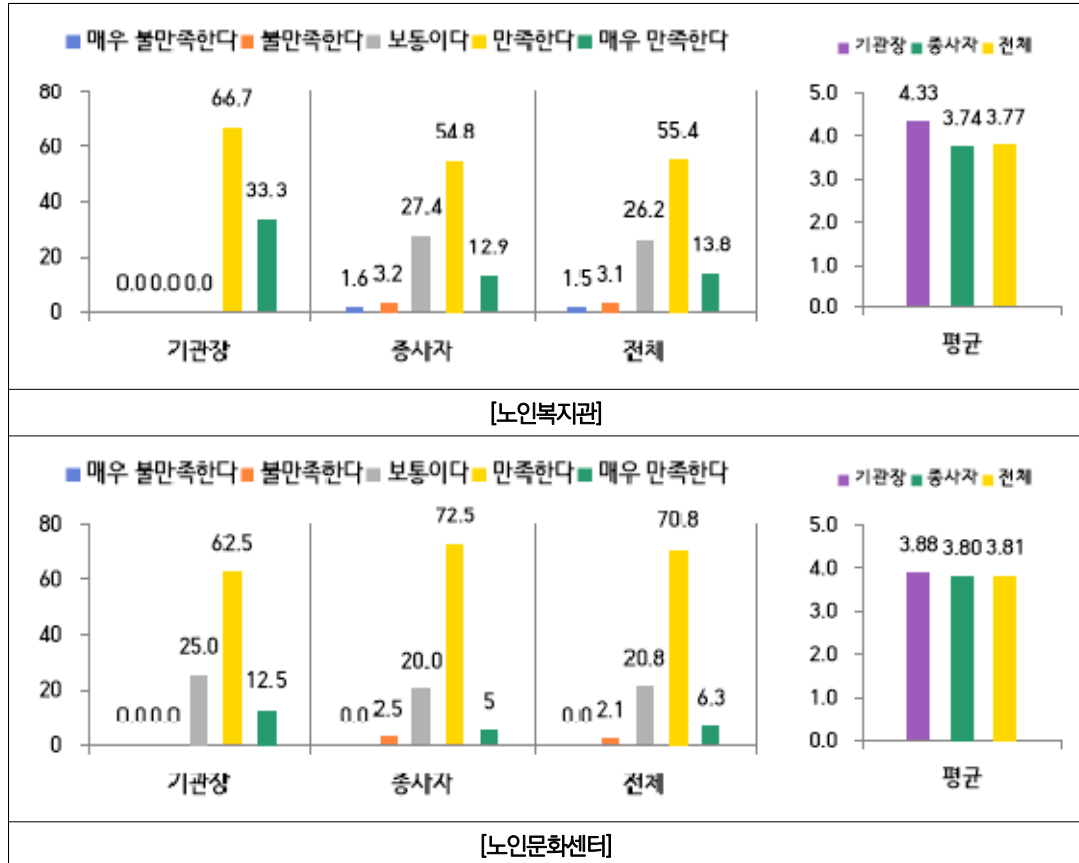
〈표 3-26〉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직무별)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노인복지관	기관장	0 (0.0)	0 (0.0)	0 (0.0)	2 (66.7)	1 (33.3)	3 (4.6)	4.33	0.58
	종사자	1 (1.6)	2 (3.2)	17 (27.4)	34 (54.8)	8 (12.9)	62 (95.4)	3.74	0.79
Pearson 카이제곱(χ^2)		1.903(.754)							
노인문화센터	기관장	0 (0.0)	0 (0.0)	2 (25.0)	5 (62.5)	1 (12.5)	8 (16.7)	3.88	0.61
	종사자	0 (0.0)	1 (2.5)	8 (20.0)	29 (72.5)	2 (5.0)	40 (83.3)	3.80	0.56
Pearson 카이제곱(χ^2)		0.974(.808)							

[그림 3-27]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직무별)

(단위 : %, 점)



(5)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은 ‘불만족한다’ 25명(38.5%) > ‘매우 불만족한다’ 15명(23.1%) > ‘보통이다’ 13명(20.0%) > ‘만족한다’ 9명(13.8%) > ‘매우 만족한다’ 3명(4.6%)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매우 불만족한다’ 19명(39.6%), ‘불만족한다’ 19명(39.6%) > ‘보통이다’ 19명(12.5%) > ‘만족한다’ 3명(6.3%) > ‘매우 만족한다’ 1명(2.1%)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5.433$, $p>.05$).

-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2.38점(SD=1.13), 노인문화센터가 1.92점(SD=0.99)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27, 그림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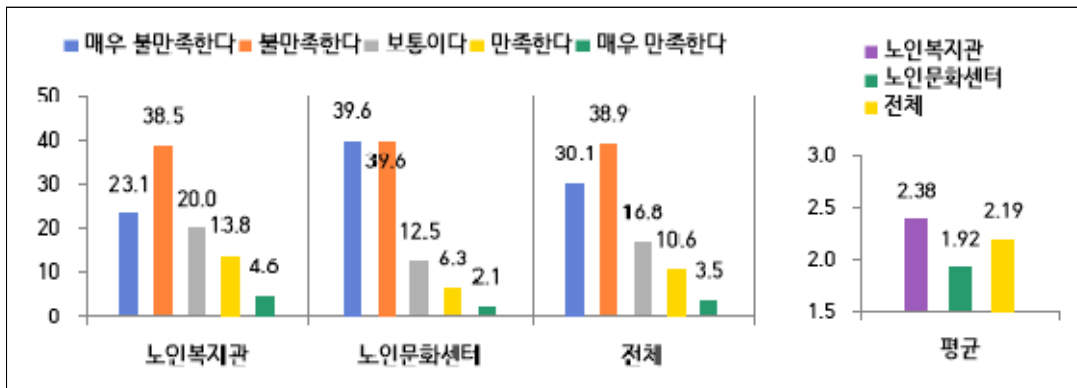
〈표 3-27〉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15 (23.1)	25 (38.5)	13 (20.0)	9 (13.8)	3 (4.6)	65 (57.5)	2.38	1.13	5.433 (.246)
노인문화센터	19 (39.6)	19 (39.6)	6 (12.5)	3 (6.3)	1 (2.1)	48 (42.5)	1.92	0.99	
전체	34 (30.1)	44 (38.9)	19 (16.8)	12 (10.6)	4 (3.5)	113 (100.0)	2.19	1.09	

[그림 3-28]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전체)

(단위: %, 점)



□ 직무별

- 노인복지관의 기관장은 ‘매우 불만족한다’ 1명(33.3%), ‘불만족한다’ 1명(33.3%), ‘보통이다’ 1명(33.3%) > ‘만족한다’ 0명(0.0%), ‘매우 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불만족한다’ 24명(38.7%) > ‘매우 불만족한다’ 14명(22.6%) > ‘보통이다’ 12명(19.4%) > ‘만족한다’ 9명(14.5%) > ‘매우 만족한다’ 3명(4.8%)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025$, $p>.05$)

-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2.00점 (SD=1.00), 기관장 외 종사자가 2.40점(SD=1.14)으로 기관장 대비 기관장 외 종사자가 더 낮게 나타났고, 직무에 상관없이 노인복지관의 인력배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문화센터의 기관장은 ‘매우 불만족한다’ 5명(62.5%) > ‘불만족한다’ 2명(25.0%) > ‘보통이다’ 1명(12.5%) > ‘만족한다’ 0명(0.0%), ‘매우 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불만족한다’ 17명(42.5%) > ‘매우 불만족한다’ 14명(35.0%) > ‘보통이다’ 5명(12.5%) > ‘만족한다’ 3명(7.5%) > ‘매우 만족한다’ 1명(2.5%)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2.589$, $p>.05$)
-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1.50점 (SD=0.76), 기관장 외 종사자가 2.00점(SD=1.01)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직무에 상관없이 대부분 노인문화센터의 인력배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28, 그림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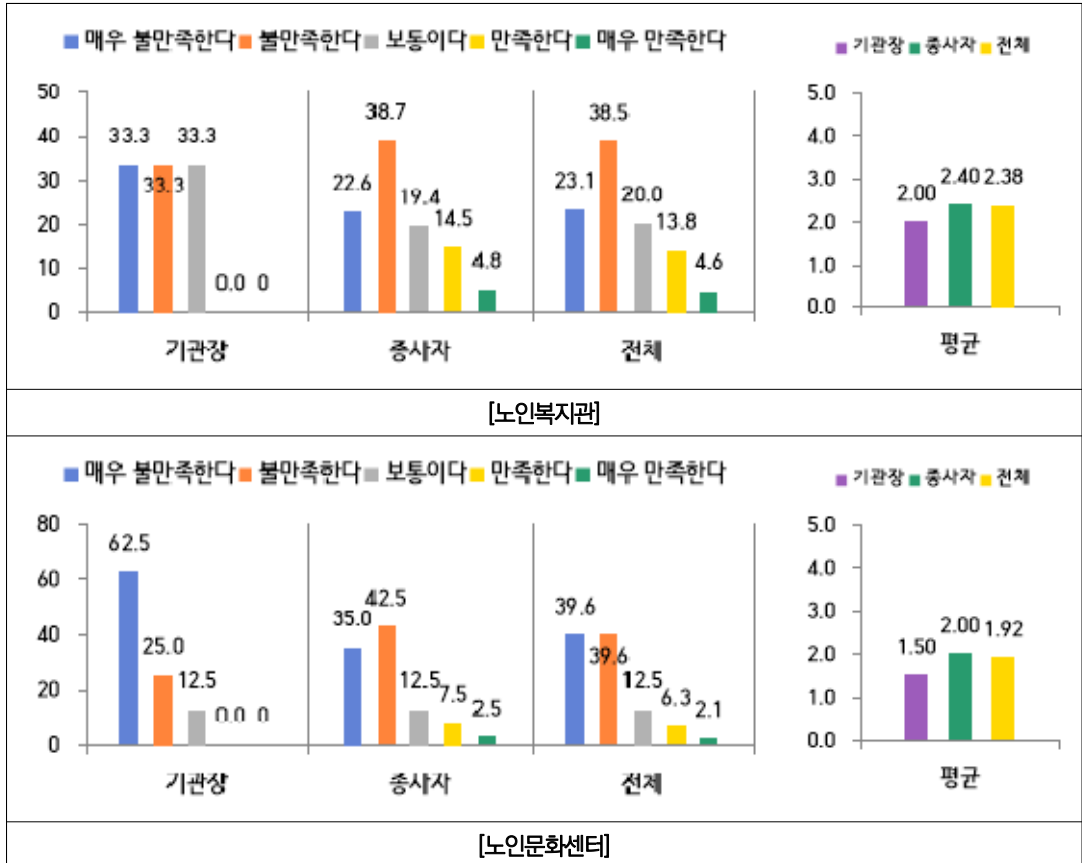
〈표 3-28〉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직무별)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노인복지관	기관장	1 (33.3)	1 (33.3)	1 (33.3)	0 (0.0)	0 (0.0)	3 (4.6)	2.00	1.00
	종사자	14 (22.6)	24 (38.7)	12 (19.4)	9 (14.5)	3 (4.8)	62 (95.4)	2.40	1.14
Pearson 카이제곱(χ^2)		1.025(.906)							
노인문화센터	기관장	5 (62.5)	2 (25.0)	1 (12.5)	0 (0.0)	0 (0.0)	8 (16.7)	1.50	0.76
	종사자	14 (35.0)	17 (42.5)	5 (12.5)	3 (7.5)	1 (2.5)	40 (83.3)	2.00	1.01
Pearson 카이제곱(χ^2)		2.589(.629)							

[그림 3-29]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직무별)

(단위 : %, 점)



(6)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의 경우, 1순위는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이 14명(2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13명(20.0%) > '상담 및 정보제공' 10명(15.4%) > '급식지원' 6명(9.2%) > '지역복지연계' 5명(7.7%) > '취미여가지원' 4명(6.2%) > '지역자원개발' 3명(4.6%), '고용 및 소득지원' 3명(4.6%)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명(1.5%), '가족기능지원' 1명(1.5%), '건강증진지원' 1명(1.5%), '기능회복지원' 1명(1.5%), '사회참여지원' 1명(1.5%), '노인권익증진' 1명(1.5%), '기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취미여가지원' 10명(15.4%)과 '지역복지연계'가 10명(1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

교육지원' 9명(13.8%) >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0.8%), '사회참여지원' 7명(10.8%)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6명(9.2%) > '지역자원개발' 5명(7.7%) > '급식지원' 3명(4.6%), '고용 및 소득지원' 3명(4.6%)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명(1.5%), '건강증진지원' 1명(1.5%), '기능회복지원' 1명(1.5%), '가족통합지원' 1명(1.5%), '노인권익증진'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급식지원'이 8명(1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0.8%),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7명(10.8%), '사회참여지원' 7명(10.8%) > '지역자원개발' 6명(9.2%) > '평생교육지원' 5명(7.7%)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명(6.2%), '취미여가지원' 4명(6.2%), '건강증진지원' 4명(6.2%), '지역복지연계' 4명(6.2%) > '노인권익증진' 3명(4.6%), '고용 및 소득지원' 3명(4.6%) > '가족기능지원' 2명(3.1%) > '가족통합지원' 1명(1.1%)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1순위는 '상담 및 정보제공'이 15명(3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14명(29.2%) > '지역복지연계' 4명(8.3%)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3명(6.3%), '급식지원' 3명(6.3%), '고용 및 소득지원' 3명(6.3%) > '사회참여지원' 2명(4.2%)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명(2.1%), '기능회복지원' 1명(2.1%), '취미여가지원' 1명(2.1%),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사회참여지원'이 8명(1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7명(14.6%) > '상담 및 정보제공' 6명(12.5%)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10.4%), '급식지원' 5명(10.4%), '지역복지연계' 5명(10.4%) > '취미여가지원' 3명(6.3%) > '노인권익증진' 2명(4.2%)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명(2.1%), '지역자원개발' 1명(2.1%), '고용 및 소득지원' 1명(2.1%), '건강증진지원' 1명(2.1%), '기능회복지원' 1명(2.1%), '가족통합지원' 1명(2.1%),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사회참여지원'이 9명(1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10.4%), '지역자원개발' 5명(10.4%), '평생교육지원' 5명(10.4%) > '상담 및 정보제공' 4명(8.3%) > '건강증진지원' 3명(6.3%), '기능회복지원' 3명(6.3%), '급식지원' 3명(6.3%), '취미여가지원' 3명(6.3%) > '고용 및 소득지원' 2명(4.2%), '지역복지연계' 2명(4.2%)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명(2.1%), '노인권익증진' 1명(2.1%), '가족통합지원' 1명(2.1%),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지원'이 62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61점(2순위), '상담 및 정보제공' 51점(3순위), '지역복지연계' 39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지원'이 61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사회참여지원' 31점(3순위),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지역복지연계' 10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3-29, 그림 3-30, 31)

〈표 3-29〉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전체)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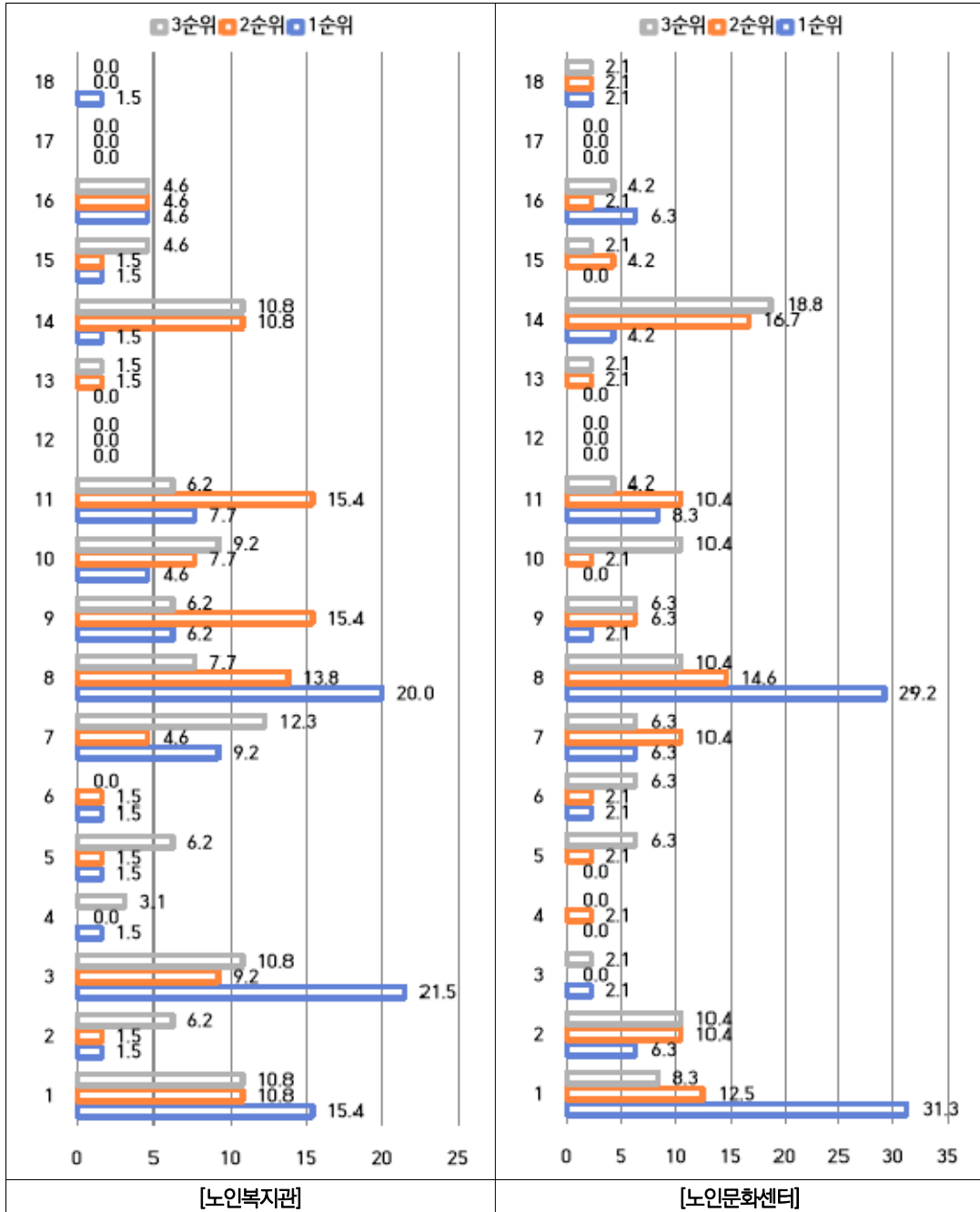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10(15.4)	15(31.3)	7(10.8)	6(12.5)	7(10.8)	4(8.3)	24(12.3)	25(17.4)	51	61	3	1
2	1(1.5)	3(6.3)	1(1.5)	5(10.4)	4(6.2)	5(10.4)	6(3.1)	13(9.0)	9	24	10	4
3	14(21.5)	1(2.1)	6(9.2)	0(0.0)	7(10.8)	1(2.1)	27(13.8)	2(1.4)	61	4	2	14
4	1(1.5)	0(0.0)	0(0.0)	1(2.1)	2(3.1)	0(0.0)	3(1.5)	1(0.7)	5	2	13	16
5	1(1.5)	0(0.0)	1(1.5)	1(2.1)	4(6.2)	3(6.3)	6(3.1)	4(2.8)	9	5	10	12
6	1(1.5)	1(2.1)	1(1.5)	1(2.1)	0(0.0)	3(6.3)	2(1.0)	5(3.5)	5	8	13	9
7	6(9.2)	3(6.3)	3(4.6)	5(10.4)	8(12.3)	3(6.3)	17(8.7)	11(7.6)	32	22	6	6
8	13(20.0)	14(29.2)	9(13.8)	7(14.6)	5(7.7)	5(10.4)	27(13.8)	26(18.1)	62	61	1	1
9	4(6.2)	1(2.1)	10(15.4)	3(6.3)	4(6.2)	3(6.3)	18(9.2)	7(4.9)	36	12	5	8
10	3(4.6)	0(0.0)	5(7.7)	1(2.1)	6(9.2)	5(10.4)	14(7.2)	6(4.2)	25	7	7	10
11	5(7.7)	4(8.3)	10(15.4)	5(10.4)	4(6.2)	2(4.2)	19(9.7)	11(7.6)	39	24	4	4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13	0(0.0)	0(0.0)	1(1.5)	1(2.1)	1(1.5)	1(2.1)	2(1.0)	2(1.4)	3	3	15	15
14	1(1.5)	2(4.2)	7(10.8)	8(16.7)	7(10.8)	9(18.8)	15(7.7)	19(13.2)	24	31	8	3
15	1(1.5)	0(0.0)	1(1.5)	2(4.2)	3(4.6)	1(2.1)	5(2.6)	3(2.1)	8	5	12	12
16	3(4.6)	3(6.3)	3(4.6)	1(2.1)	3(4.6)	2(4.2)	9(4.6)	6(4.2)	18	13	9	7
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18 ⁵⁾	1(1.5)	1(2.1)	0(0.0)	1(2.1)	0(0.0)	1(2.1)	1(0.5)	3(2.1)	3	6	15	11
합계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195 (100.0)	144 (100.0)	-	-	-	-

주)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5) 기타(직접 작성)는 부장직(1), 조리사(1), 회계직원 충원(1)으로 응답함.

[그림 3-30]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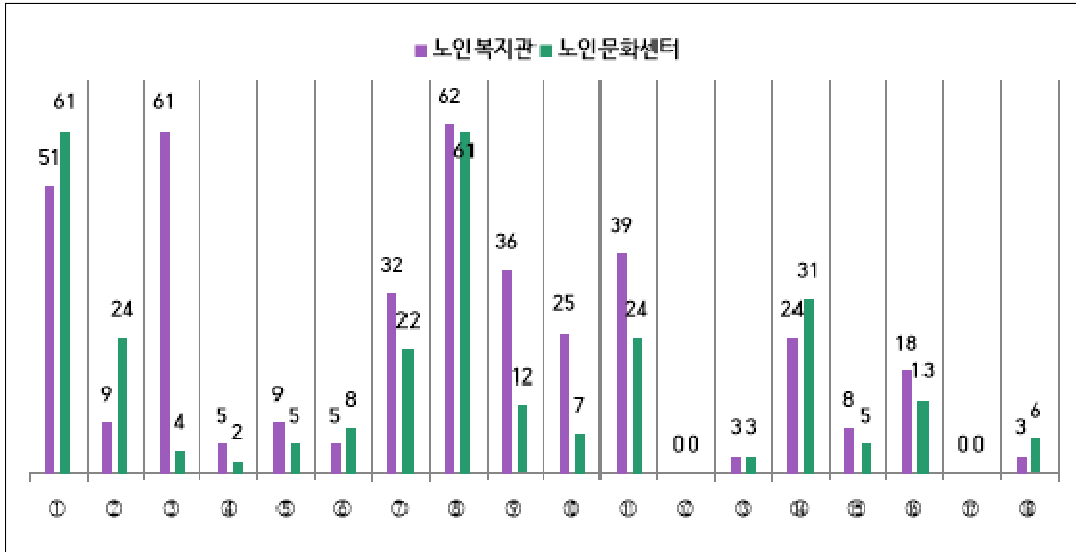
(단위 : %)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그림 3-31]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전체/가중점수)

(단위: 점)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 직무별(노인복지관)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상담 및 정보제공'과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이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평생교육지원', '지역복지연계'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고용 및 소득지원',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가족기능지원'과 '평생교육지원', '지역복지연계'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고용 및 소득지원',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과 '평생교육지원'이 13명(2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9명(14.5%) > '급식지원' 6명(9.7%) > '지역복지연계' 5명(8.1%) > '취미여가지원' 4명(6.5%) > '지역자원개발' 3명(4.8%) > '고용 및 소득지원' 2명(3.2%)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명(1.6%), '가족기능지원' 1명(1.6%), '건강증진지원' 1명(1.6%), '기능회복지원' 1명(1.6%), '사회참여지원' 1명(1.6%), '노인권익증진', '기타'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취미여가지원'이 10명(1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복지연계' 9명(14.5%) > '평생교육지원' 8명(12.9%) >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1.3%), '사회참여지원' 7명(11.3%)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6명(9.7%) > '지역자원개발' 5명(8.1%) > '고용 및 소득지원' 3명(4.8%) > '건강증진지원' 1명(1.6%), '기능회복지원' 1명(1.6%), '가족통합지원' 1명(1.6%), '노인권익증진'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가족기능지원', '급식지원', '주거지원',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급식지원'이 8명(1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1.3%),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7명(11.3%), '사회참여지원' 7명(11.3%) > '지역자원개발' 6명(9.7%)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명(6.5%), '건강증진지원' 4명(6.5%), '평생교육지원' 4명(6.5%), '취미여가지원' 4명(6.5%) > '지역복지연계' 3명(4.8%), '노인권익증진' 3명(4.8%), '고용 및 소득지원' 3명(4.8%) > '가족기능지원' 1명(1.6%), '가족통합지원'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회복지원', '주거지원',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과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평생교육지원', '지역복지연계', '고용 및 소득지원'이 3점으로 1순위로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의 경우, '평생교육지원'이 59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58점(2순위), '상담 및 정보제공' 48점(3순위), '취미여가지원' 36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3-30, 그림 3-32, 33)

〈표 3-30〉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복지관)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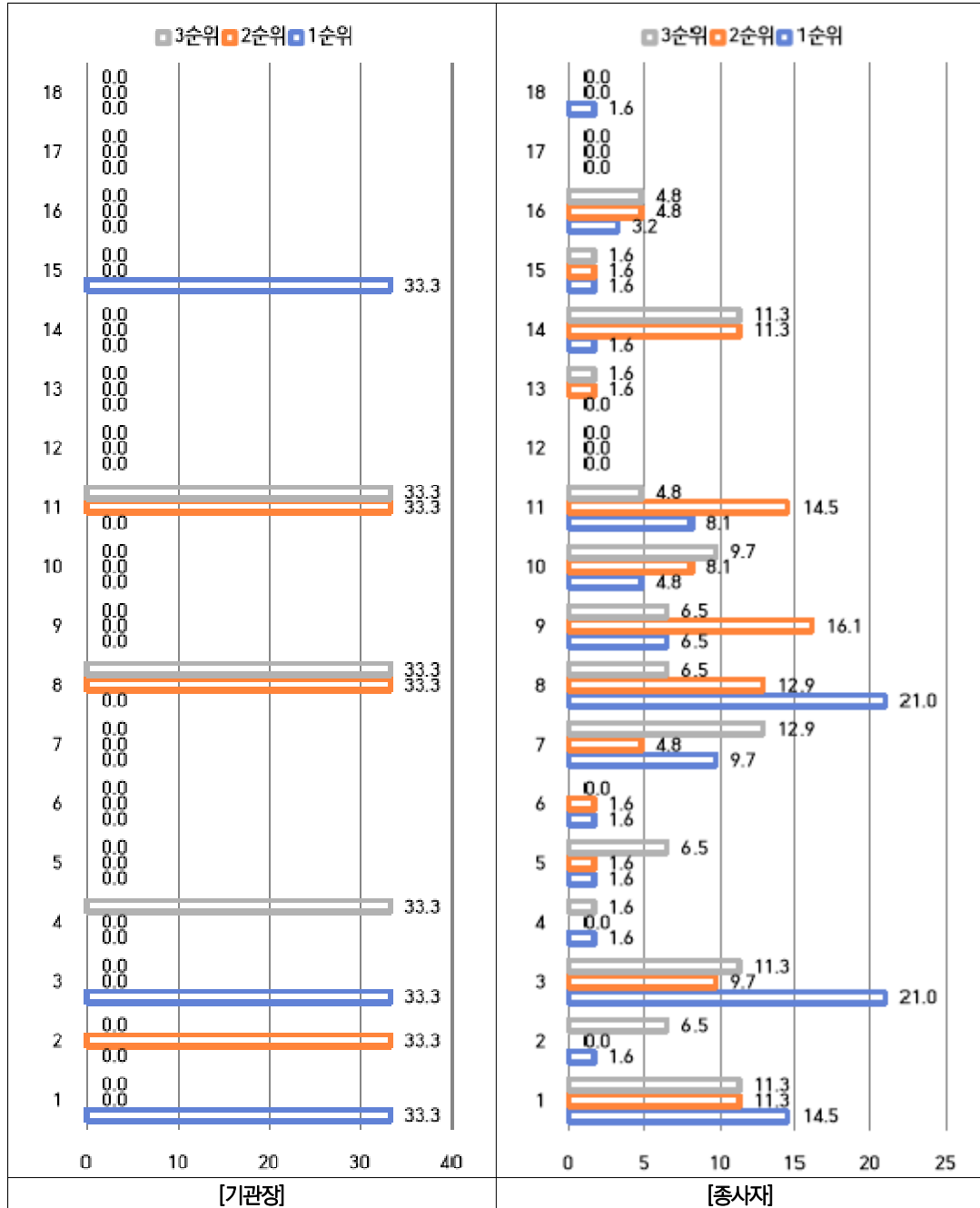
구분	노인복지관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1(33.3)	9(14.5)	0(0.0)	7(11.3)	0(0.0)	7(11.3)	1(11.1)	23(12.4)	3	48	1	3
2	0(0.0)	1(1.6)	1(33.3)	0(0.0)	0(0.0)	4(6.5)	1(11.1)	5(2.7)	2	7	6	12
3	1(33.3)	13(21.0)	0(0.0)	6(9.7)	0(0.0)	7(11.3)	1(11.1)	26(14.0)	3	58	1	2
4	0(0.0)	1(1.6)	0(0.0)	0(0.0)	1(33.3)	1(1.6)	1(11.1)	2(1.1)	1	4	7	14
5	0(0.0)	1(1.6)	0(0.0)	1(1.6)	0(0.0)	4(6.5)	0(0.0)	6(3.2)	0	9	8	10
6	0(0.0)	1(1.6)	0(0.0)	1(1.6)	0(0.0)	0(0.0)	0(0.0)	2(1.1)	0	5	8	13
7	0(0.0)	6(9.7)	0(0.0)	3(4.8)	0(0.0)	8(12.9)	0(0.0)	17(9.1)	0	32	8	6
8	0(0.0)	13(21.0)	1(33.3)	8(12.9)	1(33.3)	4(6.5)	2(22.2)	25(13.4)	3	59	1	1
9	0(0.0)	4(6.5)	0(0.0)	10(16.1)	0(0.0)	4(6.5)	0(0.0)	18(9.7)	0	36	8	4
10	0(0.0)	3(4.8)	0(0.0)	5(8.1)	0(0.0)	6(9.7)	0(0.0)	14(7.5)	0	25	8	7
11	0(0.0)	5(8.1)	1(33.3)	9(14.5)	1(33.3)	3(4.8)	2(22.2)	17(9.1)	3	36	1	4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8	17
13	0(0.0)	0(0.0)	0(0.0)	1(1.6)	0(0.0)	1(1.6)	0(0.0)	2(1.1)	0	3	8	15
14	0(0.0)	1(1.6)	0(0.0)	7(11.3)	0(0.0)	7(11.3)	0(0.0)	15(8.1)	0	24	8	8
15	0(0.0)	1(1.6)	0(0.0)	1(1.6)	0(0.0)	3(4.8)	0(0.0)	5(2.7)	0	8	8	11
16	1(33.3)	2(3.2)	0(0.0)	3(4.8)	0(0.0)	3(4.8)	1(11.1)	8(4.3)	3	15	1	9
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8	17
18 ⁶⁾	0(0.0)	1(1.6)	0(0.0)	0(0.0)	0(0.0)	0(0.0)	0(0.0)	1(0.5)	0	3	8	15
합계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9 (100.0)	186 (100.0)	-	-	-	-

주)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영양서비스, ⑱ 기타

6) 기타(직접 작성)는 사례관리전담(1)으로 응답함.

[그림 3-32]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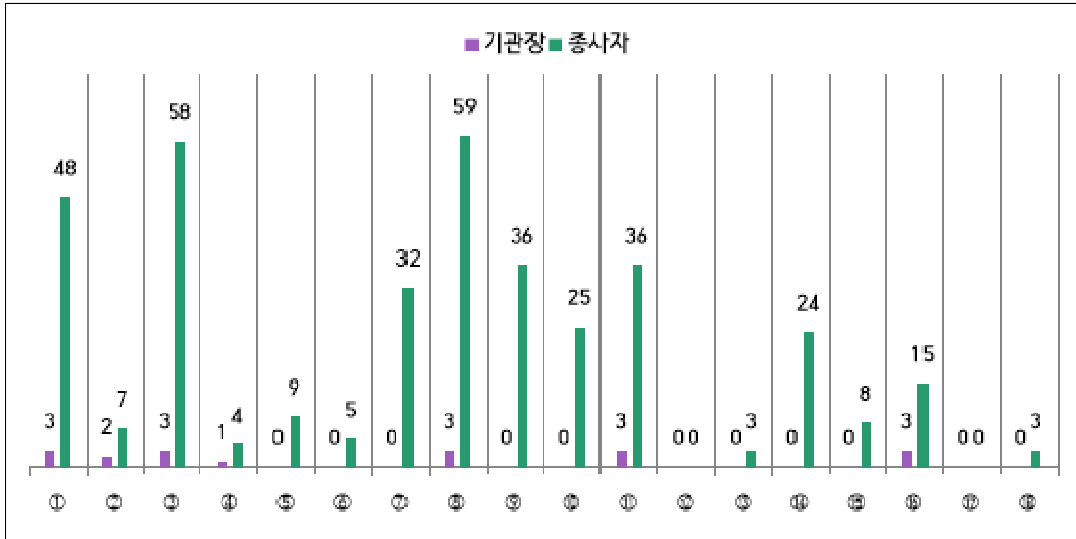
(단위 : %)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그림 3-33]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노인복지관/가중점수)

(단위: 점)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상담 및 정보제공’이 4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3명(37.5%)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취미여가 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 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평생교육지원’과 ‘지역복지연계’가 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 생활지원’ 1명(12.5%), ‘기능회복지원’ 1명(12.5%), ‘취미여가지원’ 1명(12.5%), ‘사회참 여지원’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급식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지역자원개발’, ‘고용 및 소득지원’, ‘주거지원’, ‘가족 통합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지역자 원개발’과 ‘사회참여지원’이 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능회복지원’ 1명 (12.5%), ‘급식지원’ 1명(12.5%), ‘평생교육지원’ 1명(12.5%), ‘취미여가지원’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및 정보제공’,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지역복지연계’, ‘고용 및 소득지원’,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지원’이 11명(2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복지연계’ 4명(10.0%) > ‘급식지원’ 3명(7.5%), ‘고용 및 소득지원’ 3명(7.5%)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2명(5.0%), ‘사회참여지원’ 2명(5.0%)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명(2.5%), ‘기능회복지원’ 1명(2.5%), ‘취미여가지원’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자원개발’,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노인권익증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사회참여지원’이 7명(1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6명(15.0%) > ‘급식지원’ 5명(12.5%), ‘평생교육지원’ 5명(12.5%)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명(10.0%) > ‘취미여가지원’ 2명(5.0%), ‘노인권익증진’ 2명(5.0%) > ‘가족기능지원’ 1명(2.5%), ‘건강증진지원’ 1명(2.5%), ‘지역자원개발’ 1명(2.5%), ‘가족통합지원’ 1명(2.5%), ‘고용 및 소득지원’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복지연계’,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기능회복지원’, ‘주거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사회참여지원’이 7명(1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12.5%) > ‘건강증진지원’ 3명(7.5%), ‘지역자원개발’ 3명(7.5%) > ‘상담 및 정보제공’ 4명(10.0%), ‘평생교육지원’ 4명(10.0%) > ‘기능회복지원’ 2명(5.0%), ‘급식지원’ 2명(5.0%), ‘취미여가지원’ 2명(5.0%), ‘지역복지연계’ 2명(5.0%)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명(2.5%), ‘가족통합지원’ 1명(2.5%), ‘노인권익증진’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 및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 ‘주거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평생교육지원’이 14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12점(2순위),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점(3순위), ‘지역복지연계’ 4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종사자의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이 49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47점(2순위), ‘사회참여지원’ 27점(3순위), ‘급식지원’ 2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표 3-31, 그림 3-34, 35)

〈표 3-31〉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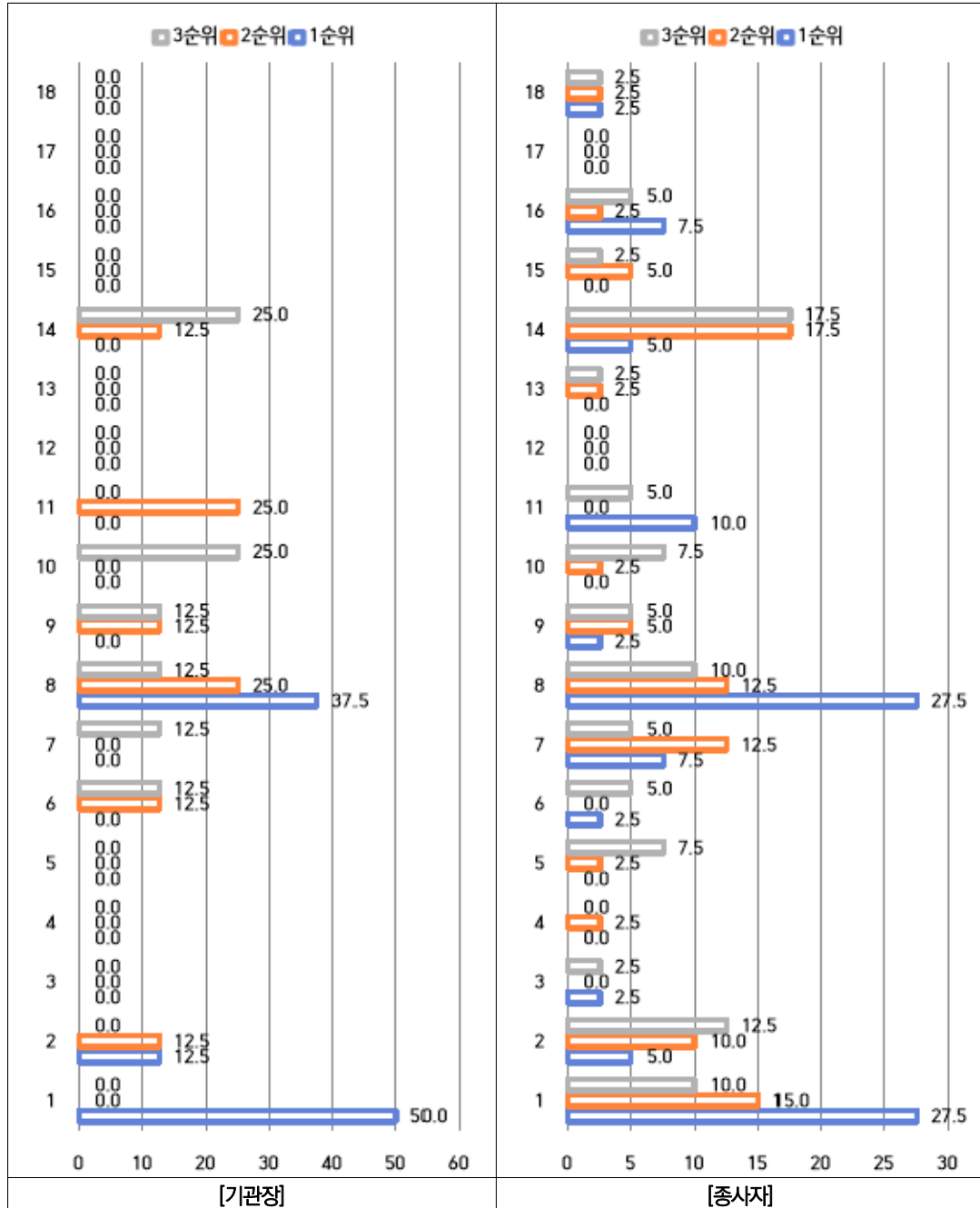
구분	노인문화센터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4(50.0)	11(27.5)	0(0.0)	6(15.0)	0(0.0)	4(10.0)	4(16.7)	21(17.5)	12	49	2	1
2	1(12.5)	2(5.0)	1(12.5)	4(10.0)	0(0.0)	5(12.5)	2(8.3)	11(9.2)	5	19	3	5
3	0(0.0)	1(2.5)	0(0.0)	0(0.0)	0(0.0)	1(2.5)	0(0.0)	2(1.7)	0	4	10	14
4	0(0.0)	0(0.0)	0(0.0)	1(2.5)	0(0.0)	0(0.0)	0(0.0)	1(0.8)	0	2	10	16
5	0(0.0)	0(0.0)	0(0.0)	1(2.5)	0(0.0)	3(7.5)	0(0.0)	4(3.3)	0	5	10	10
6	0(0.0)	1(2.5)	1(12.5)	0(0.0)	1(12.5)	2(5.0)	2(8.3)	3(2.5)	3	5	6	10
7	0(0.0)	3(7.5)	0(0.0)	5(12.5)	1(12.5)	2(5.0)	1(4.2)	10(8.3)	1	21	9	4
8	3(37.5)	11(27.5)	2(25.0)	5(12.5)	1(12.5)	4(10.0)	6(25.0)	20(16.7)	14	47	1	2
9	0(0.0)	1(2.5)	1(12.5)	2(5.0)	1(12.5)	2(5.0)	2(8.3)	5(4.2)	3	9	6	8
10	0(0.0)	0(0.0)	0(0.0)	1(2.5)	2(25.0)	3(7.5)	2(8.3)	4(3.3)	2	5	8	10
11	0(0.0)	4(10.0)	2(25.0)	0(0.0)	0(0.0)	2(5.0)	2(8.3)	9(7.5)	4	14	4	6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10	17
13	0(0.0)	0(0.0)	0(0.0)	1(2.5)	0(0.0)	1(2.5)	0(0.0)	2(1.7)	0	3	10	15
14	0(0.0)	2(5.0)	1(12.5)	7(17.5)	2(25.0)	7(17.5)	3(12.5)	16(13.3)	4	27	4	3
15	0(0.0)	0(0.0)	0(0.0)	2(5.0)	0(0.0)	1(2.5)	0(0.0)	3(2.5)	0	5	10	10
16	0(0.0)	3(7.5)	0(0.0)	1(2.5)	0(0.0)	2(5.0)	0(0.0)	6(5.0)	0	13	10	7
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10	17
18 ⁷⁾	0(0.0)	1(2.5)	0(0.0)	1(2.5)	0(0.0)	1(2.5)	0(0.0)	3(2.5)	0	6	10	9
합계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24 (100.0)	120 (100.0)	-	-	-	-

주)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7) 기타(직접 작성)는 부장직(1), 조리사(1), 회계직원 충원(1)으로 응답함.

[그림 3-34]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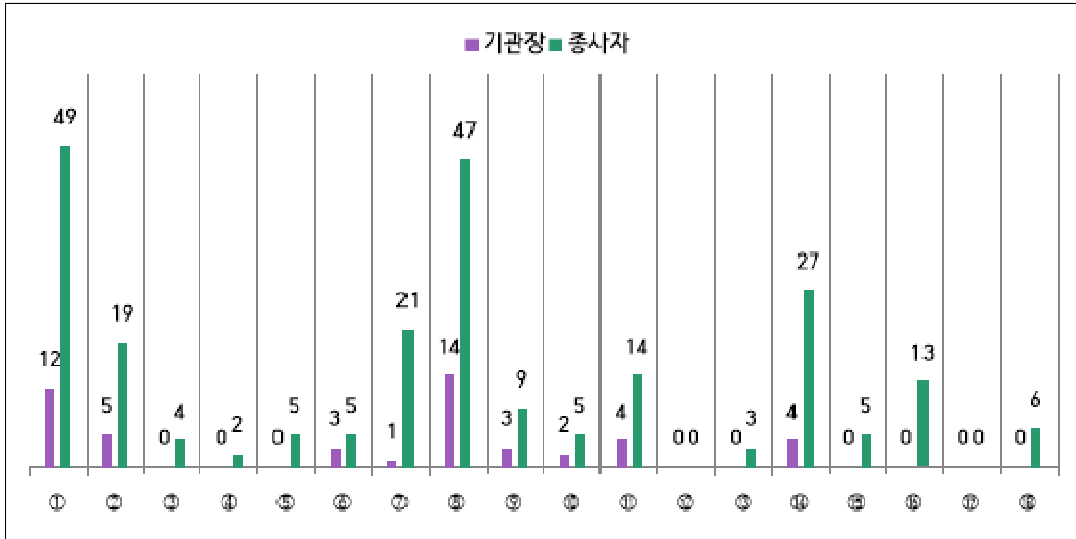
(단위 : %)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그림 3-35]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영역(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단위: 점)



① 상담 및 정보제공,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⑦ 급식지원, ⑧ 평생교육지원, ⑨ 취미여가지원, ⑩ 지역자원개발, ⑪ 지역복지연계, ⑫ 주거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⑭ 사회참여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⑯ 고용 및 소득지원, ⑰ 요양서비스, ⑱ 기타

(7) 소속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대하고 싶은 사업

○ 노인복지관의 경우,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이 11명(1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8명(12.3%), '평생교육지원' 8명(12.3%)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7.7%), '취미여가지원' 5명(7.7%), '지역복지연계' 5명(7.7%) > '지역자원개발' 4명(6.2%), '노인권익증진' 4명(6.2%) > '건강증진지원' 3명(4.6%), '사회참여지원' 3명(4.6%), '없음' 3명(4.6%) > '요양서비스' 2명(3.1%) > '급식지원' 1명(1.5%), '고용 및 소득지원' 1명(1.5%), '가족기능지원' 1명(1.5%), '기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회복지원'과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은 0명(0.0%)으로 응답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평생교육지원'이 1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5명(10.4%),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10.4%), '사회참여지원' 5명(10.4%) > '지역복지연계' 4명(8.3%) > '고용 및 소득지원' 3명(6.3%)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명(4.2%), '취미여가지원' 2명(4.2%), '기타' 2명(4.2%), '지역자원개발' 2명(4.2%), '건강

증진지원' 2명(4.2%) > '노인권익증진' 1명(2.1%), '없음' 1명(2.1%), '급식지원' 1명(2.1%), '기능회복지원'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지원'과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5.434$, $p>.05$)(표 3-32, 그림 3-36)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 노인복지관의 경우, '없음'이 17명(2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및 소득지원' 8명(12.3%) > '기능회복지원' 7명(10.8%) > '요양서비스' 5명(7.7%) > '가족기능지원' 4명(6.2%), '노인권익증진' 4명(6.2%) > '취미여가지원' 3명(4.6%) > '상담 및 정보제공' 2명(3.1%),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2명(3.1%),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명(3.1%), '지역자원개발' 2명(3.1%), '주거지원' 2명(3.1%), '가족통합지원' 2명(3.1%), '기타' 2명(3.1%) > '건강증진지원' 1명(1.5%), '급식지원' 1명(1.5%), '사회참여지원'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지원'과 '지역복지연계'는 0명(0.0%)으로 응답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없음'이 1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및 소득지원' 10명(20.8%) > '기능회복지원' 4명(8.3%), '가족통합지원' 4명(8.3%) > '지역복지연계' 3명(6.3%), '요양서비스' 3명(6.3%) > '상담 및 정보제공' 2명(4.2%),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명(4.2%), '가족기능지원' 2명(4.2%), '주거지원' 2명(4.2%), '노인권익증진' 2명(4.2%) > '건강증진지원' 1명(2.1%), '사회참여지원'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5.189$, $p>.05$)(표 3-32, 그림 3-36, 37)

〈표 3-32〉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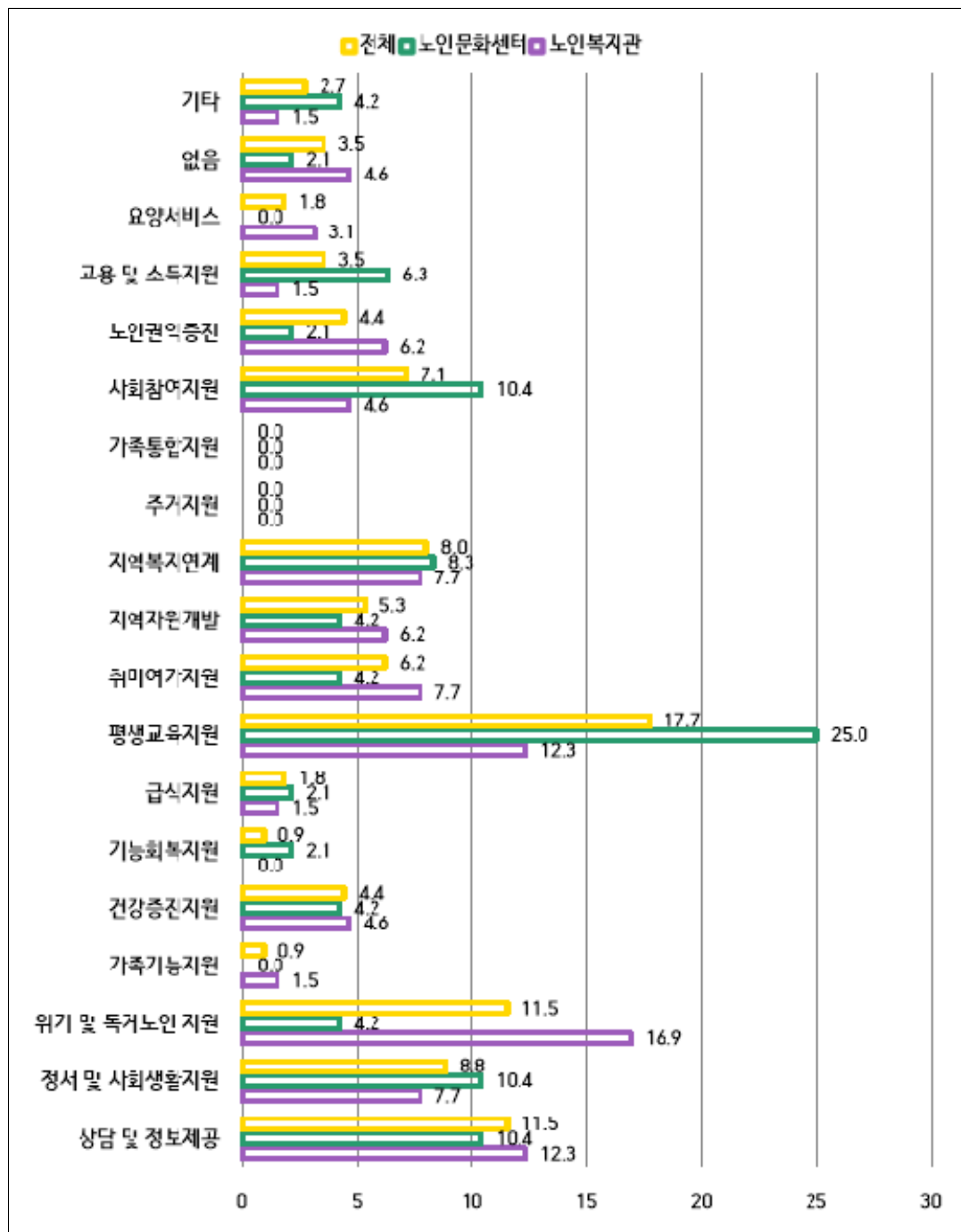
(단위: 점, %)

사업영역 구분		확대하고 싶은 사업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8(12.3)	5(10.4)	13(11.5)	2(3.1)	2(4.2)	4(3.5)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7.7)	5(10.4)	10(8.8)	2(3.1)	0(0.0)	2(1.8)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11(16.9)	2(4.2)	13(11.5)	2(3.1)	2(4.2)	4(3.5)
	가족기능지원	1(1.5)	0(0.0)	1(0.9)	4(6.2)	2(4.2)	6(5.3)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3(4.6)	2(4.2)	5(4.4)	1(1.5)	1(2.1)	2(1.8)
	기능회복지원	0(0.0)	1(2.1)	1(0.9)	7(10.8)	4(8.3)	11(9.7)
	급식지원	1(1.5)	1(2.1)	2(1.8)	1(1.5)	0(0.0)	1(0.9)
노년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8(12.3)	12(25.0)	20(17.7)	0(0.0)	0(0.0)	0(0.0)
	취미여가지원	5(7.7)	2(4.2)	7(6.2)	3(4.6)	0(0.0)	3(2.7)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4(6.2)	2(4.2)	6(5.3)	2(3.1)	0(0.0)	2(1.8)
	지역복지연계	5(7.7)	4(8.3)	9(8.0)	0(0.0)	3(6.3)	3(2.7)
	주거지원	0(0.0)	0(0.0)	0(0.0)	2(3.1)	2(4.2)	4(3.5)
	가족통합지원	0(0.0)	0(0.0)	0(0.0)	2(3.1)	4(8.3)	6(5.3)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3(4.6)	5(10.4)	8(7.1)	1(1.5)	1(2.1)	2(1.8)
	노인권익증진	4(6.2)	1(2.1)	5(4.4)	4(6.2)	2(4.2)	6(5.3)
	고용 및 소득지원	1(1.5)	3(6.3)	4(3.5)	8(12.3)	10(20.8)	18(15.9)
돌봄	요양서비스	2(3.1)	0(0.0)	2(1.8)	5(7.7)	3(6.3)	8(7.1)
없음		3(4.6)	1(2.1)	4(3.5)	17(26.2)	12(25.0)	29(25.7)
기타 ⁸⁾		1(1.5)	2(4.2)	3(2.7)	2(3.1)	0(0.0)	2(1.8)
합계		65 (57.5)	48 (42.5)	113 (100.0)	65 (57.5)	48 (42.5)	113 (100.0)
Pearson 카이제곱(χ^2)		$\chi^2=15.434(df=16, p=.423)$			$\chi^2=15.189(df=17, p=.582)$		

8) 기타(직접 작성)에서 '없음'의 응답 수가 많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함. 기타 내용을 보면, '확대하고 싶은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관은 정보화사업(1), 노인문화센터는 기능회복 등 건강보건의사업(1), 인력지원이 되기 전까지 확대 어려움(1)으로 응답하였고,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관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1), 지역특화사업(1)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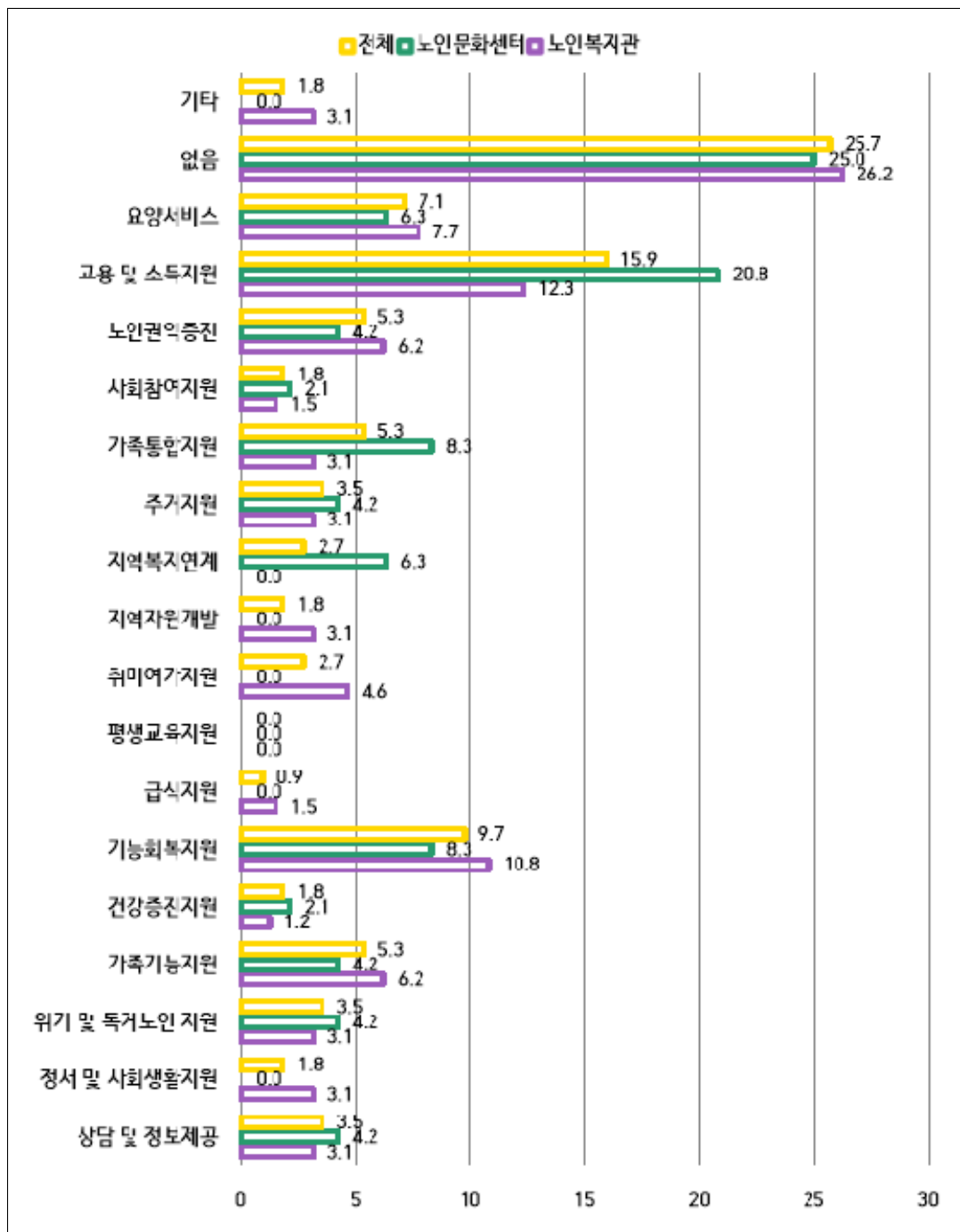
[그림 3-36] 확대하고 싶은 사업(전체)

(단위: %)



[그림 3-37]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전체)

(단위 : %)



□ 직무별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 기관장의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과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기타’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요양서비스’, ‘없음’은 0명(0.0%)으로 응답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이 10명(1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8명(12.9%) >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1.3%)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8.1%), ‘취미여가지원’ 5명(8.1%), ‘지역복지연계’ 5명(8.1%) > ‘지역자원개발’ 4명(6.5%), ‘노인권익증진’ 4명(6.5%) > ‘건강증진지원’ 3명(4.8%), ‘사회참여지원’ 3명(4.8%), ‘없음’ 3명(4.8%) > ‘요양서비스’ 2명(3.2%) > ‘가족기능지원’ 1명(1.6%), ‘급식지원’ 1명(1.6%), ‘고용 및 소득지원’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회복지원’과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직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24.474$, $p>.05$)(표 3-33, 그림 3-38, 39)

□ 직무별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 기관장의 경우, ‘없음’이 2명(6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및 소득지원’ 1명(33.3%)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및 정보제공’과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이 10명(1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8명(12.9%) > ‘상담 및 정보제공’ 7명(11.3%)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5명(8.1%), ‘취미여가지원’ 5명(8.1%), ‘지역복지연계’ 5명(8.1%) > ‘지역자원개발’ 4명(6.5%), ‘노인권익증진’ 4명(6.5%) > ‘건강증진지원’ 3명(4.8%), ‘사회참여지원’ 3명(4.8%), ‘없음’ 3명(4.8%) > ‘요양서비스’ 2명(3.2%) > ‘가족기능지원’ 1명(1.6%), ‘급식지원’

1명(1.6%), ‘고용 및 소득지원’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기능회복지원’과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직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5.039$, $p>.05$)(표 3-33, 그림 3-38, 39)

〈표 3-33〉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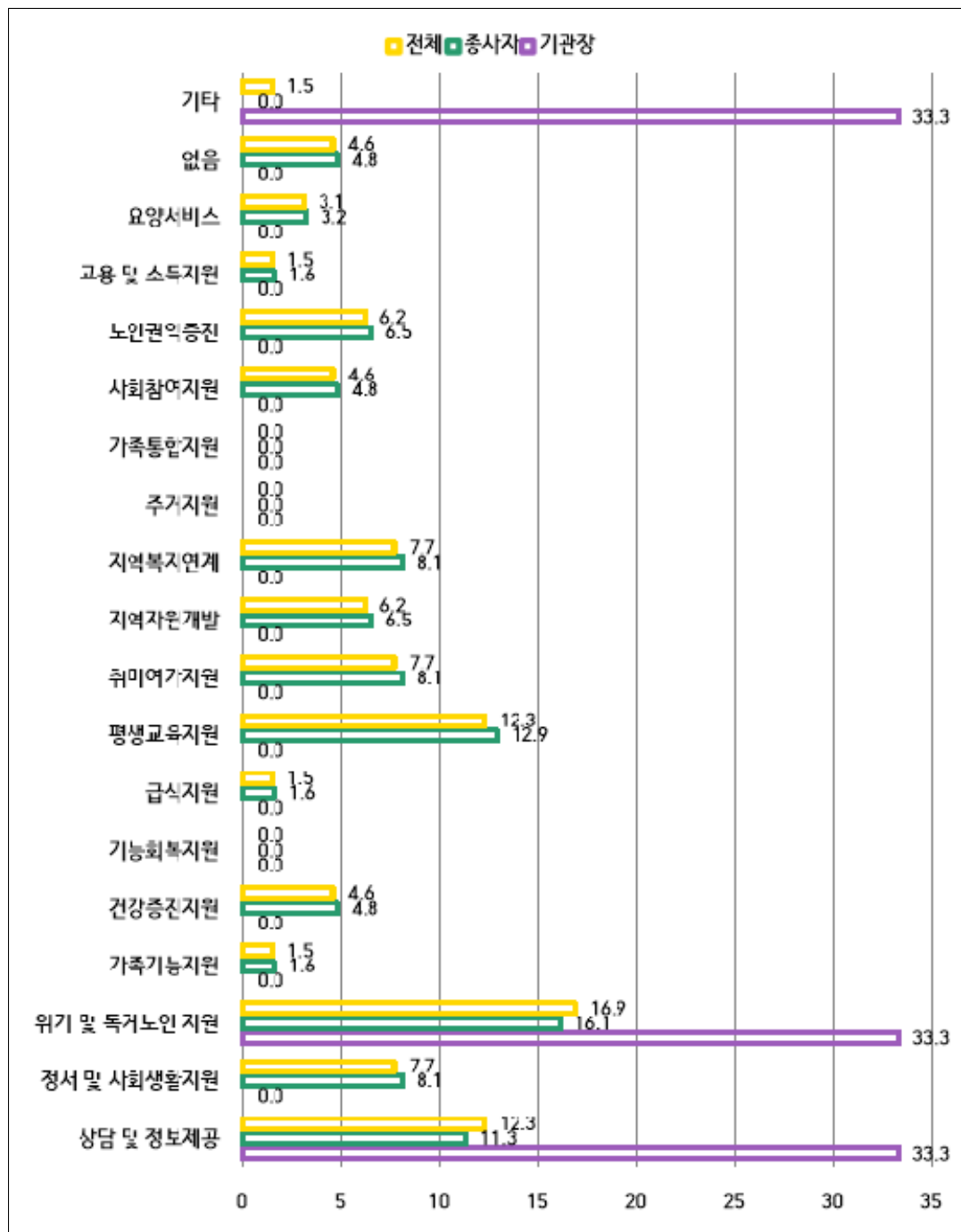
(단위: 점, %)

사업영역 구분		확대하고 싶은 사업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기관장	종사자	전체	기관장	종사자	전체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1(33.3)	7(11.3)	8(12.3)	0(0.0)	2(3.2)	2(3.1)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0(0.0)	5(8.1)	5(7.7)	0(0.0)	2(3.2)	2(3.1)
사례관리	위키 및 독거노인 지원	1(33.3)	10(16.1)	11(16.9)	0(0.0)	2(3.2)	2(3.1)
	가족기능지원	0(0.0)	1(1.6)	1(1.5)	0(0.0)	4(6.5)	4(6.2)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0(0.0)	3(4.8)	3(4.6)	0(0.0)	1(1.6)	1(1.5)
	기능회복지원	0(0.0)	0(0.0)	0(0.0)	0(0.0)	7(11.3)	7(10.8)
	급식지원	0(0.0)	1(1.6)	1(1.5)	0(0.0)	1(1.6)	1(1.5)
노년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0(0.0)	8(12.9)	8(12.3)	0(0.0)	0(0.0)	0(0.0)
	취미여가지원	0(0.0)	5(8.1)	5(7.7)	0(0.0)	3(4.8)	3(4.6)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0(0.0)	4(6.5)	4(6.2)	0(0.0)	2(3.2)	2(3.1)
	지역복지연계	0(0.0)	5(8.1)	5(7.7)	0(0.0)	0(0.0)	0(0.0)
	주거지원	0(0.0)	0(0.0)	0(0.0)	0(0.0)	2(3.2)	2(3.1)
	가족통합지원	0(0.0)	0(0.0)	0(0.0)	0(0.0)	2(3.2)	2(3.1)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0(0.0)	3(4.8)	3(4.6)	0(0.0)	1(1.6)	1(1.5)
	노인권익증진	0(0.0)	4(6.5)	4(6.2)	0(0.0)	4(6.5)	4(6.2)
	고용 및 소득지원	0(0.0)	1(1.6)	1(1.5)	1(33.3)	7(11.3)	8(12.3)
돌봄	요양서비스	0(0.0)	2(3.2)	2(3.1)	0(0.0)	5(8.1)	5(7.7)
없음		0(0.0)	3(4.8)	3(4.6)	2(66.7)	15(24.2)	17(26.2)
기타 ⁹⁾		1(33.3)	0(0.0)	1(1.5)	0(0.0)	2(3.2)	2(3.1)
합계		3 (4.6)	62 (95.4)	65 (100.0)	3 (4.6)	62 (95.4)	65 (100.0)
Pearson 카이제곱(χ^2)		$\chi^2=24.474(df=15, p=.057)$			$\chi^2=5.039(df=16, p=.996)$		

9) 기타(직접 작성)에서 ‘없음’의 응답 수가 많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함. 기타 내용을 보면, ‘확대하고 싶은 사업’의 경우, 정보화사업(1)으로 응답하였고,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의 경우,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1), 지역특화사업(1)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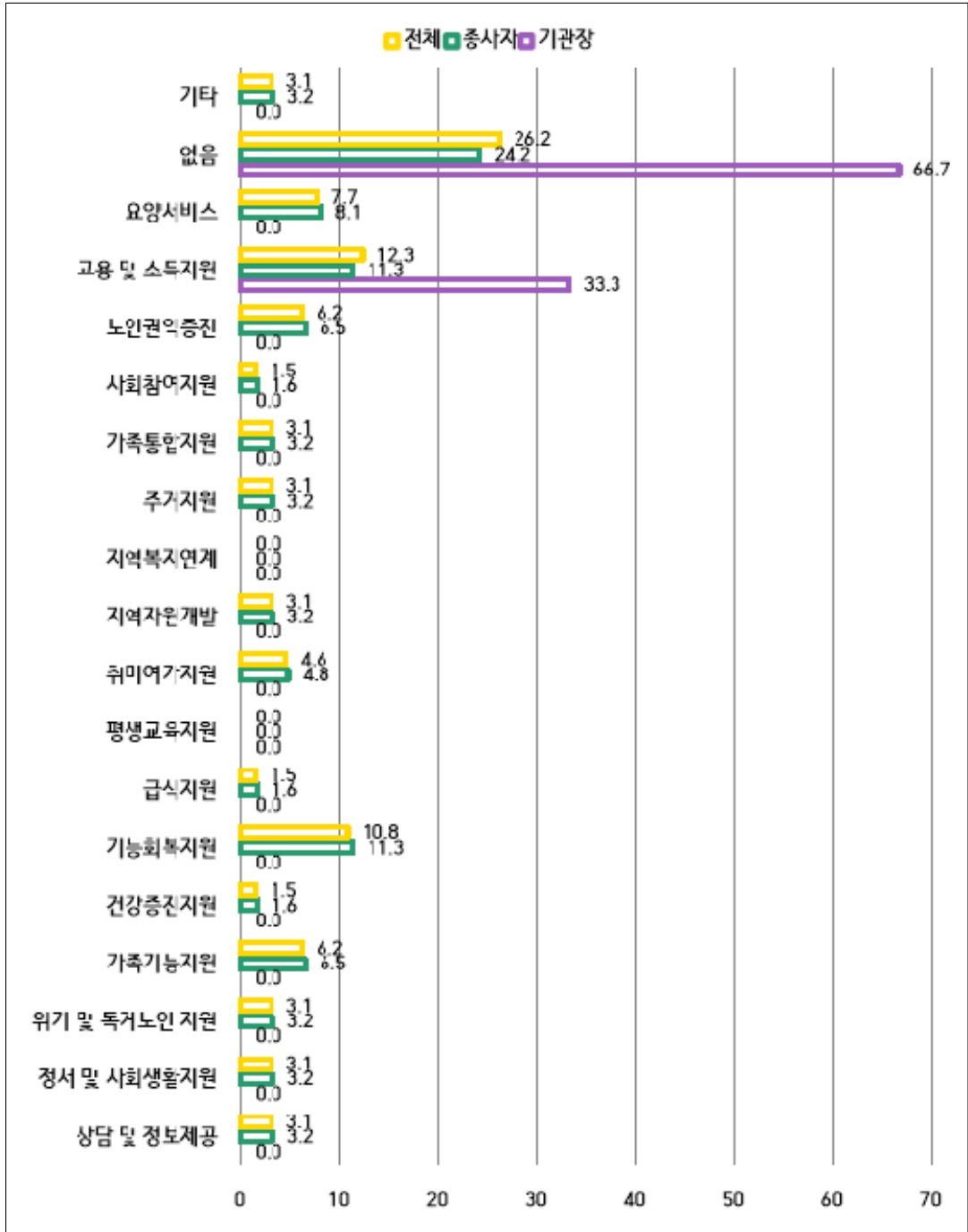
[그림 3-38]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단위: %)



[그림 3-39]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복지관)

(단위 : %)



□ 직무별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 기관장의 경우,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평생교육지원’이 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1명(12.5%), ‘급식지원’ 1명(12.5%), ‘지역자원개발’ 1명(12.5%), ‘기타’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과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요양서비스’, ‘없음’은 0명(0.0%)으로 응답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평생교육지원’이 10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참여지원’ 5명(12.5%) > ‘상담 및 정보제공’ 4명(10.0%), ‘지역복지연계’ 4명(10.0%),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3명(7.5%), ‘고용 및 소득지원’ 3명(7.5%)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명(5.0%), ‘건강증진지원’ 2명(5.0%), ‘취미여가지원’ 2명(5.0%), > ‘기능회복지원’ 1명(2.5%), ‘지역자원개발’ 1명(2.5%), ‘노인권익증진’ 1명(2.5%), ‘없음’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급식지원’과 ‘가족기능지원’, ‘주거지원’, ‘가족통합지원’, ‘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직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4.400$, $p>.05$)(표 3-34, 그림 3-40, 41)

□ 직무별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 관장의 경우, ‘고용 및 소득지원’이 3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없음’ 2명(25.0%), ‘주거지원’ 2명(25.0%) > ‘기능회복지원’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및 정보제공’과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가족통합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없음’이 10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 및 소득지원’ 7명(17.5%) > ‘가족통합지원’ 4명(10.0%) > ‘기능회복지원’ 3명(7.5%), ‘지역복지연계’ 3명(7.5%), ‘요양서비스’ 3명(7.5%) > ‘상담 및 정보제공’ 2명(5.0%),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명(5.0%), ‘가족기능지원’ 2명(5.0%), ‘노인권익증진’ 2명(5.0%) > ‘건강증

진지원' 1명(2.5%), '사회참여지원'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과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주거지원',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직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5.480$, $p>.05$)(표 3-34, 그림 3-40, 41)

〈표 3-34〉 확대하고 싶은 사업과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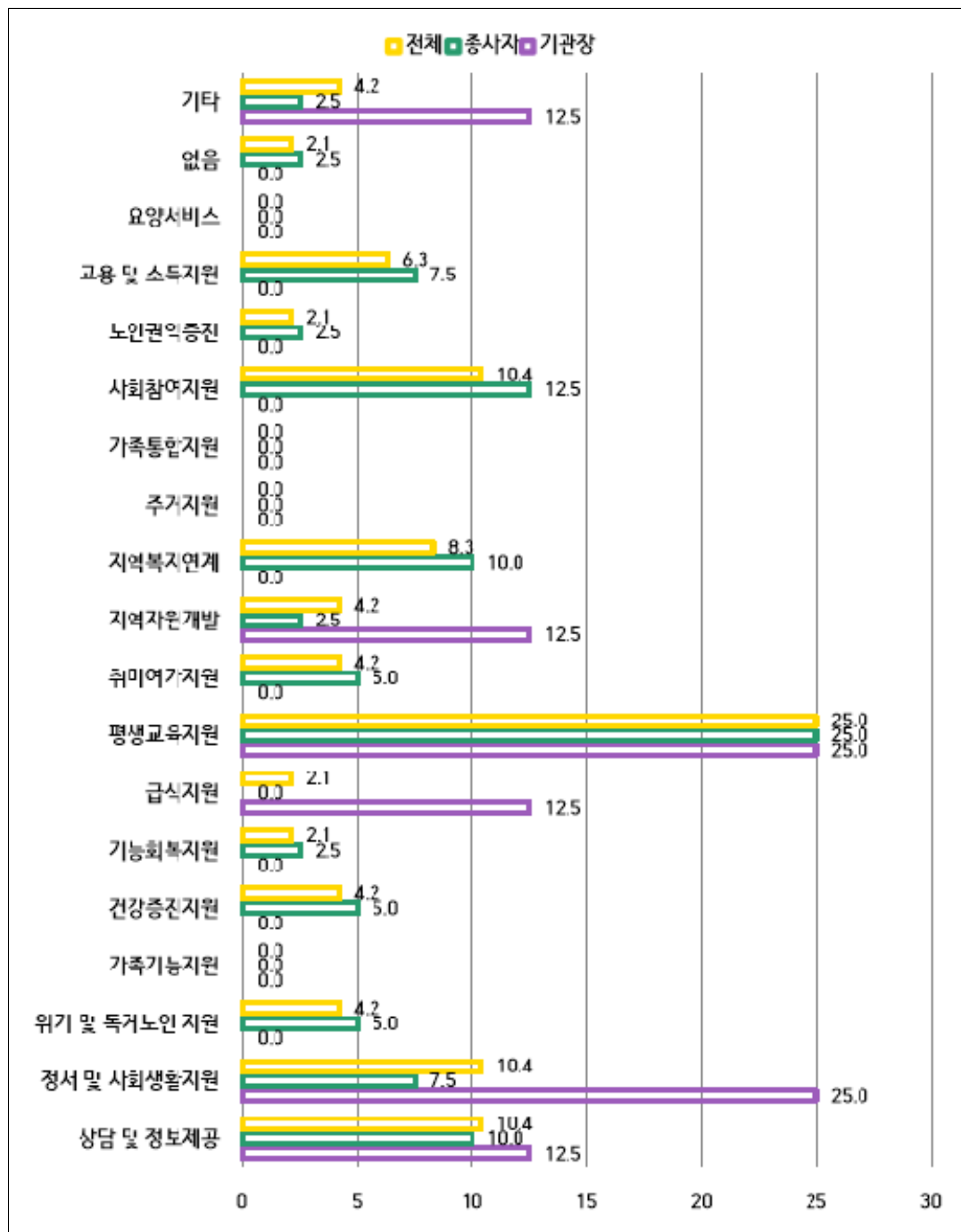
(단위: 점, %)

사업영역 구분		확대하고 싶은 사업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		
		기관장	종사자	전체	기관장	종사자	전체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1(12.5)	4(10.0)	5(10.4)	0(0.0)	2(5.0)	2(4.2)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2(25.0)	3(7.5)	5(10.4)	0(0.0)	0(0.0)	0(0.0)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0(0.0)	2(5.0)	2(4.2)	0(0.0)	2(5.0)	2(4.2)
	가족기능지원	0(0.0)	0(0.0)	0(0.0)	0(0.0)	2(5.0)	2(4.2)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0(0.0)	2(5.0)	2(4.2)	0(0.0)	1(2.5)	1(2.1)
	기능회복지원	0(0.0)	1(2.5)	1(2.1)	1(12.5)	3(7.5)	4(8.3)
	급식지원	1(12.5)	0(0.0)	1(2.1)	0(0.0)	0(0.0)	0(0.0)
노년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2(25.0)	10(25.0)	12(25.0)	0(0.0)	0(0.0)	0(0.0)
	취미여가지원	0(0.0)	2(5.0)	2(4.2)	0(0.0)	0(0.0)	0(0.0)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1(12.5)	1(2.5)	2(4.2)	0(0.0)	0(0.0)	0(0.0)
	지역복지연계	0(0.0)	4(10.0)	4(8.3)	0(0.0)	3(7.5)	3(6.3)
	주거지원	0(0.0)	0(0.0)	0(0.0)	2(25.0)	0(0.0)	2(4.2)
	가족통합지원	0(0.0)	0(0.0)	0(0.0)	0(0.0)	4(10.0)	4(8.3)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0(0.0)	5(12.5)	5(10.4)	0(0.0)	1(2.5)	1(2.1)
	노인권익증진	0(0.0)	1(2.5)	1(2.1)	0(0.0)	2(5.0)	2(4.2)
	고용 및 소득지원	0(0.0)	3(7.5)	3(6.3)	3(37.5)	7(17.5)	10(2.8)
돌봄	요양서비스	0(0.0)	0(0.0)	0(0.0)	0(0.0)	3(7.5)	3(6.3)
없음		0(0.0)	1(2.5)	1(2.1)	2(25.0)	10(25.0)	12(25.0)
기타 ¹⁰⁾		1(12.5)	1(2.5)	2(4.2)	0(0.0)	0(0.0)	0(0.0)
합계		8 (16.7)	40 (83.3)	48 (100.0)	8 (16.7)	40 (83.3)	48 (100.0)
Pearson 카이제곱(χ^2)		$\chi^2=14.400(df=14, p=.420)$			$\chi^2=15.480(df=12, p=.216)$		

10) 기타(직접 작성)에서 '없음'의 응답 수가 많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함. 기타 내용을 보면, '확대하고 싶은 사업'의 경우, 기능회복 등 건강보건의사업(1), 인력지원이 되기 전까지 확대 어려움(1)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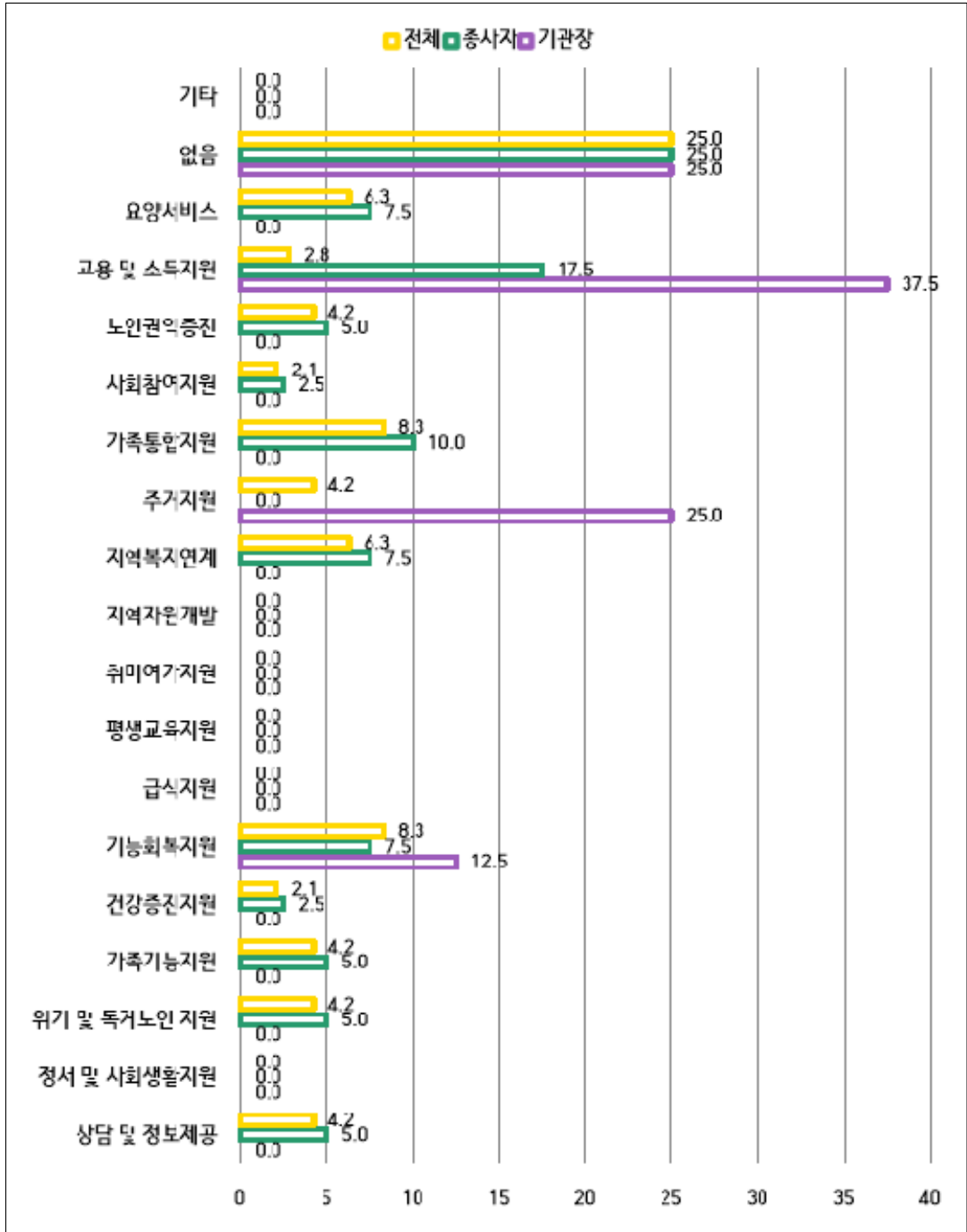
[그림 3-40] 확대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단위 : %)



[그림 3-41]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노인문화센터)

(단위 : %)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 내 지원(국가, 지자체, 법인)에 대한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35, 그림 3-42)

- 노인복지관은 ‘보통이다’ 27명(41.5%) > ‘만족한다’ 19명(29.2%) > ‘불만족한다’ 14명(21.5%) > ‘매우 불만족한다’ 3명(4.6%) > ‘매우 만족한다’ 2명(3.1%)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는 ‘보통이다’ 19명(39.6%) > ‘만족한다’ 12명(25.0%) > ‘불만족한다’ 11명(22.9%) > ‘매우 불만족한다’ 4명(8.3%) > ‘매우 만족한다’ 2명(4.2%)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0.939$, $p>.05$).
-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05점(SD=0.91), 노인문화센터가 2.94점(SD=1.00)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가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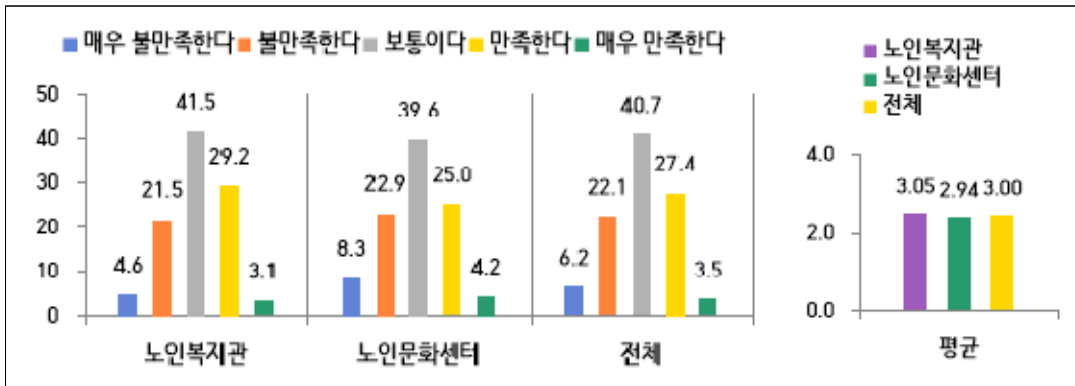
〈표 3-35〉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3(4.6)	14(21.5)	27(41.5)	19(29.2)	2(3.1)	65(57.5)	3.05	0.91	0.939 (.919)
노인문화센터	4(8.3)	11(22.9)	19(39.6)	12(25.0)	2(4.2)	48(42.5)	2.94	1.00	
전체	7(6.2)	25(22.1)	46(40.7)	31(27.4)	4(3.5)	113(100.0)	3.00	0.95	

[그림 3-42]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전체)

(단위: %, 점)



□ 직무별(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 내 지원(국가, 지자체, 법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36, 그림 3-43)
- ‘기관장은 ‘보통이다’ 2명(66.7%) > ‘만족한다’ 1명(33.3%) > ‘매우 불만족한다’ 0명(0.0%), ‘불만족한다’ 0명(0.0%), ‘매우 만족한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보통이다’ 25명(40.3%) > ‘만족한다’ 18명(29.0%) > ‘불만족한다’ 14명(22.6%) > ‘매우 불만족한다’ 3명(4.8%) > ‘매우 만족한다’ 2명(3.2%)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1.416$, $p>.05$)
 -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3.33점(SD=0.58), 종사자가 3.03점(SD=0.92)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대비 종사자가 노인복지관의 지원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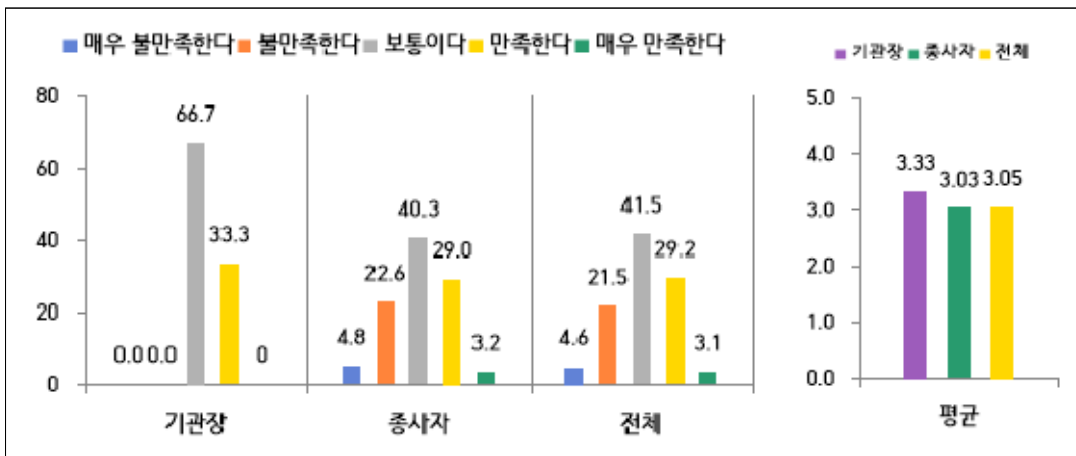
〈표 3-3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복지관)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0(0.0)	0(0.0)	2(66.7)	1(33.3)	0(0.0)	3(4.6)	3.33	0.58	1.416 (.841)
종사자	3(4.8)	14(22.6)	25(40.3)	18(29.0)	2(3.2)	62(95.4)	3.03	0.92	
전체	3(4.6)	14(21.5)	27(41.5)	19(29.2)	2(3.1)	65(100.0)	3.05	0.91	

〔그림 3-43〕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복지관)

(단위: %, 점)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문화센터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 내 지원(국가, 지자체, 법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37, 그림 3-44)
- 기관장은 ‘만족한다’ 4명(50.0%) > ‘불만족한다’ 2명(25.0%) > ‘매우 불만족한다’ 1명(12.5%), ‘매우 만족한다’ 1명(12.5%) >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보통이다’ 19명(47.5%) > ‘불만족한다’ 9명(22.5%) > ‘만족한다’ 8명(20.0%) > ‘매우 불만족한다’ 3명(7.5%) > ‘매우 만족한다’ 1명(2.5%)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8.018$, $p>.05$).
 -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3.25점(SD=1.39), 종사자가 2.88점(SD=0.91)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대비 기관장 외 종사자가 노인문화센터의 지원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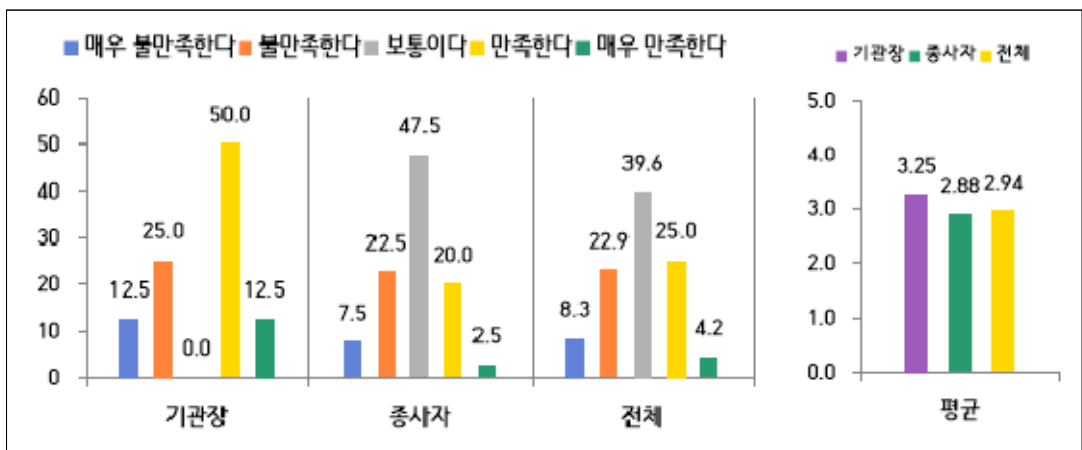
〈표 3-37〉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문화센터)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1(12.5)	2(25.0)	0(0.0)	4(50.0)	1(12.5)	8(16.7)	3.25	1.39	8.018 (.091)
종사자	3(7.5)	9(22.5)	19(47.5)	8(20.0)	1(2.5)	40(83.3)	2.88	0.91	
전체	4(8.3)	11(22.9)	19(39.6)	12(25.0)	2(4.2)	48(100.0)	2.94	1.00	

[그림 3-44]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만족도(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9)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38, 그림 3-45, 46)

- 노인복지관의 경우, 1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21명(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6명(24.6%) >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4명(21.5%)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5명(7.7%)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4명(6.2%)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3명(4.6%)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1.5%), ‘기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12명(3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0명(25.0%)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9명(22.5%)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5명(12.5%)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3명(7.5%)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2.5%)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0명(0.0%),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이 7명(2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6명(18.8%),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6명(18.8%)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5명(15.6%)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명(12.5%) > ‘기타’ 2명(6.3%)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3.1%),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3.1%)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1순위는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21명(4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2명(25.0%) >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1명(22.9%)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2.1%),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2.1%),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명(2.1%), ‘기타’ 1명(2.1%)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12명(3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9명(27.3%)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명(21.2%)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2명(6.1%)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3.0%),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3.0%),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명(3.0%) >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9명(3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7명(28.0%)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명(16.0%)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3명(12.0%)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4.0%),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4.0%)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0명(0.0%),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89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2점(2순위),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0점(3순위),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23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81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67점(2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60점(3순위),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0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전체)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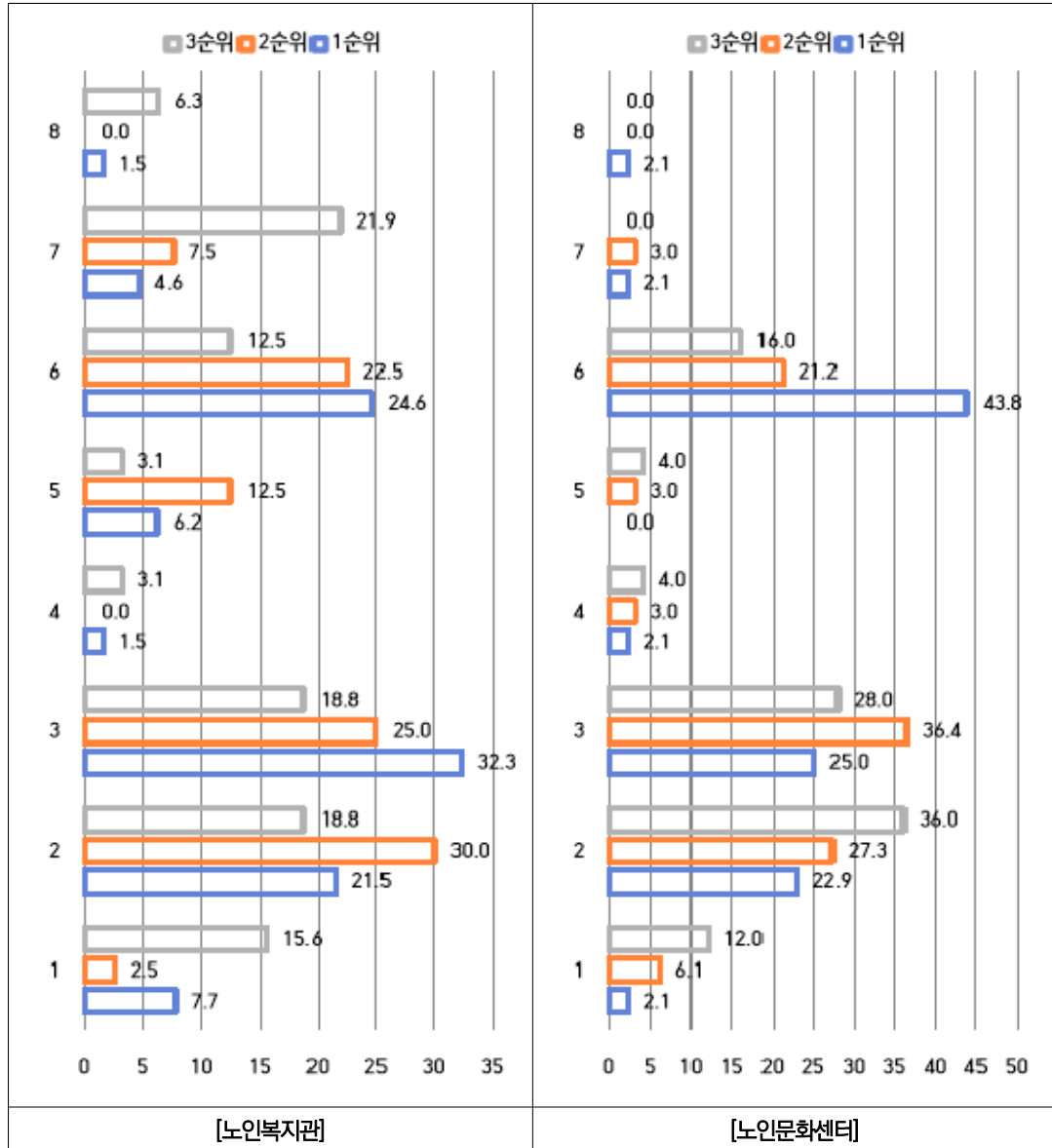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5(7.7)	1(2.1)	1(2.5)	2(6.1)	5(15.6)	3(12.0)	11(8.0)	6(5.7)	22	10	5	4
2	14(21.5)	11(22.9)	12(30.0)	9(27.3)	6(18.8)	9(36.0)	32(23.4)	29(27.4)	72	60	2	3
3	21(32.3)	12(25.0)	10(25.0)	12(36.4)	6(18.8)	7(28.0)	37(27.0)	31(29.2)	89	67	1	2
4	1(1.5)	1(2.1)	0(0.0)	1(3.0)	1(3.1)	1(4.0)	2(1.5)	3(2.8)	4	6	8	5
5	4(6.2)	0(0.0)	5(12.5)	1(3.0)	1(3.1)	1(4.0)	10(7.3)	2(1.9)	23	3	4	7
6	16(24.6)	21(43.8)	9(22.5)	7(21.2)	4(12.5)	4(16.0)	29(21.2)	32(30.2)	70	81	3	1
7	3(4.6)	1(2.1)	3(7.5)	1(3.0)	7(21.9)	0(0.0)	13(9.5)	2(1.9)	22	5	5	6
8 ¹¹⁾	1(1.5)	1(2.1)	0(0.0)	0(0.0)	2(6.3)	0(0.0)	3(2.2)	1(0.9)	5	3	7	7
합계	65 (100.0)	48 (100.0)	40 (100.0)	33 (100.0)	32 (100.0)	25 (100.0)	137 (100.0)	106 (100.0)	-	-	-	-

주)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11) 기타(직접 작성)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후 시설물 운영 예산 부족(1), 법인의 지나친 간섭(1), 지하철과 거리가 멀어서(1)로 응답하였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국가 기관과의 협조 어려움(1)으로 응답함.

[그림 3-45]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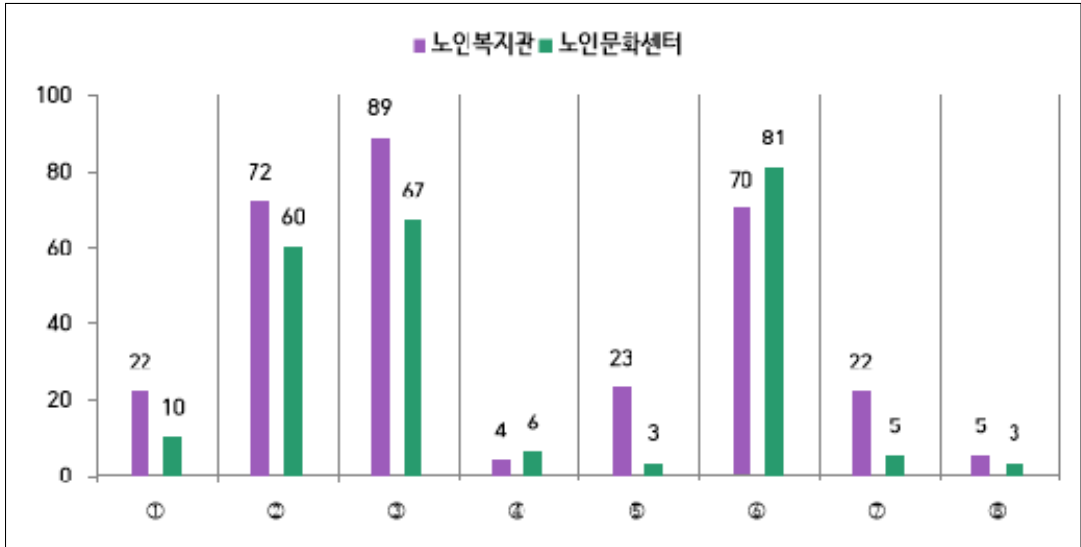
(단위 : %)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그림 3-46]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전체/가중점수)

(단위: 점)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 직무별(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직무별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39, 그림 3-47, 48)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과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2명(6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명(33.3%)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이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20명(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5명(24.2%) >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4명(22.6%)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5명(8.1%)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3명(4.8%),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3명(4.8%)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1.6%), ‘기타’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12명(3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0명(27.0%)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명(18.9%)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2명(5.4%)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2.7%)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5명(13.5%)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이 6명(2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4명(13.8%),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명(13.8%) > ‘기타’ 2명(6.9%)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3.4%)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4점(2순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3점(3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86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2점(2순위),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63점(3순위),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2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9〉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복지관)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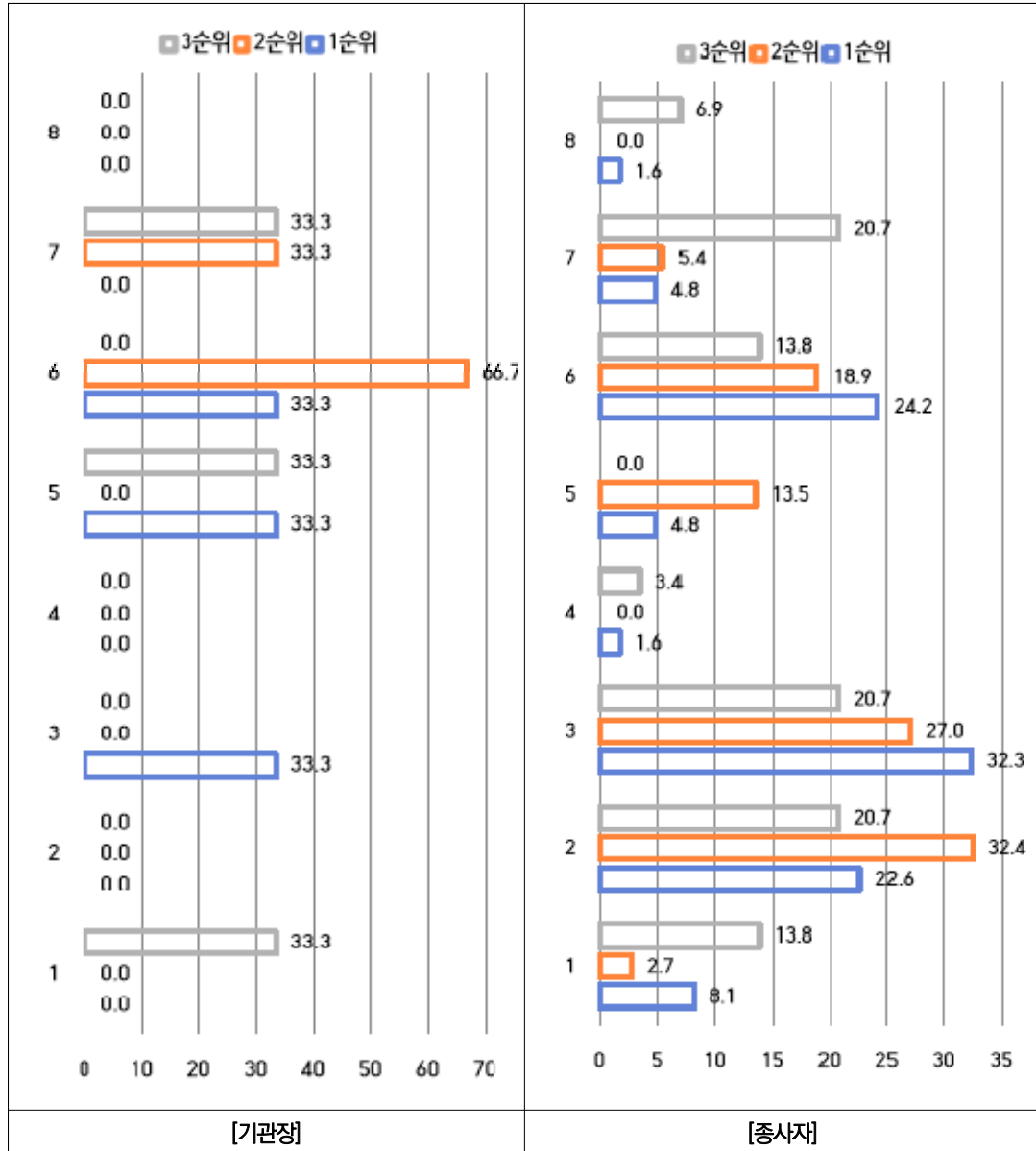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0(0.0)	5(8.1)	0(0.0)	1(2.7)	1(33.3)	4(13.8)	1(11.1)	10(7.8)	1	21	5	4
2	0(0.0)	14(22.6)	0(0.0)	12(32.4)	0(0.0)	6(20.7)	0(0.0)	32(25.0)	0	72	6	2
3	1(33.3)	20(32.3)	0(0.0)	10(27.0)	0(0.0)	6(20.7)	1(11.1)	36(28.1)	3	86	3	1
4	0(0.0)	1(1.6)	0(0.0)	0(0.0)	0(0.0)	1(3.4)	0(0.0)	2(1.6)	0	4	6	8
5	1(33.3)	3(4.8)	0(0.0)	5(13.5)	1(33.3)	0(0.0)	2(22.2)	8(6.3)	4	19	2	5
6	1(33.3)	15(24.2)	2(66.7)	7(18.9)	0(0.0)	4(13.8)	3(33.3)	26(20.3)	7	63	1	3
7	0(0.0)	3(4.8)	1(33.3)	2(5.4)	1(33.3)	6(20.7)	2(22.2)	11(8.6)	3	19	3	5
8 ¹²⁾	0(0.0)	1(1.6)	0(0.0)	0(0.0)	0(0.0)	2(6.9)	0(0.0)	3(2.3)	0	5	6	7
합계	3 (100.0)	62 (100.0)	3 (100.0)	37 (100.0)	3 (100.0)	29 (100.0)	9 (100.0)	128 (100.0)	-	-	-	-

주)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12) 기타(직접 작성)는 노후 시설물 운영 예산 부족(1), 법인의 지나친 간섭(1), 지하철과 거리가 멀어서(1)로 응답함.

[그림 3-47]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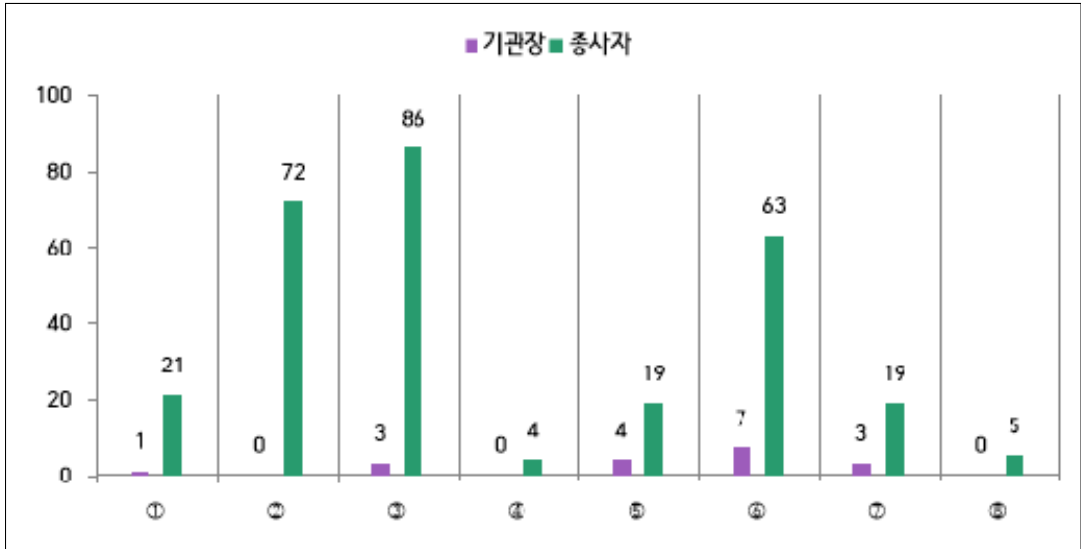
(단위: %)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그림 3-48]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복지관/가중점수)

(단위: 점)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 직무별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40, 그림 3-49, 50)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6명(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명(12.5%),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3명(4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2명(28.6%)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14.3%),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명(14.3%) 순으로 나타났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3명(6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20.0%),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명(20.0%)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15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1명(27.5%) >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0명(25.0%)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2.5%),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2.5%),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9명(3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명(26.9%)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6명(23.1%)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2명(7.7%)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3.8%),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명(3.8%)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8명(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4명(20.0%),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명(20.0%)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2명(10.0%) >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5.0%),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5.0%) 순으로 나타났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20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2점(2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8점(3순위),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2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61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55점(2순위),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52점(3순위),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9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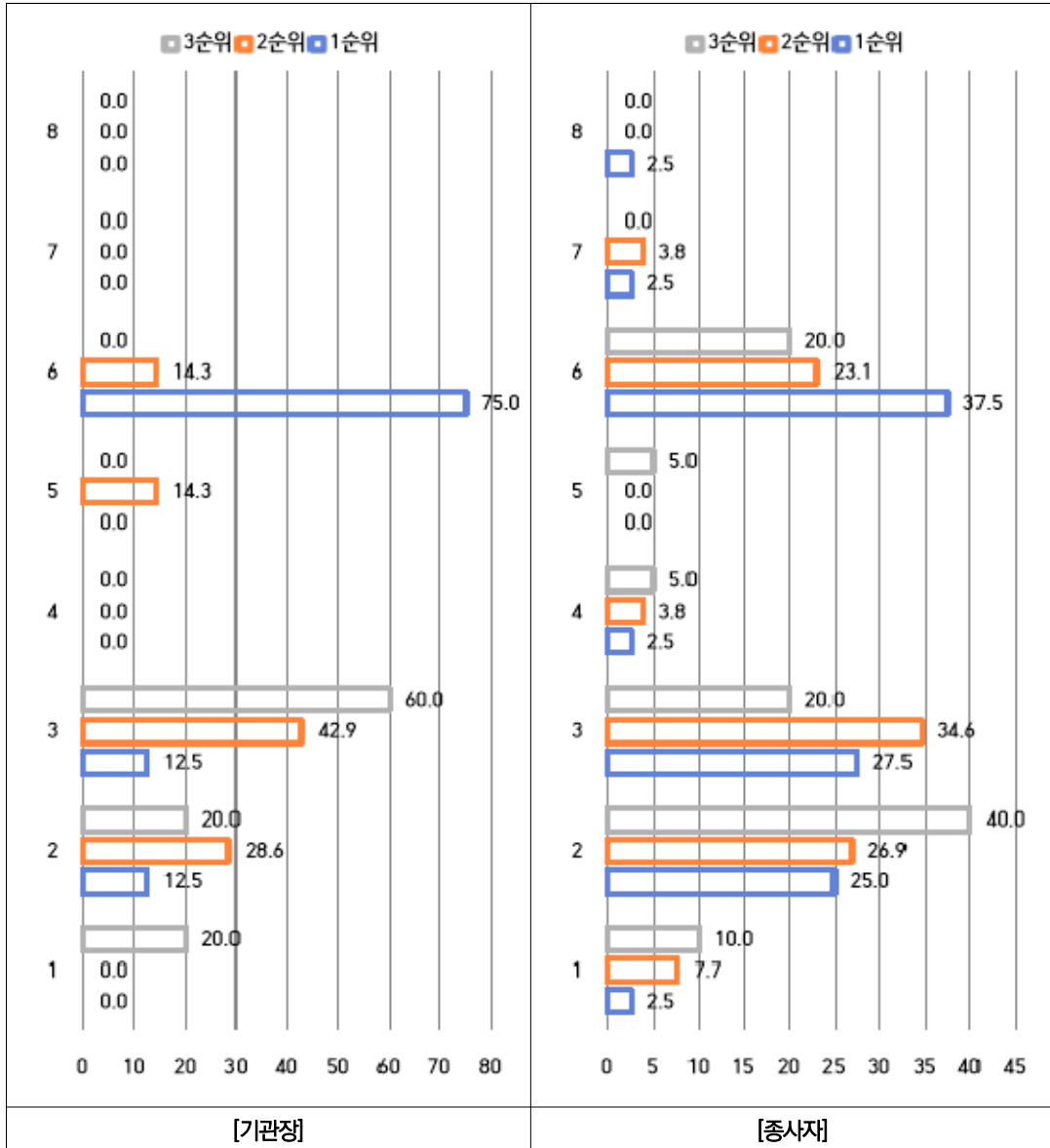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0(0.0)	1(2.5)	0(0.0)	2(7.7)	1(20.0)	2(10.0)	1(5.0)	5(5.8)	1	9	5	4
2	1(12.5)	10(25.0)	2(28.6)	7(26.9)	1(20.0)	8(40.0)	4(20.0)	25(29.1)	8	52	3	3
3	1(12.5)	11(27.5)	3(42.9)	9(34.6)	3(60.0)	4(20.0)	7(35.0)	24(27.9)	12	55	2	2
4	0(0.0)	1(2.5)	0(0.0)	1(3.8)	0(0.0)	1(5.0)	0(0.0)	3(3.5)	0	6	6	5
5	0(0.0)	0(0.0)	1(14.3)	0(0.0)	0(0.0)	1(5.0)	1(5.0)	1(1.2)	2	1	4	8
6	6(75.0)	15(37.5)	1(14.3)	6(23.1)	0(0.0)	4(20.0)	7(35.0)	25(29.1)	20	61	1	1
7	0(0.0)	1(2.5)	0(0.0)	1(3.8)	0(0.0)	0(0.0)	0(0.0)	2(2.3)	0	5	6	6
8 ¹³⁾	0(0.0)	1(2.5)	0(0.0)	0(0.0)	0(0.0)	0(0.0)	0(0.0)	1(1.2)	0	3	6	7
합계	8 (100.0)	40 (100.0)	7 (100.0)	26 (100.0)	5 (100.0)	20 (100.0)	20 (100.0)	86 (100.0)	-	-	-	-

주)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13) 기타(직접 작성)는 국가 기관과의 협조 어려움(1)으로 응답함.

[그림 3-49]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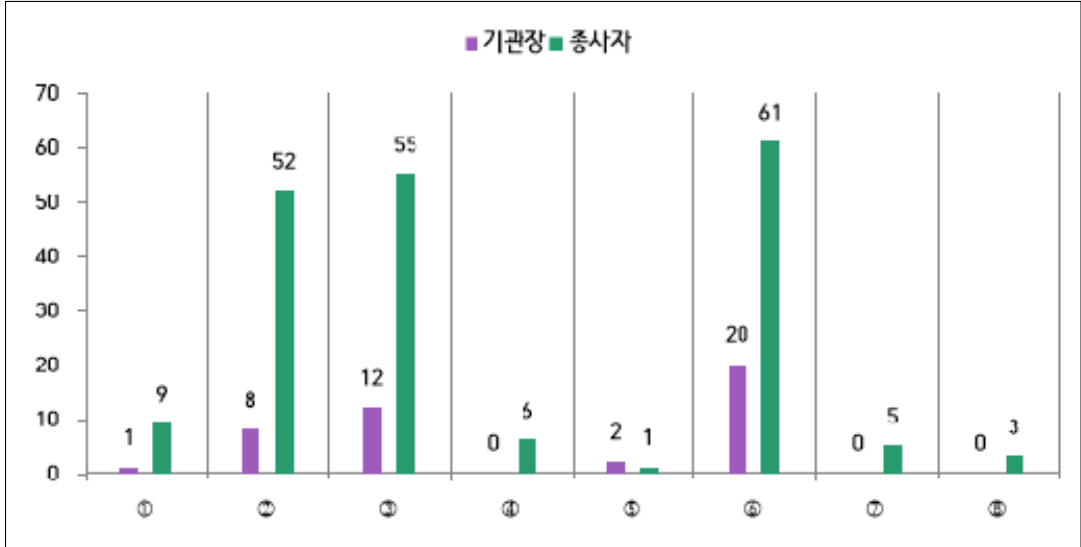
(단위 : %)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그림 3-5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단위: 점)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⑧ 기타

(1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41)

〈표 3-41〉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노인복지관)

범주	내용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N=11)	• 방학의 기간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예산이 부족할 시 방학이 길어짐 • 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지원사업, 구)평생교육센터 등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진행 • 각 사업 담당자가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공모사업 공모 • 보조금 중 사업비 지원 확대 및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노력 • 예산 부족의 경우,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음 • 예산 확충/예산 확대 • 외부공모사업 또는 지자체 예산편성 요청 • 운영 예산 보조 • 지원사업 신청 • 지자체와 후원으로 인한 충분한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됨.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협업 지원이 마련되면 좋겠음

범주	내용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N=32)	- 가까운 기관과 연계하여 장소 제공과 협조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음 (예를 들면, 대강당 상반기 하반기 대관으로 운영 등)/외부 자원 연계 - 건물의 복지관 전용 사용/공간 부족 마련 - 공간 부족의 극복을 위한 복지관 이전 - 공간 확대/공간확충/시설 증축 - 공간 부족은 한계가 있어서 한계 내에서 하고 있음 - 기관 확충 또는 대관/관내에 있는 시설 이용 - 노인인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확대, 지역사회 유휴공간 활용 노력 - 민간시설 연계 프로그램 확대 - 방학 기간 점심시간 이용 - 보조금 예산지원 - 복지관만 단독 운영 - 시간 조정 및 외부 장소에서 진행 - 공간적인 어려움은 기관에서 자체 해결 불가 - 요일과 시간을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음 - 재정립 및 프로그램에 맞게 공간사용 - 정원 조정, 프로그램 수 조정, 의회나 구청에 확장 여부 건의 등 - 좀 더 여유로운 운영자금과 자원봉사 인력 필요 - 지역사회 내 민간시설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공간이 부족함. 주로 대관을 통해 진행하지만 어려움이 많음 - 프로그램 휴강하여 보강 진행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N=37)	- 경로당 회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기관에서 일 경험 지원인력 배치 - 노인복지관 6대 기본사업 운영에 맞는 기본인력(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교) 추가 배치, 경로당 배치 인력을 기본인력 배치에서 제외 필요 - 단위 사업별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즉 인력 증원이 가장 시급함 - 사업을 나눠 운영/사업을 쪼개서 업무분장 진행 - 시간 외 근무를 통한 업무처리 노동청 일 경험 인력 활용/야근 -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인력 총원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어필 중 - 인력 보강/인력 채용 - 인력 추가에 대한 직접 예산지원 - 인력 총원, 효율적 업무 배분 - 인력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족함 - 인력 규모에 따른 사업(프로그램) 점검 및 재조정(규모에 맞는 사업수행) -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인력 활용 및 배치 - 자체적으로 해결 - 장기적 계획으로 진행하고, 타 연계 기관의 지속적 업무협조 - 지속적인 사업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직원들의 역량 및 노력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N=2)	- 서로 소통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 - 통합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N=10)	- 계속적인 지역자원 연계와 지역홍보 - 급식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주로 이루어짐. 급식단체 및 봉사단체 모집이 점점 어려움. 위탁운영 검토 및 급식 인력 확충 필요 -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사업을 실시함 -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불쌍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후원과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활동적인 어르신이 대부분인 노인복지관의 경우 도움 필요성의 동기부여가 감소되는 경향. 봉사나 후원의 동기를 바꿀 수는 없겠으나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함

범주	내용
	• 이용자 대상 홍보,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봉사자 활용 • 카카오톡 채널 홍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데 좀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모집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자의 적극적인 관리 진행 • VMS, 밴드 등 활용(쉽지 않음)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N=29)	•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배정된 5명의 사회복지사가 상담, 사례관리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사업을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음.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담당 인력과 별도로 복지관 사업영역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함 • 공간확장/구조 개편 및 인원 확충 • 기본사업 및 선택사업 운영 외 국가시책, 지자체 특화사업 등에 따른 수탁사업 추가 운영으로 기본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김 • 사업 확대의 어려움으로 기존 사업 주로 운영 •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 소속 인원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극복하는 방안이기 어려움) • 기타사업(맞돌, 응급사업) 종료 •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팀별로 협업을 중시함 • 사업의 전문서비스 및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력 보충이 필요함 •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 등 자문요청 • 특수목적사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 보장 • 프로그램 조정 및 인원 증원/이용자 모집이 어렵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어야 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N=13)	•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의견수렴 태도 필요 • 어른신들이 편하게 여가나 즐기는 공간으로의 확대보다는 어른신들의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 복지관 사업에서 탈피한 다양한 영역 및 역할 재정립 필요. 초고령화사회에 맞는 사업 운영 강화 필요. 상담전문영역 확대. 돌봄사업 기능 및 역할강화를 위한 기본사업으로 편성 등 •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 •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관리자 교육이 필요함 • 신규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 어른신들의 인식과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꿈
기타 (N=3)	• 위치 이전 • 지자체 기능보강 및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지원

□ 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42)

〈표 3-42〉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 방안(노인문화센터)

범주	내용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N=6)	• 규모에 따른 예산지원이 아님. 복지관과 같은 규모임에도 운영 예산이 센터와 같아 턱없이 부족 • 예산 확대 • 정부나 지자체서 지원/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 후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후원자가 매년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

범주	내용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N=29)	- 건물증축 및 별관 신설 - 교회나 구청 장소를 빌림. 하지만 장소를 빌려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종교전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함 - 노후화된 시설 재정비 및 시설증설 - 본 센터에서 극복할 수 없음. 나라에서 공간 확보 및 인력 총원 해줘야 함 - 쉬는 공간 없이 운영, 그 외 추가 개설이 어려움 - 쉬는 시간 없이 운영, 한 공간을 다용도로 이용, 직원 사용 공간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 - 식당 편의시설 공간 활용 - 번거롭더라도 빈 프로그램실을 찾아서 활용하고 있음 - 점심시간 없이 강의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그로 인하여 직원들은 점심시간 및 휴게 공간이 없음 - 지역사회 내 종교시설 또는 행정복지센터 관공서 청소년센터 등의 공간공유 필요 -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한 공간 활용을 협의하려 하고 있음 - 사업량 축소/프로그램 감소 및 횟수 감소 - 한 건물 두 기관 사용하며,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실 주차장 공간 부족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N=31)	-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총원 필요 -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을 늘려 고용 - 구성원들 간에 업무협조 - 그동안 자원봉사나 직원의 업무 중복으로 힘겹게 커버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굳이 방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의 축소밖에 답이 없음 - 노인문화센터 명칭 변경 및 T.O 증가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양과 공간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력 - 봉사 인력 활용 - 복지관과 같은 인력과 예산지원 필요 - 사업담당자들의 희생, 야근 - 시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인력지원 필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문화센터를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인력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인력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도록 관리. 지역적 특성과 인력에 맞게 사업을 배치해야 함 - 인력 증원 또는 전문인력 파견/충분한 인력 총원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음. 현행의 경우 양적 실적 위주로 치중될 수 있어, 노인복지 전문성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프로그램 진행 시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들 또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일부 분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 인력 활용 면에서 효과성이 낮음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N=3)	- 비교 대상이 되므로 - 일자리 인원의 증원이 어려움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N=2)	- 봉사자가 없을 땐 사회봉사자. 및 공익요원 대체합니다. - 홍보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N=32)	- 기관 규모에 대비한 인력편성/1명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수요증가에 따라 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상황에서 인력 총원은 10년 넘게 중단된 상황의 어려움 - 구성원들 간의 업무협조 - 다른 사업 담당자가 업무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협조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문화센터와 복지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통합하고, 예산도 시설 규모별로 기준을 정하여 차등 지원 필요 - 사회복지사의 전문분야 양성교육실 시 및 인력 총원 - 시설 규모별 인력, 예산지원

범주	내용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나 지속성이 어려움 •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잔업을 하고 있음 • 직장 내 인간관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N=2)	• 지원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기타 (N=1)	• 익명의 고충 처리가 가능한 소통창구 마련

3)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1)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그렇다’ 29명(44.6%) > ‘그렇지 않다’ 16명(24.6%) > ‘보통이다’ 13명(20.0%) > ‘매우 그렇다’ 5명(7.7%) > ‘전혀 그렇지 않다’ 2명(3.1%)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그렇다’ 21명(42.0%) > ‘매우 그렇다’ 17명(35.4%) > ‘보통이다’ 6명(12.5%) > ‘그렇지 않다’ 2명(4.2%), ‘전혀 그렇지 않다’ 2명(4.2%) 순으로 나타남(표 3-43, 그림 3-51)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chi^2=19.170$, $p<.01$)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29점 (SD=1.03), 노인문화센터가 4.02점(SD=1.02)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가 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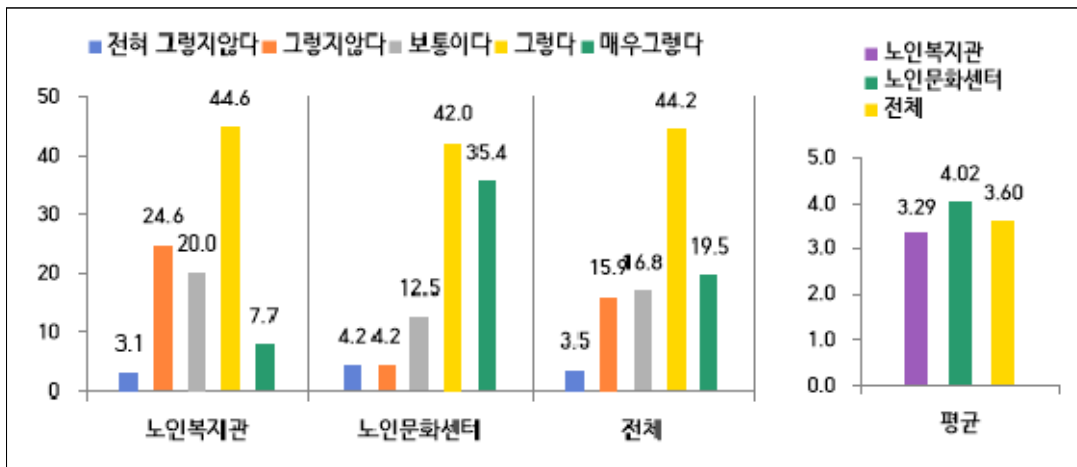
〈표 3-4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2(3.1)	16(24.6)	13(20.0)	29(44.6)	5(7.7)	65(57.5)	3.29	1.03	19.170 (.001)
노인문화센터	2(4.2)	2(4.2)	6(12.5)	21(42.0)	17(35.4)	48(42.5)	4.02	1.02	
전체	4(3.5)	18(15.9)	19(16.8)	50(44.2)	22(19.5)	113(100.0)	3.60	1.08	

[그림 3-5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그렇다’ 21명(32.3%) > ‘그렇지 않다’ 16명(24.6%) > ‘보통이다’ 11명(16.9%) > ‘매우 그렇다’ 9명(13.8%) >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2.3%)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매우 그렇다’ 28명(58.3%) > ‘그렇다’ 8명(16.7%) > ‘그렇지 않다’ 7명(14.6%) > ‘보통이다’ 3명(6.3%) > ‘전혀 그렇지 않다’ 2명(4.2%) 순으로 나타남(표 3-44, 그림 3-52)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chi^2=25.292$, $p<.001$)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11점(SD=1.28), 노인문화센터가 4.10점(SD=1.28)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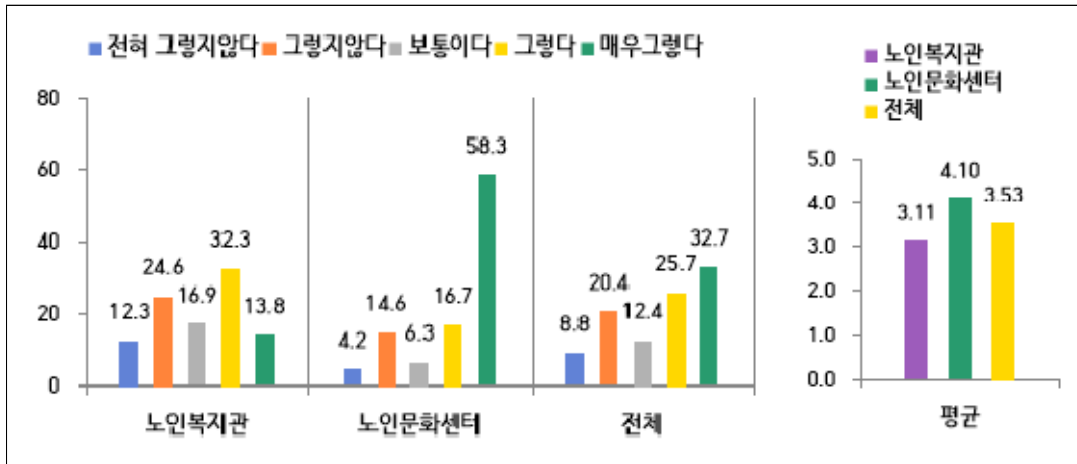
〈표 3-4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8(12.3)	16(24.6)	11(16.9)	21(32.3)	9(13.8)	65(57.5)	3.11	1.28	25.292 (.000)
노인문화센터	2(4.2)	7(14.6)	3(6.3)	8(16.7)	28(58.3)	48(42.5)	4.10	1.28	
전체	10(8.8)	23(20.4)	14(12.4)	29(25.7)	37(32.7)	113(100.0)	3.53	1.36	

[그림 3-5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전체)

(단위: %, 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않다’ 25명(38.5%) > ‘그렇다’ 14명(21.5%) > ‘보통이다’ 13명(20.0%) > ‘전혀 그렇지 않다’ 9명(13.8%) > ‘매우 그렇다’ 4명(6.2%)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그렇지 않다’ 16명(33.3%) > ‘그렇다’ 9명(18.8%), ‘보통이다’ 9명(18.8%) > ‘매우 그렇다’ 8명(16.7%) >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2.5%) 순으로 나타남(표 3-45, 그림 3-53)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239$,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2.68점($SD=1.15$), 노인문화센터가 2.94점($SD=1.31$)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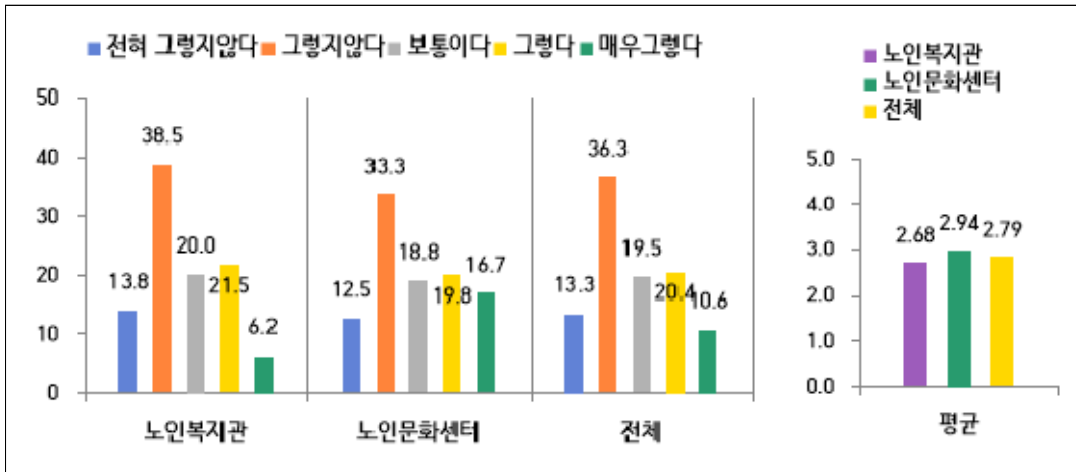
〈표 3-45〉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전체)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9(13.8)	25(38.5)	13(20.0)	14(21.5)	4(6.2)	65(57.5)	2.68	1.15	3.239 (.519)
노인문화센터	6(12.5)	16(33.3)	9(18.8)	9(18.8)	8(16.7)	48(42.5)	2.94	1.31	
전체	15(13.3)	41(36.3)	22(19.5)	23(20.4)	12(10.6)	113(100.0)	2.79	1.22	

[그림 3-5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전체)

(단위: %, 점)



□ 직무별(노인복지관)

-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그렇다’ 2명(66.7%) > ‘매우 그렇다’ 1명(33.3%)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 ‘그렇지 않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그렇다’ 27명(43.5%) > ‘그렇지 않다’ 16명(25.8%) > ‘보통이다’ 13명(21.0%) > ‘매우 그렇다’ 4명(6.5%) > ‘전혀 그렇지 않다’ 2명(3.2%) 순으로 나타남(표 3-46, 그림 3-54)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4.531$,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4.33점(SD=0.58), 기관장 외 종사자가 3.24점(SD=1.02)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외 종사자 대비 기관장이 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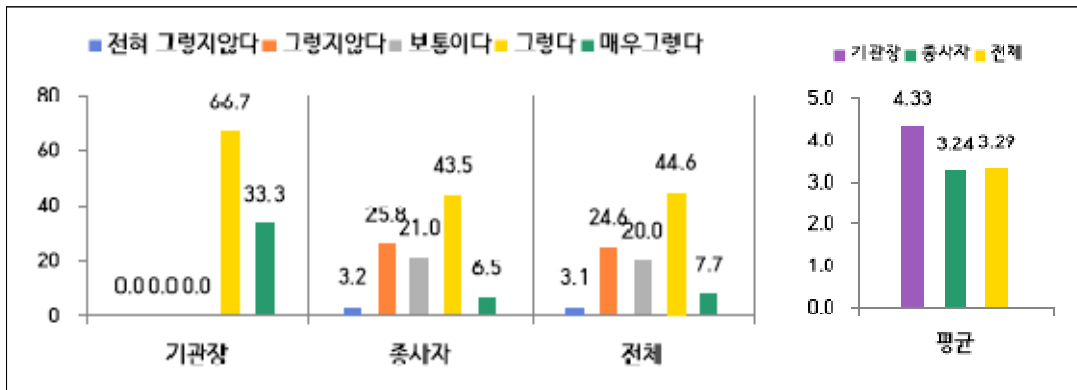
〈표 3-4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복지관)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Pearson 카이제곱 (χ^2)
기관장	0(0.0)	0(0.0)	0(0.0)	2(66.7)	1(33.3)	3(4.6)	4.33	0.58	4.531 (.339)
종사자	2(3.2)	16(25.8)	13(21.0)	27(43.5)	4(6.5)	62(95.4)	3.24	1.02	
전체	2(3.1)	16(24.6)	13(20.0)	29(44.6)	5(7.7)	65(100.0)	3.29	1.03	

[그림 3-5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복지관)

(단위: %, 점)



-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그렇다’ 2명(66.7%) > ‘매우 그렇다’ 1명(33.3%)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 ‘그렇지 않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그렇다’ 19명(30.6%) > ‘그렇지 않다’ 16명(25.8%) > ‘보통이다’ 11명(17.7%) > ‘매우 그렇다’ 8명(12.9%),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2.9%) 순으로 나타남(표 3-47, 그림 3-55)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705$,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4.33점(SD=0.58), 기관장 외 종사자가 3.05점(SD=1.27)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외 종사자 대비 기관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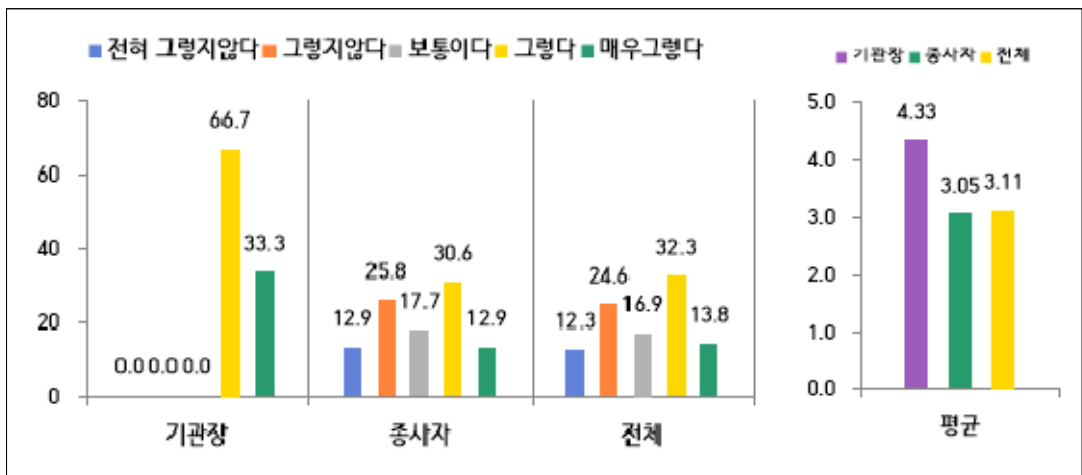
〈표 3-47〉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복지관)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0(0.0)	0(0.0)	0(0.0)	2(66.7)	1(33.3)	3(4.6)	4.33	0.58	3.705 (.447)
종사자	8(12.9)	16(25.8)	11(17.7)	19(30.6)	8(12.9)	62(95.4)	3.05	1.27	
전체	8(12.3)	16(24.6)	11(16.9)	21(32.3)	9(13.8)	65(100.0)	3.11	1.28	

[그림 3-55]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복지관)

(단위: %, 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그렇지 않다’ 2명(66.7%) > ‘전혀 그렇지 않다’ 1명(33.3%) > ‘매우 그렇다’ 0명(0.0%), ‘그렇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 23명(37.1%) > ‘그렇다’ 14명(22.6%) > ‘보통이다’ 13명(21.0%) > ‘전혀 그렇지 않다’ 8명(12.9%) > ‘매우 그렇다’ 4명(6.5%) 순으로 나타남(표 3-48, 그림 3-56)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013$,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1.67(SD=0.58), 기관장 외 종사자가 2.73점(SD=1.15)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외 종사자 대비 기관장이 새로운 명칭 사용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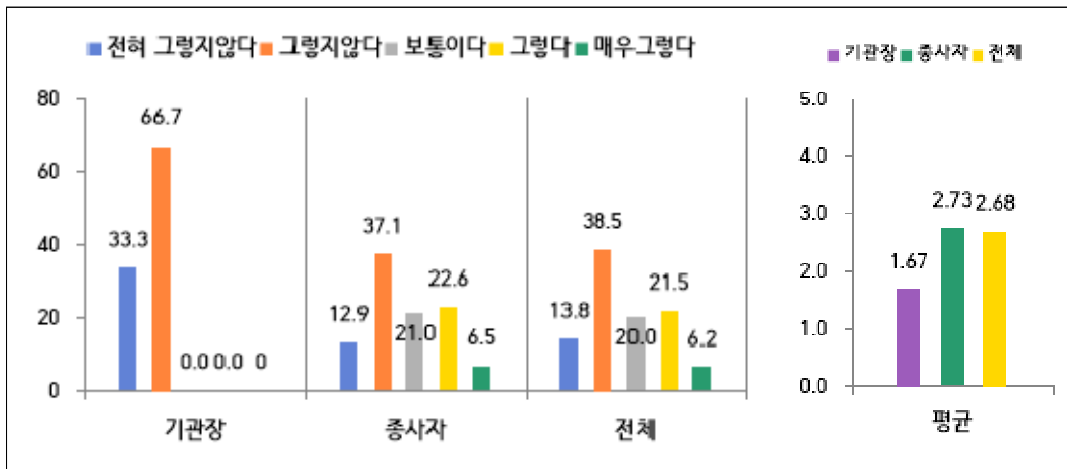
〈표 3-48〉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복지관)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1(33.3)	2(66.7)	0(0.0)	0(0.0)	0(0.0)	3(4.6)	1.67	0.58	3.013 (.556)
종사자	8(12.9)	23(37.1)	13(21.0)	14(22.6)	4(6.5)	62(95.4)	2.73	1.15	
전체	9(13.8)	25(38.5)	13(20.0)	14(21.5)	4(6.2)	65(100.0)	2.68	1.15	

[그림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복지관)

(단위: %, 점)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매우 그렇다’ 6명(75.0%) > ‘그렇다’ 2명(25.0%)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 ‘그렇지 않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그렇다’ 19명(47.5%) > ‘매우 그렇다’

11명(27.5%) > ‘보통이다’ 6명(15.0%) > ‘그렇지 않다’ 2명(5.0%), ‘전혀 그렇지 않다’ 2명(5.0%) 순으로 나타남(표 3-49, 그림 3-57)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7.018$,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4.75점(SD=0.46), 기관장 외 종사자가 3.88점(SD=1.04)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외 종사자 대비 기관장이 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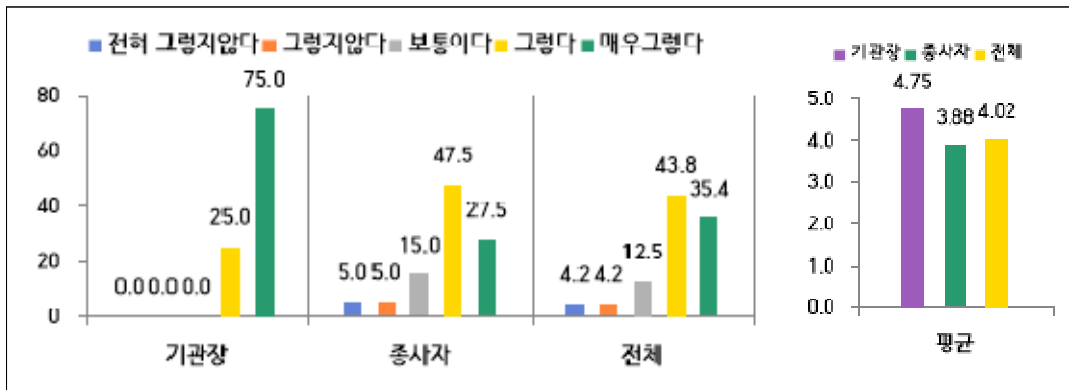
〈표 3-4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문화센터)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0(0.0)	0(0.0)	0(0.0)	2(25.0)	6(75.0)	8(16.7)	4.75	0.46	7.018 (.135)
종사자	2(5.0)	2(5.0)	6(15.0)	19(47.5)	11(27.5)	40(83.3)	3.88	1.04	
전체	2(4.2)	2(4.2)	6(12.5)	21(43.8)	17(35.4)	48(100.0)	4.02	1.02	

[그림 3-5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매우 그렇다’ 7명(87.5%) > ‘그렇다’ 1명(12.5%)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 ‘그렇지 않다’ 0명(0.0%), ‘보통이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매우 그렇다’ 21명(52.5%) > ‘그렇다’ 7명(17.5%), ‘그렇지 않다’ 7명(17.5%) > ‘보통이다’ 3명(7.5%) > ‘전혀 그렇지 않다’ 2명(5.0%) 순으로 나타남(표 3-50, 그림 3-58)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900,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4.88점(SD=0.35), 기관장 외 종사자가 3.95점(SD=1.34)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직무에 상관없이 노인여가 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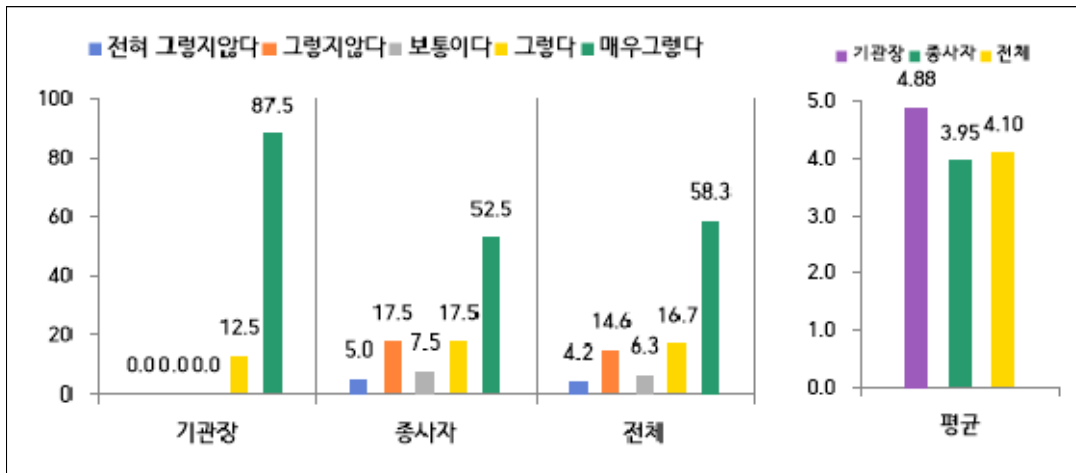
〈표 3-50〉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문화센터)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Pearson 카이제곱 (χ^2)
기관장	0(0.0)	0(0.0)	0(0.0)	1(12.5)	7(87.5)	8(16.7)	4.88	0.35	3.900 (.420)
종사자	2(5.0)	7(17.5)	3(7.5)	7(17.5)	21(52.5)	40(83.3)	3.95	1.34	
전체	2(4.2)	7(14.6)	3(6.3)	8(16.7)	28(58.3)	48(100.0)	4.10	1.28	

[그림 3-58]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관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명(37.5%) > ‘그렇다’ 2명(25.0%) > ‘그렇지 않다’ 1명(12.5%), ‘보통이다’ 1명(12.5%), ‘매우 그렇다’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 15명(37.5%) > ‘보통이다’ 8명(20.0%) > ‘그렇다’ 7명(17.5%), ‘매우 그렇다’ 7명(17.5%) > ‘전혀 그렇지 않다’ 3명(7.5%) 순으로 나타남(표 3-51, 그림 3-59)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6.550$,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기관장이 2.63점($SD=1.60$), 기관장 외 종사자가 3.00점($SD=1.26$)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관장 대비 기관장 외 종사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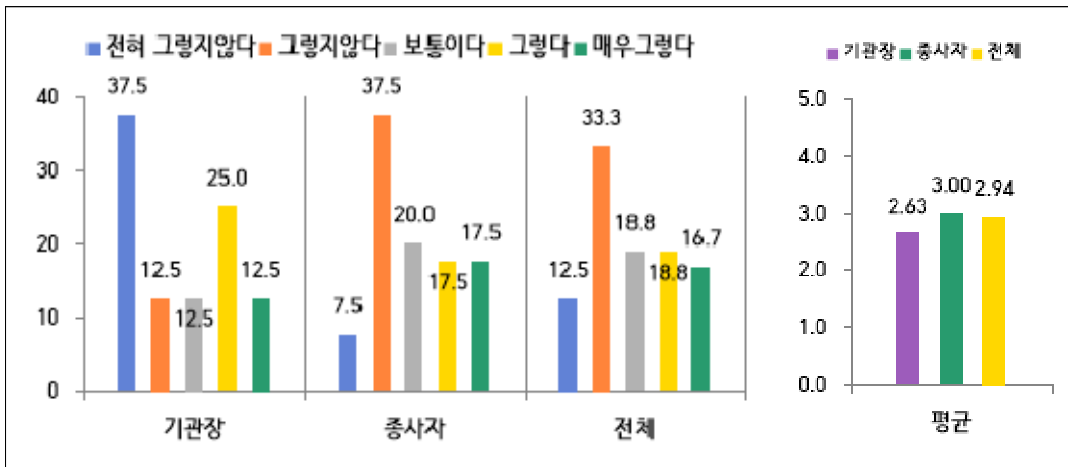
〈표 3-51〉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문화센터)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기관장	3(37.5)	1(12.5)	1(12.5)	2(25.0)	1(12.5)	8(16.7)	2.63	1.60	6.550 (.162)
종사자	3(7.5)	15(37.5)	8(20.0)	7(17.5)	7(17.5)	40(83.3)	3.00	1.26	
전체	6(12.5)	16(33.3)	9(18.8)	9(18.8)	8(16.7)	48(100.0)	2.94	1.31	

[그림 3-59]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제안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종사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55명(84.6%) > ‘새로운 명칭’ 8명(12.3%) > ‘노인문화센터’ 2명(3.1%) 순으로 조사되

었고,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 34명(70.8%) > ‘새로운 명칭’ 8명(16.7%) > ‘노인문화센터’ 6명(12.5%) 순으로 조사됨(표 3-52, 그림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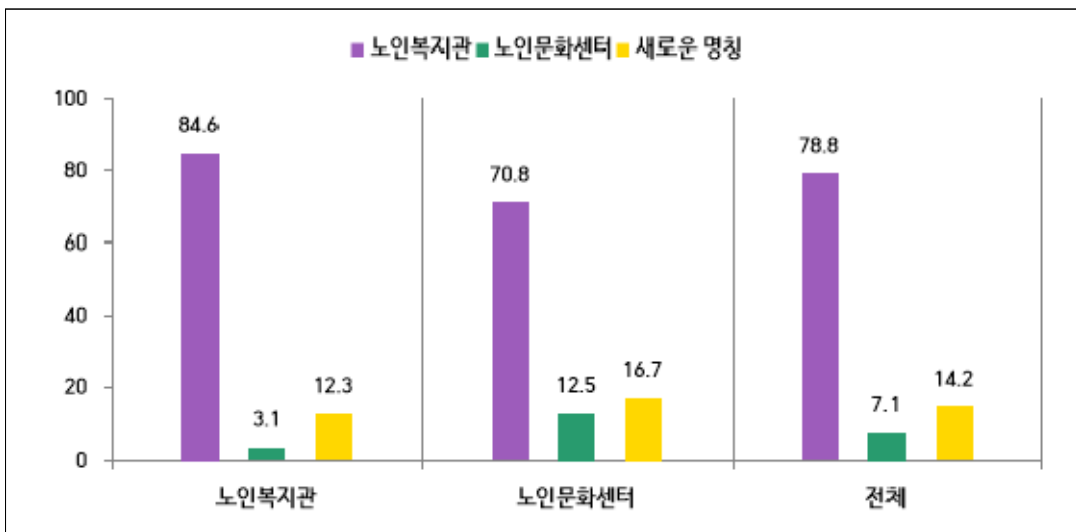
〈표 3-5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전체)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명칭	노인복지관	55	84.6	34	70.8	89	78.8
	노인문화센터	2	3.1	6	12.5	8	7.1
	새로운 명칭	8	12.3	8	16.7	16	14.2
합계		65	100.0	48	100.0	113	100.0

[그림 3-60]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전체)

(단위 : %)



□ 직무별(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노인복지관 직무별 종사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노인복지관’ 3명(100.0%) > ‘노인문화센터’ 0명(0.0%), ‘새로운 명칭’ 0명(0.0%)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52명(83.9%) > ‘새로운 명칭’ 8명(12.9%) > ‘노인문화센터’ 2명(3.2%) 순으로 조사됨(표 3-53, 그림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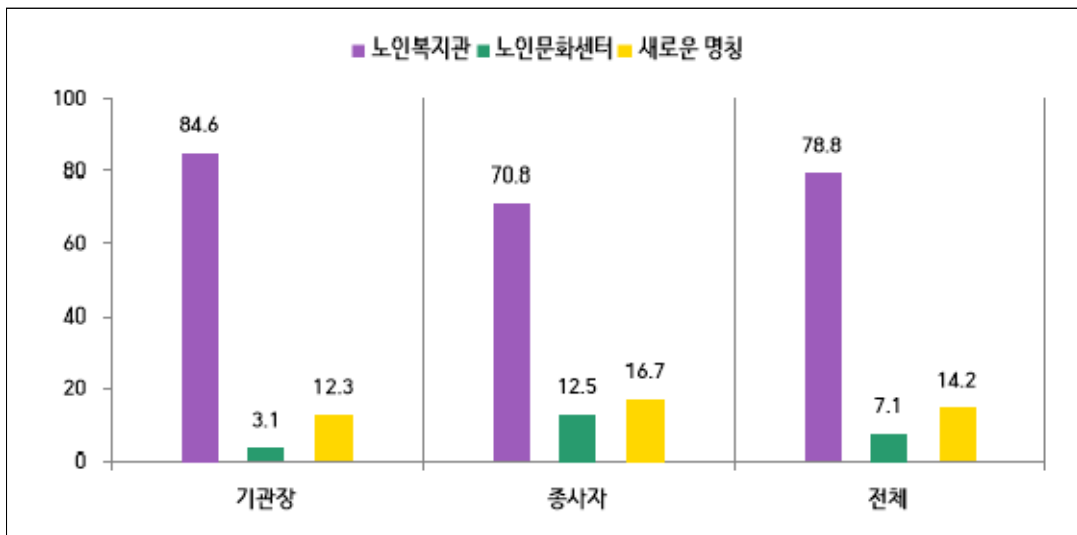
〈표 3-53〉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복지관)

(단위: 명, %)

구분		노인복지관					
		기관장		종사자		전체	
명칭	노인복지관	3	100.0	52	83.9	55	84.6
	노인문화센터	0	0.0	2	3.2	2	3.1
	새로운 명칭	0	0.0	8	12.9	8	12.3
합계		3	100.0	62	100.0	65	100.0

[그림 3-61]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복지관)

(단위: %)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노인문화센터 직무별 종사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노인복지관’ 7명(87.5%) > ‘새로운 명칭’ 1명(12.5%) > ‘노인문화센터’ 0명(0.0%)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관장 외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27명(67.5%) > ‘새로운 명칭’ 7명(17.5%) > ‘노인문화센터’ 6명(15.0%) 순으로 조사됨(표 3-54, 그림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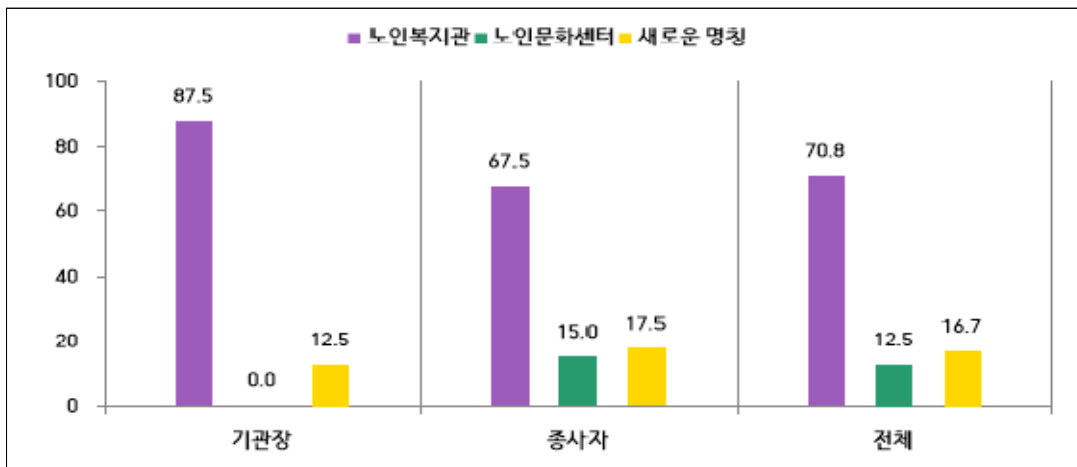
〈표 3-5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문화센터)

(단위: 명, %)

구분		노인문화센터					
		기관장		종사자		전체	
명칭	노인복지관	7	87.5	27	67.5	34	70.8
	노인문화센터	0	0.0	6	15.0	6	12.5
	새로운 명칭	1	12.5	7	17.5	8	16.7
합계		8	100.0	40	100.0	48	100.0

[그림 3-6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노인문화센터)

(단위: %)



(3)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3-55, 그림 3-63, 64)

- 노인복지관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26명(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13명(20.0%)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9명(13.8%)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5명(7.7%) > ‘직원복리 후생 부족’ 4명(6.2%)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3명(4.6%)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2명(3.1%),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2명(3.1%)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22명(3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2명(18.5%) > ‘직원복리 후생 부족’ 9명(13.8%)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6명(9.2%)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4명(6.2%)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3명(4.6%),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3명(4.6%) >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명(3.1%),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명(3.1%)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1.5%),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직원복리 후생 부족’이 21명(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2명(18.5%)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1명(16.9%)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8명(12.3%) > ‘기타’ 4명(6.2%) > ‘종사자의 업무 가중’ 3명(4.6%)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2명(3.1%) >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1명(1.5%),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1명(1.5%),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1.5%),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은 0명(0.0%)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18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 15명(31.3%) > ‘직원복리 후생 부족’ 3명(6.3%)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2명(4.2%),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2명(4.2%), ‘기타’ 2명(4.2%)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13명(27.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직원복리 후생 부족’ 11명(22.9%)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8명(16.7%)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5명(10.4%)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3명(6.3%),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3명(6.3%) >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명(4.2%)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2.1%),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1명(2.1%),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과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은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 11명(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10명(20.8%) > ‘직원복리 후생 부족’ 8명

(16.7%) > ‘종사자의 업무 가중’ 6명(12.5%),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6명(12.5%)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3명(6.3%)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2.1%),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2.1%),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명(2.1%),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12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62점(2순위),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59점(3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 5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이 80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 77점(2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 39점(3순위),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9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5〉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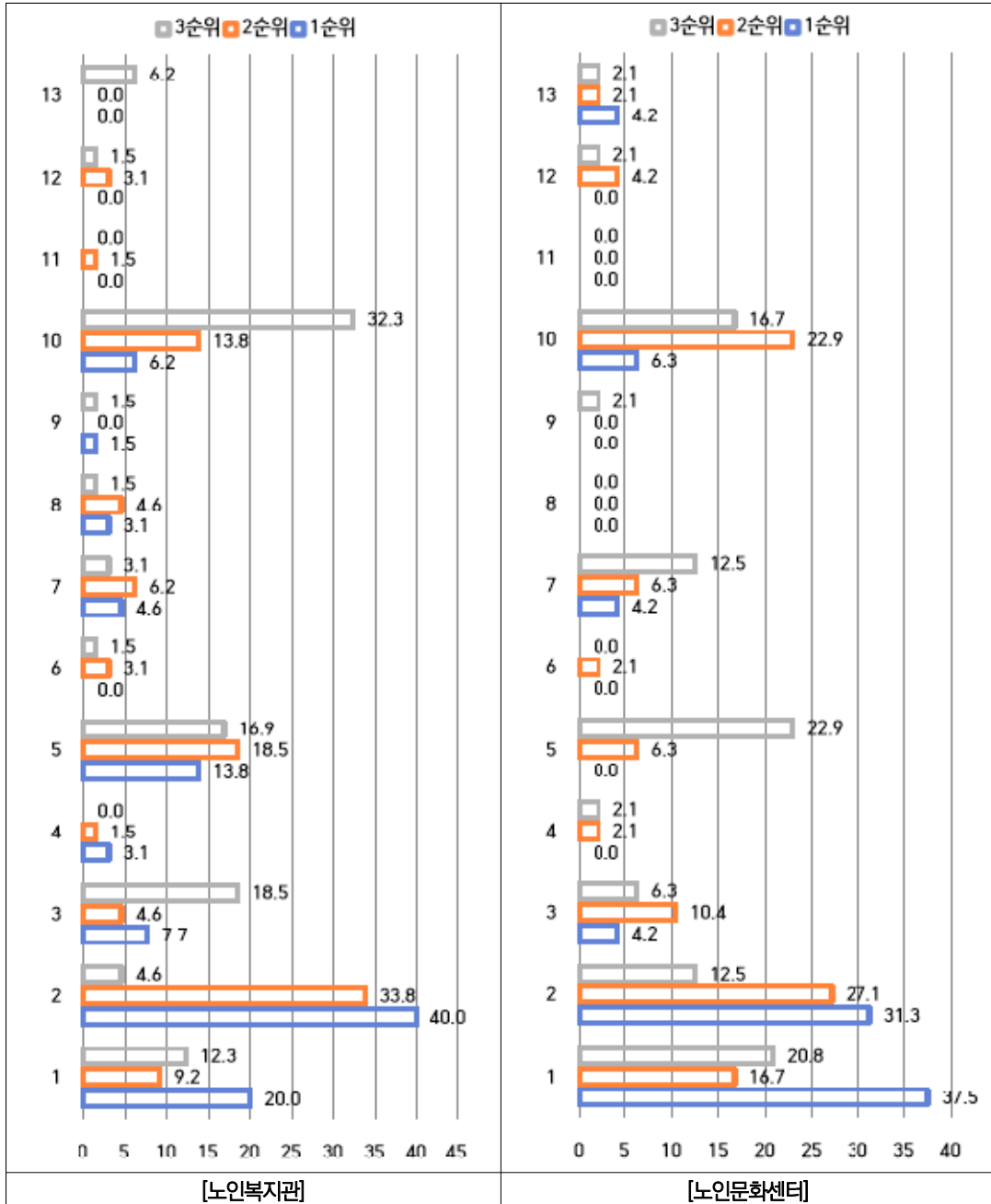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13(20.0)	18(37.5)	6(9.2)	8(16.7)	8(12.3)	10(20.8)	27(13.8)	36(25.0)	59	80	3	1
2	26(40.0)	15(31.3)	22(33.8)	13(27.1)	3(4.6)	6(12.5)	51(26.2)	34(23.6)	125	77	1	2
3	5(7.7)	2(4.2)	3(4.6)	5(10.4)	12(18.5)	3(6.3)	20(10.3)	10(6.9)	33	19	5	4
4	2(3.1)	0(0.0)	1(1.5)	1(2.1)	0(0.0)	1(2.1)	3(1.5)	2(1.4)	8	3	8	9
5	9(13.8)	0(0.0)	12(18.5)	3(6.3)	11(16.9)	11(22.9)	32(16.4)	20(13.9)	62	17	2	6
6	0(0.0)	0(0.0)	2(3.1)	1(2.1)	1(1.5)	0(0.0)	3(1.5)	1(0.7)	5	2	9	10
7	3(4.6)	2(4.2)	4(6.2)	3(6.3)	2(3.1)	6(12.5)	9(4.6)	11(7.6)	19	18	6	5
8	2(3.1)	0(0.0)	3(4.6)	0(0.0)	1(1.5)	0(0.0)	6(3.1)	0(0.0)	13	0	7	12
9	1(1.5)	0(0.0)	0(0.0)	0(0.0)	1(1.5)	1(2.1)	2(1.0)	1(0.7)	4	1	11	11
10	4(6.2)	3(6.3)	9(13.8)	11(22.9)	21(32.3)	8(16.7)	34(17.4)	22(15.3)	51	39	4	3
11	0(0.0)	0(0.0)	1(1.5)	0(0.0)	0(0.0)	0(0.0)	1(0.5)	0(0.0)	2	0	13	12
12	0(0.0)	0(0.0)	2(3.1)	2(4.2)	1(1.5)	1(2.1)	3(1.5)	3(2.1)	5	5	9	8
13 ¹⁴⁾	0(0.0)	2(4.2)	0(0.0)	1(2.1)	4(6.2)	1(2.1)	4(2.1)	4(2.8)	4	9	11	7
합계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195 (100.0)	144 (100.0)	-	-	-	-

주)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14)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급여부족(1), 없음(1), 젊은 노년층 유입 증대, 60대~90대 전혀 다른 세대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의 어려움(1), 타 여가시설과의 경쟁(1), 노인문화센터는 문화센터 명칭으로 인한 전문인력 지원을 저하(1), 불필요한 평가(1), 인력부족(1), 작은 규모의 시설(1)로 응답함.

[그림 3-63]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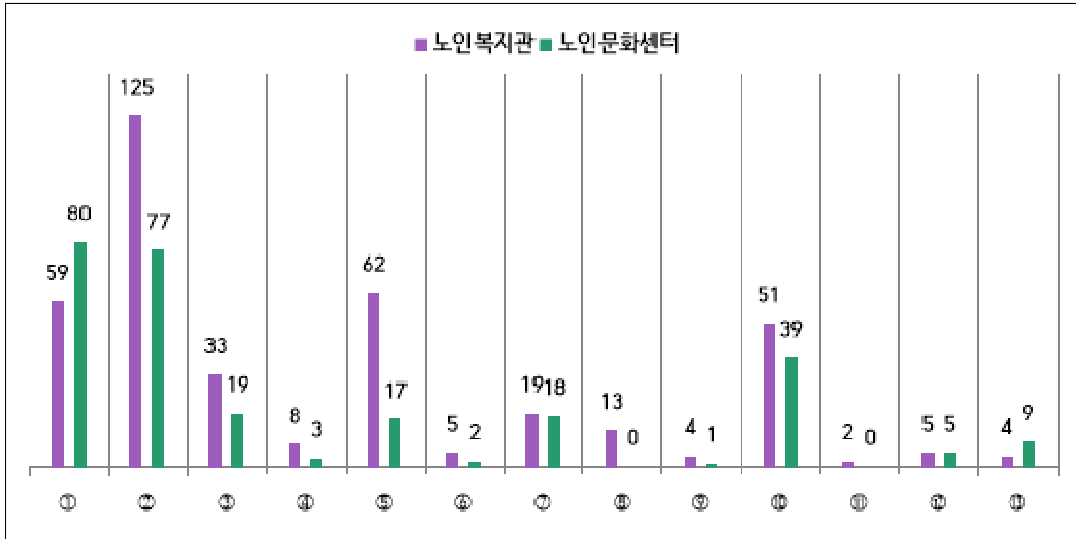
(단위: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달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그림 3-64]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전체/가중점수)

(단위: 점)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 직무별(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직무별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3-56, 그림 3-65, 66)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2명(6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명(33.3%) 순으로 나타났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직원복리 후생 부족’,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전문 프로그램 강사 부재’,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이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직원복리 후생 부족’,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기타’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직원복리 후생 부족’,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은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24명(3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13명(21.0%)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9명(14.5%)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4명(6.5%), ‘직원복리 후생 부족’ 4명(6.5%)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3명(4.8%)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2명(3.2%),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2명(3.2%)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22명(3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1명(17.7%) > ‘직원복리 후생 부족’ 9명(14.5%)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5명(8.1%)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4명(6.5%)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3명(4.8%) >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명(3.2%),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2명(3.2%),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명(3.2%)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1.6%),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직원복리 후생 부족’이 21명(3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2명(19.4%)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0명(16.1%)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8명(12.9%) > ‘기타’ 3명(4.8%) > ‘종사자의 업무 가중’ 2명(3.2%),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2명(3.2%) >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1명(1.6%),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1명(1.6%),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1.6%) >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은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4점(2순위),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3점(3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2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118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59점(2순위),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57점(3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 5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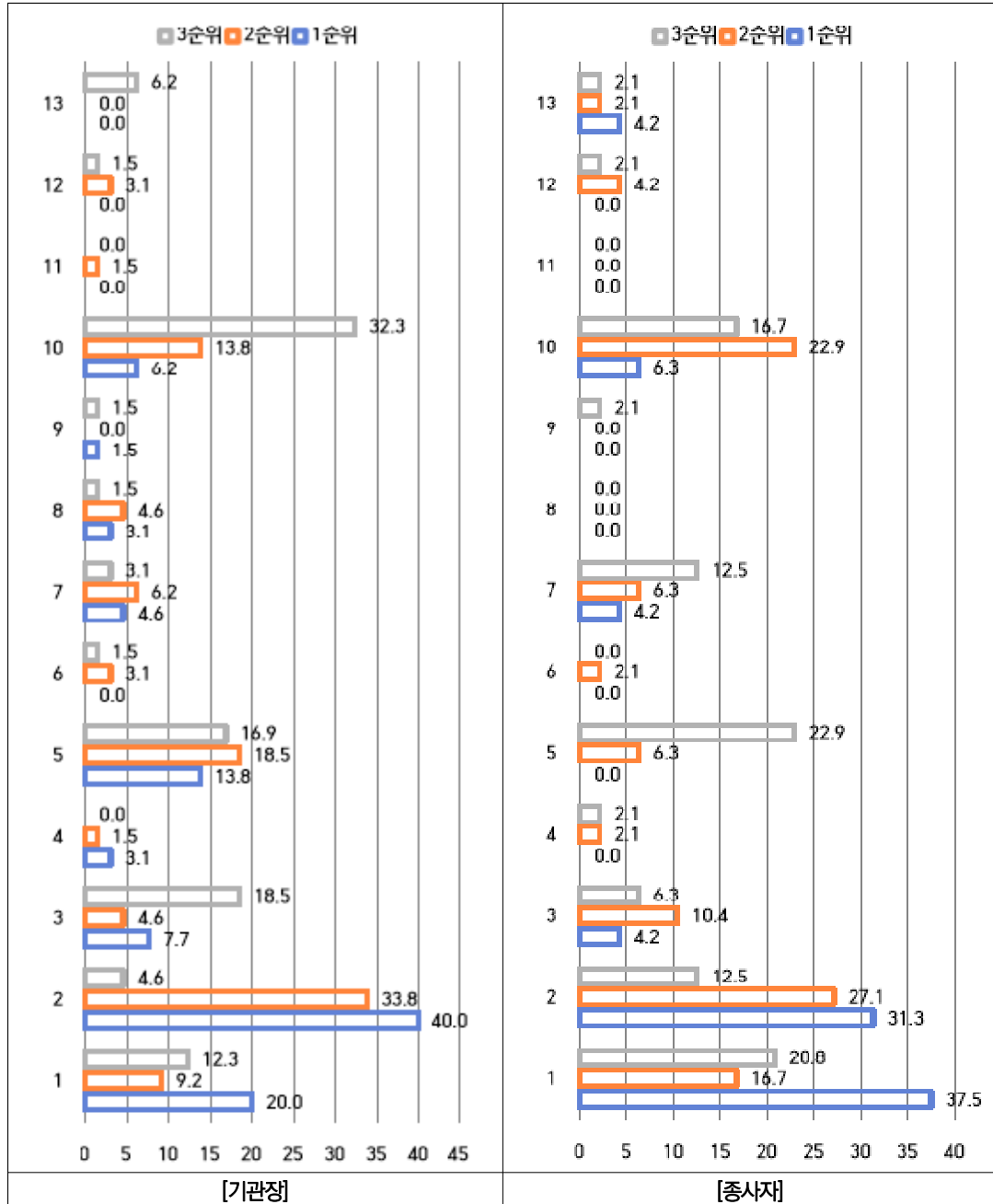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0(0.0)	13(21.0)	1(33.3)	5(8.1)	0(0.0)	8(12.9)	1(11.1)	26(14.0)	2	57	4	3
2	2(66.7)	24(38.7)	0(0.0)	22(35.5)	1(33.3)	2(3.2)	3(33.3)	48(25.8)	7	118	1	1
3	1(33.3)	4(6.5)	0(0.0)	3(4.8)	0(0.0)	12(19.4)	1(11.1)	19(10.2)	3	30	3	5
4	0(0.0)	2(3.2)	0(0.0)	1(1.6)	0(0.0)	0(0.0)	0(0.0)	3(1.6)	0	8	7	8
5	0(0.0)	9(14.5)	1(33.3)	11(17.7)	1(33.3)	10(16.1)	2(22.2)	30(16.1)	4	59	2	2
6	0(0.0)	0(0.0)	0(0.0)	2(3.2)	0(0.0)	1(1.6)	0(0.0)	3(1.6)	0	5	7	9
7	0(0.0)	3(4.8)	0(0.0)	4(6.5)	0(0.0)	2(3.2)	0(0.0)	9(4.8)	0	19	7	6
8	0(0.0)	2(3.2)	1(33.3)	2(3.2)	0(0.0)	1(1.6)	1(11.1)	5(2.7)	2	11	4	7
9	0(0.0)	1(1.6)	0(0.0)	0(0.0)	0(0.0)	1(1.6)	0(0.0)	2(1.1)	0	4	7	11
10	0(0.0)	4(6.5)	0(0.0)	9(14.5)	0(0.0)	21(33.9)	0(0.0)	34(18.3)	0	51	7	4
11	0(0.0)	0(0.0)	0(0.0)	1(1.6)	0(0.0)	0(0.0)	0(0.0)	1(0.5)	0	2	7	13
12	0(0.0)	0(0.0)	0(0.0)	2(3.2)	0(0.0)	1(1.6)	0(0.0)	3(1.6)	0	5	7	9
13 ¹⁵⁾	0(0.0)	0(0.0)	0(0.0)	0(0.0)	1(33.3)	3(4.8)	1(11.1)	3(1.6)	1	3	6	12
합계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9 (100.0)	186 (100.0)	-	-	-	-

주)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15)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급여부족(1), 없음(1), 젊은 노년층 유입 증대, 60대~ 90대 전후 다른 세대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의 어려움(1), 타 여가시설과의 경쟁(1)으로 응답함.

[그림 3-65]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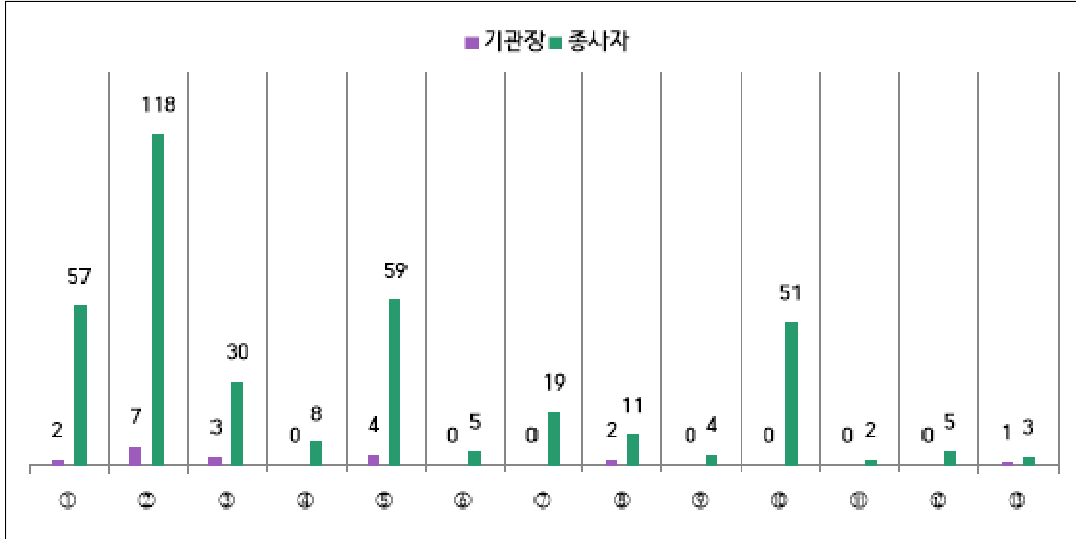
(단위 :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달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그림 3-6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복지관/가중점수)

(단위: 점)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 직무별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3-57, 그림 3-67, 68)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4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 2명(25.0%)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명(12.5%),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과와 ‘직원복리 후생 부족’,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직원복리 후생 부족’이 4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2명(25.0%), ‘종사자의 업무 가중’ 2명(25.0%)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와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이 4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2명(25.0%)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1명(12.5%),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직원복리 후생 부족'과 '종사자의 업무 가중',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14명(3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 13명(32.5%)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5명(5.0%) > '직원복리 후생 부족' 3명(7.5%)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2명(5.0%), '기타' 2명(5.0%)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11명(2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직원복리 후생 부족' 7명(17.5%)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6명(15.0%)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5명(12.5%)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3명(7.5%),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3명(7.5%) >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2명(5.0%) >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2.5%),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과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은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9명(2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직원복리 후생 부족' 8명(20.0%)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7명(17.5%) > '종사자의 업무 가중' 6명(15.0%)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5명(12.5%) >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명(2.5%),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1명(2.5%),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2.5%),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1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 10점(2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 8점(3순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후' 7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6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63점(2순위), '직원복리 후생 부족' 31점(3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28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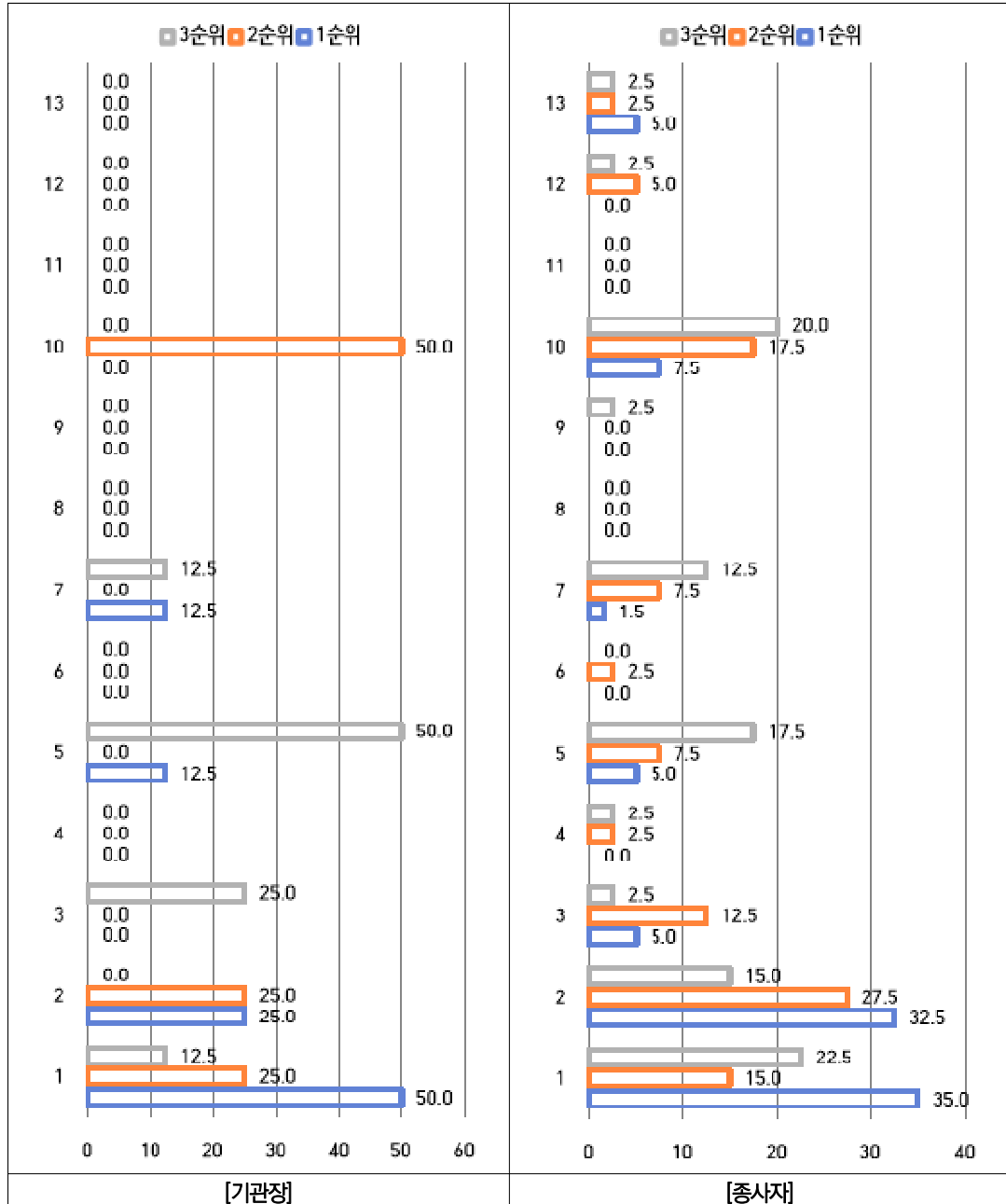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4(50.0)	14(35.0)	2(25.0)	6(15.0)	1(12.5)	9(22.5)	7(29.2)	29(24.2)	17	63	1	2
2	2(25.0)	13(32.5)	2(25.0)	11(27.5)	0(0.0)	6(15.0)	4(16.7)	30(25.0)	10	67	2	1
3	0(0.0)	2(5.0)	0(0.0)	5(12.5)	2(25.0)	1(2.5)	2(8.3)	8(6.7)	2	17	6	5
4	0(0.0)	0(0.0)	0(0.0)	1(2.5)	0(0.0)	1(2.5)	0(0.0)	2(1.7)	0	3	7	9
5	1(12.5)	5(5.0)	0(0.0)	3(7.5)	4(50.0)	7(17.5)	5(20.8)	15(12.5)	7	28	4	4
6	0(0.0)	0(0.0)	0(0.0)	1(2.5)	0(0.0)	0(0.0)	0(0.0)	1(0.8)	0	2	7	10
7	1(12.5)	1(1.5)	0(0.0)	3(7.5)	1(12.5)	5(12.5)	2(8.3)	9(7.5)	4	14	5	6
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7	12
9	0(0.0)	0(0.0)	0(0.0)	0(0.0)	0(0.0)	1(2.5)	0(0.0)	1(0.8)	0	1	7	11
10	0(0.0)	3(7.5)	4(50.0)	7(17.5)	0(0.0)	8(20.0)	4(16.7)	18(15.0)	8	31	3	3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7	12
12	0(0.0)	0(0.0)	0(0.0)	2(5.0)	0(0.0)	1(2.5)	0(0.0)	3(2.5)	0	5	7	8
13 ¹⁶⁾	0(0.0)	2(5.0)	0(0.0)	1(2.5)	0(0.0)	1(2.5)	0(0.0)	4(3.3)	0	9	7	7
합계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24 (100.0)	120 (100.0)	-	-	-	-

주)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달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16)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문화센터 명칭으로 인한 전문인력 지원을 저하(1), 불필요한 평가(1), 인력부족(1), 작은 규모의 시설(1)로 응답함.

[그림 3-6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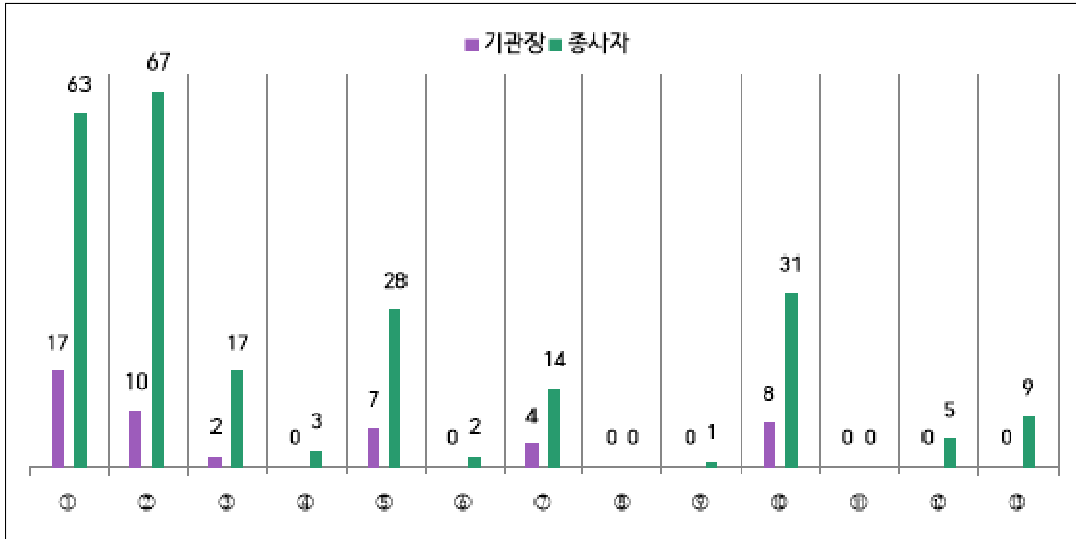
(단위 :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그림 3-68]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단위: 점)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달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4)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응답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58, 그림 3-69, 70)

- 노인복지관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7명(2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5명(23.1%),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15명(23.1%)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7명(10.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7명(10.8%),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2명(3.1%)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1.5%),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운영비 증액'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5명(2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13명(20.0%)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1명(16.9%) > '운영비 증액' 6명(9.2%),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6명

(9.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6명(9.2%) >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4명(6.2%)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2명(3.1%)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1.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이 13명(2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11명(16.9%),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11명(16.9%) > ‘운영비 증액’ 8명(12.3%),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8명(12.3%) >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6명(9.2%)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3명(4.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3명(4.6%) >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1명(1.5%), ‘기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1순위는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과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16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6명(12.5%)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5명(10.4%)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3명(6.3%)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명(2.1%),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운영비 증액’과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8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10명(20.8%)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7명(14.6%),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7명(14.6%)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4명(8.3%) > ‘운영비 증액’ 1명(2.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과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가 12명(2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운영비 증액’ 9명(18.8%)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4명(8.3%),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4명(8.3%)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2.1%)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3명(6.3%),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3명(6.3%) >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5명(10.4%)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6명(12.5%)

〉 ‘기타’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92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75점(2순위),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63점(3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58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72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66점(2순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59점(3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4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8〉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전체)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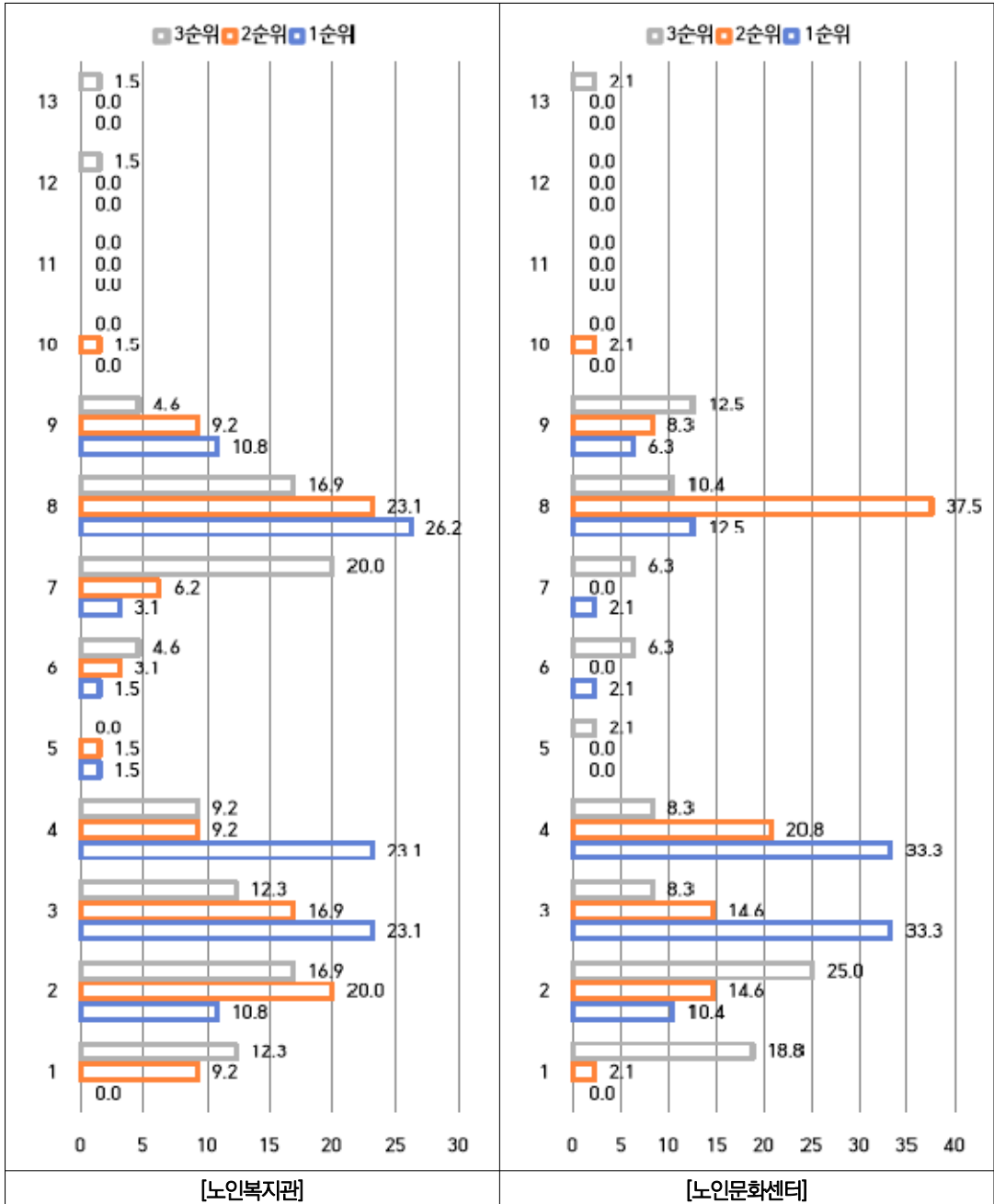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0(0.0)	0(0.0)	6(9.2)	1(2.1)	8(12.3)	9(18.8)	14(7.2)	10(6.9)	20	11	7	6
2	7(10.8)	5(10.4)	13(20.0)	7(14.6)	11(16.9)	12(25.0)	31(15.9)	24(16.7)	58	41	4	4
3	15(23.1)	16(33.3)	11(16.9)	7(14.6)	8(12.3)	4(8.3)	34(17.4)	27(18.8)	75	66	2	2
4	15(23.1)	16(33.3)	6(9.2)	10(20.8)	6(9.2)	4(8.3)	27(13.8)	30(20.8)	63	72	3	1
5	1(1.5)	0(0.0)	1(1.5)	0(0.0)	0(0.0)	1(2.1)	2(1.0)	1(0.7)	5	1	9	10
6	1(1.5)	1(2.1)	2(3.1)	0(0.0)	3(4.6)	3(6.3)	6(3.1)	4(2.8)	10	6	8	7
7	2(3.1)	1(2.1)	4(6.2)	0(0.0)	13(20.0)	3(6.3)	19(9.7)	4(2.8)	27	6	6	7
8	17(26.2)	6(12.5)	15(23.1)	18(37.5)	11(16.9)	5(10.4)	43(22.1)	29(20.1)	92	59	1	3
9	7(10.8)	3(6.3)	6(9.2)	4(8.3)	3(4.6)	6(12.5)	16(8.2)	13(9.0)	36	23	5	5
10	0(0.0)	0(0.0)	1(1.5)	1(2.1)	0(0.0)	0(0.0)	1(0.5)	1(0.7)	2	2	10	9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13	12
12	0(0.0)	0(0.0)	0(0.0)	0(0.0)	1(1.5)	0(0.0)	1(0.5)	0(0.0)	1	0	11	12
13 ¹⁷⁾	0(0.0)	0(0.0)	0(0.0)	0(0.0)	1(1.5)	1(2.1)	1(0.5)	1(0.7)	1	1	11	10
합계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65 (100.0)	48 (100.0)	195 (100.0)	144 (100.0)	-	-	-	-

주)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17)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력지원 확보(1), 노인문화센터는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운영기준 통일(1)로 응답함.

[그림 3-6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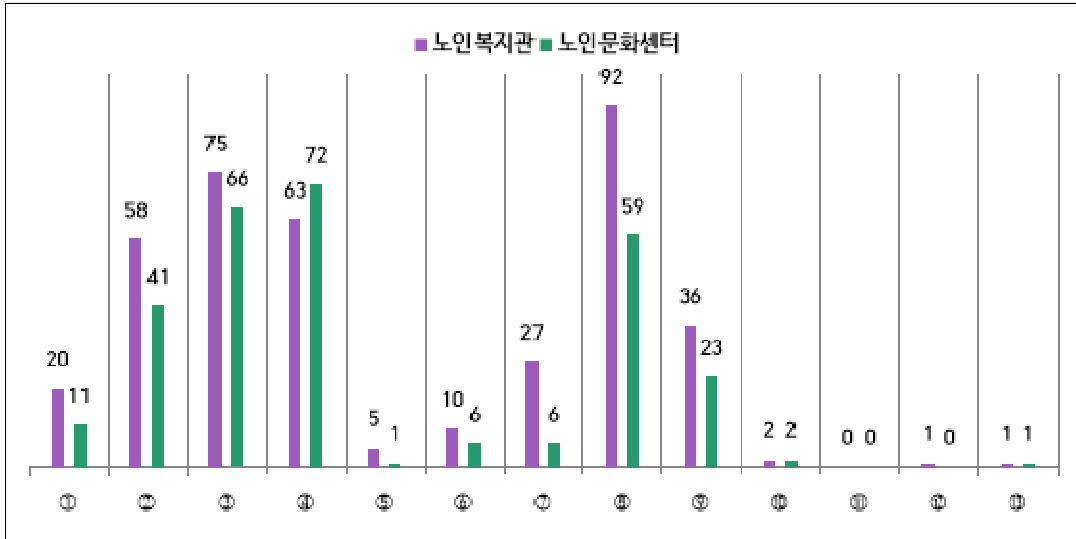
(단위 : %)



① 운영비 증액, ②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그림 3-7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전체/가중점수)

(단위: 점)



① 운영비 증액, ②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 직무별(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직무별 종사자 응답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59, 그림 3-71, 72)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2명(6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명(33.3%) 순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과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운영비 증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과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운영비 증액’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과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기타’가 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운영비 증액’,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노인돌봄 방문 요양서비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7명(2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4명(22.6%) >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13명(21.0%)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7명(11.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7명(11.3%) >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2명(3.2%)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1.6%),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과 ‘연수 등 기회 제공’, ‘운영비 증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5명(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13명(21.0%)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0명(16.1%) > ‘운영비 증액’ 6명(9.7%) >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5명(8.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5명(8.1%) >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4명(6.5%)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2명(3.2%)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1.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이 12명(1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11명(17.7%),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11명(17.7%) > ‘운영비 증액’ 8명(12.9%),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8명(12.9%) >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6명(9.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3명(4.8%)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2명(3.2%) >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8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5점(2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2점(3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92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70점(2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58점(3순위),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55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복지관)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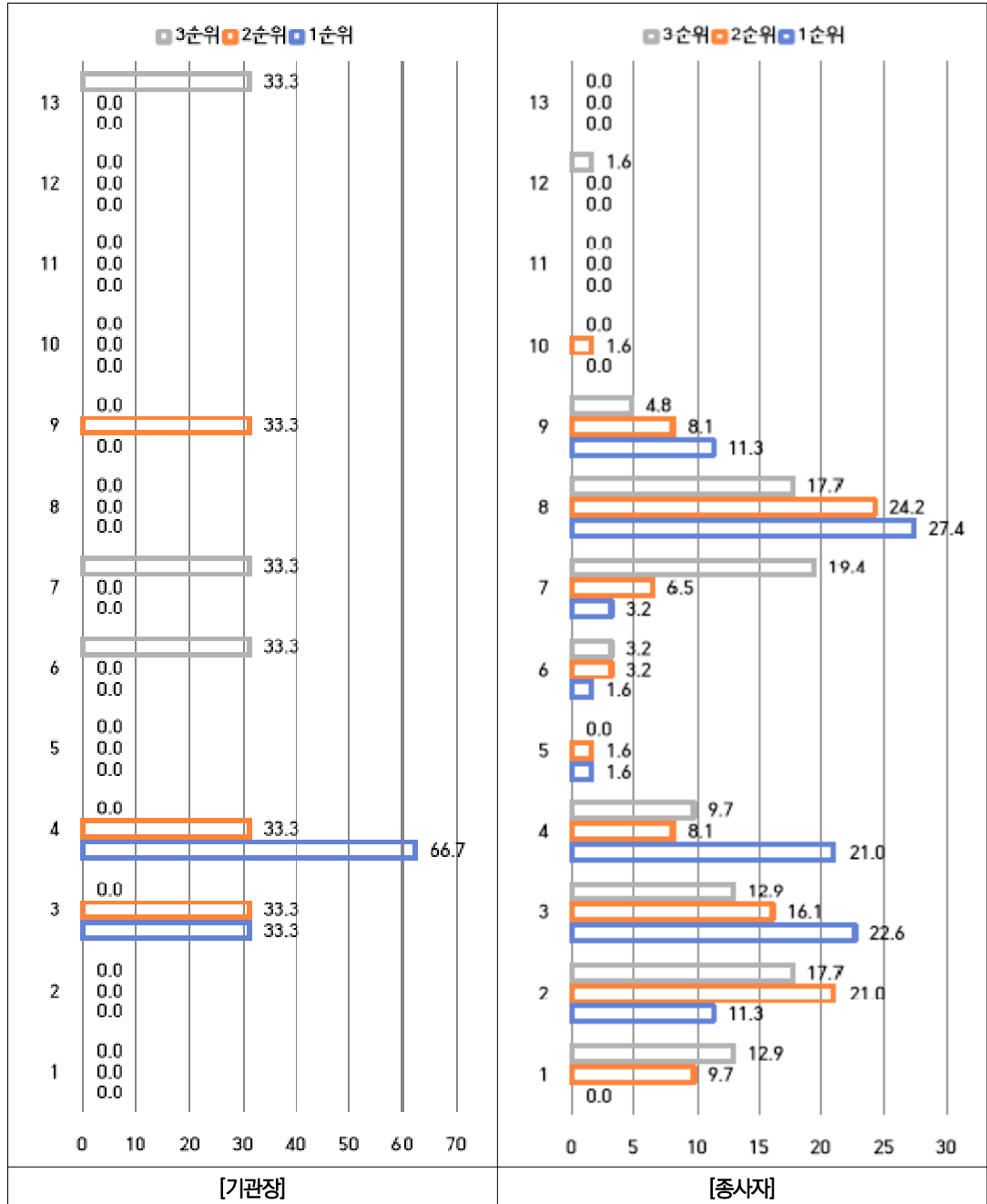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0(0.0)	0(0.0)	0(0.0)	6(9.7)	0(0.0)	8(12.9)	0(0.0)	14(7.5)	0	20	7	7
2	0(0.0)	7(11.3)	0(0.0)	13(21.0)	0(0.0)	11(17.7)	0(0.0)	31(16.7)	0	58	7	3
3	1(33.3)	14(22.6)	1(33.3)	10(16.1)	0(0.0)	8(12.9)	2(22.2)	32(17.2)	5	70	2	2
4	2(66.7)	13(21.0)	1(33.3)	5(8.1)	0(0.0)	6(9.7)	3(33.3)	24(12.9)	8	55	1	4
5	0(0.0)	1(1.6)	0(0.0)	1(1.6)	0(0.0)	0(0.0)	0(0.0)	2(1.1)	0	5	7	9
6	0(0.0)	1(1.6)	0(0.0)	2(3.2)	1(33.3)	2(3.2)	1(11.1)	5(2.7)	1	9	4	8
7	0(0.0)	2(3.2)	0(0.0)	4(6.5)	1(33.3)	12(19.4)	1(11.1)	18(9.7)	1	26	4	6
8	0(0.0)	17(27.4)	0(0.0)	15(24.2)	0(0.0)	11(17.7)	0(0.0)	43(23.1)	0	92	7	1
9	0(0.0)	7(11.3)	1(33.3)	5(8.1)	0(0.0)	3(4.8)	1(11.1)	15(8.1)	2	34	3	5
10	0(0.0)	0(0.0)	0(0.0)	1(1.6)	0(0.0)	0(0.0)	0(0.0)	1(0.5)	0	2	7	10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7	12
12	0(0.0)	0(0.0)	0(0.0)	0(0.0)	0(0.0)	1(1.6)	0(0.0)	1(0.5)	0	1	7	11
13 ¹⁸⁾	0(0.0)	0(0.0)	0(0.0)	0(0.0)	1(33.3)	0(0.0)	1(11.1)	0(0.0)	1	0	4	12
합계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3 (100.0)	62 (100.0)	9 (100.0)	186 (100.0)	-	-	-	-

주)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18)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력지원 확보(1)로 응답함.

[그림 3-71]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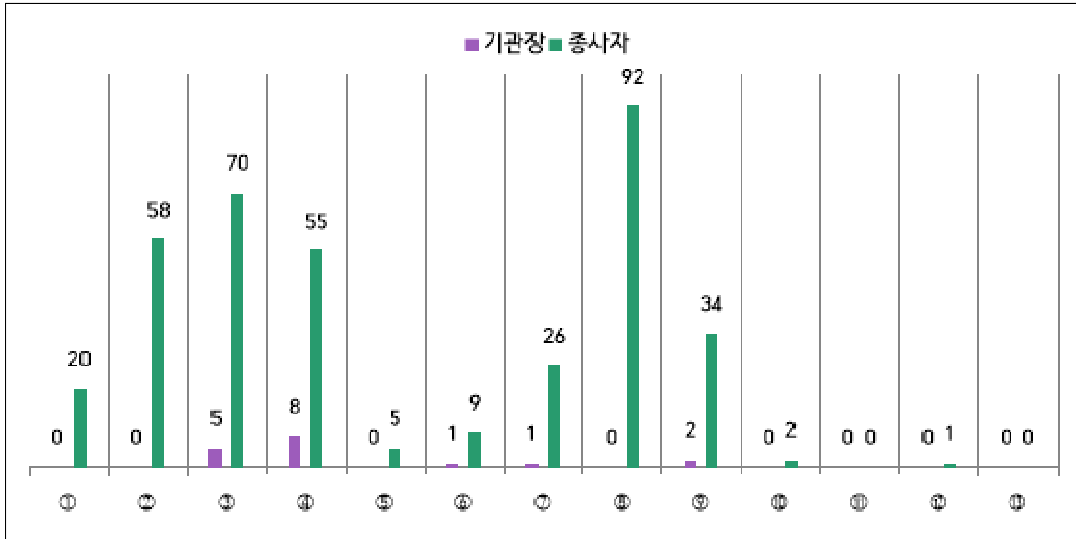
(단위: %)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그림 3-72]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노인복지관/가중점수)

(단위: 점)



① 운영비 증액, ②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 직무별(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직무별 종사자 응답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60, 그림 3-73, 74)

- 기관장의 경우, 1순위는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이 4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3명(37.5%)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과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운영비 증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3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2명(25.0%),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2명(25.0%)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운영비 증액'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

(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가 3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운영비 증액’ 1명(12.5%),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명(12.5%),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1명(12.5%),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1명(12.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1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과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1순위는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13명(3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2명(30.0%)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6명(15.0%)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5명(12.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3명(7.5%) >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운영비 증액’,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16명(4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7명(17.5%)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6명(15.0%) >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5명(12.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4명(10.0%) > ‘운영비 증액’ 1명(2.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명(2.1%)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과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가 9명(2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운영비 증액’ 8명(20.0%)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5명(12.5%) >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4명(10.0%),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4명(10.0%)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3명(7.5%),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3명(7.5%) >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2명(5.0%) >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1명(2.5%), ‘기타’ 1명(2.5%)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과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1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7점(3순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5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관장 외 종사자의 경우,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5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54점(2순위),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51점(3순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34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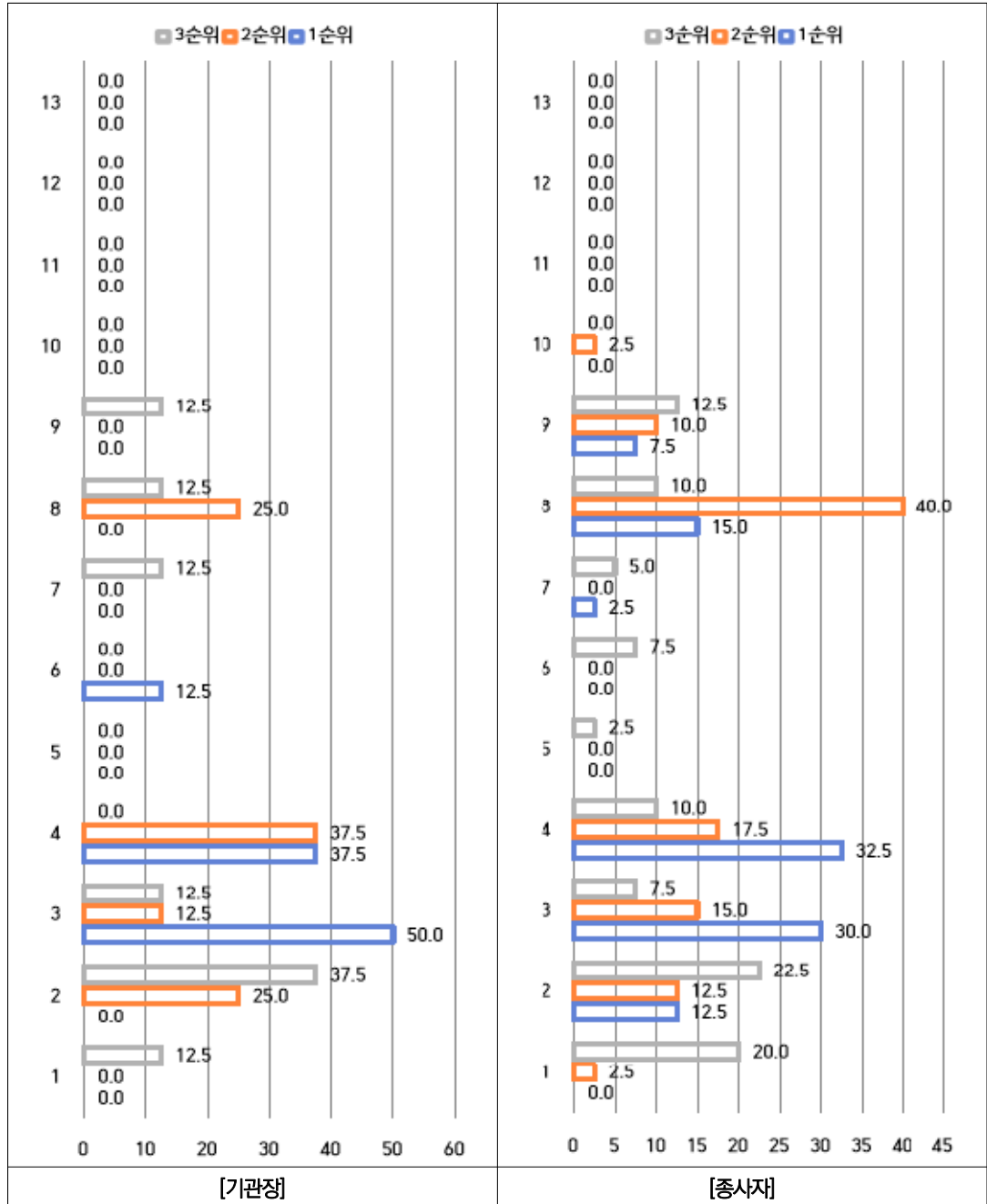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기관장	종사자
1	0(0.0)	0(0.0)	0(0.0)	1(2.5)	1(12.5)	8(20.0)	1(4.2)	9(7.5)	1	10	6	6
2	0(0.0)	5(12.5)	2(25.0)	5(12.5)	3(37.5)	9(22.5)	5(20.8)	19(15.8)	7	34	3	4
3	4(50.0)	12(30.0)	1(12.5)	6(15.0)	1(12.5)	3(7.5)	6(25.0)	21(17.5)	15	51	1	3
4	3(37.5)	13(32.5)	3(37.5)	7(17.5)	0(0.0)	4(10.0)	6(25.0)	24(20.0)	15	57	1	1
5	0(0.0)	0(0.0)	0(0.0)	0(0.0)	0(0.0)	1(2.5)	0(0.0)	1(0.8)	0	1	9	9
6	1(12.5)	0(0.0)	0(0.0)	0(0.0)	0(0.0)	3(7.5)	1(4.2)	3(2.5)	3	3	5	8
7	0(0.0)	1(2.5)	0(0.0)	0(0.0)	1(12.5)	2(5.0)	1(4.2)	3(2.5)	1	5	6	7
8	0(0.0)	6(15.0)	2(25.0)	16(40.0)	1(12.5)	4(10.0)	3(12.5)	26(21.7)	5	54	4	2
9	0(0.0)	3(7.5)	0(0.0)	4(10.0)	1(12.5)	5(12.5)	1(4.2)	12(10.0)	1	22	6	5
10	0(0.0)	0(0.0)	0(0.0)	1(2.5)	0(0.0)	0(0.0)	0(0.0)	1(0.8)	0	2	9	11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9	11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9	11
13 ¹⁹⁾	0(0.0)	0(0.0)	0(0.0)	0(0.0)	0(0.0)	1(2.5)	0(0.0)	1(0.8)	0	1	9	9
합계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8 (100.0)	40 (100.0)	24 (100.0)	120 (100.0)	-	-	-	-

주)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19) 기타(직접 작성) 응답을 보면,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운영기준 통일(1)로 응답함.

[그림 3-73]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노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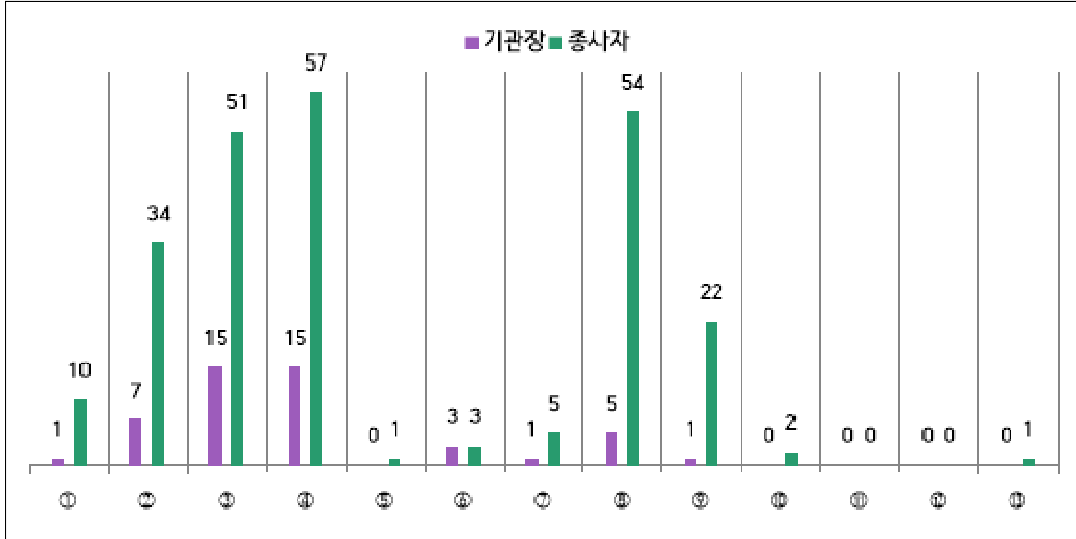
(단위 : %)



① 운영비 증액, ② 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그림 3-74] 소속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노인문화센터/가중점수)

(단위: 점)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5)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61)

〈표 3-61〉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복지관)

범주	내용
시설 보강 및 사업조정 (N=00)	-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예산과 시 정책사업 확충 및 기관설립 - 예산 규모나 인력이 따른 사업조정이 필요. 규모가 작은 복지관은 업무 과중 심각 -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공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복지관의 전반적 리모델링 또는 이전 필요 - 기존의 획일화된 정책 외에 욕구에 맞는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함 - 시설 노후 개선, 효율적 업무 배분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의 운영방식 재검토,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전담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 요구 - 사업 시도 및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적 인력 배치 필요 - 시설장 전문성 강화(자격 및 경력 모두) - 기능보강의 시기적절한 예산지원 -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배치 필요

범주	내용
	3년마다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평가의 실효성 - 규모가 큰 문화센터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별 수요인원을 분산해야 이용
인력 보강 및 처우개선 (N=00)	- 장기근속 휴가 요양원 경력자 포함 - 사업실적 우선이 아닌 실질적인 자원과 후원이 필요 - 인력변동 없이 복지관 평가, 시 사업 추가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음.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시 인력적인 부분 혹은 기본 업무의 조정이 필요함 - 직원 보충(보건복지부 인력 기준 준수) - 종사자 처우개선(복지서비스)을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도모 - 전문인력배치/인력 충원 - 시설 증축 및 인력 확대 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 -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필요(급여향상 등) - 각 시설마다 운영 규모에 맞는 인력 추가 확보 필요 - 수당의 상향평준화 - 직급 및 직군별 적절한 경력인정, 처우개선 필요 - 인적, 물적 환경 구성 -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특수적인 처우개선비 등 차별화가 필요 - 사회복지사 처우나 보수가 타직업에 비해 좋지않아 이직률도 높고 직업 만족도가 너무 낮음 -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이점 개선
서비스 중복 (N=00)	- 구마다 복지관이 다수 있어 서비스 중복이 많이 이루어짐. 서비스 중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여가시설 프로그램들의 중복성의 한계, 여러 분야의 지원 필요(예산, 직원 복리후생)
기타 (N=00)	- 수탁기관의 필수적인 법인전입금 투입, 전문성 없는 수탁자의 노인복지시설 위탁 금지 조항 마련(대한노인회) - 이런 조사처럼 실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음 - 정치적 간섭 배제 - 노인복지관 고유기능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인력운용의 자율성 보장 - 지역주민 및 노인 대상 기관 인식 등 서베이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규모에 따른 기능개선이 필요

□ 노인문화센터

○ 노인문화센터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62)

〈표 3-62〉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문화센터)

범주	내용
시설 보강 및 사업조정 (N=00)	- 명칭 통합과 더불어 수도권 내 지역인만큼 서울·경기·인천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 규모 및 사업량 조정을 통한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을 기본단위로의 접근이 요구됨 - 기관장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따른 전문적 기관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기관장 단발성 임기로 인한 신뢰 및 운영총괄에 대한 권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노인문화센터로 이름을 지은 만큼 문화교육 사업에 집중하여 확대했으면 좋겠고, 노인 일 자리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음 -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관리를 별도로 하는 방법이나 같은 운영 기준을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범주	내용
	- 지자체를 비롯해 여러 유관기관에서 비슷한 실적을 다른 서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담당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서로 다른 서식의 실적을 작성해서 보고하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됨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회원 관리체계 필요. 한 지역 내에서도 각 기관이 각자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상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통합 회원 관리체계 도입 시급
인력 보강 및 처우개선 (N=00)	- 돌봄 기간제 인력 정규직화 필요 - 문화센터 사회복지사주가 배치 급히 필요 - 경로식당 급식 조리 인력 배치 필요(자원봉사자에 의존 한계 및 어려움) - 노인문화센터에서 감당해야 할 사업, 예산, 이용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업무 가중이 매년 심화하는 실정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사주의 이직을 초래하는 이유가 됨 - 노인이용시설의 기본인력 충원, 위탁 사업은 계약직 직원이 아닌 정규직 기본인력 충원 - 노인인가가 많아지면서 노인여가시설에 이용객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좋은 재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 비사회복지직 임금 관련 재정립 필요, 회계직원 1명씩 더 충원, 노인문화센터에서도 노인 일자리, 돌봄까지 하는데 1명으로 부족함 - 종사자 복지 개선 필요 - 타 시도와 비교해 노인복지관 직원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나 상담직원이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십수년간 노인문화센터가 운영되어 오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은 변함이 없음 -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및 노인문화센터 업무의 명확한 기준 - 이용자 대비 종사자 수가 적어 업무가 가중,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인력을 늘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이용자증가로 인력 부족, 프로그램이용실 장소 공간 부족, 센터는 호봉에 상관없이 과장직만 유지됨 -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복지가 갈려면 종사자부터 복지혜택이 있고 업무에 과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 인력 충원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 - 전문적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발전 기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기대 - 직종에 따른 승급 차별 개선 - 확대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만큼 직원 충원을 통해 적절한 사업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요청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N=00)	-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지자체의 정확한 인식 필요, 여가문화시설이 아닌 상담 및 사례 관리, 사회참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조직 등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만 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순 여가문화시설이 아님
기타 (N=00)	- 복지관과 문화센터의 이름을 공통으로 했으면 함 - 복지제도가 넘 결혼여성 위주로 되어있어 솔로를 위한 복지도 형평성 있게 재조정이 필요함 - 인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과 조례를 타 시도와 다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의 확충과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큰 문제 -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결과가 신속히 나왔으면 좋겠고, 개선 또한 빨리 되었으면 좋겠음 -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

2. 이용자 수요조사

- 이용자 수요조사는 「기본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을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로 비교하여 분석함

1) 기본사항

(1)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소재지

-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38명(36.9%), ‘노인문화센터’는 65명(63.1%)으로 조사됨(표 3-63, 그림 3-75)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소재지는 중구 10명(26.3%), 동구 0명(0.0%), 미추홀구 11명(28.9%), 연수구 0명(0.0%), 남동구 10명(26.3%), 부평구 0명(0.0%), 계양구 7명(18.4%), 서구 0명(0.0%), 강화군 0명(0.0%)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소재지는 중구 0명(0.0%), 동구 10명(15.4%), 미추홀구 10명(15.4%), 연수구 0명(0.0%), 남동구 0명(0.0%), 부평구 10명(15.4%), 계양구 20명(30.8%), 서구 15명(23.1%), 강화군 0명(0.0%)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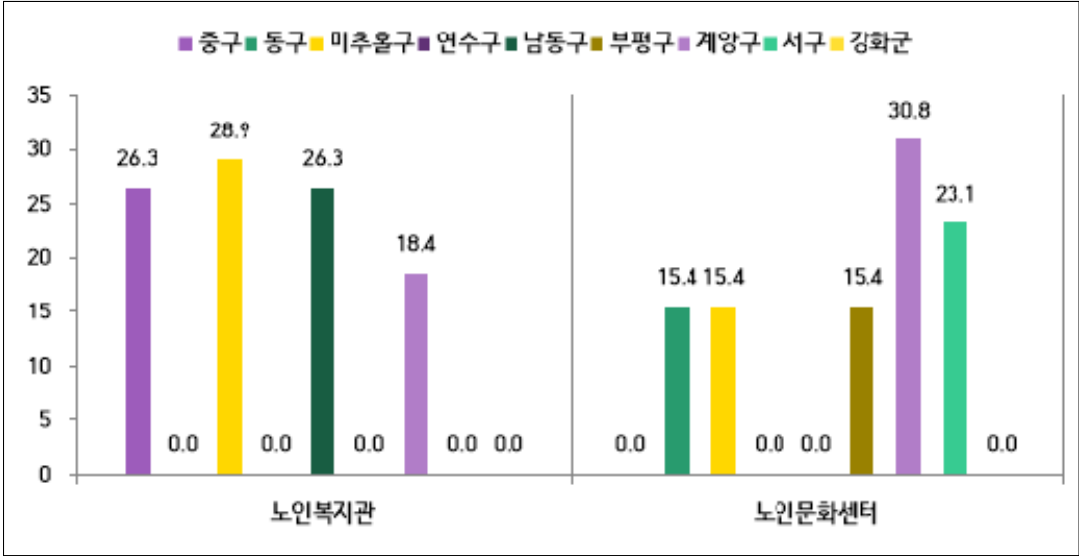
〈표 3-63〉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소재지	중구	10	26.3	0	0.0	10	9.7
	동구	0	0.0	10	15.4	10	9.7
	미추홀구	11	28.9	10	15.4	21	20.4
	연수구	0	0.0	0	0.0	0	0.0
	남동구	10	26.3	0	0.0	10	9.7
	부평구	0	0.0	10	15.4	10	9.7
	계양구	7	18.4	20	30.8	27	26.2
	서구	0	0.0	15	23.1	15	14.6
	강화군	0	0.0	0	0.0	0	0.0
합계		38	36.9	65	63.1	103	100.0

[그림 3-75]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 %)



(2) 이용자 성별

-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전체 성별은 ‘남성’ 28명(27.5%), ‘여성’ 74명(72.5%)으로 조사됨(표 3-64, 그림3-76)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 10명(26.3%), ‘여성’ 28명(73.7%)임
-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 18명(28.1%), ‘여성’ 46명(7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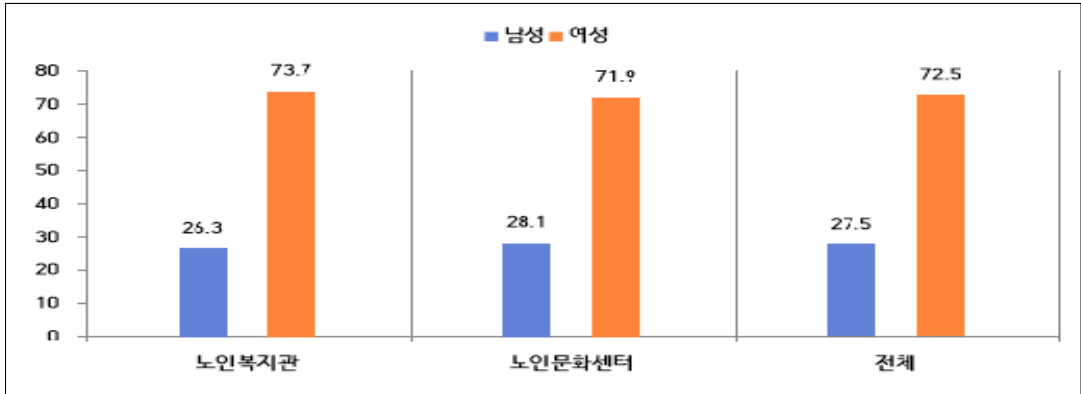
〈표 3-64〉 이용자 성별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성별	남성	10	26.3	18	28.1	28	27.5
	여성	28	73.7	46	71.9	74	72.5
합계		38	100.0	65	100.0	103	100.0

[그림 3-76] 이용자 성별

(단위: %)



(3) 이용자 연령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71~75세’ 31명 (30.4%) > ‘65~70세’ 30명(29.4%) > ‘76~80세’ 25명(24.5%) 순으로 나타남(표 3-65, 그림 3-77)

-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연령은 ‘76~80세’가 10명(2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70세’ 9명(23.7%), ‘80세 이상’ 9명(23.7%) > ‘71~75세’ 8명(21.1%) > ‘65세 이하’ 2명 (5.3%)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이용자 연령은 ‘71~75세’가 23명(35.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70세’ 21명(32.8%) > ‘76~80세’ 15명(23.4%) > ‘80세 이상’ 4명(6.3%) > ‘65세 이하’ 1명(1.6%)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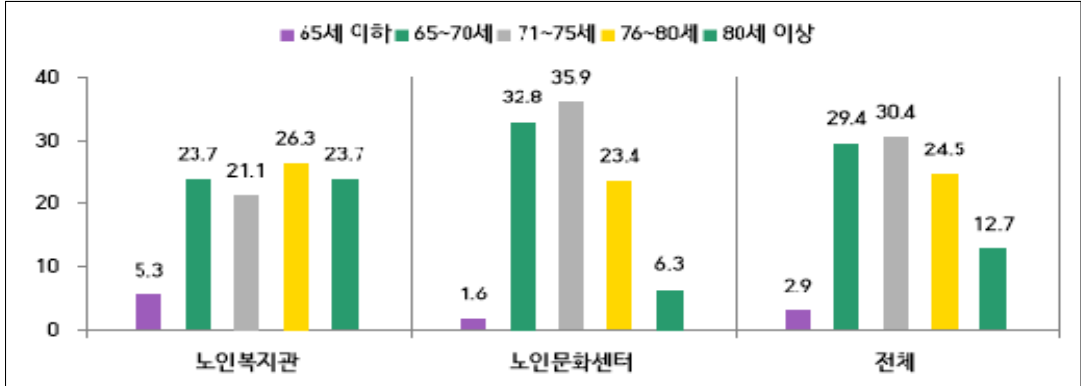
〈표 3-65〉 이용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나이	65세 이하	2	5.3	1	1.6	3	2.9
	65~70세	9	23.7	21	32.8	30	29.4
	71~75세	8	21.1	23	35.9	31	30.4
	76~80세	10	26.3	15	23.4	25	24.5
	80세 이상	9	23.7	4	6.3	13	12.7
	무응답	-	-	1	-	1	-
합계		38	100.0	65	100.0	103	100.0

[그림 3-77] 이용자 연령

(단위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1) 이용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기간을 살펴보면, ‘1~5년’이 53명(51.5%) > ‘6~10년’ 18명(17.5%) > ‘1년 이하’ 14명(13.6%) 순으로 나타남(표 3-66, 그림 3-78)
- 노인복지관의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은 ‘1~5년’이 14명(36.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6~10년’ 12명(31.6%) > ‘16~20년’ 5명(13.2%) > ‘11~15년’ 4명(10.5%) > ‘1년 이하’ 3명(7.9%)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의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은 ‘1~5년’이 39명(60.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년 이하’ 11명(16.9%) > ‘11~15년’ 9명(13.8%) > ‘6~10년’ 6명(9.2%) > ‘16~20년’ 0명(0.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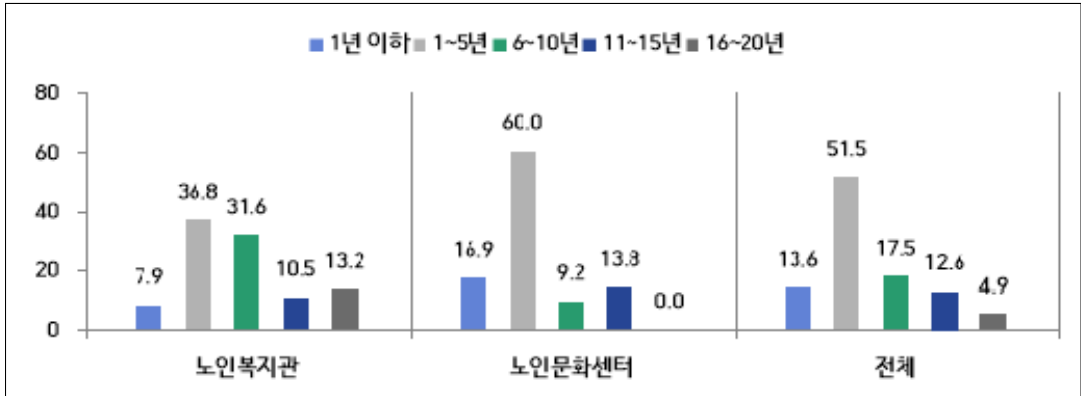
〈표 3-66〉 이용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단위 :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1년 이하	3	7.9	11	16.9	14	13.6
	1~5년	14	36.8	39	60.0	53	51.5
	6~10년	12	31.6	6	9.2	18	17.5
	11~15년	4	10.5	9	13.8	13	12.6
	16~20년	5	13.2	0	0.0	5	4.9
합계		38	100.0	65	100.0	103	100.0

[그림 3-78] 이용자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기간

(단위: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3회~4회’가 37명(35.9%)로 가장 많았으며, ‘주5회 이상’이 31명(30.1%) > ‘주1회~2회’ 16명(15.5%) 순으로 나타남(표 3-67, 그림 3-79)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 빈도는 ‘주3회~4회’이 14명(36.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5회 이상’ 13명(34.2%) > ‘주1회~2회’ 6명(15.8%) > ‘월3회~4회’ 3명(7.9%) > ‘월1회~2회’ 2명(5.3%) 순으로 조사됨
-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 빈도는 ‘주3회~4회’이 23명(35.4%)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5회 이상’ 18명(27.7%) > ‘월1회~2회’ 10명(15.4%), ‘주1회~2회’ 10명(15.4%) > ‘월3회~4회’ 4명(6.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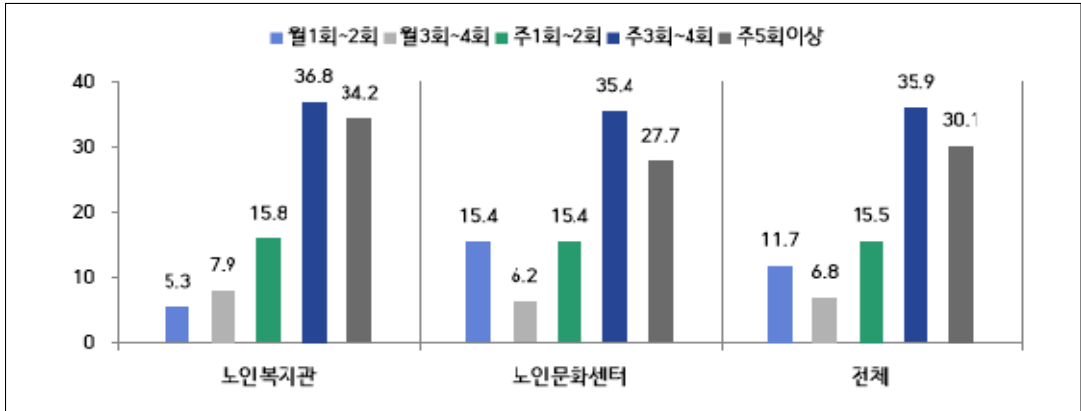
〈표 3-67〉 이용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월1회~2회	2	5.3	10	15.4	12	11.7
	월3회~4회	3	7.9	4	6.2	7	6.8
	주1회~2회	6	15.8	10	15.4	16	15.5
	주3회~4회	14	36.8	23	35.4	37	35.9
	주5회이상	13	34.2	18	27.7	31	30.1
합계		38	100.0	65	100.0	103	100.0

[그림 3-79] 이용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빈도

(단위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68, 그림 3-80, 81)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 이유의 경우, 1순위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19명(5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8명(21.1%) > ‘교양과 소양 습득’ 5명(13.2%), ‘건강관리’ 5명(13.2%) > ‘친구 사귀기’ 1명(2.6%) > ‘봉사 활동 참여’ 0명(0.0%),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11명(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 9명(25.0%) > ‘봉사 활동 참여’ 6명(16.7%) > ‘교양과 소양 습득’ 4명(11.1%) > ‘친구 사귀기’ 3명(8.3%) >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2명(5.6%) > ‘기타’ 1명(2.8%)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친구 사귀기’와 ‘건강관리’가 9명(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양과 소양 습득’ 6명(17.1%) >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5명(14.3%) >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4명(11.4%) > ‘봉사 활동 참여’ 1명(2.9%), ‘기타’ 1명(2.9%)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설 이용 이유의 경우, 1순위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과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이 20명(3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양과 소양 습득’ 5명(13.2%), ‘건강관리’ 5명(13.2%) > ‘친구 사귀기’ 1명(2.6%) > ‘봉사 활동 참여’ 0명(0.0%),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건강관리’가 19명(3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14명(22.2%) > ‘교양과 소양 습득’

- 9명(14.3%) > ‘친구 사귀기’ 8명(12.7%) >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7명(11.1%) > ‘봉사 활동 참여’ 6명(9.5%) >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20명(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친구 사귀기’ 13명(21.0%) > ‘교양과 소양 습득’ 12명(19.4%) > ‘건강관리’ 12명(19.4%) >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3명(4.8%) > ‘봉사 활동 참여’ 2명(3.2%) > ‘기타’ 0명(0.0%) 순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83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건강관리’ 42점(2순위),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33점(3순위), ‘교양과 소양 습득’ 29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108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건강관리’ 98점(2순위),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77점(3순위), ‘친구 사귀기’ 4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8〉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우선순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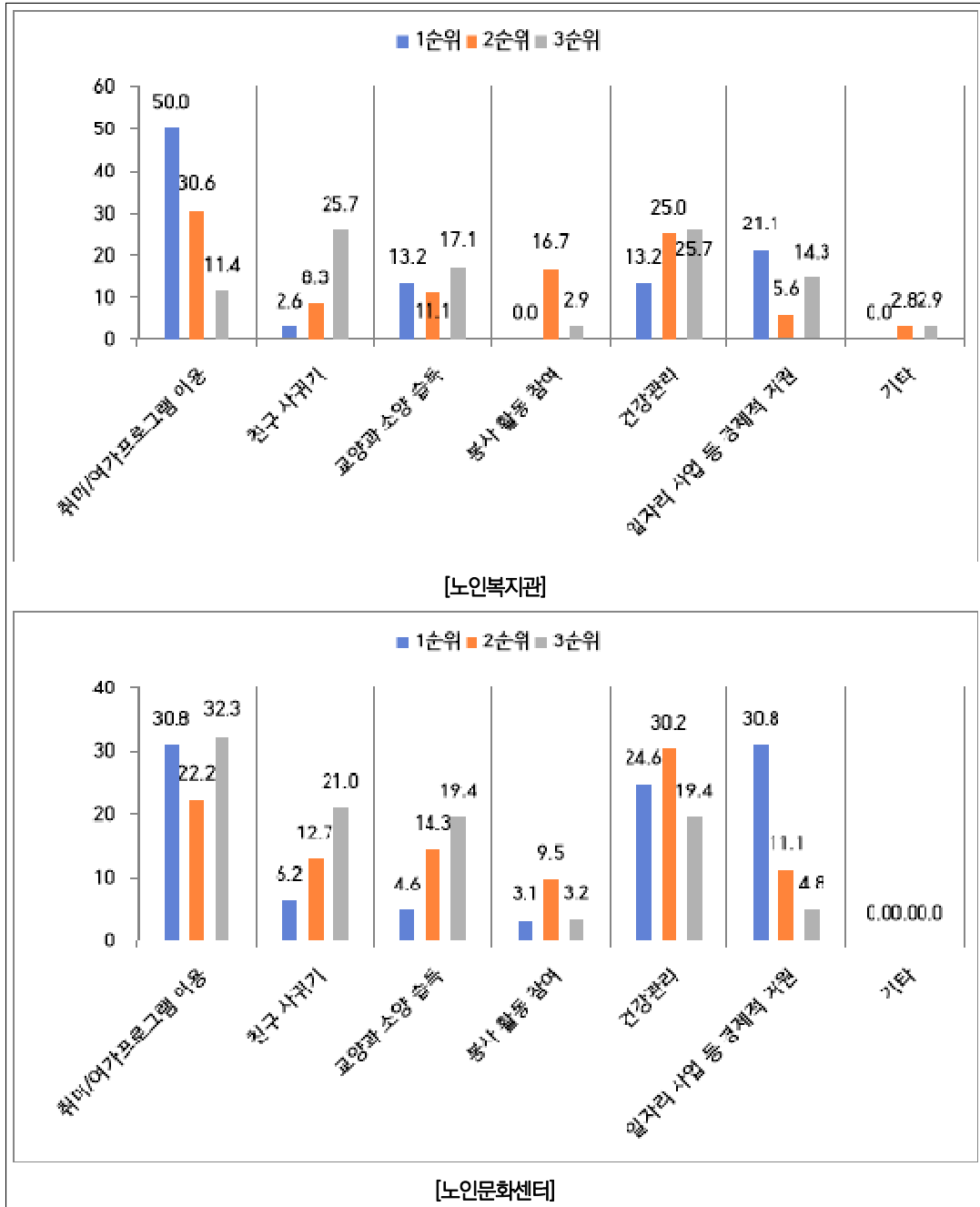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19(50.0)	20(30.8)	11(30.6)	14(22.2)	4(11.4)	20(32.3)	34(31.2)	54(28.4)	83	108	1	1
2	1(2.6)	4(6.2)	3(8.3)	8(12.7)	9(25.7)	13(21.0)	13(11.9)	25(13.2)	18	41	5	4
3	5(13.2)	3(4.6)	4(11.1)	9(14.3)	6(17.1)	12(19.4)	15(13.8)	24(12.6)	29	29	4	5
4	0(0.0)	2(3.1)	6(16.7)	6(9.5)	1(2.9)	2(3.2)	7(6.4)	10(5.3)	13	20	6	6
5	5(13.2)	16(24.6)	9(25.0)	19(30.2)	9(25.7)	12(19.4)	23(21.1)	47(24.7)	42	98	2	2
6	8(21.1)	20(30.8)	2(5.6)	7(11.1)	5(14.3)	3(4.8)	15(13.8)	30(15.8)	33	77	3	3
7 ²⁰⁾	0(0.0)	0(0.0)	1(2.8)	0(0.0)	1(2.9)	0(0.0)	2(1.8)	0(0.0)	3	0	7	7
합계	38 (100.0)	65 (100.0)	36 (100.0)	63 (100.0)	35 (100.0)	62 (100.0)	109 (100.0)	190 (100.0)	-	-	-	-

주) ①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② 친구 사귀기, ③ 교양과 소양 습득, ④ 봉사 활동 참여, ⑤ 건강관리, ⑥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⑦ 기타

20) 기타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우울함이 싫음(1), 즐거워서(1)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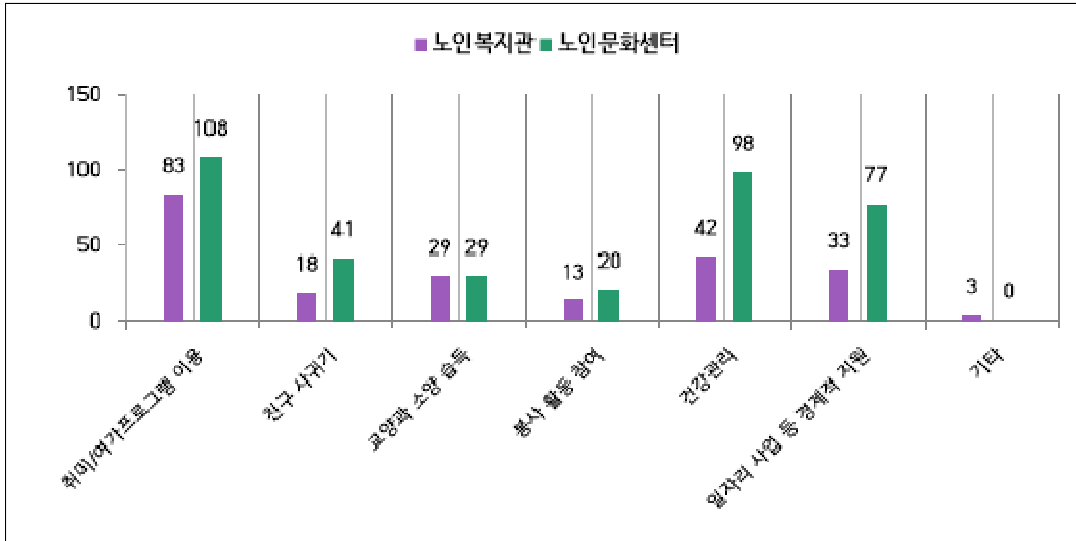
[그림 3-80]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우선순위

(단위 : %)



[그림 3-8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가중점수)

(단위: 점)



(4)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우선순위로 살펴봄(표 3-69, 그림 3-82, 83)

-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 1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21명(5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4명(10.5%), ‘기타’ 4명(10.5%)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3명(7.9%) > ‘당구/탁구장’ 2명(5.3%) > ‘상담실’ 1명(2.6%),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1명(2.6%),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명(2.6%), ‘체력단련실’ 1명(2.6%) 순으로 나타났고, ‘장기/바둑실’과 ‘식당’, ‘이미용실’, ‘목욕/샤워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1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7명(21.2%) > ‘장기/바둑실’ 6명(18.2%)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3명(9.1%), ‘당구/탁구장’ 3명(9.1%)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2명(6.1%) > ‘체력단련실’ 1명(3.0%)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실’과 ‘식당’,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이미용실’, ‘목욕/샤워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식당’이 9명(3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6명(20.7%) > ‘상담실’ 5명(17.2%)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4명(13.8%), ‘체력단련실’ 4명(13.8%)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1명(3.4%)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실 및

- 프로그램실’과 ‘당구/탁구장’, ‘장기/바둑실’,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이미용실’, ‘목욕/샤워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 1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19명(2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체력단련실’ 14명(21.5%) > ‘강당’ 11명(16.9%)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4명(6.2%), ‘기타’ 4명(6.2%) > ‘상담실’ 3명(4.6%), ‘당구/탁구장’ 3명(4.6%) > ‘장기/바둑실’ 2명(3.1%), ‘식당’ 2명(3.1%),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2명(3.1%)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이미용실’과 ‘목욕/샤워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식당’이 18명(2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15명(23.8%) >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14명(22.2%)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3명(4.8%), ‘당구/탁구장’ 3명(4.8%), ‘장기/바둑실’ 3명(4.8%),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3명(4.8%), ‘체력단련실’ 3명(4.8%) > ‘기타’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실’과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이미용실’, ‘목욕/샤워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식당’과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체력단련실’이 12명(1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9명(14.8%) > ‘강당’ 6명(9.8%) > ‘기타’ 5명(8.2%) > ‘당구/탁구장’ 4명(6.6%) > ‘상담실’ 2명(3.3%),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2명(3.3%) >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명(1.6%), ‘목욕/샤워실’ 1명(1.6%) 순으로 나타났고, ‘장기/바둑실’과 ‘이미용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8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강당’ 32점(2순위), ‘식당’ 21점(3순위),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7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94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강당’ 69점(2순위), ‘체력단련실’ 60점(3순위), ‘식당’ 54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9〉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우선순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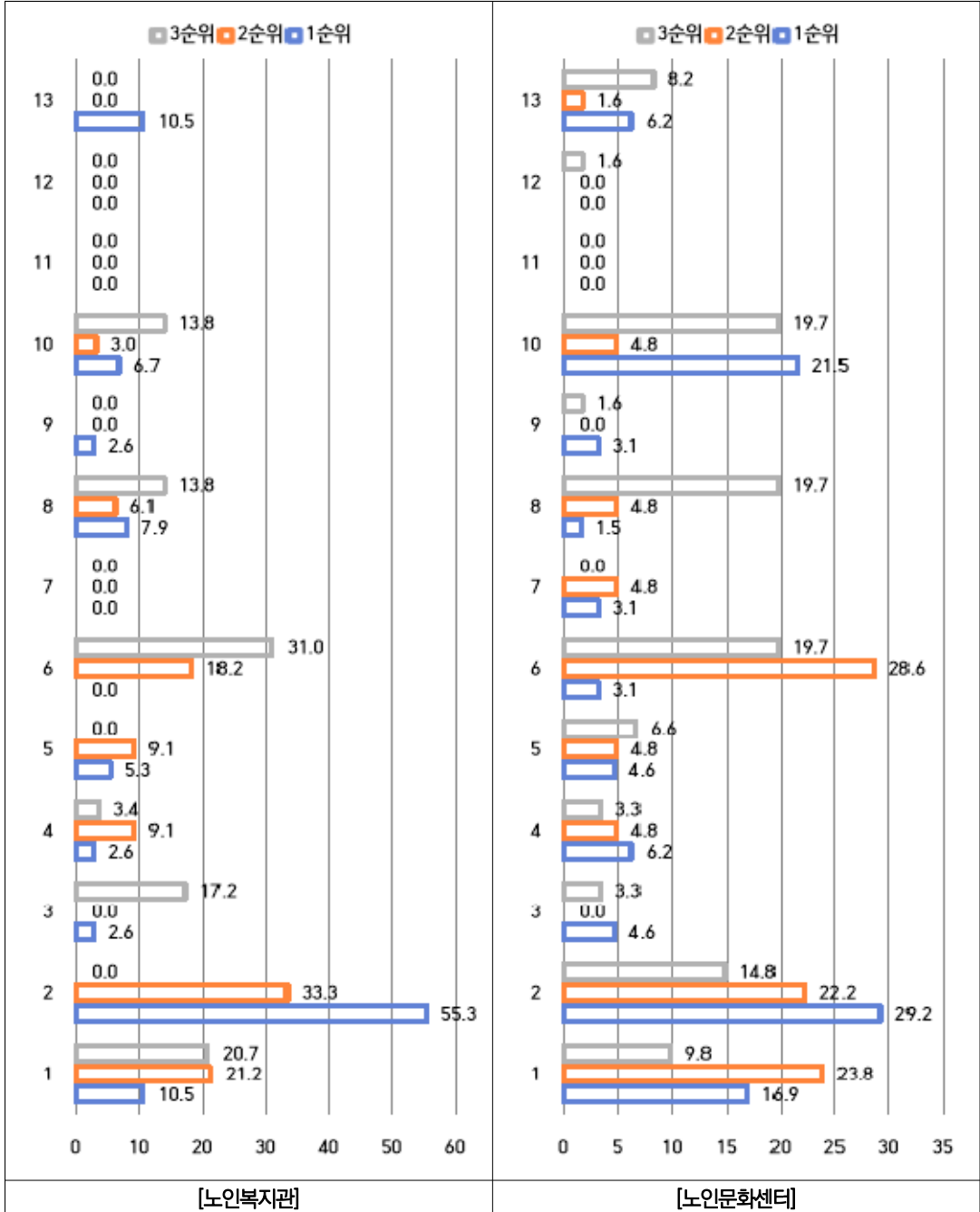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4(10.5)	11(16.9)	7(21.2)	15(23.8)	6(20.7)	6(9.8)	17(17.0)	32(16.9)	32	69	2	2
2	21(55.3)	19(29.2)	11(33.3)	14(22.2)	0(0.0)	9(14.8)	32(32.0)	42(22.2)	85	94	1	1
3	1(2.6)	3(4.6)	0(0.0)	0(0.0)	5(17.2)	2(3.3)	6(6.0)	5(2.6)	8	11	9	10
4	1(2.6)	4(6.2)	3(9.1)	3(4.8)	1(3.4)	2(3.3)	5(5.0)	9(4.8)	10	20	7	6
5	2(5.3)	3(4.6)	3(9.1)	3(4.8)	0(0.0)	4(6.6)	5(5.0)	10(5.3)	12	19	5	7
6	0(0.0)	2(3.1)	6(18.2)	18(28.6)	9(31.0)	12(19.7)	15(15.0)	32(16.9)	21	54	3	4
7	0(0.0)	2(3.1)	0(0.0)	3(4.8)	0(0.0)	0(0.0)	0(0.0)	5(2.6)	0	12	11	9
8	3(7.9)	1(1.5)	2(6.1)	3(4.8)	4(13.8)	12(19.7)	9(9.0)	11(5.8)	17	21	4	5
9	1(2.6)	2(3.1)	0(0.0)	0(0.0)	0(0.0)	1(1.6)	1(1.0)	3(1.6)	3	7	10	11
10	1(2.6)	14(21.5)	1(3.0)	3(4.8)	4(13.8)	12(19.7)	6(6.0)	29(15.3)	9	60	8	3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11	13
12	0(0.0)	0(0.0)	0(0.0)	0(0.0)	0(0.0)	1(1.6)	0(0.0)	1(0.5)	0	1	11	12
13 ²¹⁾	4(10.5)	4(6.2)	0(0.0)	1(1.6)	0(0.0)	5(8.2)	4(4.0)	10(71.4)	12	19	5	8
합계	38 (100.0)	65 (100.0)	33 (100.0)	63 (100.0)	29 (100.0)	61 (100.0)	100 (100.0)	189 (100.0)	-	-	-	-

주)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21) 기타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안내데스크, 키오스크존(2), 카페(2), 노인문화센터는 도서관(3), 식사, 카페(4), 휴게실(2)로 응답함.

[그림 3-82]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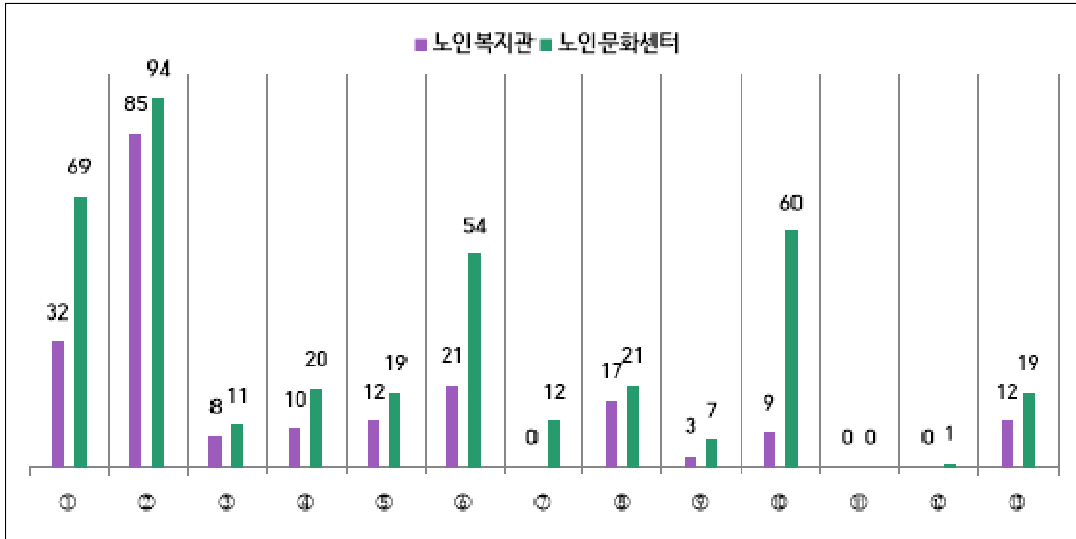
(단위 : %)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그림 3-83]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가중점수)

(단위: 점)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5)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 우선순위로 살펴봄(표 3-70, 그림 3-84, 85)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응답의 경우, 1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18명(4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6명(15.8%) > ‘강당’ 5명(13.2%) > ‘체력단련실’ 2명(5.3%), ‘기타’ 2명(5.3%) > ‘당구/탁구장’ 1명(2.6%), ‘식당’ 1명(2.6%),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1명(2.6%),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명(2.6%), ‘목욕/샤워실’ 1명(2.6%)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실’과 ‘장기/바둑실’, ‘이미용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11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6명(18.2%) > ‘강당’ 5명(15.2%),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5명(15.2%) > ‘식당’ 3명(9.1%) > ‘기타’ 2명(6.1%) >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명(3.0%)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실’과 ‘당구/탁구장’, ‘장기/바둑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목욕/샤워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체력단련실’이 12명(3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당’ 6명(18.2%) > ‘상담실’ 4명(12.1%)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3명(6.1%)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2명(6.1%), '당구/탁구장' 2명(6.1%) > '강당' 1명(3.0%),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1명(3.0%), '기타' 1명(3.0%) 순으로 나타났고, '장기/바둑실'과 '이미용실', '목욕/샤워실'은 0명(0.0%)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응답의 경우, 1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17명(2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11명(16.9%), '체력단련실' 11명(16.9%) > '식당' 10명(15.4%)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5명(7.7%) > '당구/탁구장' 3명(4.6%) > '상담실' 2명(3.1%),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2명(3.1%),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2명(3.1%) > '이미용실' 1명(1.5%), '목욕/샤워실'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장기/바둑실'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2순위는 '식당'이 17명(2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당' 11명(16.9%) >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10명(15.4%) > '당구/탁구장' 7명(10.8%) > '체력단련실' 6명(9.2%) >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4명(6.2%) >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3명(4.6%) > '상담실' 2명(3.1%), '장기/바둑실' 2명(3.1%),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2명(3.1%) > '목욕/샤워실'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이미용실'과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3순위는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이 12명(1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당' 9명(14.1%) >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7명(10.9%) > '상담실' 4명(6.3%),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4명(6.3%), '이미용실' 4명(6.3%) > '강당' 3명(4.7%) > '당구/탁구장' 2명(3.1%), '장기/바둑실' 2명(3.1%),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2명(3.1%), '기타' 2명(3.1%) > '목욕/샤워실' 1명(1.6%) 순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7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30점(2순위), '강당' 26점(3순위),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과 '체력단련실' 18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이 83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식당' 73점(2순위), '체력단련실' 57점(3순위),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27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0〉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우선순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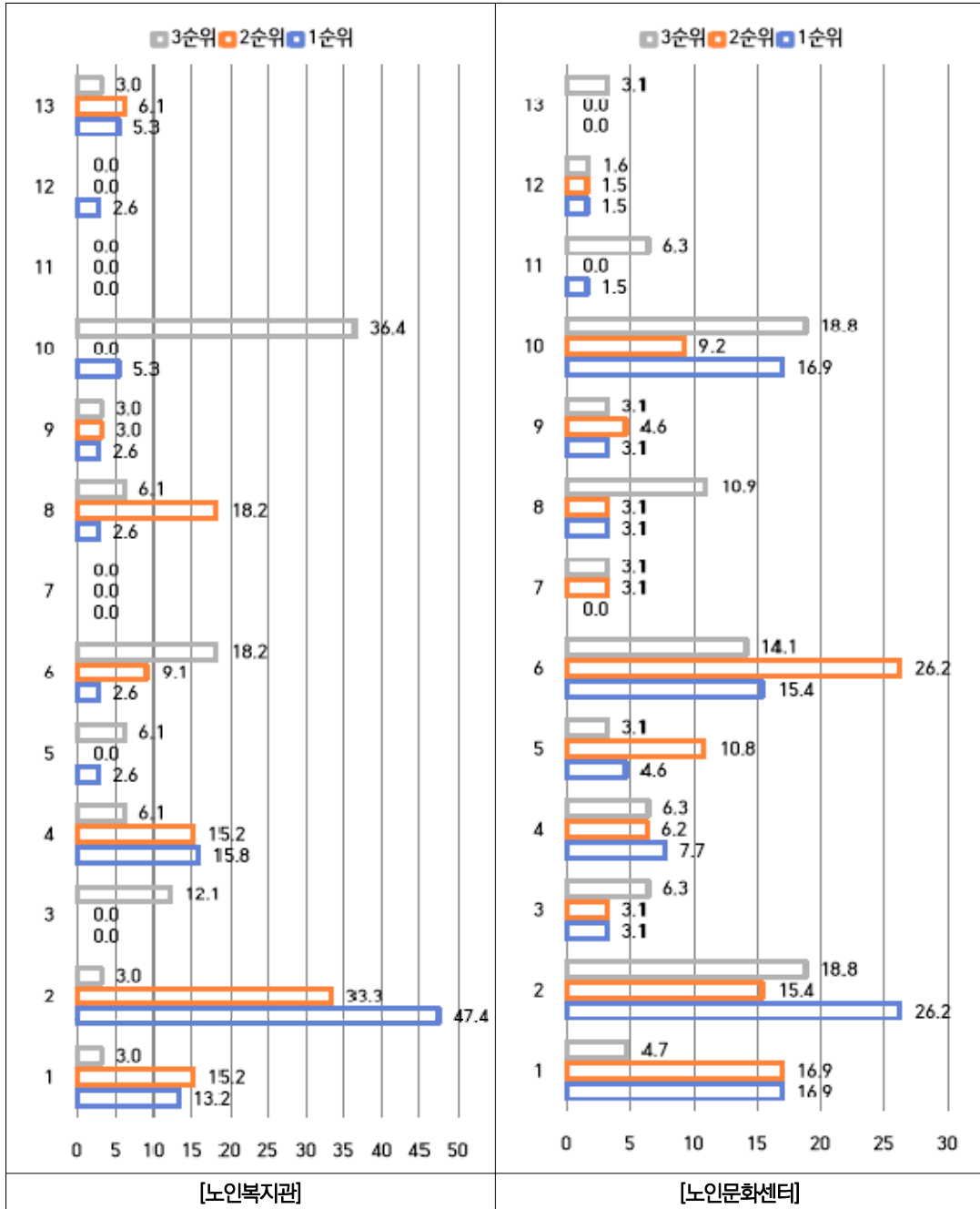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문화센터
1	5(13.2)	11(16.9)	5(15.2)	11(16.9)	1(3.0)	3(4.7)	11(10.6)	25(12.9)	26	26	3	5
2	18(47.4)	17(26.2)	11(33.3)	10(15.4)	1(3.0)	12(18.8)	30(28.8)	39(20.1)	77	83	1	1
3	0(0.0)	2(3.1)	0(0.0)	2(3.1)	4(12.1)	4(6.3)	4(3.8)	8(4.1)	4	14	10	8
4	6(15.8)	5(7.7)	5(15.2)	4(6.2)	2(6.1)	4(6.3)	13(12.5)	13(6.7)	30	27	2	4
5	1(2.6)	3(4.6)	0(0.0)	7(10.8)	2(6.1)	2(3.1)	3(2.9)	12(6.2)	5	25	9	6
6	1(2.6)	10(15.4)	3(9.1)	17(26.2)	6(18.2)	9(14.1)	10(9.6)	36(18.6)	15	73	6	2
7	0(0.0)	0(0.0)	0(0.0)	2(3.1)	0(0.0)	2(3.1)	0(0.0)	4(2.1)	0	6	12	11
8	1(2.6)	2(3.1)	6(18.2)	2(3.1)	3(6.1)	7(10.9)	10(9.6)	11(5.7)	18	17	4	7
9	1(2.6)	2(3.1)	1(3.0)	3(4.6)	1(3.0)	2(3.1)	3(2.9)	7(3.6)	6	14	8	8
10	2(5.3)	11(16.9)	0(0.0)	6(9.2)	12(36.4)	12(18.8)	14(13.5)	29(14.9)	18	57	4	3
11	0(0.0)	1(1.5)	0(0.0)	0(0.0)	0(0.0)	4(6.3)	0(0.0)	5(2.6)	0	7	12	10
12	1(2.6)	1(1.5)	0(0.0)	1(1.5)	0(0.0)	1(1.6)	1(1.0)	3(1.5)	3	6	11	11
13 ²²⁾	2(5.3)	0(0.0)	2(6.1)	0(0.0)	1(3.0)	2(3.1)	5(4.8)	2(1.0)	11	2	7	13
합계	38 (100.0)	65 (100.0)	33 (100.0)	65 (100.0)	33 (100.0)	64 (100.0)	104 (100.0)	194 (100.0)	-	-	-	-

주)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22) 기타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봉사자 쉼터(2), 안마실(1), 휴게실(2), 노인문화센터는 열린 교실(1), 카페(1)로 응답함.

[그림 3-84]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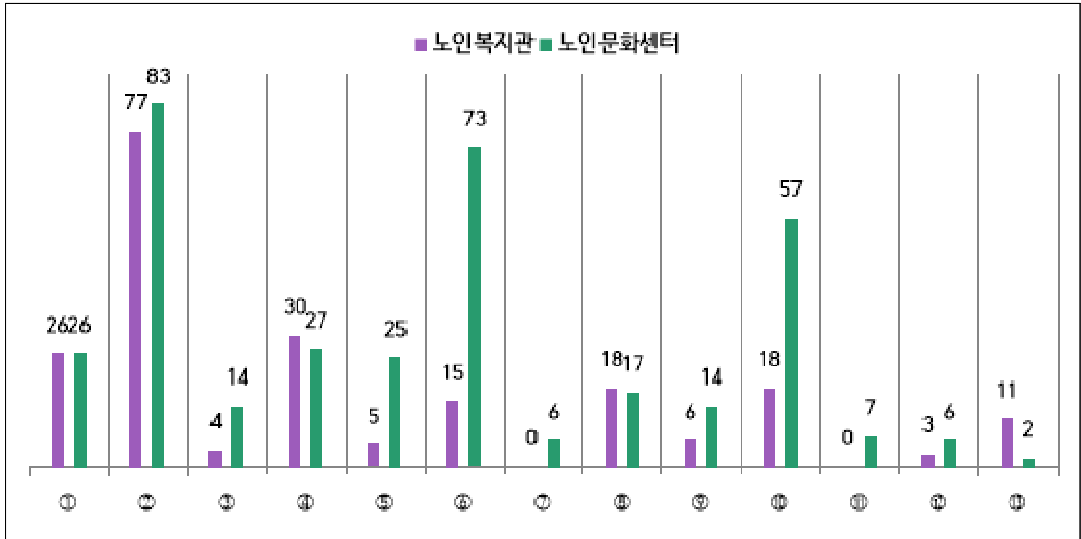
(단위 : %)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그림 3-85]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가중점수)

(단위: 점)



① 강당, ②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③ 상담실, ④ 물리치료실 및 간호실, ⑤ 당구/탁구장, ⑥ 식당, ⑦ 장기/바둑실, ⑧ 컴퓨터실 등 정보화실, ⑨ 게이트볼 등 야외 공간, ⑩ 체력단련실, ⑪ 이미용실, ⑫ 목욕/샤워실, ⑬ 기타

(6)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

○ 조사에 응답한 이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이용해 본 서비스 경험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음(표 3-71, 그림 3-86)

- 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지원’과 ‘취미여가지원’이 30명(1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16명(9.9%) > ‘건강증진지원’ 13명(8.1%), ‘급식지원’ 13명(8.1%)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0명(6.2%) > ‘고용 및 소득지원’ 9명(5.6%) > ‘기능회복지원’ 8명(5.0%) > ‘사회참여지원’ 6명(3.7%) > ‘지역복지연계’ 5명(3.1%) > ‘지역자원개발’ 4명(2.5%)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3명(1.9%), ‘주거지원’ 3명(1.9%), ‘가족통합지원’ 3명(1.9%), ‘요양서비스’ 3명(1.9%) > ‘노인권익증진’ 2명(1.2%) > ‘가족기능지원’ 1명(1.9%)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취미여가지원’이 53명(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담 및 정보제공’ 50명(8.3%) > ‘고용 및 소득지원’ 48명(8.0%) > ‘평생교육지원’ 47명(7.8%)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4명(7.3%) > ‘급식지원’ 43명(7.1%) > ‘건강증진지원’ 39명(6.5%) > ‘사회참여지원’ 35명(5.8%) > ‘노인권익증진’ 32명(5.3%) > ‘기능회복지원’ 30명

(5.0%) > ‘지역복지연계’ 28명(4.6%)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26명(4.3%), ‘지역자원개발’ 26명(4.3%), ‘주거지원’ 26명(4.3%), ‘가족통합지원’ 26명(4.3%) > ‘가족기능지원’ 25명(4.1%), ‘요양서비스’ 25명(4.1%)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취미여가지원’이 83명(1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생교육지원’ 77명(10.1%), ‘상담 및 정보제공’ 66명(8.6%), ‘고용 및 소득지원’ 57명(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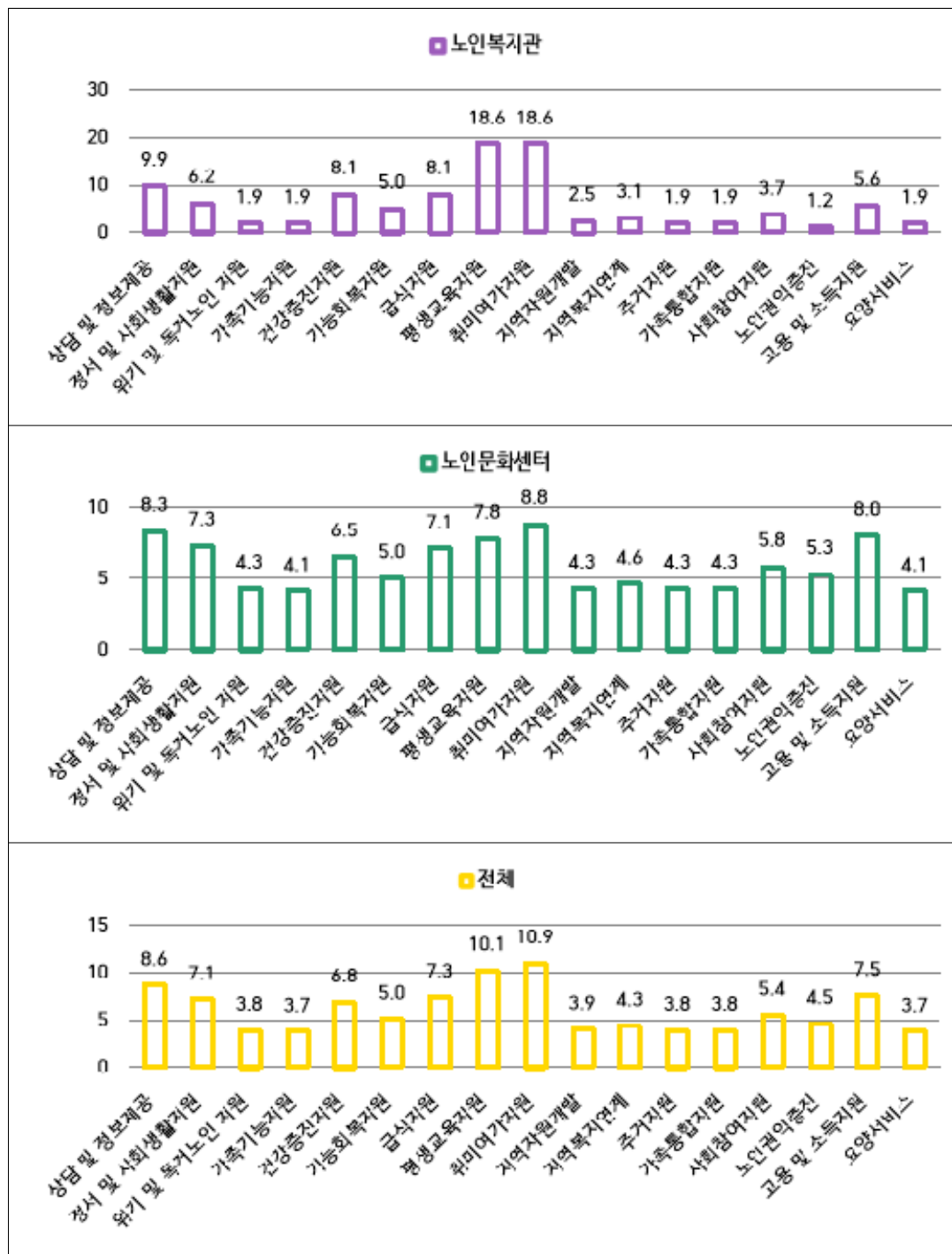
〈표 3-71〉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다중응답)

(단위: 명, %)

사업영역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16	9.9	50	8.3	66	8.6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10	6.2	44	7.3	54	7.1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3	1.9	26	4.3	29	3.8
	가족기능지원	3	1.9	25	4.1	28	3.7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13	8.1	39	6.5	52	6.8
	기능회복지원	8	5.0	30	5.0	38	5.0
	급식지원	13	8.1	43	7.1	56	7.3
노년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30	18.6	47	7.8	77	10.1
	취미여가지원	30	18.6	53	8.8	83	10.9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4	2.5	26	4.3	30	3.9
	지역복지연계	5	3.1	28	4.6	33	4.3
	주거지원	3	1.9	26	4.3	29	3.8
	가족통합지원	3	1.9	26	4.3	29	3.8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6	3.7	35	5.8	41	5.4
	노인권익증진	2	1.2	32	5.3	34	4.5
	고용 및 소득지원	9	5.6	48	8.0	57	7.5
돌봄	요양서비스	3	1.9	25	4.1	28	3.7
합계		161	100.0	603	100.0	764	100.0

[그림 3-86]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경험(다중응답)

(단위: 개)



(7)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요구분석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별 서비스의 만족 수준과 필요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주거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3-72, 그림 3-87)

〈표 3-72〉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전체)

(단위: 점)

사업영역 구분	만족 정도	필요 정도	필요도 (gap)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sqrt{A^2+C^2}$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 상담 및 정보제공	4.17	4.03	-0.14	0.932	-0.56	17	4.17	4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13	4.22	0.09	-0.697	0.38	14	4.13	5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3.66	4.28	0.62	-2.703*	2.65	3	3.71	12	LH
㉣ 가족기능지원	3.61	4.11	0.50	-2.324*	2.06	7	3.64	15	LH
㉤ 건강증진지원	4.00	4.21	0.21	-1.213	0.88	13	4.01	7	HL
㉥ 기능회복지원	4.03	4.29	0.26	-1.465	1.12	10	4.04	6	HL
㉦ 급식지원	4.27	4.27	0.00	0.000	0.00	16	4.27	3	HL
㉧ 평생교육지원	4.31	4.51	0.20	-1.625	0.90	12	4.31	2	HL
㉨ 취미여가지원	4.44	4.52	0.08	-0.854	0.36	15	4.44	1	HL
㉩ 지역자원개발	3.60	4.33	0.73	-3.958***	3.16	2	3.67	13	LH
㉪ 지역복지연계	3.73	4.18	0.45	-1.671	1.88	8	3.76	11	LH
㉫ 주거지원	3.48	4.34	0.86	-3.816***	3.73	1	3.58	17	LH
㉬ 가족통합지원	3.62	4.14	0.52	-1.915	2.15	6	3.66	14	LH
㉭ 사회참여지원	3.90	4.12	0.22	-0.988	0.91	11	3.91	9	LL
㉮ 노인권익증진	3.85	4.38	0.53	-2.788**	2.32	5	3.89	10	LH
㉯ 고용 및 소득지원	3.96	4.23	0.27	-1.541	1.14	9	3.97	8	HL
㉰ 요양서비스	3.54	4.11	0.57	-2.741*	2.34	4	3.59	16	LH
평균(M)	3.90	4.25	0.35	-	1.49		3.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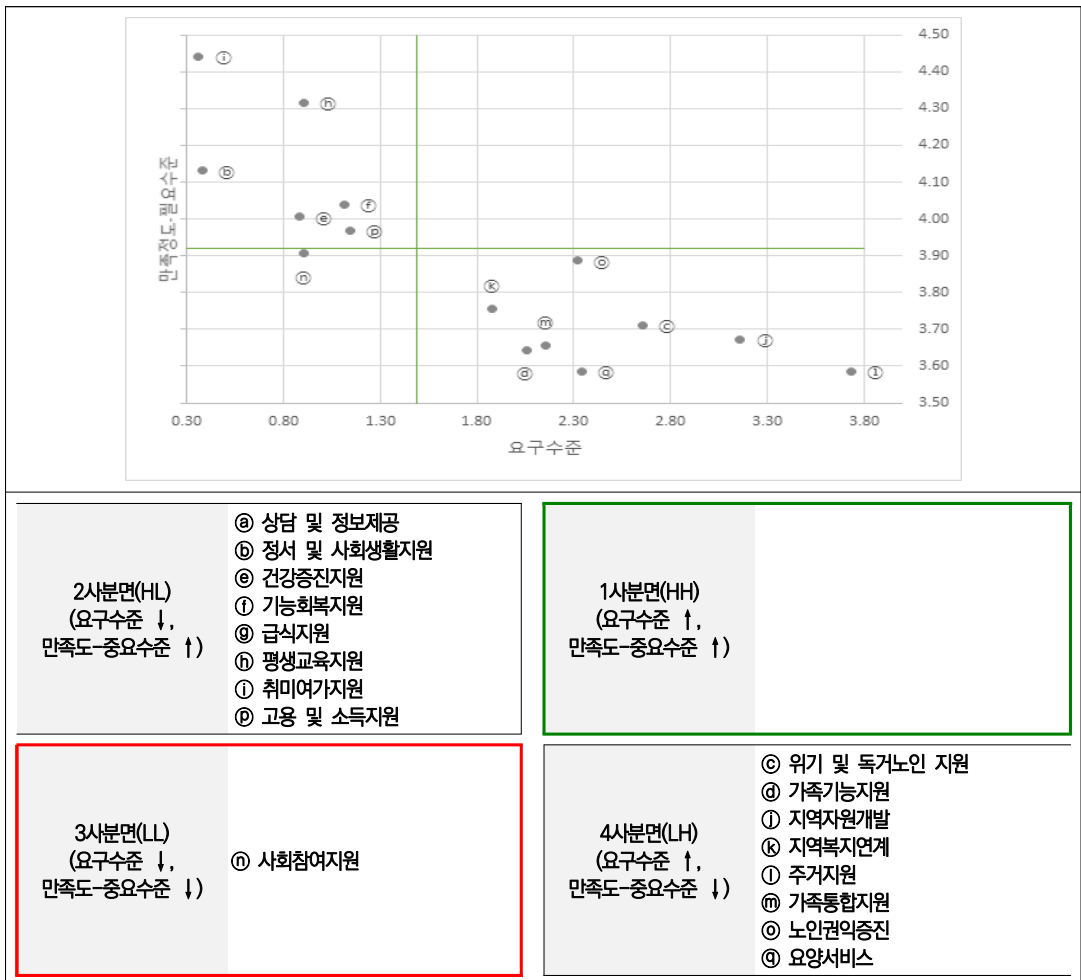
*p<05, **p<01, ***p<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필요수준」의 평균은 3.92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1.49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회참여지원’ 총 1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87]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전체)

(단위: %)



○ 노인복지관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별 서비스의 만족 수준과 필요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업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3-73, 그림 3-88)

〈표 3-73〉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노인복지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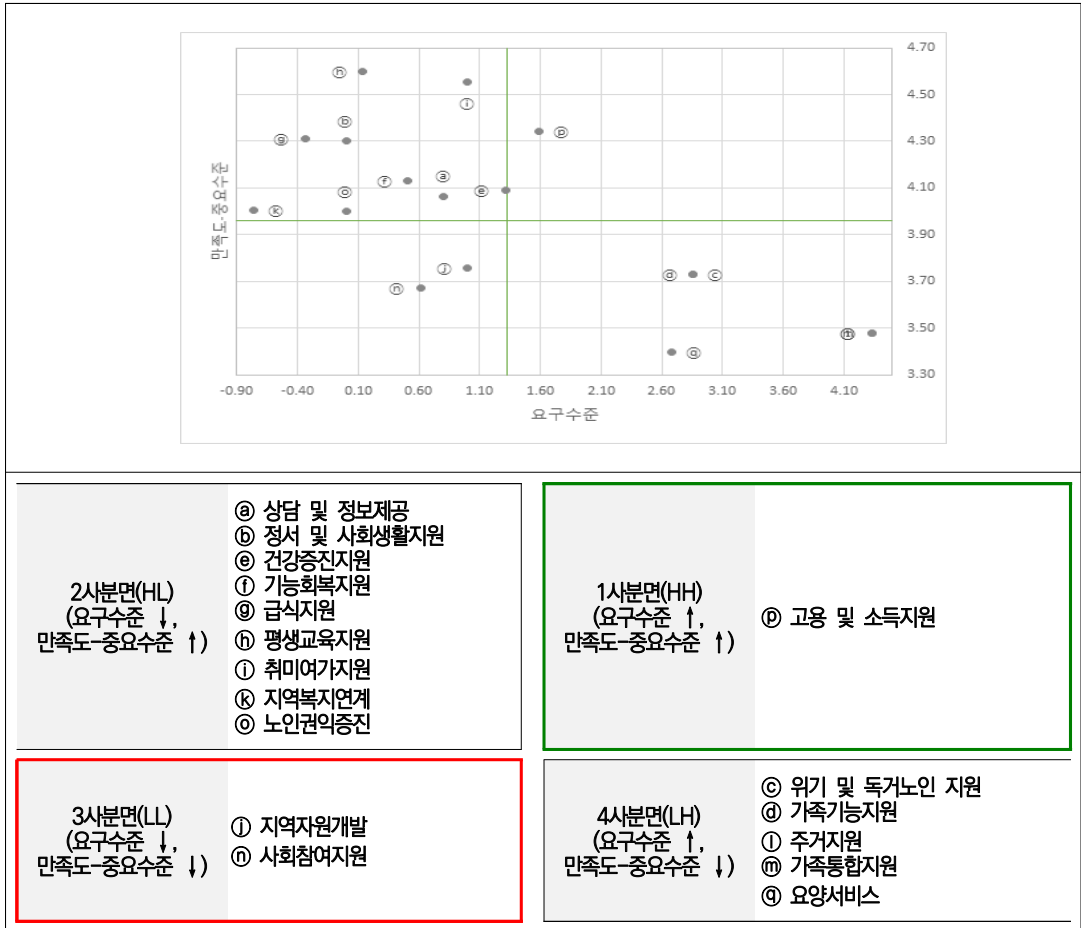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만족 정도	필요 정도	필요도 (gap)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sqrt{A^2+C^2}$		
㉠ 상담 및 정보제공	4.06	4.25	0.19	-0.643	0.81	10	4.06	8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30	4.30	0.00	0.000	0.00	14	4.30	5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3.67	4.33	0.66	-1.000	2.86	3	3.73	12	LH
㉣ 가족기능지원	3.67	4.33	0.66	-1.000	2.86	3	3.73	12	LH
㉤ 건강증진지원	4.08	4.38	0.30	-1.760	1.31	7	4.09	7	HL
㉥ 기능회복지원	4.13	4.25	0.12	-0.314	0.51	12	4.13	6	HL
㉦ 급식지원	4.31	4.23	-0.08	0.249	-0.34	16	4.31	4	HL
㉧ 평생교육지원	4.60	4.63	0.03	-0.197	0.14	13	4.60	1	HL
㉨ 취미여가지원	4.55	4.76	0.21	-1.797	1.00	9	4.55	2	HL
㉩ 지역자원개발	3.75	4.00	0.25	-0.522	1.00	8	3.76	11	LL
㉪ 지역복지연계	4.00	3.80	-0.20	0.250	-0.76	17	4.00	9	HL
㉫ 주거지원	3.33	4.33	1.00	-1.732	4.33	1	3.48	15	LH
㉬ 가족통합지원	3.33	4.33	1.00	-1.732	4.33	1	3.48	15	LH
㉭ 사회참여지원	3.67	3.83	0.16	-0.349	0.61	11	3.67	14	LL
㉮ 노인권익증진	4.00	4.00	0.00	-0.349	0.00	14	4.00	10	HL
㉯ 고용 및 소득지원	4.33	4.67	0.34	-1.155	1.59	6	4.34	3	HH
㉰ 영양서비스	3.33	4.00	0.67	-2.000	2.68	5	3.40	17	LH
평균(M)	3.95	4.26	0.31	-	1.33		3.96		-

* $p<0.05$, ** $p<0.01$, *** $p<0.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필요수준」의 평균은 3.96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1.33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고용 및 소득지원’ 총 1가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자원개발’, ‘사회참여지원’ 총 2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고용 및 소득지원’ 1가지로 나타남

[그림 3-88]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복지관)

(단위: %)



○ 노인문화센터에서 인식하는 사업영역별 서비스의 만족 수준과 필요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가족기능지원’, ‘지역자원개발’, ‘주거지원’, ‘노인권익증진’,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표 3-74, 그림 3-89)

〈표 3-74〉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요구분석(노인문화센터)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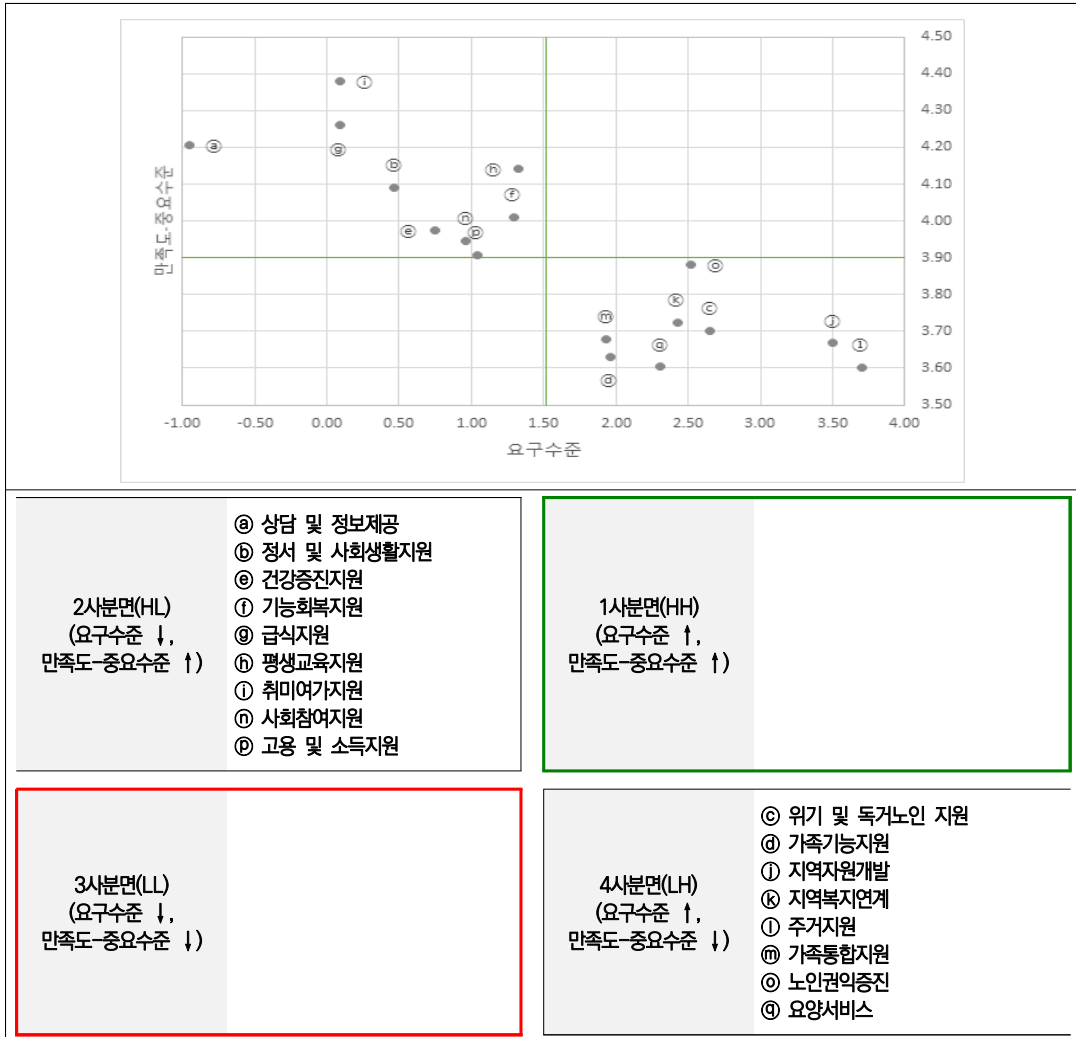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만족 정도	필요 정도	필요도 (gap)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sqrt{A^2+C^2}$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 상담 및 정보제공	4.20	3.96	-0.24	1.429	-0.95	17	4.21	3	HL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09	4.20	0.11	-0.725	0.46	14	4.09	5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3.65	4.27	0.62	-2.476*	2.65	3	3.70	12	LH
㉣ 가족기능지원	3.60	4.08	0.48	-2.071*	1.96	7	3.63	15	LH
㉤ 건강증진지원	3.97	4.15	0.18	-0.794	0.75	13	3.97	7	HL
㉥ 기능회복지원	4.00	4.30	0.30	-1.469	1.29	10	4.01	6	HL
㉦ 급식지원	4.26	4.28	0.02	-0.131	0.09	16	4.26	2	HL
㉧ 평생교육지원	4.13	4.43	0.30	-1.821	1.33	9	4.14	4	HL
㉨ 취미여가지원	4.38	4.40	0.02	-0.134	0.09	15	4.38	1	HL
㉩ 지역자원개발	3.58	4.38	0.80	-4.035***	3.50	2	3.67	14	LH
㉪ 지역복지연계	3.68	4.25	0.57	-1.982	2.42	5	3.72	11	LH
㉫ 주거지원	3.50	4.35	0.85	-3.437**	3.70	1	3.60	17	LH
㉬ 가족통합지원	3.65	4.12	0.47	-1.566	1.94	8	3.68	13	LH
㉭ 사회참여지원	3.94	4.17	0.23	-0.916	0.96	12	3.95	8	HL
㉮ 노인권익증진	3.84	4.41	0.57	-2.806**	2.51	4	3.88	10	LH
㉯ 고용 및 소득지원	3.90	4.15	0.25	-1.273	1.04	11	3.91	9	HL
㉰ 영양서비스	3.56	4.12	0.56	-2.419*	2.31	6	3.60	16	LH
평균(M)	3.88	4.24	0.36	-	1.52		3.90		-

* $p<0.05$, ** $p<0.01$, *** $p<0.001$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만족도-필요수준」의 평균은 3.90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1.52점으로 확인됨
-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과 「만족도-필요수준」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89]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노인문화센터)

(단위: %)



(8)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수준 살펴본 결과(표 3-75, 그림 3-90), ‘매우 만족한다’ 23명(62.2%) > ‘만족한다’ 11명(29.7%) > ‘보통이다’ 3명(8.1%)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매우 만족한다’ 34명(54.8%) > ‘만족한다’ 24명(38.7%) > ‘보통이다’ 4명(6.5%) 순으로 나타났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0.834$, $p>.05$)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4.54점(SD=0.65), 노인문화센터가 4.48점(SD=0.6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현재 이용 기관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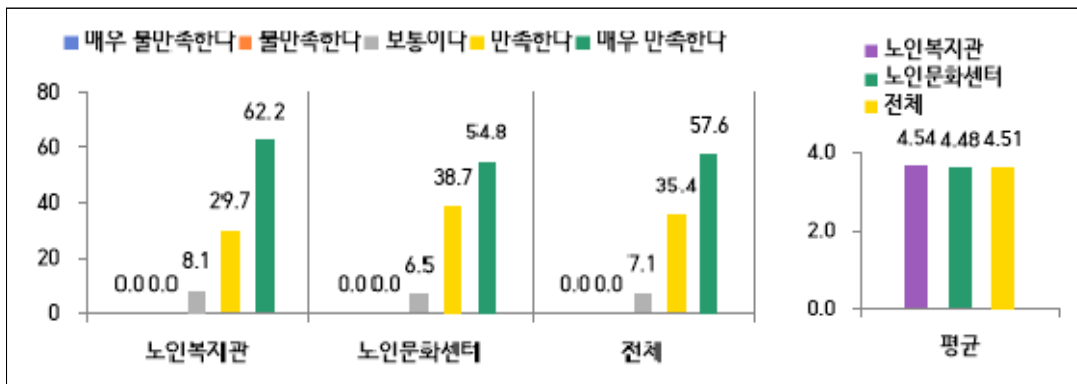
〈표 3-75〉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Pearson 카이제곱 (χ^2)
노인복지관	0(0.0)	0(0.0)	3(8.1)	11(29.7)	23(62.2)	37(37.4)	4.54	0.65	0.834 (.659)
노인문화센터	0(0.0)	0(0.0)	4(6.5)	24(38.7)	34(54.8)	62(62.6)	4.48	0.62	
전체	0(0.0)	0(0.0)	7(7.1)	35(35.4)	57(57.6)	99(100.0)	4.51	0.63	

〔그림 3-9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3)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1)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

-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36.8%) > ‘보통이다’ 7명(18.4%) > ‘그렇지 않다’ 6명(15.8%), ‘그렇다’ 6명(15.8%) > ‘매우 그렇다’ 5명(13.2%)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그렇다’ 16명(25.0%) >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23.4%) > ‘매우 그렇다’ 14명(21.9%) > ‘그렇지 않다’ 10명(15.6%) > ‘보통이다’ 9명(14.1%) 순으로 나타남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3.706$,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2.53점(SD=1.47), 노인문화센터가 3.06점(SD=1.50)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가 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76, 그림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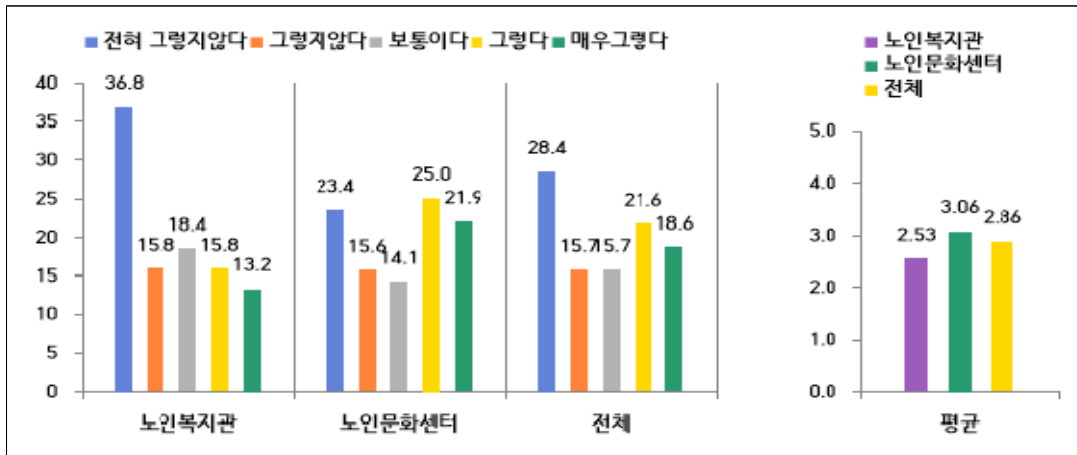
〈표 3-7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Pearson 카이제곱 (χ^2)
노인복지관	14(36.8)	6(15.8)	7(18.4)	6(15.8)	5(13.2)	38(37.3)	2.53	1.47	3.706 (.447)
노인문화센터	15(23.4)	10(15.6)	9(14.1)	16(25.0)	14(21.9)	64(62.7)	3.06	1.50	
전체	29(28.4)	16(15.7)	16(15.7)	22(21.6)	19(18.6)	102(100.0)	2.86	1.50	

[그림 3-9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이용자)

(단위: %, 점)



-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28.9%) > ‘매우 그렇다’ 8명(21.1%) > ‘보통이다’ 7명(18.4%) > ‘그렇지 않다’ 6명(15.8%), ‘그렇다’ 6명(15.8%)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그렇다’ 24명

(37.5%) > ‘매우 그렇다’ 15명(23.4%) >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18.8%) > ‘보통이다’ 7명(10.9%) > ‘그렇지 않다’ 6명(9.4%) 순으로 나타남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6.787$,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2.84점(SD=1.53), 노인문화센터가 3.37점(SD=1.43)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 이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77, 그림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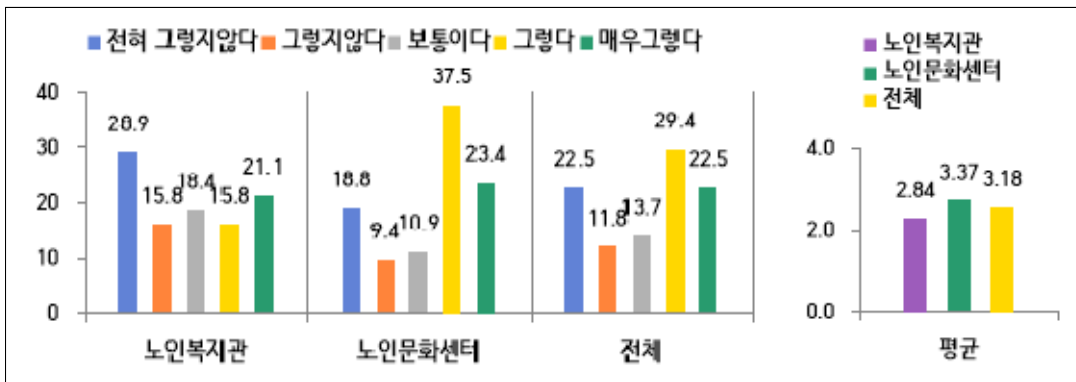
〈표 3-77〉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이용자)

(단위 :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Pearson 카이제곱 (χ^2)
노인복지관	11(28.9)	6(15.8)	7(18.4)	6(15.8)	8(21.1)	38(37.3)	2.84	1.53	6.787 (.148)
노인문화센터	12(18.8)	6(9.4)	7(10.9)	24(37.5)	15(23.4)	64(62.7)	3.37	1.43	
전체	23(22.5)	12(11.8)	14(13.7)	30(29.4)	23(22.5)	102(100.0)	3.18	1.49	

[그림 3-9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이용자)

(단위 : %, 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52.6%) > ‘그렇지 않다’ 9명(23.7%) > ‘보통이다’ 5명(13.2%) > ‘그렇다’ 3명(7.9%) > ‘매우 그렇다’ 1명(2.6%)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문화센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 18명(30.0%) > ‘그렇지 않다’ 14명(23.3%), ‘그렇다’ 14명(23.3%) > ‘보통이다’ 11명(18.3%) > ‘매우 그렇다’ 3명(5.0%) 순으로 나타남

-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chi^2=6.972$, $p>.05$)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1.84점(SD=1.10), 노인문화센터가 2.50점(SD=1.28)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78, 그림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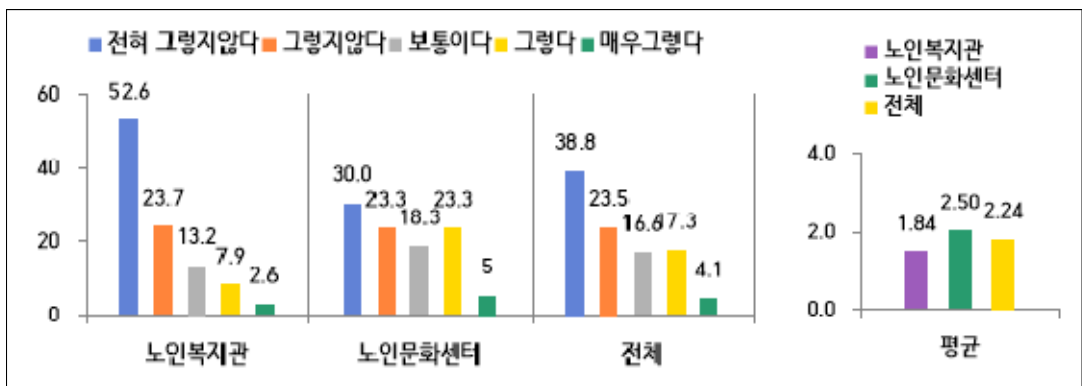
〈표 3-78〉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이용자)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 카이제곱(χ^2)
노인복지관	20(52.6)	9(23.7)	5(13.2)	3(7.9)	1(2.6)	38(37.3)	1.84	1.10	6.972 (.137)
노인문화센터	18(30.0)	14(23.3)	11(18.3)	14(23.3)	3(5.0)	60(61.2)	2.50	1.28	
전체	38(38.8)	23(23.5)	16(16.6)	17(17.3)	4(4.1)	98(100.0)	2.24	1.25	

[그림 3-9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이용자)

(단위: %, 점)



(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제안

-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수요를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관’ 25명(75.8%) > ‘노인문화센터’ 7명(21.2%) > ‘새로운 명칭’ 1명(3.0%) 순으로 조사되었고,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 32명(51.6%) > ‘노인문화센터’ 25명(40.3%) > ‘새로운 명칭’ 5명(8.1%) 순으로 조사됨(표 3-79, 그림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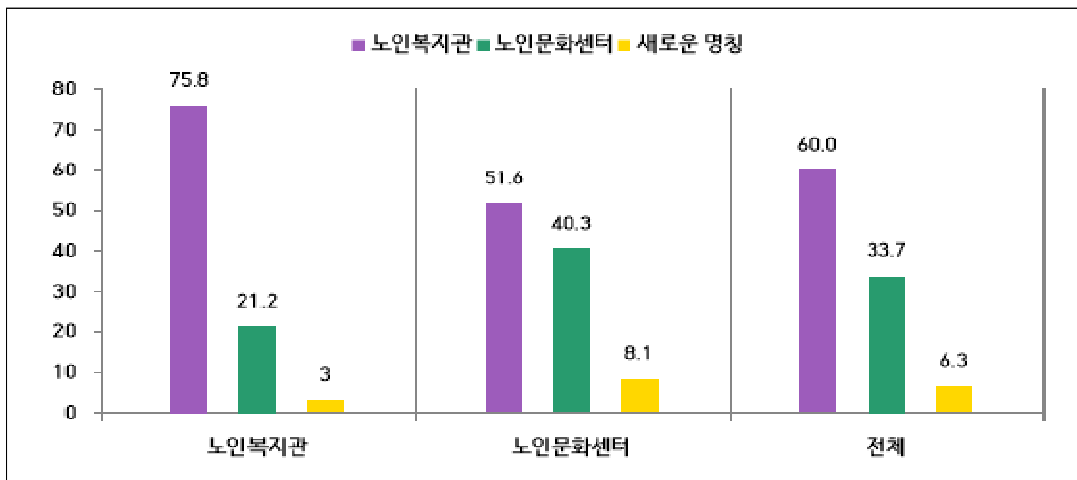
〈표 3-79〉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이용자)

(단위: 명, %)

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전체	
명칭	노인복지관	25	75.8	32	51.6	57	60.0
	노인문화센터	7	21.2	25	40.3	32	33.7
	새로운 명칭	1	3.0	5	8.1	6	6.3
합계		33	100.0	62	100.0	95	100.0

[그림 3-9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이용자)

(단위: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노인복지관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80)

〈표 3-80〉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복지관)

범주	내용
시설 보강 및 서비스 개선 (N=00)	- 남동구에 노인복지관이 부족함 - 노인인구는 많은데 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 이전 프로그램 연계해서 운영되면 좋겠음 - 시설 확충 - 안내 도우미, 서류 작성(대필) 노인 인력 자원 총원 필요 - 운동 기구 체계적 관리 - 정보와 교육 강화 희망(시설 환경 조성)

범주	내용
	• 주차장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오키나바 전용 교실 개설(상시 연습할 수 있는) • 주차장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고, 탁구 교실 따로 개설(치우지 않는) • 직원들이 바쁘고 힘들니까 지원이 필요함 •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치여 힘들어 보임. 직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 프로그램 들어갈 때 난이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 • 옷걸이가 있었으면 좋겠음
기타 (N=00)	• 각 차이가 있어서 통합이 어려울 것 같음 • 복지관의 특성과 문화센터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됨(지금 이대로 유지) • 교통이 불편해 셔틀버스 운행 필요 • 노인들의 인격과 자존감 존중 • 동아리 모임 추가 • 만족하지만, 평생 교육 출석만 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음 • 불만은 따로 없음 • 아직은 만족하고 있음

○ 노인문화센터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81)

〈표 3-81〉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노인문화센터)

범주	내용
시설 보강 및 서비스 개선 (N=00)	• 각층마다 휴게실 필요 • 공간 부족/강당 2개 이상 필요 • 교육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너무 바쁨, 직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음 • 기존 탁구장이 협소하여 증설이 필요함 • 주차 공간이 좁아서 확장 요망 • 노인복지 차원 카페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원 • 문화센터 새롭게 증축 • 복지관에서는 식사가 가능하나 문화센터는 식당이 없어 아쉬움. 독거노인으로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움 • 화장실 타일 미끄럼 방지로 변경(샤워실) • 체력단련실 바닥이 미끄러워 타일 교체 필요 • 센터 개보수 • 시설 확충 • 체력단련실의 운동 기구 부족 • 취미 여가 활용 시설의 확대 • 테이블, 의자 너무 낡았음
기타 (N=00)	• 수업 신청할 때 단계적으로(초급 거쳐서 중급) 선별해서 뽑아 주셨으면 함 • 인문학 강좌 요청 • 다양한 교육이 필요 • 지금처럼 운영하기를 바람 • 집에서 가까운 곳 자주 갈 수 있게

범주	내용
	• 커피 자판기 설치(커피숍에서 운영하시면 좋음) • 프로그램 이용 시 3번 이상 불출석 시 자동 퇴출은 지키기가 좀 어려움. 상담하여 사유 시 출석으로 인정해 줬으면 함 • 현재 만족

3. 공무원 수요조사

- 공무원 수요조사는 「기본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에 관한 생각」,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에 관한 인식」을 분석함

1) 기본사항

(1) 공무원의 소속 기관 소재지

-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여 소속되어 있는 인천시 군·구 소재지는 중구 0명(0.0%), 동구 3명(23.1%), 미추홀구 1명(7.7%), 연수구 0명(0.0%), 남동구 1명(7.7%), 부평구 3명(23.1%), 계양구 1명(7.7%), 서구 2명(15.4%), 강화군 2명(15.4%)으로 조사됨(표 3-82, 그림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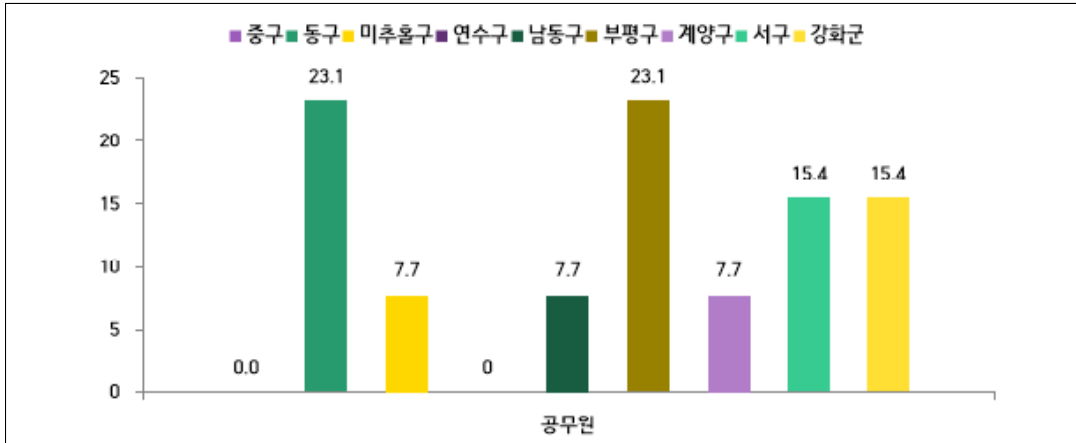
〈표 3-82〉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재지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소재지	중구	0	0.0
	동구	3	23.1
	미추홀구	1	7.7
	연수구	0	0.0
	남동구	1	7.7
	부평구	3	23.1
	계양구	1	7.7
	서구	2	15.4
	강화군	2	15.4
합계		13	100.0

[그림 3-95]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소재지

(단위 : %)



(2) 공무원 성별

○ 전체 공무원 성별은 '남성' 2명(15.4%), '여성' 11명(84.6%)으로 조사됨(표 3-83, 그림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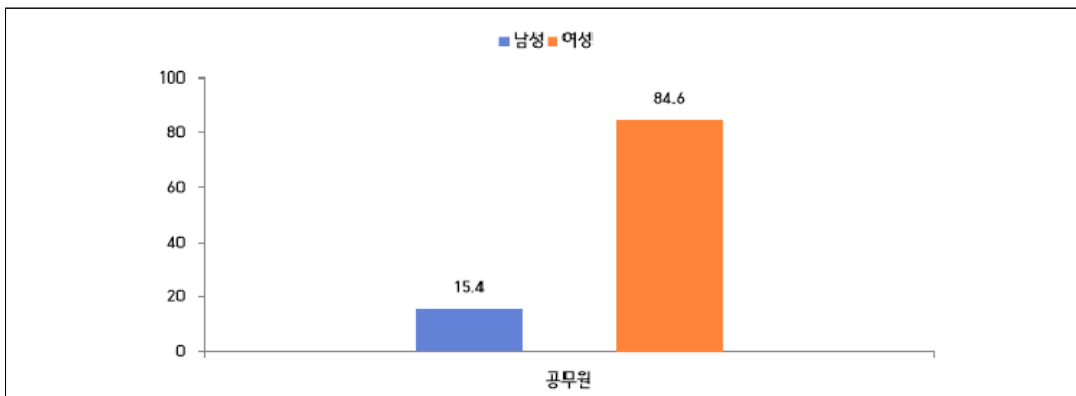
〈표 3-83〉 공무원 성별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성	2	15.4
	여성	11	84.6
합계		13	100.0

[그림 3-96] 공무원 성별

(단위 : %)



(3) 공무원 전체 근무 경력

○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전체 근무 경력은 ‘21~30년’이 6명(46.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년 이하’ 2명(15.4%), ‘16~20년’ 2명(15.4%), ‘30년 이상’ 2명(15.4%) > ‘11~15년’ 1명(7.7%) 순으로 조사됨(표 3-84, 그림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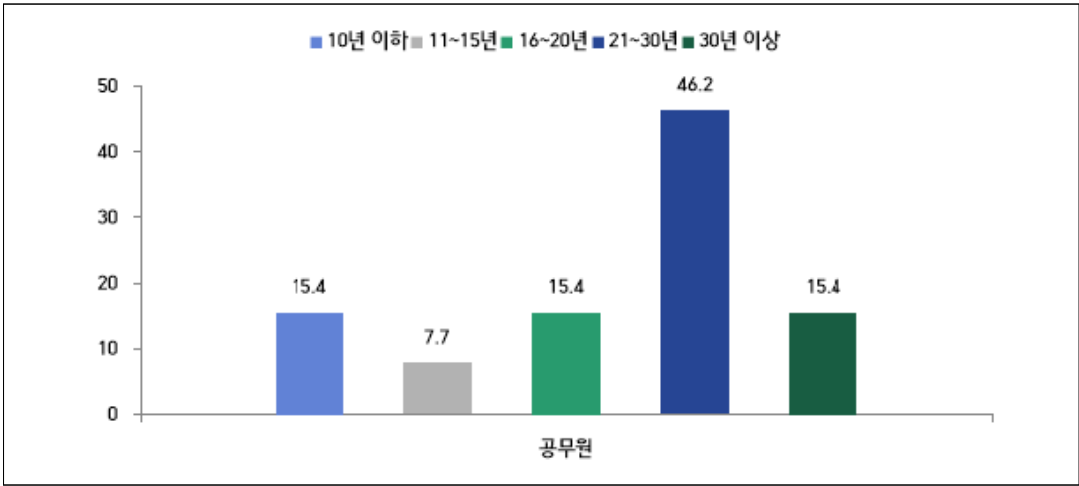
〈표 3-84〉 공무원 전체 근무 경력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체 경력 기간	10년 이하	2	15.4
	11~15년	1	7.7
	16~20년	2	15.4
	21~30년	6	46.2
	30년 이상	2	15.4
합계		13	100.0

[그림 3-97] 공무원 전체 근무 경력

(단위 : %)



(4)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은 ‘1~2년’이 6명(46.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년 이하’ 4명(30.8%) > ‘4년 이상’ 2명(15.4%) > ‘3~4년’ 1명(7.7%) 순으로 조사됨(표 3-85, 그림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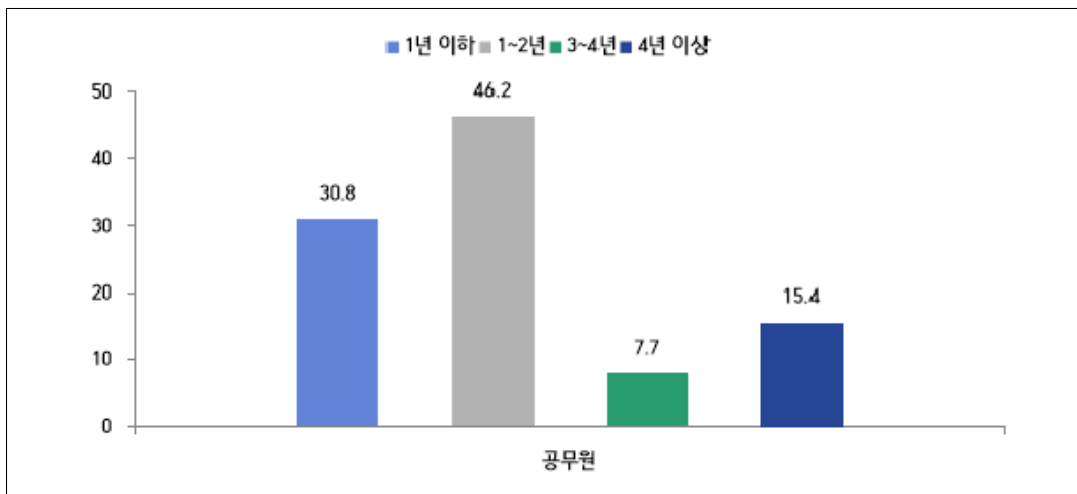
〈표 3-85〉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1년 이하	4	30.8
	1~2년	6	46.2
	3~4년	1	7.7
	4년 이상	2	15.4
합계		13	100.0

[그림 3-98] 공무원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단위: %)



(5) 공무원 직급

-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직급 구성을 살펴보면, ‘과장’ 2명(15.4%), ‘팀장’ 5명(38.5%), ‘주무관’ 5명(38.5%), ‘기타’ 1명(7.7%)으로 조사됨(표 3-86, 그림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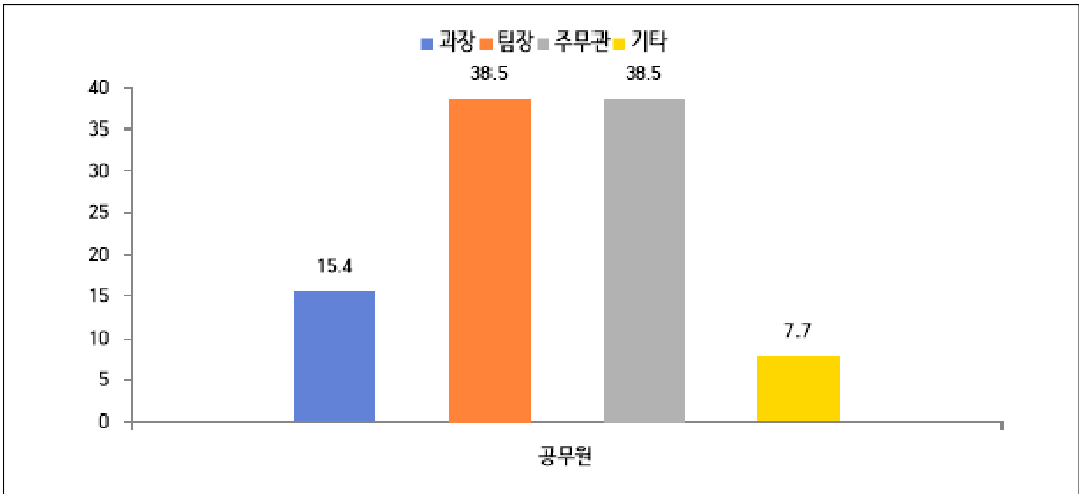
〈표 3-86〉 공무원 직급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직급	과장	2	15.4
	팀장	5	38.5
	주무관	5	38.5
	기타	1	7.7
합계		13	100.0

[그림 3-99] 공무원 직급

(단위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에 관한 견해

(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영역의 요구분석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사업영역의 중요 수준과 필요 수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참여지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7, 그림 3-100)

〈표 3-87〉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사업영역별 요구분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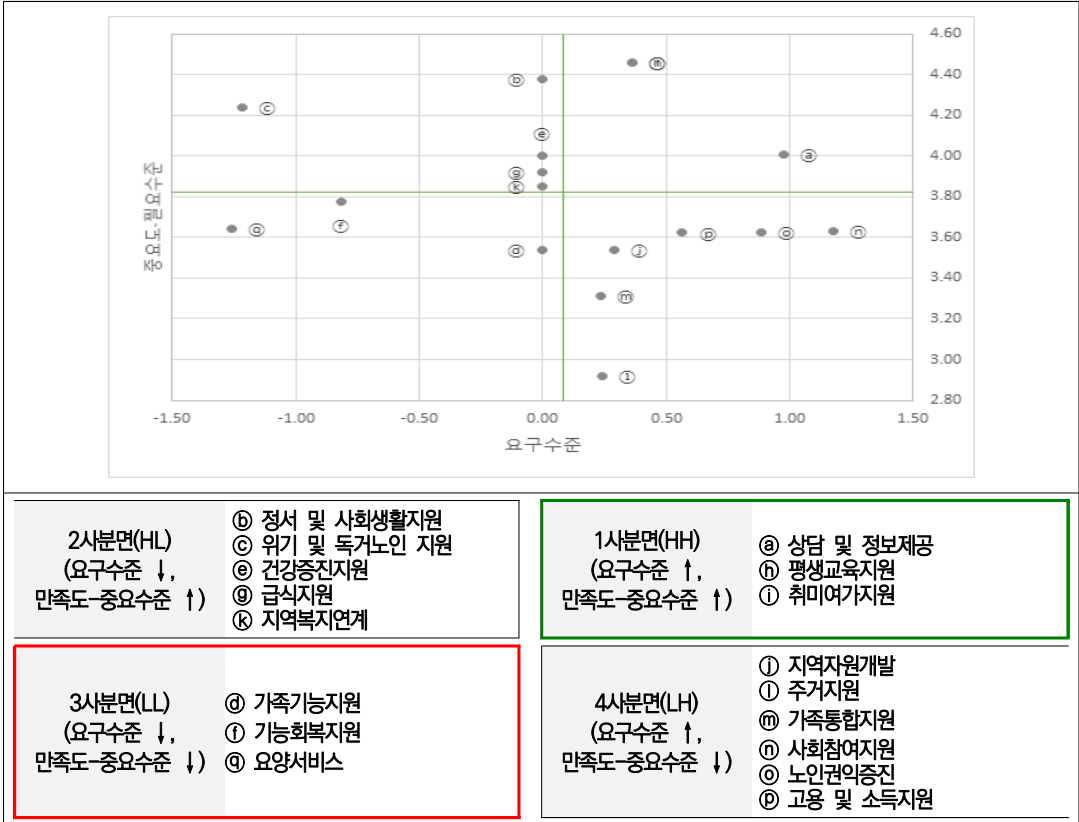
사업영역 구분	중요 수준	필요 수준	필요도 (gap) C=B-A	t-value	borich		The Locus for Focus		
					요구도 B×C	우선 순위	요구도	요구 순위	Locus for Focus
							$\sqrt{A^2+C^2}$		
㉠ 상담 및 정보제공	4.00	4.23	0.23	-1.897	0.97	2	4.01	5	HH
㉡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4.38	4.38	0.00	0.000	0.00	10	4.38	3	HL
㉢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4.23	3.92	-0.31	1.760	-1.22	16	4.24	4	HL
㉣ 가족기능지원	3.54	3.54	0.00	0.000	0.00	10	3.54	15	LL
㉤ 건강증진지원	4.00	4.00	0.00	0.000	0.00	10	4.00	6	HL
㉥ 기능회복지원	3.77	3.54	-0.23	1.389	-0.81	15	3.78	9	LL
㉦ 급식지원	3.92	3.92	0.00	0.000	0.00	10	3.92	7	HL
㉧ 평생교육지원	4.46	4.54	0.08	-0.562	0.36	5	4.46	1	HH
㉨ 취미여가지원	4.46	4.54	0.08	-0.562	0.36	5	4.46	1	HH
㉩ 지역자원개발	3.54	3.62	0.08	-0.433	0.29	7	3.54	14	LH
㉪ 지역복지연계	3.85	3.85	0.00	0.000	0.00	10	3.85	8	HL
㉫ 주거지원	2.92	3.00	0.08	-0.562	0.24	8	2.92	17	LH
㉬ 가족통합지원	3.31	3.38	0.07	-0.365	0.24	9	3.31	16	LH
㉭ 사회참여지원	3.62	3.92	0.30	-2.309*	1.18	1	3.63	11	LH
㉮ 노인권익증진	3.62	3.85	0.23	-1.897	0.89	3	3.63	12	LH
㉯ 고용 및 소득지원	3.62	3.77	0.15	-1.000	0.57	4	3.62	13	LH
㉰ 요양서비스	3.62	3.23	-0.39	1.443	-1.26	17	3.64	10	LL
평균(M)	3.82	3.84	0.02	-	0.08		3.82		-

*p<0.05

-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보면, 「중요도-필요수준」의 평균은 3.82점, 「요구수준」의 평균은 0.08점으로 확인됨
- 「중요도-필요」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1사분면(HH)에 해당하는 사업은 ‘상담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총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필요」과 「요구수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낮은 3사분면(LL)에 해당하는 사업은 ‘가족기능지원’, ‘기능회복지원’, ‘요양서비스’ 총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요구가 가장 높게 도출된 사업영역은 ‘상담 및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3가지로 나타남

[그림 3-100]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단위: %)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 공무원이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입장인지를 살펴봄(표 3-88, 그림 3-101)

- 노인복지관의 경우, '만족한다'가 6명(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통이다' 4명(30.8%) > '불만족한다' 3명(23.1%)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불만족한다'가 4명(3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불만족한다' 3명(23.1%), '보통이다' 3명(23.1%), '만족한다' 3명(23.1%) 순으로 나타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23점(SD=0.83), 노인문화센터가 2.46점(SD=1.13)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은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의 인력 배치에 대해 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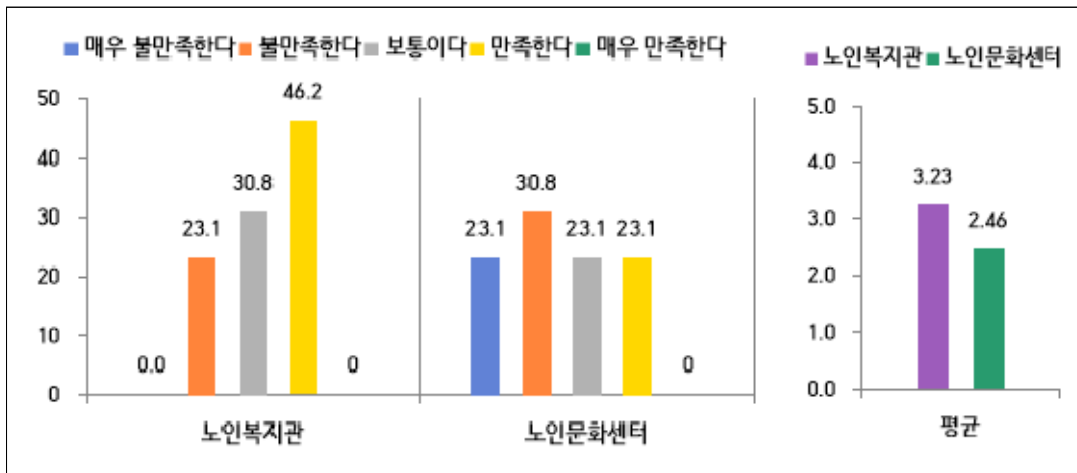
〈표 3-8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M)	표준편차(SD)
노인복지관	0(0.0)	3(23.1)	4(30.8)	6(46.2)	0(0.0)	13(100.0)	3.23	0.83
노인문화센터	3(23.1)	4(30.8)	3(23.1)	3(23.1)	0(0.0)	13(100.0)	2.46	1.13

[그림 3-10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자원에 대한 만족도

○ 공무원이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입장인지를 살펴봄(표 3-89, 그림 3-102)

- 노인복지관의 경우, '보통이다'가 7명(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만족한다' 5명(38.5%) > '매우 만족한다' 1명(7.7%) 순으로 나타남
-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보통이다'가 6명(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만족한다' 3명(23.1%), '불만족한다' 2명(15.4%), '매우 불만족한다' 1명(7.7%), '매우 만족한다' 1명(7.7%) 순으로 나타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3.54점(SD=0.66), 노인문화센터가 3.08점(SD=1.04)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은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의 지원에 대해 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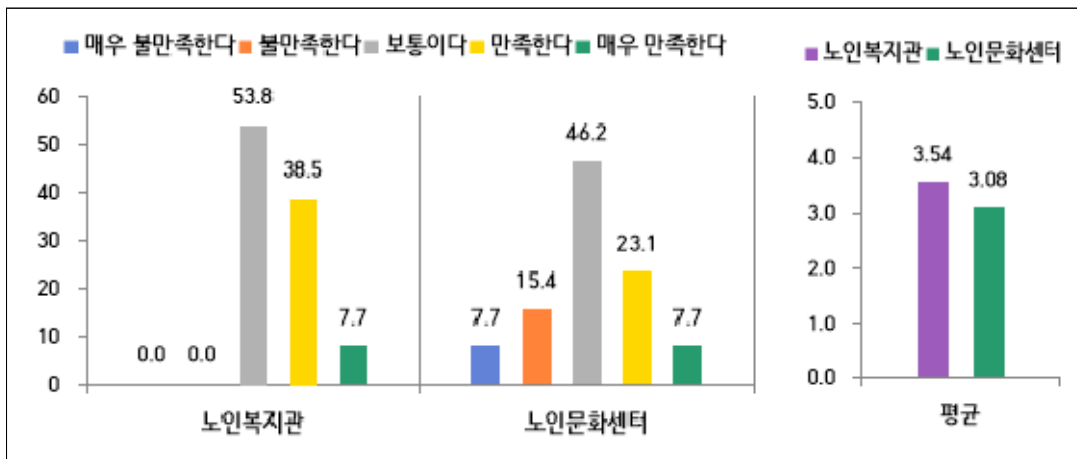
〈표 3-8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노인복지관	0(0.0)	0(0.0)	7(53.8)	5(38.5)	1(7.7)	13(100.0)	3.54	0.66
노인문화센터	1(7.7)	2(15.4)	6(46.2)	3(23.1)	1(7.7)	13(100.0)	3.08	1.04

[그림 3-10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4)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공무원이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0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8명(20.5%) >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7명(17.9%) 순으로 조사됨(표 3-90, 그림 3-103, 104)
- 1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4명(3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언 및 수렴 어려움' 3명(23.1%) >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7.7%),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과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2순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5명(3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명(30.8%) >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1명(7.7%),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명(7.7%), ‘기타’ 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은 0명(0.0%)으로 응답함
- 3순위는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이 3명(2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2명(15.4%),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2명(15.4%),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2명(15.4%),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2명(15.4%)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1명(7.7%),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0명(0.0%)으로 응답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이 23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7점(2순위),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3점(3순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1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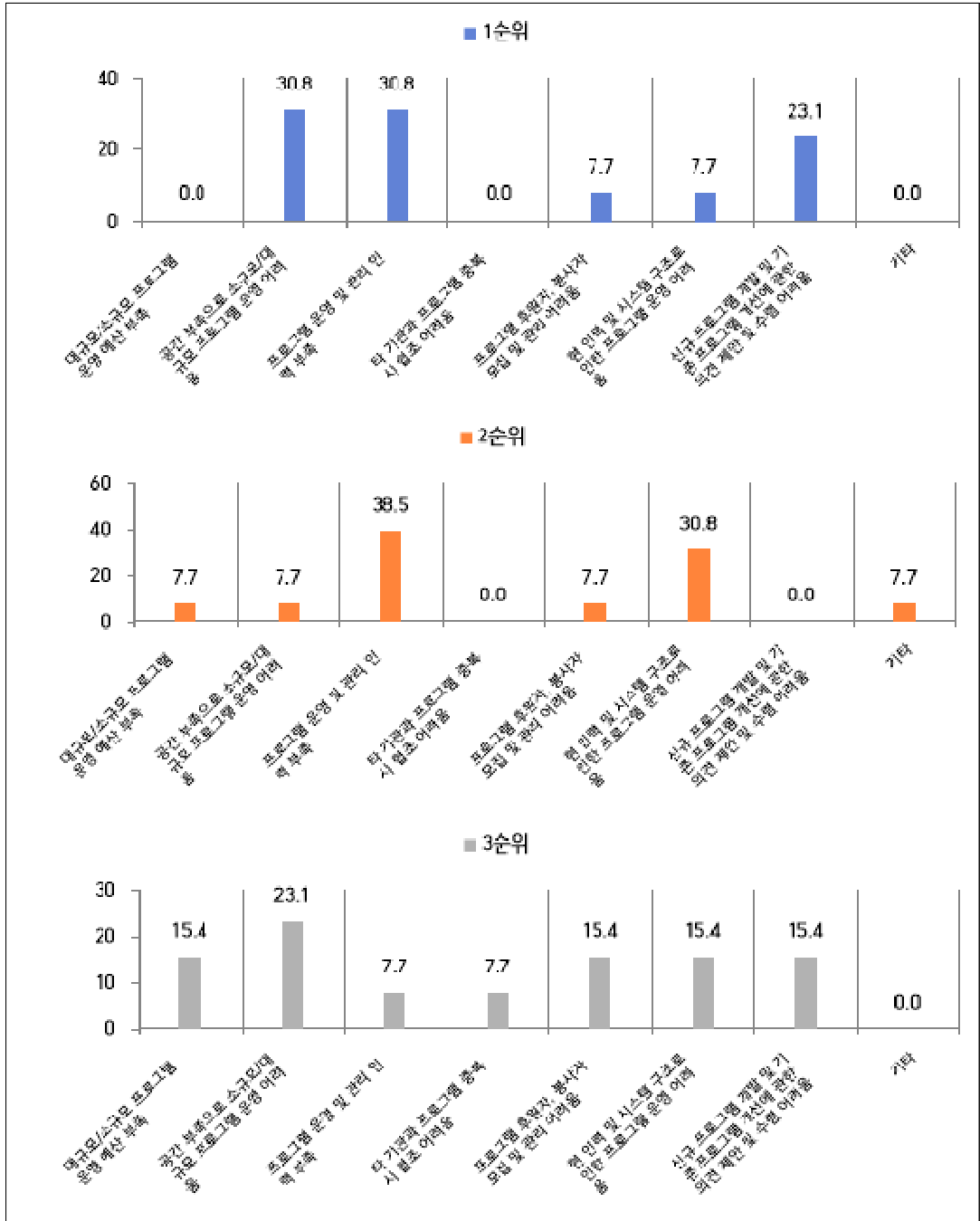
〈표 3-90〉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

(단위: 점,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0(0.0)	1(7.7)	2(15.4)	3(7.7)	4	6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4(30.8)	1(7.7)	3(23.1)	8(20.5)	17	2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4(30.8)	5(38.5)	1(7.7)	10(25.6)	23	1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협조 어려움	0(0.0)	0(0.0)	1(7.7)	1(2.6)	1	8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1(7.7)	1(7.7)	2(15.4)	4(10.3)	7	5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1(7.7)	4(30.8)	2(15.4)	7(17.9)	13	3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3(23.1)	0(0.0)	2(15.4)	5(12.8)	11	4
기타 ²³⁾	0(0.0)	1(7.7)	0(0.0)	1(2.6)	2	7
합계	13 (100.0)	13 (100.0)	13 (100.0)	39 (100.0)	-	-

[그림 3-103]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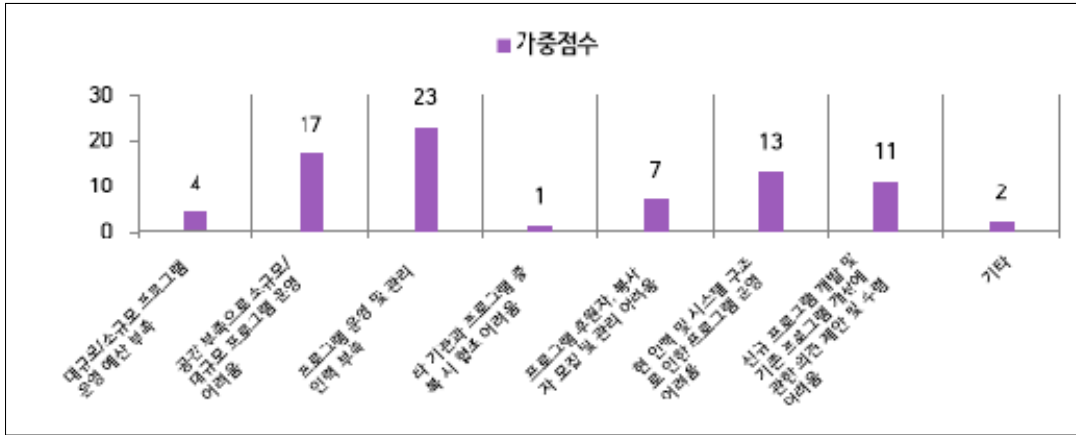
(단위 : %)



23) 기타(직접 작성)는 기관의 특색사업이 부족함(1)으로 응답함.

[그림 3-104]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가중점수)

(단위: 점)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3)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에 관한 인식

(1)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

-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9명(6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통이다’ 2명(15.4%) > ‘그렇지 않다’ 1명(7.7%), ‘매우 그렇다’ 1명(7.7%) 순으로 나타남(표 3-91, 그림 3-105)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의 평균을 보면, 3.77점(SD=0.73)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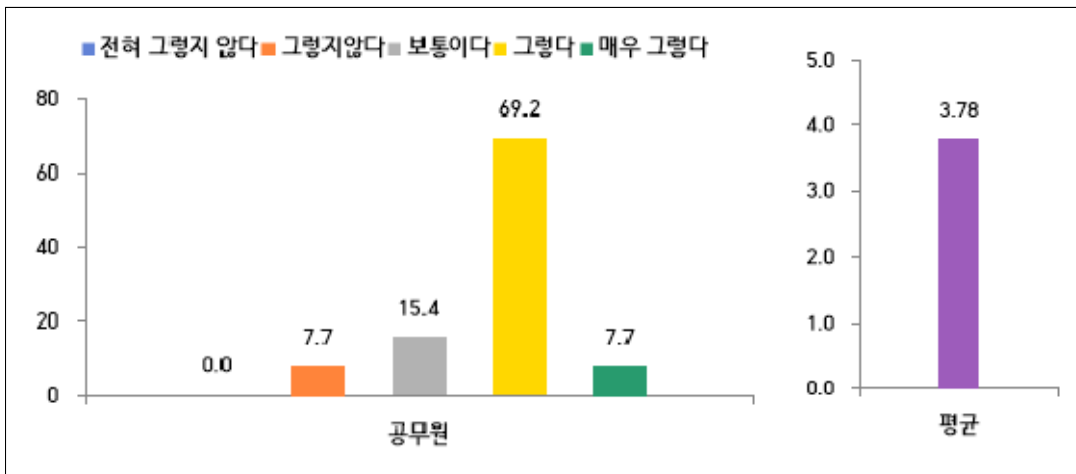
〈표 3-9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0(0.0)	1(7.7)	2(15.4)	9(69.2)	1(7.7)	13(100.0)	3.77	0.73

[그림 3-10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7명(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그렇다’ 4명(30.8%) > ‘보통이다’ 1명(7.7%), ‘그렇지 않다’ 1명(7.7%) 순으로 나타남(표 3-92, 그림 3-106)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의 평균을 보면, 4.08점(SD=0.86)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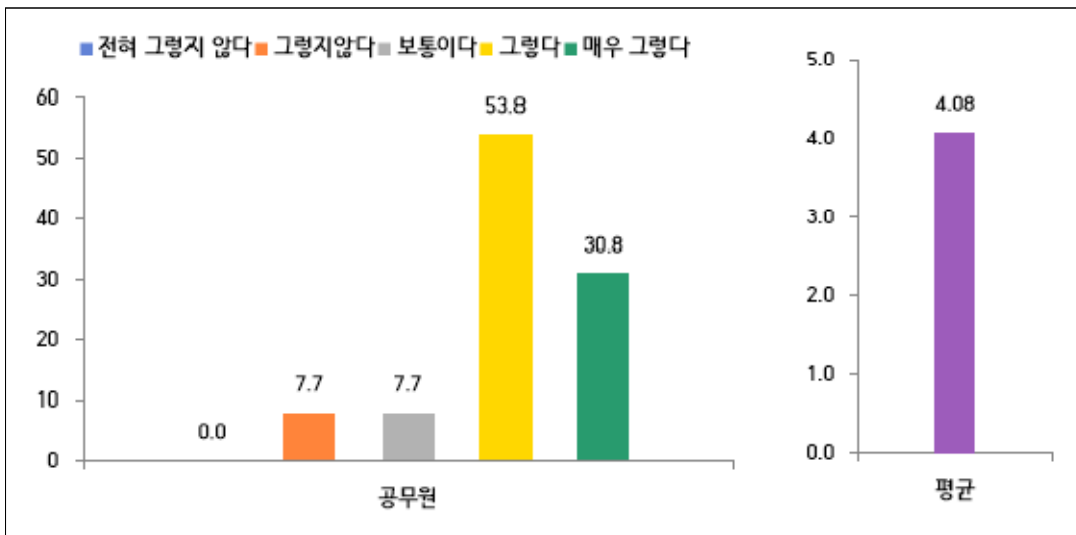
〈표 3-9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

(단위 :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명칭 통합 필요	0(0.0)	1(7.7)	1(7.7)	7(53.8)	4(30.8)	13(100.0)	4.08	0.86

[그림 3-106]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 필요

(단위 : %, 점)



-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가 5명(3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 4명(30.8%) > ‘매우 그렇다’ 2명(15.4%), ‘그렇다’ 1명(7.7%) 순으로 나타남(표 3-93, 그림 3-107)
-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의 평균을 보면, 2.92점(SD=1.19)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새로운 명칭 사용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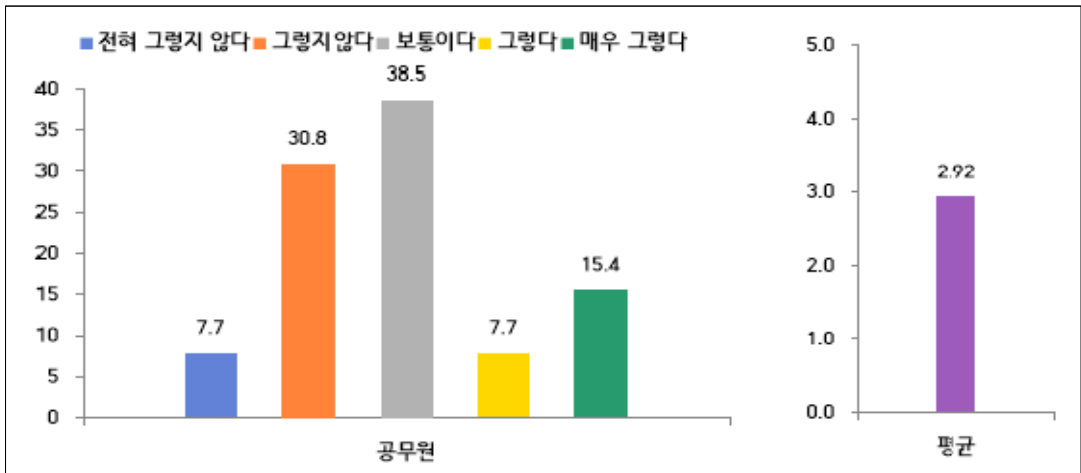
〈표 3-93〉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단위 : 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M)	표준편차 (SD)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1(7.7)	4(30.8)	5(38.5)	1(7.7)	2(15.4)	13(100.0)	2.92	1.19

[그림 3-107] 노인여가복지시설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단위 : %, 점)



(2)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제안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공무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으로 통합하는 응답은 10명(76.9%)로 조사되었고, ‘노인문화센터’로 통합하는 응답은 3명(23.1%), ‘새로운 명칭’ 0명(0.0%)으로 조사됨(표 3-94, 그림 3-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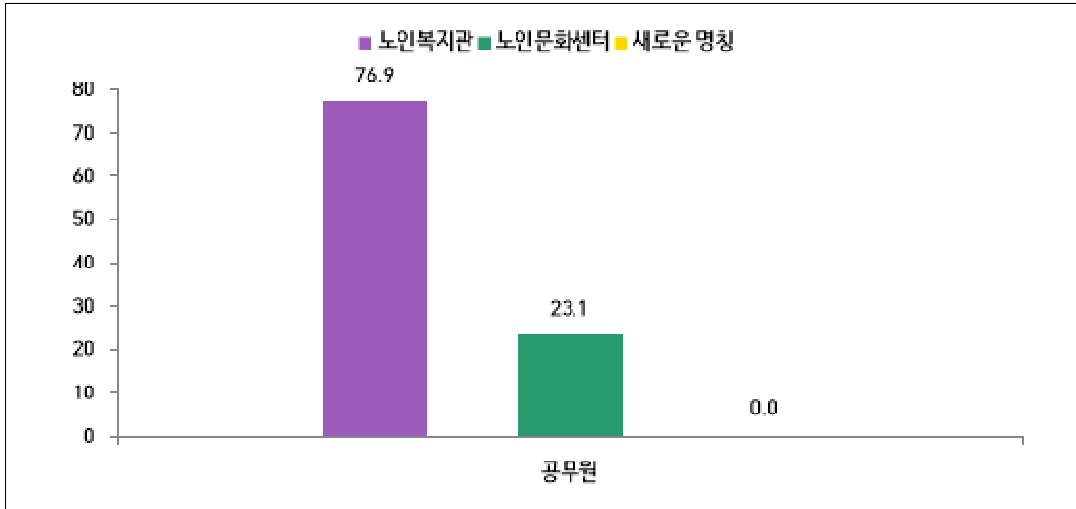
〈표 3-94〉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명칭	노인복지관	10
	노인문화센터	3
	새로운 명칭	0
합계	13	100.0

[그림 3-108]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단위: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이 인식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3- 95, 그림 3-109, 110)
- 1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6명(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후’ 3명(23.1%) >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2명(15.4%) > ‘종사자의 업무 가중’ 1명(7.7%), ‘기타’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와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직원복리 후생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0명(0.0%)으로 나타남
 - 2순위는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와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 14명(2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1명(7.7%)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직원복리 후생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과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이 3명(2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2명(15.4%),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2명(15.4%) >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1명(7.7%),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1명(7.7%),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와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직원복리 후생 부족',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가 2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17점(2순위),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9점(3순위),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7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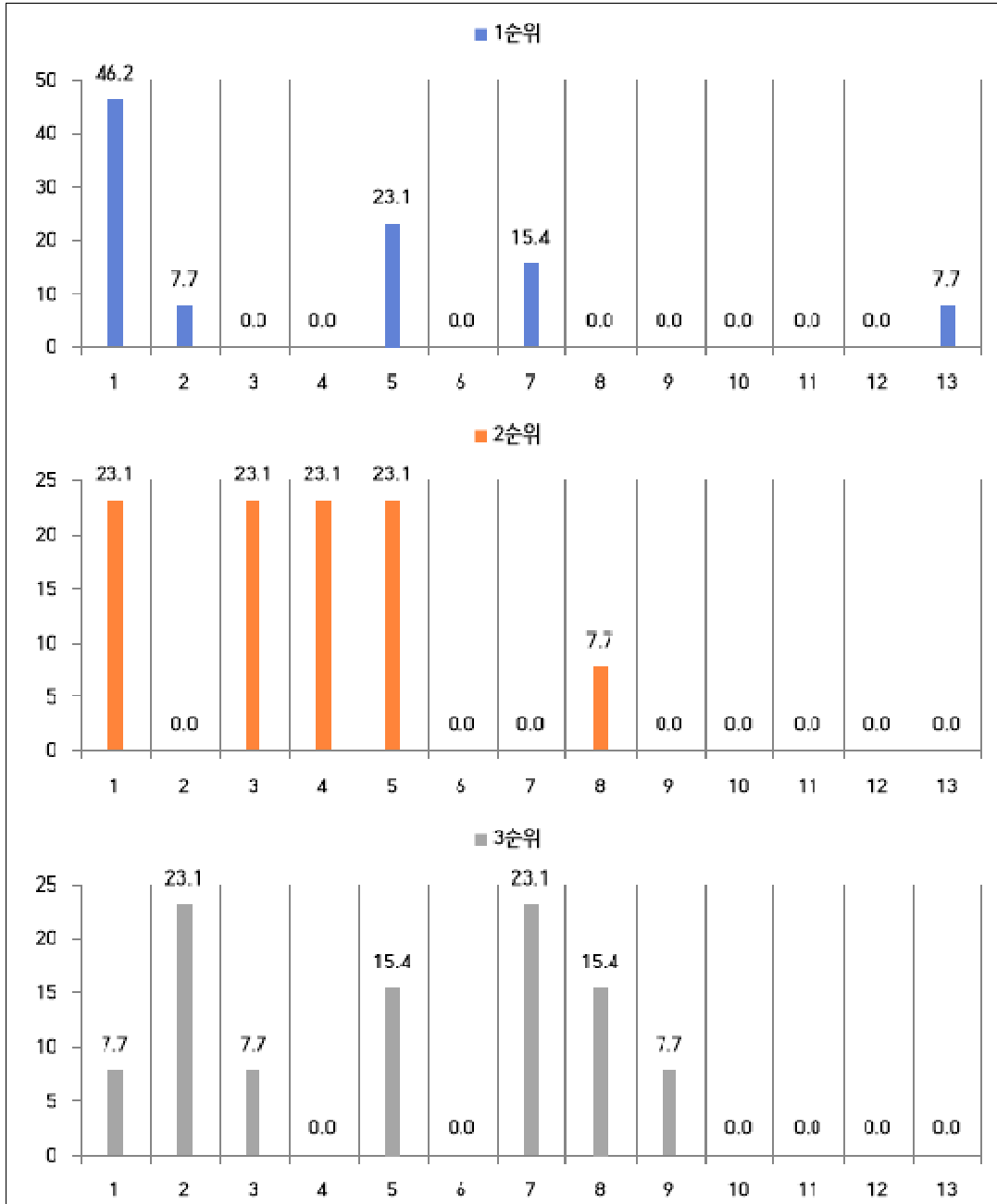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6(46.2)	3(23.1)	1(7.7)	10(25.6)	25	1
종사자의 업무 가중	1(7.7)	0(0.0)	3(23.1)	4(10.3)	6	5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0(0.0)	3(23.1)	1(7.7)	4(10.3)	7	4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0(0.0)	3(23.1)	0(0.0)	3(7.7)	6	5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3(23.1)	3(23.1)	2(15.4)	8(20.5)	17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0(0.0)	0(0.0)	0(0.0)	0(0.0)	0	10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2(15.4)	0(0.0)	3(23.1)	5(12.8)	9	3
이용자들과 상호 작용의 어려움	0(0.0)	1(7.7)	2(15.4)	3(7.7)	4	7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0(0.0)	0(0.0)	1(7.7)	1(2.6)	1	9
직원복리 후생 부족	0(0.0)	0(0.0)	0(0.0)	0(0.0)	0	10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0(0.0)	0(0.0)	0(0.0)	0(0.0)	0	10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0(0.0)	0(0.0)	0(0.0)	0(0.0)	0	10
기타 ²⁴⁾	1(7.7)	0(0.0)	0(0.0)	1(2.6)	3	8
합계	13 (100.0)	13 (100.0)	13 (100.0)	39 (100.0)	-	-

24) 기타(직접 작성)는 예산에 따른 운영이 자율적이다 보니 성과산출이 제각각으로 운영비에 따른 세부적 기준 및 평가 마련(1)으로 응답함.

[그림 3-10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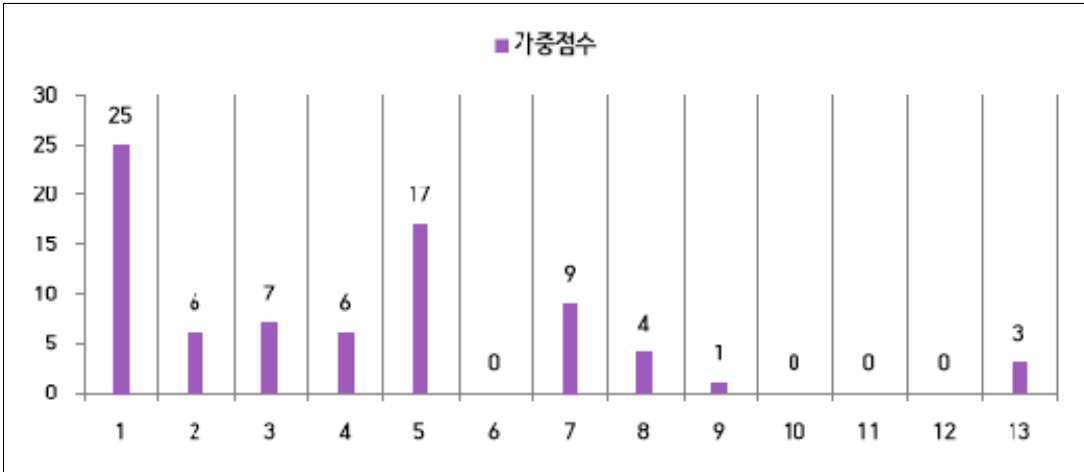
(단위 :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그림 3-11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어려움(가중점수)

(단위: 점)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후, ⑥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⑬ 기타

(4)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공무원 응답한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3-96, 그림 3-111, 112)

- 1순위는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5명(3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운영비 증액’ 4명(30.8%) >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2명(15.4%) >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명(7.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가 4명(3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2명(15.4%),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2명(15.4%),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2명(15.4%) > ‘운영비 증액’ 1명(7.7%),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명(7.7%),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이 5명(3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명(15.4%) > ‘운영비 증액’ 1명(7.7%),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명(7.7%),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1명(7.7%),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1명(7.7%),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1명(7.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1명(7.7%) 순으로 나타났고,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와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기타’는 0명(0.0%)으로 나타남
- 가중점수(순위)를 보면,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이 20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운영비 증액’ 15점(2순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12점(3순위),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11점(4순위)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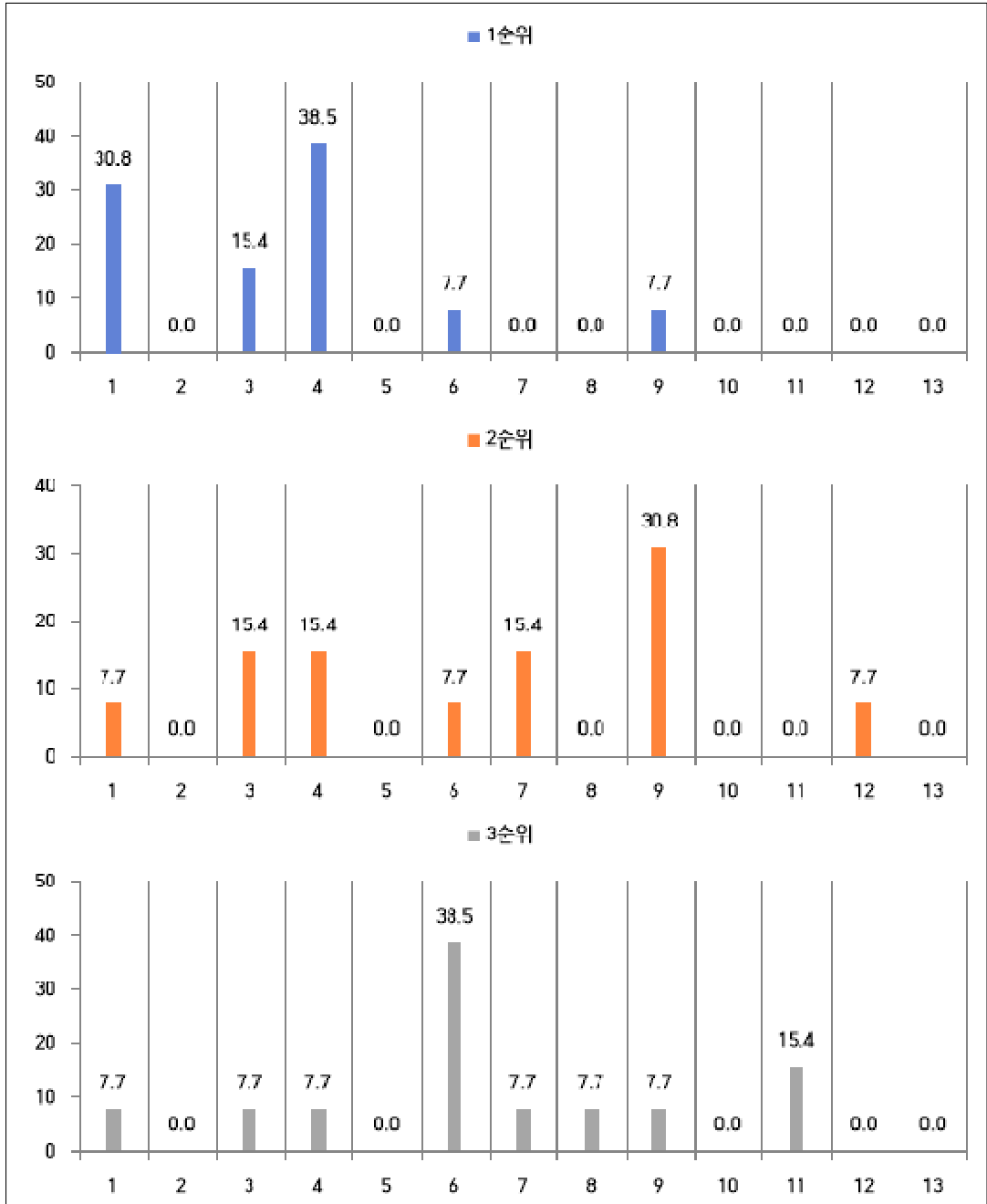
〈표 3-9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

(단위: 점,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가중점수	가중순위
운영비 증액	4(30.8)	1(7.7)	1(7.7)	6(15.4)	15	2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0(0.0)	0(0.0)	0(0.0)	0(0.0)	0	10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2(15.4)	2(15.4)	1(7.7)	5(12.8)	11	4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5(38.5)	2(15.4)	1(7.7)	8(20.5)	20	1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0(0.0)	0(0.0)	0(0.0)	0(0.0)	0	10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1(7.7)	1(7.7)	5(38.5)	7(17.9)	10	5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0(0.0)	2(15.4)	1(7.7)	3(7.7)	5	6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0(0.0)	0(0.0)	1(7.7)	1(2.6)	1	9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1(7.7)	4(30.8)	1(7.7)	6(15.4)	12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0.0)	0(0.0)	0(0.0)	0(0.0)	0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0.0)	0(0.0)	2(15.4)	2(5.1)	2	7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0(0.0)	1(7.7)	0(0.0)	1(2.6)	2	7
기타	0(0.0)	0(0.0)	0(0.0)	0(0.0)	0	10
합계	13 (100.0)	13 (100.0)	13 (100.0)	39 (100.0)	-	-

[그림 3-11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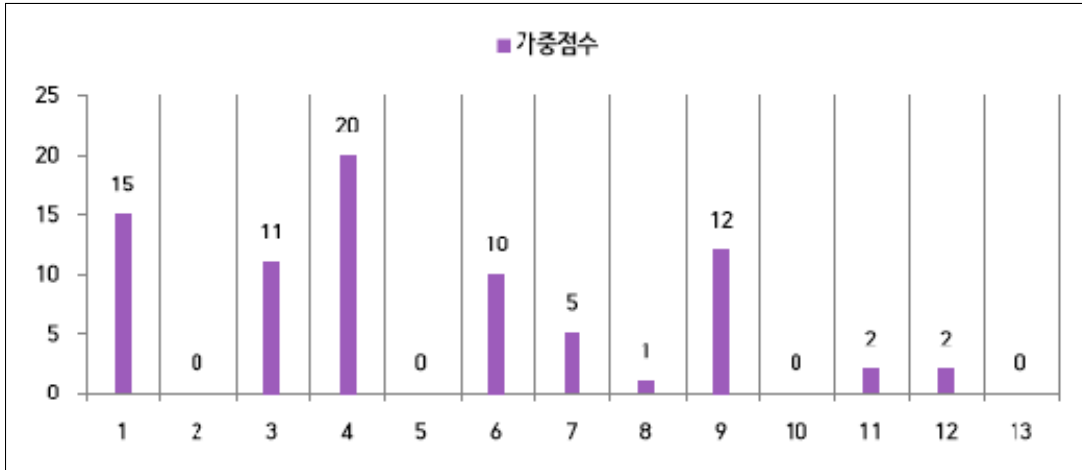
(단위 : %)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그림 3-11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가중점수)

(단위: 점)



① 운영비 증액,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⑬ 기타

(5)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됨(표 3-97)

〈표 3-97〉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범주	내용
시설 보강 (N=00)	- 모든 강의실 입·퇴실 전산화 - 노후화된 건물 보수에 따른 예산지원 - 시설 고도화
인력 보강 및 처우개선 (N=00)	- 맞춤 프로그램 연계 상담 인력 보강 - 조리 인력 보강 - 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복지관 등 정원 증원 필요 -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 - 직원 연수비용 별도 지원
기타 (N=00)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발전 기여 필요 인천시 내 군·구 자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서비스의 질 향상 등 - 복지관과 문화센터 예산지원 시 규모별 유형에 맞게 차등 지원 필요 -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마련 및 매년 시설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모색 필요 - 안주하고 지속했던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없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 시설 특색이 없어 차별화 부족

4

정책제언

제1절 논의 및 시사점

제2절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

제3절 연구 함의 및 향후 과제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기관 명칭에 대한 통합 방향

-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 기관 명칭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혼선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쟁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됨
-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조사대상 3개 그룹 모두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냄
- 명칭 통합에 앞서, 기관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곳은 노인문화센터의 종사자와 이용자로 나타남.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관명에 대한 사용이 지역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불려졌으며, 이용자 역시 명확한 기능으로 서비스가 안착되었던 지속성으로 지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혼란이나 복잡함에 대한 상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반면에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기존의 복지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함으로 다를 수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면서, 복지관과 다른 서비스, 교육, 이용자에 대한 연령 및 기능에 대한 기대치를 이용자 측면에서 갖을 수 있게 되면서 처음 기관을 이용하게 될 때나, 이용하는 내내 모호함을 지닐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지를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두 가지로 제한하여 살펴본 결과, 익숙하고 명확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그리고 시설평가 및 내부 기능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종사자와 공무원그룹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된 지점으로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본 연구조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단계적인 인천시 관내 노인복지관의 정체성과 향후 요구되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기능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한 기관의 소회

- 인천의 노인인구는 약 494,156명(2023.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층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부담 요인 또한 증가추세의 경향을 보임
- 특히 인천 관내에서도 도서지역과 원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격차 역시 급격히 과증 되면서 세부적인 삶의 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과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는 노년기 생애주기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수요 역시 동반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앞으로의 추세와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노후 되고 협소한 시설공간의 환경적 제약.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이에 배치되어야 할 관리 인력의 한계성은 중장기적인 단계와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함
-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여되는 새로운 기능적 확대에 대한 요구로 기존 기능에 대한 수행에 질적인 개선과 향상을 모색하기 힘든 구조적 부담을 지니고 있음. 신규사업과 기능 추가에 대한 인력을 배치받더라도, 기본적인 기관 내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담감은 온전히 기존 인력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배치와 더불어 중간관리급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기에 쉽지 않은 지침에 대한 규정에 묶여 유연한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든 상태임
- 노인복지관은 현재 보다 확대되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문화센터는 작지만 기준을 넘어서는 기능 추가로 인력 충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그 사유가 충분히 보임
- 주기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 계획과 운영, 실적관리를 병행하면서 기타 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도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업무의 과도한 중압감과 업무량에 대한 점점이 실질적으로 파악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증가하는 수요자의 규모, 새로운 사업과 기능에 대한 추가,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 조성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필수 해결 사항이 됨. 단계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요자에 대한 문제 발생과 질적인 향상이 동반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가늠하지 못하게 될 운영상의 미비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2. 시사점

□ 기관의 명칭 통합이 상징하는 의미

- 단편적인 기관 명칭 통합에만 머물지 않도록 요구되는 장치들에 대한 탐색과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이해당자자 간 의사소통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즉, 명칭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및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사업서비스에 대한 기관별 검토, 각 기관 마다 지닌 자원환경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 개발과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단계적으로 요구됨
- 서비스사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역량 강화 방안 계획 수립 필요. 기존 노인세대 외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특성과 이해, 수요에 따른 서비스사업 개발-기획-운영-평가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와 재배치를 위한 조직분석을 제안함

□ 기관의 기능과 인력과의 관계성

-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기관 운영의 한계상황 정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데 즉, 노후 되고, 협소한 절대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과 확대, 늘어나는 수요자 규모와 세분화되는 연령적 특성, 제한적인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만족감, 사업과 기능의 효과성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관의 평가와 해결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현재 기관의 기능은 점차 추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 업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로 수요조사 결과가 도출됨
 - 종사자와 공무원의 응답 결과,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노인복지관에 비해 노인문화센터가 인력배치에 있어서 낮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 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기본사업 외 추가 업무에 대한 배치도 동일 기준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객관적인 기준에서도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됨
 - 반면, 노인복지관의 인력배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없다는 해석은 금물임. 복지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규모 대비 인력배치는 모두 정원 기준에 맞춰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시설 수의 증가는 변화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역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임계점에 도달된 상태임
 - 종사자의 입장에서 응답한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순이였고, 노인문화센터는 상담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지원, 사회참여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업영역으로는 고용 및 소득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사업의 영역은 종사자 입장에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싶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나타난 점은 향후 충분한 고민의 한 지점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 이와 같이 종사자, 공무원 그리고 이용자 간 상충하는 욕구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모두가 골고루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함.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공통지점은 평생교육과 상담 및 정보제공의 인력배치를 확보하는 것에 종사자와 공무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경우 고용 및 소득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거나,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관 이용자 중 프로그램 중복 이용자, 독점식 이용자, 장기 이용자 등으로 한정적이거나 특정 이용자들만이 주로 활용하는 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신규 진입이 필요한 대기자 및 이용자 확보에 대한 유입 방안과 개선이 필요함.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를 합쳐 설치된 군·구의 기관 수를 살펴보면, 중구에는 1개소, 동구 2개소, 미추홀구 4개소, 연수구 3개소, 남동구 1개소, 부평구 3개소, 계양구 4개소, 서구 4개소, 강화군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중구나 남동구의 경우 모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을 희망하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진입조차 어려울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함
- 기존 시설의 노후화 문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의 설치, 지역적인 안배, 노인인구 분포에 대한 고려, 지역사회 내 전문인력 확보 등 모두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의 기능과 역할 등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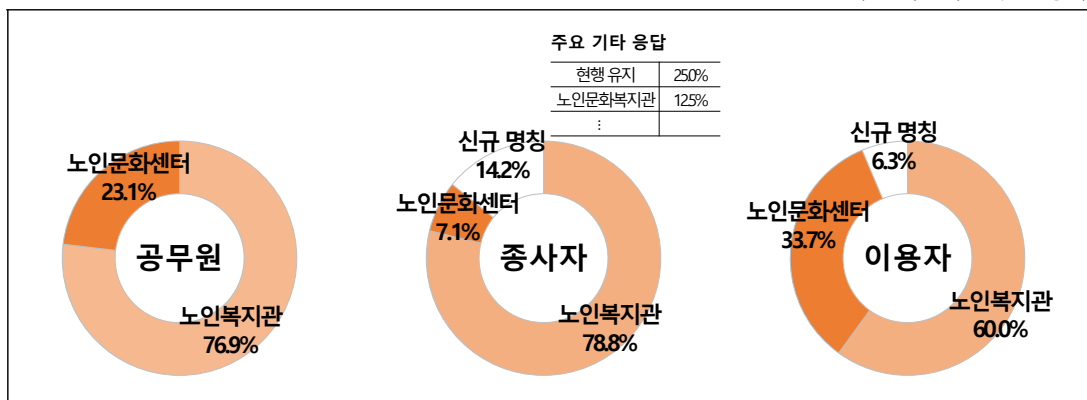
제2절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제안

1. 노인여가복지시설 통합 명칭 사용에 대한 논점

1) 통합 명칭 사용에 대한 방향성

-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기피 현상은 이용자(40.2%) 측면에서는 다소 낮고, 서비스 제공자(공무원 76.9%, 종사자 63.7%) 측면에서 높아 다소 상충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반 이상이 명칭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기관 명칭 통합 의견의 다수가 ‘노인복지관’으로 수요조사 결과 중지가 모아짐
 - 수요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통합 명칭 사용에 종사자(78.8%), 이용자(60.0%), 공무원(60.0%) 모두 ‘노인복지관’의 명칭 사용을 선호하는 한편, 기타 의견으로 종사자 그룹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응답이 25.0%, 새로운 명칭으로 ‘노인문화복지관’이 12.5%로 응답됨

(N=13/113/103, 단수응답)



-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의 외형적 변화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체계에 따른 직제와 직함 등 세부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단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규모와 예산 등의 격차가 노인복지관과 큰 만큼 기존 평가 지침에 따른 시설기준 분류를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2) 통합 명칭 사용에 따른 점검

- 노인복지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존 노인복지관 사업을 강화하거나 특화사업을 발전시켜 노인문화센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봄. 동일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사업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기능 분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 따라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설정해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는 시범적인 도입과 고도화의 과정이 경험될 수 있는 합의의 장을 마련해 봄
 - 이는 노인복지관의 정량화된 사업의 양적 분산이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 광범위해진 분포 등에 따른 관점으로 지역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조화롭게 배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취지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사업서비스의 분류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시간적 소요가 요구될 시 현재와 같이 동일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운영관리 시 공통 매뉴얼(노년사회화 분야, 사례관리, 경로식당 운영 등) 등을 마련하여 적용해 보거나, 기관마다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문화센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으로 기관 명칭이 통합될 경우 지자체 군·구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요구되며, 시설 내외부, 현판, 사인물, 홈페이지 등 변경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우선 시 되어야 하며, 노인복지관에 적용되고 있는 조직 및 직제를 반영하게 된다면 추가 인건비 책정 역시 필요할 수 있음
 - 기존의 역할 보다 점차적인 확대가 예상되므로 여가프로그램 중심에서 지역 노인의 접근성을 높인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인적·물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조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추진계획이 필요할 수 있음

- 전국단위 시설평가 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고, 인력, 예산, 시설규모면에서 취약점이 있는 만큼 기관 명칭 통합 개편 시 어떤 평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함. 2024년 평가를 앞두고 있고, 부족한 결과에 대해서 종사자의 부담이 크게 작용되므로 인천시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관 명칭 통합 시점을 연장하거나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논의 안건으로 마련해 봄

○ 양 기관의 공통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관 명칭 통합 이전까지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결정 과정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통합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노인복지관협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TF구성 또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검토해 봄

2.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인력 적정 배치(안)

1)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인력 총원

○ 법 및 조례와 지침,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 내용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조사가 필요함. 현재 조례 및 지침에서 누락 된 내용의 여부를 판단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을 현장으로부터 제안받아 상호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즉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이 시설 규모로 적용될 때, 사업별로 적용될 때 등 다양한 요인의 경로로 검토되어야 하는 점이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됨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를 보면, 평가 유형에 대한 영역이 총 6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그 중 재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시설의 유형을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해 놓음. 유형의 분류 기준은 시설의 연면적과 직원 수로 산정되는데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노인복지관에 비해 연면적 규모가 작고, 직원 수 역시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형인 경우가 대다수 임
- 가형에서는 직원규모가 16명 이상, 나형은 11~15명 이상, 다형은 10명 이하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문화센터는 정원을 7명으로 제안하고 있어 평가기준에 미흡한 단계로 0점 처리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적정인력 배치 시 장애 요인

-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충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인건비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구·비 분담 상황에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됨
- 인력배치 기준이 부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분장의 한계가 발생 될 수 있음. 주된 업무 외에 공동으로 또는 타 사업의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과 과중한 역할이 예견될 수 있음
- 따라서 부수적으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의 양과 이용자의 수, 그리고 협소한 공간 및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초과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게 됨
- 변화하는 노인복지환경에서 시설의 인프라를 이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시설 내 부족한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만약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이용자의 권리 또한 제약하는 측면도 발생 될 수 있음

○ 적정인력 배치(안)

1. 인천시 시설 운영기준 안내 지침 개정

-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기준으로 각 시설의 구분을 3가지(가, 나, 다형)로 분류하고 있고,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기준 안내에서는 2가지(A, B형)로 구분함. 2004년 건립 당시 연면적이 1,000㎡이상의 노인복지관을 B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2023년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0㎡ 이상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B형으로 분류하는 비효율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현재 실정에 맞는 조정과 변경이 선결되어야 함

2. 단계적인 적정 인력배치 계획(안) 수립

- 노인복지관은 기존 인력대비 증가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충원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 확대 및 유지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업 및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 인력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차이가 있는 경우 충원과 배치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계획(안)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 군·구에서는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가적인 운영비 추가에 대한 비용추계 설계가 요구됨

- 서보람 외(2019)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제언에서도 각 기관은 기본사업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제시해 두고 있으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개발해 운영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인 점을 들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인천지역도 유사사항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취지에 대한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추가 되거나 확대 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즉 사회복지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함

3.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

1) 수요조사 결과 내용 분석에 따른 개선 사항

- 종사자 그룹에서 응답된 니즈를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종사자의 처우개선, 세 번째 조직 및 사업구조 개선으로 분류되었음

(전문)인력 충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여가시설에 이용객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변동 없이 복지관 평가, 시 사업 추가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시 인력적인 부분 혹은 기본 업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 정하고 있는 사업유형 구분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인력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구)은 특수적인 처우개선비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1,000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과 100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의 보수가 같다면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질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에 처우나 보수가 타 직업에 비해 좋지않아 이직률도 높고 직업만족도가 너무 낮습니다. 수당이나 포상제도도 없어 일하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조직 및 사업 구조 개선

“감당해야할 사업뿐만 아니라 외부 점검(회계감사, 지도점검, 지자체감사, 법인감사,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유관 기관에서 비슷한 실적을 다른 서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서식의 실적을 작성해서 보고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 이용자 그룹에서 응답된 니즈는 4가지로 첫 번째, 시설 확충 및 유지와 보수, 두 번째 프로그램의 다양화, 세 번째 인력 충원, 네 번째, 교통편의성 증대에 대한 기관의 기능 점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시설 확충·유지·보수

“사위실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가 필요합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식당이 없어 독거노인으로서 식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다양화

“수업 신청할 때 단계적으로 (초급/중급/고급) 선별해서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화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

“교육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너무 바빠 직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통 편의성 증대

“교통이 불편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 그룹에서는 시설의 고도화와 노후화된 건물 보수에 따른 예산 지원,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으로 기관 내 자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예산 지원 시 규모별 유형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 방향과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 지역 내에서 기관의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운영이 실시되지 못하는 부족함을 언급함

(N=13/113/103)

공통의견	개별 의견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시설이 고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식당이 없어 독거노인으로서 식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노인여가복지시설별 차별화 필요 “동일 지자체내에서 시설 특색이 없어 시설별 차별화 부족합니다”
현 운영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위실 미끄럼 방지타일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사자 조직 및 사업구조 개편 “감당해야 할 사업뿐만 아니라 외부 점검(회계감사, 지도점검, 지자체감사, 법인감사,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충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여가시설에 이용객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자 교통 편의성 증대 “교통이 불편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노인에 대한 기존 서비스 제공의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와 새로운 노년층의 유입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기능 재정립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음
- 신노년세대로, 현재의 신중년세대로 불려지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만족에 대한 불일치나, 기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저할 될 수도 있는 만큼 변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방향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함

2) 의견조사에 따른 개선 사항

- 본 연구 수행에 가장 큰 의미는 현장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논의의 내용을 듣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무원과 현장기관 관계자와 연구자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정리하며, 연구 내용 공유에 필요한 보고회, 전문가 자문, 현장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향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의 내용을 도출함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인력 충원 및 재배치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평균 운영인력 수는 11.4명, 등록회원수는 4,234명으로 운영인력 당 등록회원 수는 371.4명에 달함. 프로그램 수준에서 살펴보면, 시설 운영인력 당 관리해야 할 이용자 수준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이용자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질 향상 및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 가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과 시설별 중복 프로그램 통합 등을 통한 사업 시스템 단순화, 추가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됨
 2.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 파악을 위해 후속 연구 필요
 - 서비스 제공자(공무원과 종사자) 모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존 운영 방향인 취미·여가 지원 및 평생교육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종사자의 사업 만족도 중 취미·여가 지원과 평생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만족도 다음으로 급식지원, 건강증진 서비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단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외에도 확장된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의 모든 서비스의 기대효과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관이 경쟁적으로, 평가 위주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은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규모나 예산 또는 시설공간과 지역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각 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남기고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운영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연구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운영단위별 대안 마련의 기회를 조성해 봄

3. 환경적 시설과 공간 개선을 통한 기능 효율화 계획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대다수의 이용자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92.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취미·여가 지원에 대한 만족(84.3%)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80.4%) 등의 사업으로 나타남
 -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만큼 노후된 시설과 공간에 대한 개선 니즈도 높음
 - 시설 중 가장 공간개선이 필요한 용도로 교육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우선순위로 언급 되었고, 시설의 양적 확장대비 질적 개선이 더욱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적인 측면에서 각 시설별 운영비 집행기준에 대한 마련이 부재하므로 인력과 운영비 등 현장운영 시 요구되는 기준안의 수요를 파악하여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 자료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함
- 노인복지관으로 기관 명칭이 통합되는 것과 동시에 양쪽기관 모두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사업의 내용이 기존 유관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양적 확대만 추진하려는 관점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인식개선 역시 필요할 수 있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질적인 향상이 수반될 때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게 됨. 이는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영역별(일자리, 돌봄, 평생교육 등) 전문기관의 영역이 확보되는 것과도 연관됨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 때 20% 이상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함. 즉 행정조직 내 노인정책과 내에서만 노인과 관련한 업무를 대응하기 보다 다양한 부서가 접근하고 참여하여 증가하는 노인의 수와 수요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함.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건립 및 설치의 양적 증가도 검토가 되어야 함

제3절 연구 합의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합의

-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이듬해 1982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제1차 개정 시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1997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현재와 같은 운영기준을 갖추게 됨
-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비례해 점차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0년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2013년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예방, 보호, 통합의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체제를 갖추
- 「노인복지법」 제정 이래 40여 년간 길어지는 노년기 노인의 만족스러운 삶의 질 유지와 향상에 주력하며 지역 내 뿌리를 내린 지금의 노인복지관은 새로운 국면에 당면해 있고, 꾸준한 변화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음
- 2027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현재의 노인세대와 앞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예비노인세대로 65세 이하의 모든 세대를 통칭해 예방과 보호, 통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인복지관’은 변화의 준비를 면밀하게 시작할 때 임
- 기존 노인세대와 미래 노인세대를 함께 탐색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기 때문에 지역적 환경과 특성, 예산 규모, 인구구조, 지역자원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인천만의 노인복지 운영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시시설 평가의 한 축이 제시되어 있어 지자체 및 군·구, 기관마다 자율적인 사업과 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사업과 기회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건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본 연구와 같이 지역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변화를 시작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과 기회로써 확장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음

- 단순한 기관 명칭의 통합이 아니라, 이면이 지닌 구조적인 조직 운영 방식과 전문화 되고 있는 서비스 기획/운영/제공/확산 등을 담당하는 인력 구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탐색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향후 연구과제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데이터 종합 구축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말 기준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인천시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별 기관 또는 시·군·구별 정도 요청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상황임. 변경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나 정보 공개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기관에서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음
- 이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와 돌봄의 다양한 기능이 확장되면서 기존 시설 관리 및 운영 방향을 연간 확인하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기 위함임
-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를 기초로 기본사항, 사업, 인력, 시설, 예산 등의 자료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취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시계열적 자료화,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면 함
- 생성된 자료는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적 특성, 전문적인 인력 양성 등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봄

○ 인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평가 방안 검토

- 2022년도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인천의 경우 ‘노인복지관’으로 기관 명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기관의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만약 표면적인 기관 명칭 통합만으로 그친다면, 현재 시점에서 각 기관별 상이한 시설규모, 인력규모, 예산 등에서 중앙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충분히 예견하게 됨
- 현재의 평가 방식이 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평가로 활용될 수 없고,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해석 방식의 불분명함, 평가결과에 따른 종사자 처우 반영, 현장에서 실제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질적 평가 부재, 그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이슈를 반영해내지 못하는 한계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음

- 따라서, 가칭)인천형 노인여가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방안과 같은 내용의 조사 및 연구수요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 봐야 함

[참고문헌]

- 「202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경인지방통계청 보도자료(2022.9.30.). 2022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김윤영·김아진(2017).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7).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서보람·김효일·심임숙·최지영(2019). 평택시 노인복지관 기능 및 운영모형 개발 연구. 평택복지재단.
선우덕·석재은·이주의·임정기·이수형(2007).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시 내부자료(2023.1월, 3월 기준).
인천시 내부자료. 2023년 인천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 안내.
인천시 내부자료. 인천시 노인인구 현황(2023.1. 기준).
일간경기(2023.2.14.). 인천지역 노인문화센터 서비스 부실 우려.
주찬희·김옥녀(2018).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분석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370-38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
황경란·신은경·김나연(2013). 노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황경란·조성희·최성은(2022).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 기능 모색 연구. 경기복지재단

부록

[종사자용]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이용자 중심의 기관 명칭,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의견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기관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조사기관	(주)디파인앰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4)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취미여가지원		
	① 운영인력 수 ()명	② 운영 프로그램 수 ()개	③ 이용자 수 ()명
5)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지역복지연계/주거지원/가족통합지원		
	① 운영인력 수 ()명	② 운영 프로그램 수 ()개	③ 이용자 수 ()명
6)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사회참여지원/노인권익증진/고용 및 소득지원		
	① 운영인력 수 ()명	② 운영 프로그램 수 ()개	③ 이용자 수 ()명
7) 돌봄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운영인력 수 ()명	② 운영 프로그램 수 ()개	③ 이용자 수 ()명
8) 기타	(※ 추가 수행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작성)		
	① 운영인력 수 ()명	② 운영 프로그램 수 ()개	③ 이용자 수 ()명
 Programmer: 19. 현원은 정원 이상 값을 가질 수 없도 록 제어 9) 종사자정원/현원	정원()명	현원()명	
10) 등록회원	회원수()명	1일 평균 방문 회원수()명	
 Programmer: 단수응답 11) 운영 주체	① 사단법인 ② 사회복지법인 ③ 종교법인 ④ 기타()		

※ 이제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업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4-1. “000(사업영역 구분 항목 보기 제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중요도 (왼쪽에 제시된 사업영역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표기해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업 영역 구분		중요도 (왼쪽에 제시된 사업영역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표기해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안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 이제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영역’별로 운영자, 제공자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여쭙보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므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만 응답해 주세요. 제시된 사업영역 구분 이외의 사업 내용이 있을 경우 기타에 추가 작성해주세요.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4-2. “000(사업영역 구분 항목 보기 제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주관적 만족도 (기관장: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자 입장에서 만족도 종사자: 사업 운영자 및 제공자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사업 영역 구분		주관적 만족도 (7판장: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자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자: 사업 운영자 및 제공자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직접 작성)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 **현재 기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3순위 필수,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7. 귀하께서는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인력 배치가 필요한 사업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사업 영역 구분		사업 영역 구분	
상담	①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⑩ 지역자원개발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⑪ 지역복지연계
사례관리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⑫ 주거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사업 영역 구분		사업 영역 구분	
건강생활 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⑭ 사회참여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⑦ 급식지원		⑯ 고용 및 소득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⑧ 평생교육지원	돌봄	⑰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⑨ 취미여가지원	기타	⑱ 직접 작성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 Programmer: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8-1.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확대**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사업 영역 구분	
상담	①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⑩ 지역자원개발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⑪ 지역복지연계
사례관리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⑫ 주거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건강생활 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⑭ 사회참여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⑦ 급식지원		⑯ 고용 및 소득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⑧ 평생교육지원	돌봄	⑰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⑨ 취미여가지원	기타	⑱ 직접 작성

8-1a. 000 사업을 확대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필수작성

8-2.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중단 및 종료**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사업 영역 구분	
상담	①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⑩ 지역자원개발
	②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⑪ 지역복지연계
사례관리	③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⑫ 주거지원
	④ 가족기능지원		⑬ 가족통합지원
건강생활 지원	⑤ 건강증진지원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⑭ 사회참여지원
	⑥ 기능회복지원		⑮ 노인권익증진
	⑦ 급식지원		⑯ 고용 및 소득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⑧ 평생교육지원	돌봄	⑰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주·야간보호 등)
	⑨ 취미여가지원	기타	⑱ 직접 작성

8-2a. 000 사업을 중단 및 종료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필수작성

9.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국가나 지자체, 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1순위 필수 2, 3순위 선택

10.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상호 간 협조 어려움
-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 ⑧ 기타()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 Programmer: 10번 응답값 만큼 제시

11.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10번 응답값)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필수작성

2.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최근 인천시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u>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u> 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두 기관의 <u>명칭을 통합</u>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기존과 다른 <u>새로운 명칭 사용</u>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Programmer: 단수응답					
15. 향후 두 기관의 <u>명칭을 무엇으로</u>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노인복지관 ② 노인문화센터 ③ 새로운 명칭(※ 표기할 경우 예시작성 필수)				

☞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3순위 필수 선택

16.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 ② 종사자의 업무 가중 |
|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 ⑥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 ⑧ 이용자와 상호 작용의 어려움 |
|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 ⑩ 직원복지 후생 부족 |
|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 ⑬ 기타 (※ 표기할 경우 설명 작성 필수) |) |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3순위 필수 선택

17.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운영비 증액 |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
|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
|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
|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
|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
| ⑬ 기타(※ 표기할 경우 설명 작성 필수) |) |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1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거나 종사자로서 개인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필수작성

3. 기본사항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19~26. 다음은 귀하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9.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0. 출생연도	년생	
21. 고용 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기타()	
22. 주업무 관련 보유 자격증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외(※ 필수작성)	
23. 전체 경력 기간	총 년 개월 (예시: 2020년 1월 경력 시작 → 3년 6개월로 입력)	
24. 현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 경력기간(입사년월)	년 월	

[이용자용]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이용자 중심의 기관 명칭,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의견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기관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조사기관	(주)디파인앰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 이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 **이용**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디입니까? 해당란에 √ 표를 해주십시오.

① 노인복지관

② 노인문화센터

2. 귀하의 이용하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소재지 (인천시)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3. 귀하께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총 _____년 _____개월 (예:2020년 1월부터 이용한 경우, 3년 6개월로 기입해주세요)

4. 귀하께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월 1회 ~ 2회

② 월 3회 ~ 4회

③ 주 1회 ~ 2회

④ 주 3회 ~ 4회

⑤ 주 5회 이상

5.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①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② 친구 사귀기

③ 교양과 소양 습득

④ 봉사 활동 참여

⑤ 건강관리

⑥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지원

⑦ 기타(적어주세요:)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8-2. 이용하신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해당란에 √표를 하여주십시오.

노인복지서비스 항목		8-1. 이용 경험	8-2.만족 정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별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	다소 만족함	매우 만족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 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 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 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8-3. 아래 노인복지서비스가 귀하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란에 √표를 하여주십시오.

노인복지서비스 항목		필요 정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 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 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복지서비스 항목		필요 정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 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9.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해당란에 √ 표를 하여주십시오.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에 관한 인식

10~13.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최근 인천시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 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향후 두 기관의 명칭 통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두 기관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노인복지관

② 노인문화센터

③ 새로운 명칭(적어주세요: _____)

※ '3(새로운 명칭)' 선택 시 예시를 작성해주세요.

14.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의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거나 이용자로서 개인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칸으로 남기지 않고 필수작성 하도록 해주세요.

3. 기본사항

15~16. 다음은 귀하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거나 공란을 채워주십시오.

15.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6. 출생연도	년생	

[공무원용]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이용자 중심의 기관 명칭,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의견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기관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조사기관	(주)디파인앰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 운영에 관한 생각

※ 이제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업 영역’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1-1. “000(사업영역 구분 항목 보기 제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중요도 (왼쪽에 제시된 사업영역 각각에 필요한 개선 정도를 표기해 주세요)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 이제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업 영역’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보기 로테이션

1-2. “000(사업영역 구분 항목 보기 제시)”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영역 구분		개선 필요도 (왼쪽에 제시된 사업영역 각각에 필요한 개선 정도를 표기해 주세요)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지원	①	②	③	④	⑤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①	②	③	④	⑤
	기능회복지원	①	②	③	④	⑤
	급식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취미여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조직 및 세대 통합	지역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복지연계	①	②	③	④	⑤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족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①	②	③	④	⑤
	노인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①	②	③	④	⑤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3.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3-1. 노인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3-2. 노인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카테고리 제시

4. 귀하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구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4-1. 노인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4-2. 노인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3순위 필수 선택

5. 귀하께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① 대규모/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 ② 공간 부족으로 소규모/대규모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 ③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력 부족
- ④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 시 협조 어려움
- ⑤ 프로그램 후원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어려움
- ⑥ 현 인력 및 시스템 구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 ⑦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수렴 어려움
- ⑧ 기타(※ 표기할 경우 설명 작성 필수)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재정립에 관한 인식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통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최근 인천시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명칭에 대한 혼선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상충 되는 등의 <u>기피 현상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 인지</u> 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향후 두 기관의 <u>명칭 통합이 필요</u>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기존과 다른 <u>새로운 명칭 사용이 필요</u>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Programmer: 단순응답 9. 향후 <u>두 기관의 명칭을 무엇으로</u>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노인복지관 ② 노인문화센터 ③ 새로운 명칭(※ 표기할 경우 예시작성 필수)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3순위 필수 선택

10. 귀하께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 증가 | ② 소규모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 |
| ③ 급식 전담 인력의 부재 | ④ 전문프로그램 강사 부재 |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 | ⑥ 지역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 ⑦ 외부 자원개발 및 연계의 어려움 | ⑧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
| ⑨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부족 | ⑩ 직원복리 후생 부족 |
| ⑪ 이용자 가족의 관심 및 참여 부족 | ⑫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 ⑬ 기타 (※ 표기할 경우 설명 작성 필수) | |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 Programmer: 기타 제외 보기 Rotation, 3순위 필수 선택

11. 귀하께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운영비 증액 | ② 처우개선 수당 지급 확대 |
| ③ 전문적인 인력 추가 지원 | ④ 법정종사자 인력 추가 지원 |
| ⑤ 타 기관과의 갈등 또는 연계 지원 | ⑥ 운영컨설팅 및 슈퍼비전, 연수 등 기회 제공 |
| ⑦ 종사자 교육 및 소진 예방 지원 | ⑧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
| 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확대 | 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 ⑪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⑫ 노인돌봄 방문요양서비스 |
| ⑬ 기타(※ 표기할 경우 설명 작성 필수) |) |

※ 괄호안에 번호 표기

1순위()	2순위()	3순위()
--------------	--------------	--------------

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거나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작성

3. 기본사항

☞ Programmer: 단수 응답

13. 귀하께서 소속되어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소재지 (인천시)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14~17. 다음은 귀하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4.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5. 전체 근무 경력	총 년 개월 (예시: 2020년 1월 경력 시작 → 3년 6개월로 입력)	
16. 현 업무 관련 근무 경력	총 년 개월 (예시: 2020년 1월 경력 시작 → 3년 6개월로 입력)	
17. 직급	① 과장 ② 팀장 ③ 주무관 ④ 기타(※ 표기할 경우 작성 필수)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시니어연구 2023-06

인천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3년 12월 31일

발 행 인 || 황흥구

발 행 처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편 집 인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제물포스마트타운)

전 화 || (032)715-5491 팩 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wf.kr/>

인 쇄 || DESIGN편집(032-710-6480)

ISBN 979-11-92210-53-7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으며,
본 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